

## 固城金氏大同譜 卷之首(文獻錄)

### 固城金氏舊譜序

氏族之制自古已重而尤別於我東然三韓來數千年能世守不失者無幾此殆元尤稽辛之類一變而不得反其本也姓既不明則氏族何由而別氏族無別則先系亦何由而知之不知所姓之本強別氏族之名烏在其生生之理哉所以譜牒之興而悉小悉大無貴無賤源流根葉莫不燦然俱明無憾於尊尊親親之義矣余少日按東史駕洛金榼之說甚荒怪而心竊疑之今見金氏舊譜年序次分封貫籍瞭如真的然後乃信其當日記載必不謬妄蓋駕洛之金生於金榼第六小伽倻王卽其鼻祖始都於固城故因以爲姓貫之所由分傳至洛川君父子仕麗朝以文章勳業顯又傳而生襄惠公始翊戴 聖祖屢建奇功忠直著于朝野官至檢校政丞積累之發自公益大軒冕爲箕裘詩禮爲門戶雲仍相蜀蔚爲聞族亦數百年所其傳愈久而顯晦不一其族愈分而親疎益判凌夷孱墜散處湖海甚或問其世德殆矇如也不特氏族派流之不辨而已此豈孝悌之心不及古人而然豈由譜久不明無所記覩也可不悲哉今其諸宗能憂其愈久

愈分之憂搜闡蹟先廣修宗事使將晦者復顯已疎者反親  
尊所出敦其本之導於斯盡矣故余以爲修是譜而鋪將其  
事者乃斯門之肖孫遂感其誠而書之

崇禎紀元後四丁未仲春上澣 達成 徐憲淳 序

[譯文]

氏族의 제도는 예로부터 이미 소중하게 여겨왔으며 더  
욱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였다. 그러나 三韓이후 수천  
년을 거쳐 오는 동안 능히 잃지 않고 대대로 지켜오는 사  
람은 얼마 되지 않으니 이는 元뿌리찾기에 애쓰지 않고  
너무 게을리 한 사람들이리라. 한번 변하면 돌이키지 못  
하는 것이 그 根本이라. 姓이 이미 不明하면 氏族을 무  
엇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리오?

氏族의 分別이 없으면 先系 또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알  
겠는가? 姓의 根本된 바를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氏族의  
이름을 分別하려고 하니 어찌 만물이 생기고 번식하여 퍼  
지는 이치가 있으리오. (生生之理)

족보가 흥한바 적으나 크나 귀하고 천함도 없이 모두가  
그 뿌리의 근원은 찬연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한(恨)됨이  
없도록 밝게 갖추어서 윗사람은 존경하고 친지와 친절하  
게 지내는 것이 옳은 도리일 것이다.

내가 며칠 東史(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駕洛 金榼  
說(가락 금합설)이 심히 황당하고 괴이하여 근거가 마음속으

로 적이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金氏의 옛 族譜를 보니 연대순서와 벼슬준 것과 관직(관향)이 사실과 같이 명료하고 분명하며 진실 된 것 같아 그 당일 기재된 것이 반드시 오류와 망령됨이 아님을 후에 믿었다. 駕洛의 金氏는 金榼에서 나오니 여섯 번째 王이 小伽倻王 즉 鼻祖(시조)이시며 固城에 都邑(도읍)하니 이것으로 인하여 姓과 本貫이 나뉘는바 되었다. 전하여 낙천부자에 이르러 고려조에 벼슬을 하여 문장공훈(뛰어난 문장으로써 세운 공)으로서 세상에 드러났고 또 전하여 양회공을 낳으니 비로소 聖朝를 도와 누차 뛰어나고 기록한 공을 세워 충직이 조정과 재야에 드러났다. 벼슬은 검교정승에 이르니 누적된 功이 드러남은 공으로부터 더욱 커졌고 높은 관직도 후손에 이어졌다. 詩와 禮를 門戶로 삼으니 후손들이 서로 이어받아 문교가 널리 알려진 가문이 된 것이 수백 년이라. 그 전하는 바가 오래되어 세상에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한결같지 아니하고 그 氏族이 더욱 나뉘어져 그 친함과 소원(사이가 벌어져 멀어짐)함도 점점 구분되었고 가문이 쇠퇴하여지니 湖海(호해) 곳곳에 흩어져 사는 것이 심하였다.

후자가 대대로 쌓아온 덕을 물어보면 거의가 어두웠다. 氏族派流를 分別 못할 정도가 되니 이는 일찍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의 마음이 옛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여서 그러하리요? 진실로 보첩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분명하지 않고 기록한 바를 볼 수 없으니 가히 슬프지 아니한가?

이제 諸宗中이 능히 오래될수록 더욱더 나누어지는 것을 걱정하니 과거의 사적을 수단하고 널리 宗事를 다듬어서

장차 희미한 자는 다시 밝게 하고 이미 멀어진 者는 돌이켜 親하게 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 根本을 돈독히 하는 도리가 이에 다할지니라.

故로 내가 이 족보의 수보를 위하여 포장하는 것은 오로지 문중 소손의 정성에 감동하여 序하노라.

#### 固城金氏舊譜序

昔河南程夫自有言曰管攝人心收宗族厚風俗須是明譜系然則譜系之明蓋爲尊祖敬宗之義而亦有關於世教矣夫以一人之身降於朞功之親朞功之親至於袒免袒免之降而至於路人矣非譜則何以知今之視作路人者其初一人之身而能反本溯源親親而敦睦乎信乎譜牒之修刊而祖先之事蹟昭著於簡編宗支之分派備載於記睹九世之同居溯流而尋源二姓之姻戚寓目而叙秩則茲所以世家年表之術作而歐蘇大方之家譜序亦存則何獨吾宗之無譜乎噫惟固性金氏系出小伽倻國王王始都於固城故因以爲姓貫固城之金自此始焉伊後國都遂遷年代侵久文獻遠焉無徵杞宋不足之歎聖凡何異哉至于麗朝有諱隨以功封洛川君子諱彌以道學文章官平安伯直提學孫諱贊吉逮我國初以平亂大勳官檢校政丞 贈右議政諡襄惠是爲吾宗之列祖自先種德之符亦何如哉公之子諱原亮官宣略將軍孫諱益卿官府使又有曾孫諱明遜齋公八世孫諱弘呂松幹公或以忠義著時或以文章鳴世官冕蟬聯不絕此是宗派之閎闊也有諱希亮卽襄惠公支子

也官兵曹判書餘慶未艾世有官陰而諱孝仁官獻納諱碩宗官副  
 司直諱忠彥官少卿諱瓚官左參贊諱琛官工曹參判諱敬信官副  
 承旨諱世應在世廟朝以靖難元勳歷典數郡 贈戶曹參議又聾  
 啞公諱璜忠孝節義綠野堂諱彥珪文章行義尤爲軒赫是則各派  
 之世德也豈非襄惠公靖大難衛社稷濟生民光 國家之餘慶遺  
 澤歟近代以來門運暫否雲仍各散則是可謂南北道之阮族也湖  
 海蒼茫音塵隔阻則豈得如花樹會之韋氏乎况其舊譜失傳新牒  
 未刊則凡我諸宗恐未知何代而分也何地而居也言念及此未嘗  
 不潛潛然零淚者殆過數百年矣茲故余於今春不憚跋涉之勞乃  
 作湖南之行千里長程三月聚糧歷訪提宗以修譜爲言則宗議僉  
 同故退待時日矣乃者自務安宗中發文鳩財較草譜而修正之任  
 剗劂而刊認之善祖之事蹟於是乎昭著各派之昭穆于茲焉備載  
 此實曠代之盛舉先世之宿願也然則老泉所謂孝悌之心油然而  
 生者觀吾譜而益信然矣噫是譜之修端爲尊宗法書序昭穆別至  
 庶辨源流使爲吾鼻祖之耳孫者遠而不疎疎而不遠至百世而不  
 衰則一以奉祖宗均視之道一以叙子孫敦睦之誼也詩云無念爾  
 祖聿修厥德又曰子子孫孫勿替引之嗟我僉宗觀斯文而益勉旃  
 哉

崇禎紀元後四丙午十李月下澣 不肖善 能百 謹識

[譯文]

옛날 河南에 程夫子가 말하기를 인심을 다스리고 종족  
 을 거두고 풍속을 두터이 함이 모름지기 이것이 系譜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계보의 밝음은 대개 조상을 높이

고 宗人을 공경하는 의리가 되고 또한 세상의 교훈과 관련이 있다. 한사람의 몸으로써 기공지친(暮功之親 : 상복을 같이 입을 정도의 가까운 친지)으로 내려오고 기공지친이 袒免에 이르고 袒免이 내려와서 타인에게까지 이른다.

族譜가 아니면 무엇으로 지금 본 것이 타인되는 것을 알겠는가? [※ 族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도 세월이 흐르면서 남과 같이 되어 알아보지 못한다는 내용]

그 처음 한사람의 몸으로 능히 근본을 돌이키고 根源을 거슬러 올라가 친지와 가까이 지내니 돈독하고 화목함이어! 미더움이어! 族譜를 편찬 간행하여 선조의 사적을 책에 밝게 드러내니 宗派와 支派의 나뉘어진 갈래가 기록에 갖추어 실었다. 九世가 함께 살았던 것(九世同居 : 당나라 사람 공예의 九世가 한 집안에서 살았다는 고사에서 집안이 화목함을 말함)을 보고 핏줄을 거슬러 올라가 根源을 찾고 二姓간의 인척은 항목을 붙여 차례대로 서술한 즉 이것이 세가 연표가 지어진 바이며 구씨와 소씨(구양수와 소동파)의 큰 집안 족보서문이 또한 있으니 어찌 유독 종증은 族譜가 없는가? 아! 오직 우리 固城金氏系譜는 小伽倻國王에서 나오니 포이 처음에 固城에 도읍하고 이로 인하여 姓과 本貫으로 삼았다. 固城의 金氏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나라의 首都가 마침내 옮겨지고 연대가 점점 멀어지며 문헌이 멀고 증거가 없으니 기나라 송나라의 부족한 탄식일진저(論語에서 기나라와 송나라와의 문헌부족 이야기

기) 성인과 보통 사람이 어찌 다르겠는가? 고려에 이르러 諱 隨가 있으니 공으로써 낙천군에 봉해지고 아들의 諱는 彌이니 도학문장으로써 벼슬의 평안백 직제학에 이르렀고 孫子는 諱가 贊吉이니 我國初(李朝) 亂을 평정한 큰 공으로써 벼슬이 검교정승에 이르렀고 우정승으로 추증되었다. 시호는 襄惠이니 이분이 우리 종증의 然祖(큰 공훈이 있는 조상)이다.

선대로부터 덕을 널리 행한 종묘가 또한 어떤가? 공의 아들 諱는 원량이니 벼슬은 선략장군을 하였고 孫子의 諱는 익경이니 벼슬은 부사를 지냈다. 또 증손의 諱는 明이요 號는 돈재공이며 八代孫의 諱는 흥려로 송헌공이다. 혹은 忠義로써 때에 나타났고 혹은 문장으로써 세상을 울리나니 벼슬이 이어져 끊이지 아니하니 이것이 종파의 가문이다. 諱가 희량이 있으니 襄惠公의 支子이며 벼슬은 병조판서를 하였으며 餘慶이 끊이지 아니하더라. 代代로 官蔭(관음 : 조상의 공으로 그 자손에게 관직을 주는 것)이 있었으니 諱가 孝仁이니 벼슬은 헌납을 지냈으며 諱 碩宗은 벼슬 부사직을 지냈다. 諱 忠彦은 벼슬이 소경을 지냈고 諱 瓚은 벼슬 좌참찬을 지냈고 諱 琛은 벼슬 공조참판을 지냈으며 諱 敬信은 부승지를 지냈고 諱 世應은 世廟朝에 정난원후으로써 여러 郡을 맡았으며 호조차의로 추증되었다. 또 聾啞公은 諱는 璜이니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였고 절의가 있었으며 綠野堂은 諱가 彦珪이니 文章과 義를 행함이 더욱 높게 빛난다. 이것이 각 派의 代代로 세운 功德이다. 어찌 襄惠公이 큰 난리를

평정하고 사직을 지키고 백성을 구제하고 나라를 빛나게 한 餘慶(여경 : 조상의 공덕으로 자손이 받는 경사)과 전해진 光澤이 아니리오? 근대 이래로 家門의 운이 잠시 막히어 후손들이 흠어졌으니 이것을 가히 남북도의 완족이라 할만하다. 호수와 바다가 푸르고 아득하여 세상의 消息이 전해지지 않으니 어찌 능히 화수회의 위씨 같으리오? 하물며 그 옛 族譜를 실전하고 새 족보는 발간하지 못하였으니 무릇 우리 宗中の 어느 代에서 나뉘고 어느 곳에 사는지 알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말과 생각이 이에 미처 일찍이 숨기지 아니할 수 없었다.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것이 거의 수백 년이 지났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올봄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수고를 꺼리지 않고 천리장정 호남을 향하여 三月에 양식을 모아 두루 여러 宗中을 訪問하여 族譜를 편찬할 것을 말하니 宗中の 論議가 모두 같은 고로 물러나서 時日을 기다렸다. 이에 務安宗中에서 글을 띄우고 재물을 모아서 初譜를 비교하고 그것을 수정하여 목판에 새기는 것을 말기고 그것을 간행하니 先祖의 사적이 이에 밝게 드러나고 各派의 昭穆(소목 : 종묘에 신주를 모시는 차례)이 이에 갖추어 실렸다.

이것은 세상에 드문 성대한 일이요 先代의 숙원이었다. 그러한 즉 蘇老泉의 이른바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油然而(유연 : 생각이 왕성하게 솟아나는 모양)하게 생기는 자는 우리 族譜를 보고 더욱 믿어라. 아! 이 族譜의 편찬은 宗法을 높이고 昭穆을 정하고 支庶(지자와 서자)를

구별하고 源流를 구별하여 우리 始祖의 耳孫(이손 : 즉 후손을 가리킴)된 자로 하여금 멀면서도 소원(사이가 벌어져서 멀어짐)하지 않고 소원하나 멀어지지 않게 하니 백세에 이르러도 쇠하지 아니한 즉 첫째는 奉祖와 種均視의 도를 받들고 둘째는 子孫이 화목한 뜻을 펼쳤다. 시경에 이르기를 『너의 조상을 생각지 아니 하라? 이에 그 덕을 닦으라』 하고 또 이르기를 『子子孫孫이 폐하지 말고 이끌라』 라고 하였다. 아! 우리 모든 宗中이 이 글을 보고 더욱 힘써야 할지니라.

#### 固城金氏舊譜序

竊惟氏族之譜自古已重而今觀固城金氏世系則自璿源九世至羅麗朝世襲軒冕而文景公忠貞公洛川君良平公事實最爲丕赫實爲三韓甲族逮我國初有諱贊吉卽良平公子也官右議政 世子師傳諡襄惠公以白衣奮起傳檄討倭斬首萬餘再戰三戰斬獲又各數千倭不爲患東方以寧嗚呼才不借於異代一世人足了一世事而何今日不得如公一人以了今日事而使今人有起公於九原借才於五百年之願而不可得也如公英靈當洋洋在上默佑東方掃除匈醜庶有其日而今日金氏修譜使公實蹟大行於世以爲今人觀感而興起焉者豈公精英有以啓之而爲島夷消滅之消息

歟公有安民之功報施之天昌大其後達官偉人危忠卓孝譜不絕  
 書舊譜之叙述已殫此不須架壘而遯齋公之經術參議公之敵愾  
 聾啞公之卓行綠野堂之志節松軒公之奮義班班鳳毛不墜襄惠  
 家聲其他在家而敦孝悌從師而溯本源不可以顯達之少遜於逞  
 日而少之也自是而逞又安知襄惠不世之勳不復從此譜中紹述  
 來是以重有所曠感於是譜於哲權之俾以文不辭而塵穢之如此  
 云爾

歲戊戌大呂月(음 二月) 幸州 奇宇萬 謹序

[譯文]

살피건대 氏族의 族譜가 예로부터 이미 중요하게 여겼  
 으니 지금에 固城金氏의 代代의 계통을 보면 璿源(선원 :  
 왕가의 관향을 높임 말) 九世로부터 新羅 高麗朝에 이르  
 기까지 代代로 고관의 벼슬을 이었으니 문경공 증정공 낙  
 천군 양평공의 사실이 가장 크게 빛나 三韓의 甲族이 되  
 었다. 我朝初에 이르러 諱贊吉(휘윤길)이 있으니 양평공  
 의 아들이시다. 벼슬이 우의정이요 세자의 스승이며 시  
 호는 襄惠公으로 평민으로써 떨쳐 일어나 격문을 전하고  
 왜적을 토벌하여 머리를 뺀 것이 만여수이요 재전 삼전에  
 참획한 것이 또 각수천이라 이에 왜구의 침략을 근심하지  
 않고 東邦이 편안하였다. 오호라! 영재를 다른 代에서  
 빌리지 아니하여도 一世의 사람이 죽히 一世의 일을 마치  
 니 어찌 오늘날에는 공과 같지 못한가? 한 사람이 오늘  
 의 일을 마치고 요즘 사람으로 하여금 황천에서 공을 일

으쳐 재주를 빌리더라도 오백년의 소원을 가히 얻지 못할 것이다. 공과 같이 뛰어난 사람이 마땅히 성대히 위에 계시며 묵묵히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흉하고 추한 것을 쓸어 제거하면 거의 그날이 있으리니 오늘 金氏族譜를 편찬함에 공의 실적이 세상에 크게 행해지도록 하여 지금 사람들이 보고 느껴 흥기하게 하는 것이 어찌 공이 총명하고 뛰어나 그들을 일깨워 섬나라 오랑캐들을 소멸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면.....

공이 백성을 편안하게 한 功이 있어 보답하여 베풀어 주니 하늘이 그 후손들을 융성하고 크게 하니 높은 관리와 위인들이 크게 충성하고 효도함이 뛰어난 것을 족보에 쓰여진 것이 끊이지 않더라. 옛 족보의 서술이 이미 다한지라 이에 架疊을 須하지 않았으며 돈제공의 경술 참의공의 적개감과 농아공의 뛰어난 행실 녹야당의 지조와 절개 송헌공의 떨쳐 일어난 의기는 명백한 鳳毛(봉모 : 뛰어난 품채 또는 才士)요 양혜공의 집안의 명성이 떨어지지 않고 그 나머지는 집안에 있어 효도하고 공경함이 돈독하고 스승을 따르고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니 가히 顯達(현달 : 높은 지위에 오름)함이 적음으로써 지난날보다 못함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어찌 襄惠公의 세상에 드문 공로가 다시 이 族譜 속에 紹述(소술 : 선대의 일을 이어받아 밝힘. 지음)되어 오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오. 거듭 이르거늘 族譜와 哲權으로 하여금 크게 느끼는 바가 있어 글로써 사양하지 않고 좋은 글은 아니나 이와 같이 운하노라.

### 舊譜序

昔河南程夫子有言曰收宗族厚風俗須是明譜系至哉言乎凡人之受生性命血肉呼吸喘息氣脉相通乃親之所遺非我私物豈敢自有其身哉詩云哀哀父母生我劬勞欲報恩德昊天罔極推思父母之所自出則乃知敬先祖之道敬其祖則亦知尊其宗之法矣先祖之姓諱生卒配位墓所一生行蹟莫詳於譜諸宗之分派世系行列昭穆散處居地亦莫詳於譜譜其可已乎夫譜之爲法有大譜焉有派譜焉始祖以下合族而載籍者是爲大譜中祖以後分派而著籍者是爲派譜也嗚呼吾宗大譜舊失於壬辰兵燹中而至 憲廟丙午一次修正未爲大同合譜而略干卷帙派譜而然也自丙午至今爲五十有三年既失一世一修之朝其間子行已老孫行已長此譜修改亦云晚矣然而各派散處湖海路梗便濶合議未易就緒爲難勢之所使亦無如何今以 襄惠公直長公後孫居在三南列邑者修成派譜編爲五六卷雖有欠於大同之義而可謂一大譜家也抑因此而別有感焉者東國金氏或有先有後而惟我固城之金系出小伽倻國王是爲先金而伽倻國今固城縣自伽倻王至而衡王凡九世合四百六十餘年璿源以後簪紳連線箕裘軒赫至若文景公忠安公忠貞公固城君忠簡公忠定公忠莊公洛川君良平公之事實昭著於羅麗古史自三韓以來數千年世守不失於此則其於將相位列各未盡錄逮夫 聖朝竹崗公以靖難定社翊載佐命元勳行兵曹判書世子師傅檢校政丞 贈右議政諡襄惠之 太宗朝與諸功臣三盟時事實昭載於丹誓鐵卷勳府紀功閣元勳錄是

爲入我 朝烈祖也公之後十有餘世宗派之軒焮各派之閥閱官  
 冕蟬聯忠孝節義經術文行繼世層出豈非公之積慶累仁克昌厥  
 後歟從近以來門運暫否軒冕已絕雲仍不繁吾門之衰極於此矣  
 豈無否往泰來之理哉第得古木回春之理願作一室花樹之會何  
 幸順天宗氏在南甫以修譜事殫心竭誠不憚蹇涉之勞遍踏湖海  
 歷訪諸宗宗議會同而修整一欸事歸責於余而余雖不敏此乃素  
 所蓄積之心不敢辭於是乎發文鳩財遂與諸宗較草譜而釐舊整  
 新先祖之事蹟各派之昭穆一開卷而瞭然則宗至自別庶孽益明  
 矣茲譜之成實爲曠代之盛舉豈非吾門之一大幸歟眉產蘇氏所  
 謂孝悌之心油然而生者正爲此準備語也嗟我僉宗以祖先之心  
 爲心毋墜厥緒則其將永有辭於來世矣各相勉旃哉  
 歲戊戌大呂月下澣 後孫 源三 謹識

## [譯文]

옛날 하남 땅에 정부자란 사람이 살았는데 말씀하시기를 宗族을 모으고 풍속을 두텁게 하는 것은 족보의 계통을 밝힘이니 사람이 태어나 인성과 천명 혈육과 호흡, 천식과 기맥이 상통함은 곧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나의 사물이 아니니 어찌 감히 스스로 그 몸이 있으랴? 詩에 이르기를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고생하셨으니 부모님의 은덕을 갚고자함은 하늘같이 넓고 끝이 없도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나를 낳아 주신 것을 생각하면 곧 선조를 공경하는 도리를 알고 그 선조를 공경한 즉 또한 그 종인을 높이는 법을 알지어다. 이는 선조의 姓과 諱 生卒(생

일과 기일) 配位(아내에 대한 경칭) 또 묘소와 一生의 행적이 족보만큼 자세한 것이 없고 모든 혈족의 분파, 계통, 行列과 昭穆(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차례) 및 산재된 거주지역 또한 족보보다 자세한 것은 없으니 족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대개 조보를 하는 법은 大同譜가 있고 그것에서 파생된 派譜가 있으니 시조이하 전씨족이 등재된 大同譜요 증조이하 분파로 등재한 것은 派譜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혈족의 대동보가 옛날 임진왜란 중에 잃고 憲宗때인(조선二十四代王) 丙午年에 이르러 一次로 수정보강한 족보가 대동합보는 되지 못하고 몇 권질의 파보만 수정 보강하였는지라.

丙午年부터 戊戌年까지 五十三年동안 중간수정보강을 못하고 늦은바 있으나 襄惠公과 直長公의 後孫이 三南(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지방일대 여러 고을에 거주하는 후손이 파보를 수정보강 완성하여 五·六卷이 되었으니 비록 대동보의 義로서는 부족한 감이 있으나 가위 일대 족보의 상징으로 삼을만하다. 우리 固城金氏는 小伽倻國에서 系出하여 先金이 되었다. 伽倻國은 지금의 固城縣이니 小伽倻王으로부터 內衡王에 이르기까지 九世이니 합하여 四百六十餘年 혈족이 원류를 이루었고 以後로 簪紳이 連結하고(벼슬이 이어 내려옴) 箕裘(벼슬을 이음)가 빛나니 이러하듯 文景公 忠安公 忠貞公 固城君 忠簡公 忠定公 忠壯公 洛川君 良平公이 新羅와 高麗朝의 역사에 빛나고 三韓으로부터 수천 연내에 대대로 지켜옴을 잃어버리지

아니한즉 將相位列(文武의 벼슬)을 다 기록하지 못할지니라. 朝鮮王朝이 이르러 竹崗公이 靖難으로 定社함에 翊戴佐命元勳으로서 行兵曹判書 世子師傅 檢校政丞과 贈右議政에 이르렀고 諡號는 襄惠 太宗朝에 이르러 여러 공신들과 더불어 三盟時의 사실이 丹誓鐵券, 勳府紀功閣, 元勳錄(모두 공신이나 충신의 업적을 기록한 서적)에 자세히 실려 있고 조선왕조의 烈祖가 되었도다. 公 이후로 十여세대 동안 宗派의 빛남과 각파의 번성이 벼슬을 연이어하고 충신과 효자와 의인 및 학자들이 대를 이어 계속해서 배출되니 어찌 公의 어진 경사가 누적되어 후손을 창성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근래에 와서 문운이 점차 막히고 벼슬이 이미 끊어지고 자손이 번성치 못하니 우리 문중이 약함이 이와 같았으나 순환의 순리와 樹木回春의 이치에 의하여 문중의 화수지회 열기를 원하였더니 다행이 順天派 宗氏 在南再가 修譜事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두루 여러 종손들을 찾아다니며 종손들의 뜻을 모아 修整하기로 하여 책임을 나에게 지움에 내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본래 마음속에 쌓이고 쌓인지라 감히 사양치 아니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모을 것을 결의하여 여러 종손과 함께 草譜(원족보)를 자세히 밝히고 舊譜와 新譜도 정리하니 선조의 사적과 各派의 昭穆이 한번 책을 열면 확실하게 드러나고 宗支가 自別하고 各派의 行列이 더욱 明白한지라 이 족보의 結實을 이루고 넓고 큰 聖業이 되니 어찌 우리 문중의 일대 경사가 아니겠는가? 眉産의 蘇氏가 이른바 효

도와 공경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嗚呼라. 우리 僉宗들은 선조를 위하는 정성스런 마음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이 장차 後世까지 이어가도록 각자 더욱 힘쓸지어다.

### 固城金氏丙寅譜序

傳曰尊祖故敬宗敬宗故收族譜牒之作所以收族也故勳華之治首重親睦降及春秋之世尚此重氏族而尊名字以是觀之譜牒之修聖帝明君政化之所寓也近觀固城金氏繼序則始自固城君忠貞公延至鐵城君忠簡公文景公文肅公洛川君良平公襄惠公世世名公連綿不絕而忠義之行建祠設享勳業之重封君致位昭著于邑誌國乘自新羅高麗至于 我朝官爵之尊諡狀之褒人所欽頌艷歎者也然世代既遠修譜亦久故末俗鮮稱其世德後裔或未詳其派分以若巨族望闕可勝歎哉襄惠公后孫基成甫與我有雅契也來言修譜之事求余一言其尊祖敬宗之心可敬可愛故不揆蕪淺而爲之說以是歸之云爾

丙寅九月 日

嘉善大夫行承政院右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安東  
金炳秀 序

[譯文]

전하여 말하기를 祖上을 존경하면 宗人을 공경하고 宗人을 공경하면 혈족을 모으니 보첩을 만드는 것이 혈족을 보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勳華의 政治(공훈의 화려한 정치)는 첫째 親睦을 중히 여기고 春秋의 세대에 이르러 第一로 重히 여긴 것은 氏族을 소중히 하고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족보를 편찬함이 훌륭한 황제와 明君이 政化(정치로 백성을 다스려 교화함)한 까닭인 것이다. 近來에 固城金氏의 계승순서를 보면 固城君 忠貞公으로부터 鐵城君, 忠簡公, 文景公, 文肅公, 洛川君 良平公, 襄惠公에 이르기까지 代代로 名公의 이름으로 연이어 벼슬을 하여 끊어지지 아니하고 忠義의 行狀으로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었고 勳業(큰 공로)의 거듭으로 君으로 封해지고 높은 지위에 이르러 邑誌와 나라역사로 전하여지고 있는지라 新羅 高麗로부터 朝鮮朝에 이르러 관직을 받음과 공훈을 적은 글이 여러 사람에게 권장하는 글로 받아들여져 모든 사람이 공덕을 칭송하고 예찬하며 부러워하는 바이다.

그러나 앞 세대와는 너무 멀고 修譜한지 또한 오래된 고로 가풍이 무너짐에 이르러 그 世德을 칭찬하여도 그 후에 증 간혹 그 분파가 자세하지 못하니 이 같은 명문거족으로는 정말로 탄식스럽구나. 이때에 襄惠公 後孫인 基成甫가 나와 함께 친하고 뜻이 같은지라 와서 修譜의 일을 말하여 나의 한마디를 求하거늘 그 祖上을 존경하고 또한 宗人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더욱 공경하고 사랑하면 학식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를 爲하여 말하고

이로써 돌아가는지라.

固城金氏大同譜序

歲在丁酉固城金氏將刊其世譜以續錄其未入者其門老泳福氏與余契誼甚厚一日袖出家乘以示余惟待子之濡毫也云余作而起不敢以不嫻於文辭辭乃強顏泚筆而叙之曰固城金氏小伽倻末露王之后也其後子孫世襲軒冕名公巨卿鴻儒碩士以德行事業節義文章垂英聲表後世者突磊落相望有令人不勝欽頌艷歎者多信乎其爲三韓世族東國之名姓也宜矣至 本朝竹崗公以靖難定社翊戴佐命元勳兵曹判書正憲大夫檢校政丞 贈右議政諡襄惠寔爲金氏之烈祖也厥後十餘世圭組官冕之忠孝節義德行文藝指不勝屈而彬彬焉郁郁焉蔚然爲百世之矜式此豈非德門先世休應之驗也哉程夫子有言曰管攝天下人心收宗族厚風俗夫尊祖睦族其義一致百派水其源一也千枝木其本一矣父之父爲祖子之子爲孫自一世二世至于百世鼻祖之耳孫雖其麗不億推其本則一也能使尊祖睦族疎而復親遠而復近莫賢於譜其族然則覽此卷者孰不出孝悌之心油然而生也哉請以金兄泳福氏歸復於貴門僉宗以惇宗收族之誼各自勉勵則人必謂有是祖有是孫而亦無愧乎貴先祖諸君子遺風餘韻又非特金氏一門之幸亦將有輔於世余以是序而歸之

丁酉小春之月哉生明

仁川 蔡鎮斗 序

## [譯文]

丁酉年(西紀一九五七年)에 固城金氏의 世譜를 발간함에 未入譜者를 이어서 기록할 때 그 門中の 元老泳福氏가 나와 더부어 세의가 심히 두터운지라 어느 날 나에게 가승을 제시하며 오직 공의 차작하기를 기대한다 하기에 내가 하는 수 없이 그이 부족함에도 사양치 못하고 自筆로써 가로되 固城金氏는 小伽倻國末露王의 후예라. 그 후로 子孫이 代代로 벼슬하여 名公巨卿(높은 벼슬과 지위) 鴻儒碩士(어진 선비와 박식한 학자)가 덕행과 절의와 문장으로써 후세에까지 전하여 마치 돌로써 이룬 울타리와 같아서 생각건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부러움이 많았으리라 믿는 바이다.

三韓時代로부터 이어온 위 종족은 東國에서 이름있는 民族임이 마땅한지라. 本朝(太祖)에 이르러 竹崗公이 난을 평정하고 사직을 바로 잡아 翊戴佐命元勳으로서 병조판서 정헌대부 검교정승 贈右議政 諡號는 襄惠니 참으로 固城金氏의 烈祖가 되니라. 그 후 十餘代가 圭祖官冕(높은 벼슬)으로 충효 절의와 덕행 文藝의 고명하신 분이 많이 있어 가문의 창성함이 백세에 자람이 되니 어찌 덕망 있는 선대가 끊임없이 나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程夫子가 말하기를 天下人心을 관섭하고자 한다면 종친을 가까이하고 가풍을 잘 지키며 先祖를 높이고 친족과 화목함이니 그 으리가 一致하면 모든 종파도 그 근원은 하나요 천가지의 나무도 그 本은 하나니 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아들의 아들이 손자가 되니 一世二世로부터

百世에 이르면 先祖로부터 孫子까지 그 수는 많지만 생각하면 그 本은 하나이니 능히 先祖를 높이고 일가친족 간에 화복하면 소원해져도 다시 친하고 멀어져도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그 씨족을 수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즉 이 책을 보는 자 누가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겠는가? 청하건대 金兄泳福氏가 貴門에 돌아가 여러 宗人들에게 종족을 돈독히 하고 종족을 거듭을 알려 각자 힘쓰면 사람이 반드시 先祖가 있고 後孫이 있다고 말할 것이요 또한 貴한 先祖와 모든 선열의 전해지는 가풍과 남겨진 여운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며 또한 金氏一門의 多幸뿐만 아니라 장차 세상에 도움이 있으리니 나는 이로써 序하여 歸하노라.

### 大同譜序

二五之氣生生而爲萬像窮其理則源於無極千百之孫承承而開萬世究其本則分於同祖也是乃天地常經古今之通義矣惟吾金自固城君以後簪纓世家忠勳文行實爲羅麗巨族逮又我朝竹崗公以靖難翊戴佐命功臣官至右議政諡襄惠貞忠元勳炳如日星爲吾宗之烈祖也其後十有餘世軒赫閥閱官冕文行系世層出餘蔭尚存矣挽近不古世道浸微門運漸薄兵燹屢變不遑保居後仍散在各處公之墳墓至於遺傳其抱恨之極可勝歎哉以若不肖克殫微誠一一徵考整修墳墓更設奉祀者于今有年矣豈非公

之積慶累仁而否往泰來之運乎竊惟吾宗有譜自 憲宗丙午  
 高宗戊戌三重刊在去丙寅後次而生死存沒不啻千百復散而無  
 統此吾宗之相與憂懼倡爲此論而不敢不修者也譜將八刊敢忘  
 其固陋略述顛末如右仍題所感如左凡天下之物有本末之緒天  
 下之事有內外之分序齒行明昭穆猶爲末也外也講世德修先業  
 實爲本也內也惟願諸宗勿以昭穆之詳生卒之紀謂吾事已了而  
 力行忠孝之道達而居卿相則爲國家之舟車窮而處蓬華則爲鄉  
 里之師範上而答積累之恩下而啓培養之基傳之無窮是所望也  
 歲在丁酉仲冬下澣 不肖孫 燦現 謹序

[譯文]

二五氣運이 生生하여 萬物의 형상이 되고 그 이치를 연  
 구하면 無極(무극 : 동양철학에서 태극의 처음 상태를 이  
 르는 말)이 근원이라. 수많은 후손이 이어지고 또 이어  
 서 萬世(오랜 세월)를 열었으니 그 근본을 연구한즉 같은  
 조상에서 나누어 졌으니 이는 천지의 떳떳한 법이요 고금  
 세간에 널리 통하는 옳은 이치니라 오직 우리 固城金氏는  
 固城君으로부터 그 뒤에 簪纓(잠영 :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냄)한 세가로 忠勳과 文行이 실로 新羅와 高麗 때 巨族  
 이라 하였고 또 我朝에 이르러 즉강공은 정난익대 좌명공  
 신(이조 때 공신의 이름)으로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고 시  
 호는 襄惠(양혜)이며 元勳(나라를 위한 으뜸이 되는 큰  
 공)이 빛나기가 해와 달 같으니 이는 우리 가문의 烈祖  
 (큰 공훈이 있는 조상)가 되시고 그 후 십여 세대까지 빛

나고 번영하여 높은 벼슬과 훌륭한 학자가 대를 이어 많이 나왔으니 蔭德(음덕 : 조상의 덕)이 많이 있도다.

근래에 와서 집안의 세력이 매우 약해지고 가문의 기운도 미약하고 전쟁의 참화도 여러 번 당하여 거처를 보전치 못하고 손이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되어 公(襄惠公)의 분묘를 遺傳(유전 : 전하여 내려옴)하는데 이르러 그 품은 한이 한탄할만한지라

나와 같은 不肖(불초 : 못나고 어리석음)가 적은 정성으로 일일이 徵考(징고 : 세밀이생각함)하여 분묘를 증수하고 다시 奉祀를 실행한지 여러해가 되니 어찌 公의 쌓아온 경사와 누적된 어짐으로 비운은 가고 빛을 맞이하는 운이 아니겠는가?

살펴보건대 우리 문중의 族譜는 현종 丙午年으로부터 고종 戊戌年에 세 번째로 중간한 후 丙寅年 이후로 생사 존몰이 많았을 뿐 아니라 흩어져 서로 연결되지 못하여 우리 문중이 근심과 두려움을 같이하면서 수보도 못하고 이에 대한 결단도 내리지 못하였음이라. 장차 族譜를 발간함에 감히 고루함을 잊고 간략하게 전말을 기술함이 右와 같이하고 소감은 左와 같으니 무릇 천하의 萬物이 본말의 차례가 있고 천하의 일이 內外의 分別이 있는 것이니 밖으로 연령과 行列로 소목을 밝히는 것이 끝이요 안으로는 세덕을 강구하고 선업을 닦음은 실로 그 근본이 되느니라.

오직 바라건대 모든 宗人들은 상세한 소목과 생졸을 기록함으로써 나의 일을 이미 마쳤다고 하지 말고 힘써 忠

孝의 도를 행하고 또한 향리에 살면서 舟車로 서로 통달을 할지어다. 窮하여 가난에 처한 것은 향리에 사범이 될지니라. 위로는 누적된 은혜를 보답하고 아래로는 배양의 터전을 열고 전하는 것이 무구할 것을 소망하노라.

### 固城金氏族譜序

譜也者譜其族而上承先代系緒下列宗支昭穆以明尊祖重本敦宗叙卒之義也可不重歟謹按固城金氏粵自小伽椰國末露王始建都于固城仍以爲貫距今千數百年世代久遠而一貫無替名公碩德繼世相承寔爲東方盛族曷不偉哉木之根固者枝葉必茂水之源深者派流必遠人有積慶累德則其流澤餘蔭綿綿無窮者必然之理而今於固城金氏亦有明驗矣今欲續修大同譜若使家藏而戶誦思所以千柯之一本萬派之一源而使同祖之孫益加敦睦雖百世之遠親睦如一室則非但金氏之一門之幸其於收人心厚風俗之道庶或有小補云宗下末枝淺列不顧薄學蕪辭敢以歷代世祖萬派之累德考按舊譜而敢爲之序

庚申年 月 日 襄惠公二十二代孫 駿鎬 謹識

### [譯文]

族譜라 하는 것은 위로 祖上들의 내려오는 행렬 계통을 찾아보며 아래도 子孫의 행렬도 밝혀서 祖上의 기록함을

높이 받들고 아래로 자손들끼리 우애와 화목이 두텁게 하는데 있나니 삼가 살펴보니 고성김씨는 멀리 일천 수백 년 전에 가야국 말로왕께서 固城 땅에 도읍하심으로써 자손들이 본을 고성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렀나니 그 가운데에는 이름 높으신 정승과 학문이 높으신 학자들께서 우후에 죽순과 같이 대를 이어 나오시니 어찌 예의동방의 거룩한 名門의 姓氏가 아니리오. 나무도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법이요 물도 근원이 깊으면 흐르는 줄기가 몇 천리라도 도도히 흐르는 법이니 하물며 사람이 德을 쌓고 은혜를 베풀면 그 자손들이 음덕을 힘입어 날로 번창하고 무궁한 복록을 누리게 됨은 하늘이 내려주신 참다운 증거이니 우리 고성김씨를 두고 이름이 아니리오.

이번에 새로이 大同譜의 미비한 곳을 정비하여서 분명케 하고자 하오니 각자 보시고 가정마다 비치케 하시며 한 할아버지 자손으로 항상 멀리에 사무쳐 한집과 같이 친목을 도모하시면 우리 金氏一門의 다행일 뿐 아니라 풍속과 인심을 두터이 하는데 萬分之一이라도 도움이 될까 합니다.

저로 말하면 끝까지 얕은 행렬이고 얕은 학식의 둔한 사투리를 돌아보지 않고 외람히 代代로 내려오신 祖上님과 수단한 일가들의 높으신 덕을 옛 族譜를 살피고 참고하여 감히 서장을 가름합니다.

## 發刊辭(庚申譜)

吾固城金氏가 三韓時代に 小伽倻國을 固城地方에 創建하신 諱 末露王으로 始祖하여 新羅高麗朝鮮時代를 거쳐 現在까지 世代가 斑斑하나 先賢말씀에 有姓則有族하고 有族則有譜엔 未及한바 있지 아니한가 回顧하여 우리의 족보를 살펴보면 總八次發刊에 三百餘年에 不過하니 小伽倻紀元後 千幾百年의 無譜空間을 무엇으로 證明하였을까 勿論 無數한 兵燹이 있을 때마다 紛失되고 繼述할 때 時代에 따라 家乘과 戶籍에 依 하여 傳子孫하였을 것으로 믿어지나 先聖의 말씀에 無千年 有徵之姓이라 하셨으니 果然 感銘 깊은 말씀이시다.

新羅史에 六伽倻國이 新羅에게 或降之或伐之或滅之라 하니 勝者에 有正史하고 敗者無史는 史之湖流라 幸이 首露王系에 餘運이 있어 新羅三國統一時에 金庾信將軍의 偉大한 業績에 依하여 六伽倻中에서 元을 이룬 大姓이 되었고 其餘는 爲貫者稀少하니 嗚呼라 그의 王歷만도 三四百餘年에 그 子孫들이 其與 不億이라 推想되는 그중 固城金氏가 末露王孫으로 歷代가 昭昭하나 中世에 異貫姓氏와 諱字가 同一하고 行蹟이 大同小異하여 子孫間에 論議도 없지 아니함으로 從聖人之訓하야 疑者厥之코자 하니 先祖의 傳記에 依據하여 以疑傳之함도 亦有一義라 故로 古語에 云欲察察而不明이라 하니 어찌 輕忽히 할 수 있습니까 僉宗께서는 此点深深 諒察하시기 바라오며 今般 修譜 時에 先祖의 行狀 行蹟 碑文等 文獻을 現代의 新學后裔들이

理解容易하게 國文으로 翻譯함은 다른 뜻이 아니라 后孫  
 된 男女가 多讀하고 熟達하여서 忠孝烈의 몸과 마음을 듣  
 다면 一은 先祖에게 욱되지 않고 二는 僉宗家家에 榮光이  
 며 三은 五宗全體에 幸運이며 四는 國民大道에 捷徑이 될  
 것을 確信하여 首을 代하노라.

西紀一九八〇年庚申臘月 日 都有司 不肖后孫 相德  
 謹識

#### 固城金氏大同譜序 (辛巳譜)

國之有史와 家之有譜는 天地之常經而自古以來로 國之正史者  
 稀하고 又萬姓氏族之千年全譜者尤稀하니 是亦天運陰陽消長  
 之理耶아 固城之金이 自小伽倻國末露王으로 爲始하야 九世璿  
 源에 至而 衡王하야 歷四百有六十餘年에 王跡이 赫赫하고 後昆  
 이 綿綿하야 昭穆之正과 人物之彬이 雖爲東土盛族이나 其間에  
 或疑以傳信子不無라 雖然이나 先世已定之事를 不敢擅改而 犯  
 訐先之罪故로 依舊從新之義와 尊祖收族之道로 謀諸族而 今次  
 修譜하니 事多難成이라 何故오 國內之宗族과 中國居住之宗族  
 을 無漏成譜하니 其麗不億而 可謂成百載未成之事也라 嗚呼盛  
 哉라 余之不肖以 都有司之名으로 同參事役之始末故로 略記如  
 右云而 凡事之終役者는 固城盛大江陵永學甫之功이 大也라 願  
 吾宗은 皆伽倻一根이 爲今日數萬之枝則是非祖宗遺恩之深也  
 否耶아 常以祖宗之心으로 爲心하고 花樹之義로 爲義하야 或春

或秋에 相坐而 講討 하야 去私就正 하고 舍己從人 則百代後 數十萬枝繁之道 가 豈不在茲乎 아 爲諸宗而 血祝云 耳라

西紀李○○一年 辛巳 晚秋十月 日

都有司 不肖後孫 顯相 謹識

[譯文]

나라에는 역사가 있고 가정에는 족보가 있음은 天地之間에 떳떳한 經綸인데 옛날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나라 안에는 올바른 역사가 많치 아니하고 또한 만가지 姓氏도 천년을 내려오는 족보를 온전히 바르게 전해서 가지고 오는 자 더욱이 드문지라 이것이 또한 천운 음양의 흥망성쇠 되는 이치가 아니겠는가?

우리 고성김씨가 소가야국 말로왕을 시조로 하여 九世 선원이 이형왕에 이르기까지 왕역만도 四百六十餘年인데 왕적이 혁혁하고 후손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소목이 바르고 인물들의 빛남이 비록 우리 동국 땅에 상대한 씨족이나 그 간에 혹시 전해져오는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믿는 자가 없지 아니한지라 비록 그러나 先祖任들이 이미 정하신 일들을 감히 함부로 고치지 못함은 先世를 들춰내는 죄가 되는 고로 옛것에 의지하고 새로이 올바른 것에 따라서 先祖任을 높이고 族人을 거두는 道義로 모든 제족과 의논하여 금차에 수보하나 할 일들은 많고 이루어서 결사하기는 어려운지라 무슨 연고인고 국내에 종족과 증국에 거주하는 종인들을 빠짐없이 모아 成譜하니 그 빛남은 많

치 않으나 큰 백년을 두고 이루지 못한 일들을 가히 이루었다고 하겠도다.

슬프고도 성대하도다. 내가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써 도유사라는 직분으로 事役に 동참하여 처음과 끝을 마무리 하고로 오른쪽과 같이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이 모든 事役に 終事한 사람은 고성 聖大 강릉 英學 양종친의 功이 크지라 생각하건대 우리 종족은 모두 가야의 한 뿌리로서 금일에 수만 가지로 뻗었으니 이것이 다 先祖任들의 은덕이 깊게 서렸다고 하지 않아 하겠는가?

항상 先祖任과 宗親을 위하는 마음과 화수의 의리를 위하여 혹 봄 혹 가을에 서로 마주 앉아 강론하고 토론하여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른길로 나아가고 自我를 버리고 宗人을 따르면 백대 후세에 수십만 가지로 번창하는 길이니 어찌 이것이 尊祖하고 水族하는데 있다고 아니 하리요. 모든 宗親들에게 血淚로 축원 드립니다.

#### 固城金氏本源事蹟

漢光武建武十八年壬寅三月駕洛九干我刀汝刀彼刀吾刀留水留天神天吾天神鬼等各爲酋長率其民稷飲于錦水濱望見龜旨峰有異氣自東而起乃就而視之有紫纓懸今盒自天而降開而視之有金色六卵圓如日輪乃奉置於我刀之家翌日九人咸會開盒六卵剖殼而出化爲六童子年可十五容貌奇偉衆皆拜賀日就岐

歷十餘日身長九尺是月望日遂奉其始生者一人推立爲王卽首  
 露王也餘皆分封五伽倻王一曰阿羅伽倻二曰古寧伽倻三曰大  
 伽倻四曰星產伽倻五曰小伽倻王生于金盒故因以金爲姓誕于  
 末生故因以末露爲諱各以所都之地爲貫小伽倻末露王九世孫  
 而衡王二十九年卽新羅智證王時羅將異斯夫來取王知國祚將  
 訖以其地納于羅其後新羅以小伽倻國爲古自郡後爲固城郡自  
 末露王卽位壬寅至而衡王二十九年凡九世四百六十餘年也  
 謹按固城邑誌云 漢光武皇帝建武十八年壬寅末露王建國于  
 小伽倻至九世孫而衡王 新羅智證王取之爲古自郡景德王改  
 固城 高麗成宗時爲固州刺史後降爲縣 顯宗時屬巨濟值縣  
 令 元宗陞爲州 忠烈王時并于南海尋復舊 恭愍王時降爲  
 縣本朝仍之也

東國歷代總目云

[譯文]

한나라 建武十八年 壬寅(西紀四十二年) 三月에 駕洛九  
 干(아도, 여도, 피도, 오도, 유수, 유천, 신천, 오천, 신귀)  
 等이 각기 추장이 되어 그 百姓과 함께 錦水물가에 모여  
 회의를 하고 쉬는 사이 구지봉을 바라보니 기이한 기운이  
 東으로부터 일어나거늘 곧 나아가 보니 자색 빛 끈에 金  
 합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어 열어보니 금빛 六卵에서 日  
 輪과 같이 둥근지라 我刀의 집에 정증히 두고 그 다음날  
 추장 九人이 모여 금합을 여니 六卵에서 六童子가 탄생하  
 고 十五世 정도의 용모가 비범한 대장부 기상이니 몫 사

람이 다 하례를 하고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성장함이 보통 사람과 달라 十餘日後에 九尺이나 되었다.

이달 중에 드디어 처음 탄생한 분을 포으로 추대하니 이분이 곧 수로왕이시다. 남은 다섯 분도 각기 지역을 나누어 봉하니 一은 아라가야요 二는 고가야 三은 대가야 四는 성산가야 五는 소가야이시다. 금알에서 탄생하였으므로 姓을 金이라 하고 끝으로 탄생하였으므로 諱는 末露라 하시고 각기 도읍한 곳으로써 本貫을 정하였다.

소가야 末露王의 九世孫 而衡王 二十九年에 新羅 지증왕 때 新羅장수 이사부가 라군을 몰아 오니 포이 국운이 장차 다함을 알고 그 땅을 신라에 바치니 후에 신라는 小伽倻國을 固自郡이라 하고 그 뒤에 固城郡이라 하였다. 末露王 卽位 壬寅年으로부터 而衡王 재위 二十九年에 이르기까지 모두 九世에 걸쳐 四百六十餘年이었다. 고성읍지에 의하면 한광무 황제 건무십팔년(임인) 말로왕이 소가야국을 건국하였고 九世孫 而衡王에 이르러 신라 智證 포이 소가야국을 취하였다. 지명을 고자군이라 하고 경덕왕 때 固城郡이라 개칭하였다. 고려 성종 때 固州刺史 후에 현으로 顯宗 때 속거제 元宗 때 州로 공민왕 때 현으로 본조에 이어졌다.

小伽倻末露王事蹟

小伽倻國今固城郡南方初無君長小伽倻建國而有十曲六鄉二縣所統合十八州王與九千等以仁義禮智農教民人物豐盛德化流行地雖涯海南都中明主也以于山國王之女高氏爲后漢順帝建康元年甲申卽新羅逸聖王十一年王薨陵在本國北距三十里金封産艮坐之原

[譯文]

소가야국은 현재의 고성군으로 남쪽 지방에 처음부터 郡王이 없으니 소가야란 나라를 세우고 十曲과 六鄉과 二縣을 통솔하니 모두 十八주라 王이 九千과 같이 仁義禮智와 농사로써 백성을 가르치니 인물이 풍성하고 德化가 유행하여 땅은 비록 바닷가에서 가까우나 남쪽나라 증에 밝은 임금이다.

우산국 왕의 따님 高氏로 王后를 삼았다. 漢나라 순제 建康元年 甲申은 곧 신라 일성王十一年에 왕이 서거하시니 王陵이 본국 北쪽 三十里 今封産 艮坐 언덕에 위치하다.

小伽倻國所統十八州曲鄉縣名稱位置 소가야국소통주곡과향 현명칭의위치

道善部曲在國東二十里 도선부곡재국동      洛村部曲在國南二十里      락촌부곡재국남

丘墟部曲在國南三十里	구허부곡재극남	竹林部曲在國
南四十里	죽림부곡재극남	
博達部曲在國南二十里	박달부곡재극남	義宣鄉在國北
四十里	의선향재극북	
坤義部曲在國北十五里	곤의부곡재극북	鹿鳴鄉在國北
三十里	록명향재극북	
跪村部曲在國南五十里	궤촌부곡재극남	積餘鄉在國東
二十里	적여향재극동	
海濱部曲在國東六十七里	해빈부곡재극동	曲産鄉在國東
二十里	곡산향재극동	
珍餘部曲在國東二十五里	진여부곡재극동	魚禮鄉在國西
三十里	어례향재극서	
鉢山部曲在國東三十里	발산부곡재극동	保寧鄉在國西
四十里	보령향재극서	
樊溪縣在國西三十里	번계현재극서	蚊火良廢縣在國
北三十里	문화량폐현재극북	
石築城周回三千五百二十四丈高十五尺內有三井二池		

[역문]

돌로 쌓아 성의 총 길이는三千五百二十四장이요 높이는十五尺이며 성내에 三井과 두 못이 있었다.

而衡王事蹟

王諱而衡末露王之九世孫也王宋文帝元嘉二十年癸未生太宗泰始八年壬子卽位二十九年新羅智證王有統合之志遣將異斯夫伐小伽倻國王知國祚將訖遜于新羅新羅以小伽倻國地改稱古自郡後改固城郡梁武帝中大通六年甲寅卽新羅法興王二十一年王薨在位二十九年壽九十二陵在金封山密藏谷先陵下甲坐之原

[譯文]

왕의 諱는 而衡이니 말로왕의 九世孫입니다. 王이 송나라 문제 元嘉二十年 癸未년 탄생하시어 大王泰始八年 壬子년에 즉위하시고 二十九年 신라 지증왕이 통합할 뜻이 있어 장수 이사부를 보내어 소가야국을 치게하니 而衡왕이 장차 국운이 기울어짐을 예측하여 자리(用權)를 신라에 물려주니 신라에서 소가야국 땅을 고자군이라 이름을 고치고 그 뒤에 固城郡이라 개칭하였다.

양무제중 大通六年 갑인은 곧 신라 법흥왕 二十一年인데 그 해 이형왕이 서거하시니 재위 二十九年이요 수는 九十二세라 능은 금봉산 밀장곡선능아래 갑좌에 위치하다.

先後金榼說

謹按六伽倻之金始生於駕洛而貫而不同者別其所封之地因衣爲貫焉此乃史遷以來二帝三王秦漢俱祖黃帝而秦自秦漢自漢耶源其源則一也分門立戶各有先後以此觀之惟我金與天地同終始其麗不億者乎觀者詳之我金之後又有一金卽金闕智之金後漢明帝永平八年乙丑卽脫解王九年春三月夜聞府南金城西始林間有鷄聲暹明王遣大輔瓠公視之有金色小櫝掛樹梢白雞鳴於下瓠公還告王使人取櫝開視之小兒在於中容貌奇偉王喜謂左右曰此豈非天祚我衆爲令胤乎乃收養之及長聰明多智略故名曰闕智以生金櫝故賜姓金氏始林次爲雞林國號新羅

[譯文]

삼가 안찰하니 육가야에 金氏가 駕洛에서 始作되어 貫鄉이 不同함은 그 봉한 땅을 分別하여 貫籍을 取한 原因이다. 역사가 흐름으로써 二帝와 三王과 秦나라와 漢나라가 다같이 皇帝를 先祖로 삼고 진나라는 진이라 하고 한나라는 한이라 함인가? 그 根源을 근원삼음은 한가지라 門戶를 나누고 집을 세움이 각기 先後가 있으니 이것을 미르어보면 우리 金이 天地로 시종을 같이하여 그 수가 億뿐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은 알 것이다. 우리 金 뒤에 또한 金이 있으니 金알지의 金이다.

後漢나라 明帝영평八年 乙丑년은 곧 탈해王九年이다. 봄 三月밤에 府南쪽 金城 서편 시림사이에 닭소리 간간 울러움을 듣고 王이 大보호공을 보내니 금빛 조금한 하미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데 흰닭이 그 밑에서 울거늘 호공이 돌아와 고하니 포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함을 가져 오도록 하고 열어 보니 童子가 그 가운데 있어 용모가 비범하니 포이 즐거워하여 左右에 말하되 이 어찌 하늘이 나와 그대들을 도와 나의 아들을 하게 함이 아니리오. 하고 키우니 자라기에 일러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난 고로 알지라 하고 숙합에서 난고로 김이라 사성하여 시림을 제림으로 고치고 국호를 신라라 하다.

### 襄惠金公行狀

公諱贊吉姓金氏號竹崗系出固城祖諱隨高麗朝以原任大臣有翊社勳封洛川君考諱彌經業文章顯名當世正憲大夫直提學妣貞夫人羅州鄭氏開城小尹佶之女雪齋文靖公可臣之孫舉二男長則公次仁吉官直長敦睦齋麟瑞同副承旨遇秋皆其後孫公生于樂安洛生洞天資英邁氣像魁偉幼有大志才力過人十歲通經史及冠兼學武事每以忠孝自勉當麗季深自韜晦及我

太祖登極始有立揚之意洪武三十年丁丑倭奴大舉入寇沈沒沿海諸郡犯樂安界人情洶洶將至奔潰公曰事急矣非我討賊無以靖亂遂倡義先率家僮與郡民屯于本郡南門外賊望之不敢近公於是移檄旁縣旁縣素服公威武一時赴集公盡傾家財大饗士卒而誓之曰濟濟有衆咸聽誓言倭酋敢寇 社稷將危爲國臣民敢不戮力同心討平寇賊諸軍畏威感德莫不奮臂願戰公身先士卒

直突賊陣大戰良久賊披靡諸軍膽氣益壯無不一當百斬首萬餘級餘賊大潰走秦捷 上嘉之賜以甲冑節鉞玉帶金銀一篋特除三道水軍都節制使公深感 聖恩北望獻壽明年戊寅倭復入寇公又與大戰于郡南滅惡山下斬首數千級追至南海泗川大破之聞于

朝上尤加歎賞迢遷至兵曹判書世子師傅正憲大夫檢校政丞公率部民築土城因鎮撫南服倭奴不敢爲寇沿邊列邑賴以安堵晚年移居高敞復值倭亂戰于興德沙津浦斬獲千餘級將星忽隕公家殉節上驚悼褒諭 贈右義政諡襄惠優賜賻儀禮葬于高敞邑西南七里甌山下巽坐之原 正祖己未多士建祠于樂安邑東一里與鄭忠莊萃林忠愍慶業並享是爲公始終大略也配貞敬夫人慶州李氏都承旨旭之女舉三男原亮正郎希亮判書河司直年十八入日本戰敗投水死原亮三男自卿成均生員進卿益卿府使希亮三男孝仁獻納碩宗副司直忠彥少卿曾玄以下多未盡錄公於樂安伯夷山下玉山之上構精舍數間爲退休之所名曰望海堂以歌記之曰晚值 聖朝猥蒙國恩白衣掃塵綿衣還鄉樂不可支百里南州一堂風景伯夷清風感忠臣之高節玉山翠竹詠君子之遺篇亦可以見公風流弘長也噫公晦迹危邦翊戴 聖朝白衣倡義平亂殉節其智勇忠勳可以垂輝百世而載於樂安金海高敞興德四郡邑誌及輦地勝覽者僅僅如此公所作忠義篇倡義錄及墓道碑碣亦皆見失於壬辰兵燹殆無以徵信可慨也已襄度李公天佑素與公相善同獎王室者也聞公立懂擊節歎曰荷歟金公論其功則無恥於方召論其忠則不下於孔明功忠炳炳我東方一人此雖寂寥數語君子謂之實錄又何必多乎哉且公後承繁衍左參贊瓚參判琛奉事世謙節度使世珍奉事世謹縣監繼順參議世應縣

監世榮其顯者也孝子兌潤其孫之壹之子奎五奎良奎五之妻許氏子啓文世稱一門六孝筭非公厚德流光亦何以與此哉公後孫旻煥從余遊謁余爲狀第錄如右以俟立言君子之採擇云

崇禎五(西紀一八六八年)戊辰六月六日

嘉善大夫吏曹參判兼成均館祭酒侍講院贊善 西河 任憲  
晦 謹撰

[譯文]

이상 행장문은 다음 묘갈문과 내용이 같고 문장 문법만  
다름으로 다음 문장을 상고하기로 함.

贈議政府右議政襄惠金公贊吉墓銘 并序

永善嘗讀全齋先生任文敬公所撰 贈右議政襄惠金公狀德之  
文函稱其豐功偉蹟有辭千秋每不勝欽歎而有執勒之願矣公之  
後孫燦現東奎囑永善以樂石之銘永善後生末學辭謝不敢而其  
懇愈摯竊惟是役任先生文是徵信而比事屬辭而已可幸無罪歟  
公諱贊吉竹崗其號也固城金氏麗朝大臣諱隨有翊社勳洛川君  
生諱彌直提學經學文章顯名當世寔公之考也妣羅州鄭氏開城  
小尹佶女雪齋文靖公可臣孫公生于樂亞洛生洞天姿英邁氣像  
魁偉幼有大志心歲通經史弱冠兼習武事盛德智勇爲郡人敬服  
每以忠孝自勉時當麗末深自韜晦及我 藝祖登極始有立揚之

志洪武丁丑倭奴大舉入寇侵沒沿海諸郡犯樂安界人情恟恟將  
 至奔潰公曰事急矣非我討賊無以靖難白衣倡義先率家童與部  
 民屯于本郡南門外賊望之不敢近公於是移檄近邑素服公威武  
 一時赴集公盡傾家財大饗士卒而誓之曰倭酋敢寇社稷將危爲  
 國臣民敢不戮力同心討平寇賊諸軍畏威感德莫不奮臂督戰公  
 身先士卒直突賊陣大戰良久賊披靡諸軍膽氣益壯無不一當百  
 斬首萬餘級賊大潰走秦捷 藝祖嘉之賜以甲冑節鉞玉帶金銀  
 特除三道水軍節制使戊寅倭復入寇公又與大戰于郡南滅惡山  
 下斬首數千級追至南海大破之聞于 朝尤加歎賞超遷至兵曹  
 判書檢校政丞錄靖難佐命勳封鐵城君公立朝正直盡忠敢言與  
 襄度李公天佑相善協力同心翊戴王室裨益弘多任職數年辭還  
 本郡率部民築土城因鎮撫南服倭奴不敢爲寇沿邑賴安公於樂  
 安伯夷山下玉山之上構精舍爲退休之所名曰望海堂以歌記之  
 曰晚值 聖朝猥蒙國恩白衣掃塵錦衣還鄉百里南州一堂風景  
 伯夷清風感忠臣之高節玉山翠竹詠君子之遺篇亦可以見公風  
 流弘長也晚年移居高敞復值倭亂督戰興德沙津浦斬獲數千級  
 將星告隕公遂殉節 上驚悼褒諭贈議政府右議政諡襄惠因事  
 有功曰襄愛人好與曰惠下教優賻禮葬于高敞邑西南七里甌山  
 下巽坐之原 正祖己未多士建祠于樂安與鄭追莊莽林忠愍慶  
 業拜享 朝家之崇報士林之尊奉至矣盡矣配貞敬夫仁慶州李  
 氏都承旨旭女三男原亮正郎希亮判書文亮入日本戰敗死孫自  
 卿生員進卿進士益卿府使原亮出孝仁獻納碩宗副司直忠彥少  
 卿希亮出餘見于譜也李襄度公聞公立殯歎曰論其功則無愧於  
 方召論其忠則不下於孔明功忠炳然我東方一人此可謂實錄也  
 公所著忠義篇倡義錄與甲冑玉帶俱見燼於壬辰禍燹嗚呼惜哉

噫君臣之義無所逃於天地之間彼倭奴與我國接境侵掠無數乍  
降乍叛前後有萬勢必報之讎公於國初累立戰功竟殉於義毅烈  
愈章蓋公受天地之正氣至大至剛臨大節而不可奪仁至而義盡  
眞無愧爲 聖朝之忠盡矣何其偉哉謹爲之銘曰

遭遇 聖明厚蒙國恩島夷侵掠白衣從軍斬馘奏捷偉蹟豐功  
聖上褒嘉崇秩表忠奮不顧身竟乃殉節摩窘直血凜凜毅魄爵諡  
煌煌崇服無憾成仁取義更何歎兮甌山之阡郁郁遺光我銘詔來  
千世可忘

重光赤奮若端月(辛丑正月) 高興 柳永善 撰

[譯文]

永善은 일찍이 全齋先生 任文敬公이 지은신 贈右議政  
양혜 金公 장덕의 글을 읽고 극히 품성한 功과 위대한 업  
적을 칭찬하여 천추에 내려움을 감탄하고 말꾸중이라도  
들었으면 하던 심정이었더니 公의 후손 찬현과 동규가 비  
문과 명을 부탁하니 부족한 학문으로 감히 못한다 거절하  
였으나 그 간곡함이 더욱 지극하므로 임선생의 글을 믿어  
증거하고 비교하여 지으니 다행히 죄가 되지 않을까?

공의 휘는 贊其이요 호는 竹崗이며 固城金氏k 고려 大  
臣 휘 隨는 익사훈이 있어 洛川君에 봉하고 휘에 彌를 낳  
으니 직제학에 학문과 업적이 세상에 현재하니 이분이 公  
의 부친이라 모친은 나주 정씨며 開城少尹을 지낸 佶의  
女요 실제문정 可臣의 손이다.

公이 낙안 낙생동에서 태어나서 천자가 영민하고 기상

이 위대하여 어린 시절부터 큰 뜻이 있어 십세에 경전과 史記를 통달하고 무예를 익혀 지혜와 용맹에 군민이 복종하고 매양 忠과 孝로써 스스로 힘쓰더니 고려 말에 당하여 명성을 감추었다.

李太祖가 등극하니 처음으로 입양할 뜻을 두었더니 洪武丁丑(서기 一三九七)년에 외적이 크게 바닷가 모든 고을을 점령하고 낙안군으로 침범하니 民心이 흉흉하여 봉고직전을 당하여 공의 말씀에 적을 격퇴하지 않으면 난을 막을 수 없다 하고 자의로 의병을 모아 본군 남문밖에 진을 치니 적이 보고 감히 접근을 못하니 이때에 격문을 지어 가까운 고을에 보내니 본래 공의 무예와 위용에 복종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뭉치니 공이 재산을 기울여 사졸을 잘 먹이고 맹세하여 가로되 왜적의 추장이 감히 침범하여 장차 사직이 위태로우니 나라의 신민이 되어 어찌 마음과 힘을 합하여 적을 토핑치 않겠는가 하니 모든 군사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에 감동하여 모두 따라 힘주어 싸우기를 외치니 공이 병사보다 먼저 적진에 뛰어들어 한 동안 크게 싸우므로 적이 어쩔 줄 모르게 되니 모든 군사가 용기백배하여 일당백이라 베어진 적의 수가 수만이라 적이 크게 패하여 도망함을 나라에 아뢰니 태조께서 그 수훈을 찬양하시어 갑옷과 칼과 옥대와 금은을 사하시고 특히 삼도수군절제사로 삼으셨다.

다음해에 왜적이 다시 침입하니 공이 군남쪽 멸악산 아래서 대전하여 수천 명을 죽이며 남해도까지 쫓아 크게 파한 소문이 조정에 들어가니 성상께서 더욱 탄사하시어

상을 내려 병조판서 금교정승정난명훈에 기록하고 철성군을 봉하였다.

공이 조정에서 정직하고 충정을 다하여 능히 진언하며 양도 李公天佑와 더불어 절친하여 협력 동심하여 王室을 컸다. 재임한지 두어해에 사퇴하고 본군에 돌아와 부락민과 더불어 토성을 쌓으니 이로 인하여 남쪽이 진정되고 왜적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니 해안지방이 평안하였다.

공이 낙안군 백이산 아래 옥산상에 정사르 지어 편히 설 곳을 마련하니 이름하여 망해당이라 하고 노래에 가로되 늦게 어진 임금님을 만나 외람되게 나라 은혜를 입었도다. 백의로 소진하고 금의로 환양이라 백리의 남주는 일당의 풍경이라 백의에 맑은 바람은 충신의 높은 절의를 감동하고 옥산에 푸른대는 군자의 기치책을 읊으라 하셨으니 이상의 글을 보니 공의 풍류와 학문을 알겠도다.

高敞으로 이사를 했는데 다시 왜난을 만나 흥덕사진포에서 독전하여 적수 수천 명을 참하고 싸우다가 장성은 떨어지고 공은 순절하니 어깨서 크게 놀라시고 슬퍼하며 포유하여 의정부 우의정에 시호 양혜라 하니 일에 공이 있음을襄이라 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주기를 좋아함을惠라 하셨다. 부의를 넉넉히 하여 고창읍 칠리 증산아래 손좌에 예장으로 장사하셨다.

正祖 기미년에 많은 선비들이 낙안군에 祠를 세우고 정충장분과 임충민 경업과 더불어 배양하였다. 나라에서 숭보함과 사림에서 존봉함이라 하였도다. 配에 정경부인 경주李氏니 도승지 旭의 女라 三男이니 原亮은 正郎이요

希亮은 判書요 文亮은 司直인데 전사하였다. 孫에 自卿은 生員이요 進卿은 進士요 益卿은 府使니 原亮이 낳고 孝仁은 獻納이요 碩宗은 府司直이요 忠彦은 少卿이니 希亮이 낳고 남은 사람은 족보에 나타냈다.

李양도 公이 公의 용맹함을 듣고 탄식하여 가로되 그 공을 의논하면 方召가 부끄럽지 않고 그 충을 의논하면 孔明이 떨어지지 아니하니 공과 충이 병연하여 우리 동방에 제일가는 사람이니 이것이 실지를 기록함이요 公이 저술한 충의편과 창의편과 창의록 갑주옥대가 임진난리에 다 타버렸으니 슬프고 아깝도다! 君신간의 의리가 천지간에 없을 수 없었는데 저 왜적이 우리나라와 경계가 상접하여 수없이 침략하여 약속을 어김이 한두 번이 아닐진데 만세에 반듯이 갚아야 할 원수로다.

공이 극초에 여러 번 전공을 세우고 마침내 의에 순절하시니 의열한 유장은 대개 공이 천지간에 정기를 받아서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여 대절을 세우니 참으로 聖祖에 부끄러움이 없는 충신이니 그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

삼가 銘하여 가로되 성스러운 임금을 만나 두터히 나라의 은혜를 입었도다. 섬 오랑캐가 침략하니 백의로 종군하였다. 적을 무찔러 첩서를 아뢰니 위대한 업적과 공이 많았도다. 성상이 포사하여 높이 충을 표하였다.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고 마침내 순절하였다. 장열한 곧은 피는 늠름한 글썽 혼이 되었다. 벼슬과 시호가 빛나고 빛남이여! 높이 찬양 받으시니 유감없도다. 仁을 이루고 義를 취하니 다시 무엇을 더 탐할꼬 증산묘에 더욱더

빛남을 끼쳤도다. 내 銘하여 고하니 천세에 가히 잊으  
라!

### 望海堂記

公居于洛生洞遂構精舍二間在於伯夷山之下下玉山之上四山  
環擁一川瓊流泉石之美烟霞之勝足爲南方之最舍之南十里許  
有海而相望故號曰望海堂退休之暇被鶴氅持羽扇遊目騁懷秀  
竹茂林朝霞暮月亦幽居之勝槩也本倅慎原節慕公之大功供牛  
酒而大設落成宴公酒酣擊壺而歌曰晚值聖世猥蒙國恩白衣掃  
塵錦衣還鄉樂不可支壯哉百里南州一堂風景伯夷清風感忠臣  
之高節寶嵐明月迎醉客之豪興玉山翠竹詠君子之遺篇金崗暮  
鍾勸道僧之佛說澄山宿霧鎖隱士之清襟平地浮槎駕仙子之遐  
蹤斷橋魚火戲釣叟之投竿遠浦歸帆送賈客之行舟美哉一區八  
景畫出浮槎之勝狀悉爲望海堂之大觀也西背泰山東面平野稼  
穡之場無窮北接長川南通大海魚鹽之路不遠豈非生民之安樂  
乎太守相和曰分憂北闕七政已任受命南州百廢俱興陪公相接  
忠義之心倍切與民同樂愛恤之情益壯老少咸集上下各得其所  
此實是 聖主之所賜而蓋由尊公平難之功矣相賀而罷

[譯文]

公이 洛生洞에 居住하며 精舍 二間을 지었으니 백이 山

의 아래요 玉山의 위라 四方에 山이 둘러있고 一川이 구슬같이 흐르니 泉石이 아름다움과 연하에 승지는 남방에 으뜸이라 집에서 남쪽 십리에 바다가 있어 보이는 고로 이름하여 망해당이라 하고 휴가에 학창으로 의관을 하고 손에 우선(부채모양)을 들고 한가히 쉬며 수죽무림과 조하모월의 풍치 또한 유에 승개라 태수 신원절이 공의 대공을 사모하여 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크게 낙성에 잔치를 하니 공이 술에 반취함에 병을 치며 가사에 월 성세를 늦게 만나 성은을 외람되게 입었도다.

백의로써 티끌을 쓸고 금의로 환향하니 百里 남쪽이 一堂에 풍경이라 伯夷의 淸風은 충신의 높은 절개를 감동하고 보람의 명월은 빈객의 호흥을 맞이하니 옥산의 푸른 대나무는 군자의 유편을 읊고 금강의 저문 종은 도승의 염불을 권하는지라 등산에 질은 안개는 은사의 옷깃을 잡고 평지에 띄운 뗏목은 신선의 먼 자취를 따랐도다. 단교의 고기잡이하는 불은 낚시하는 노인 잘 잡지 못함을 조롱하고 호수에 돌아오는 돛대는 장사꾼의 배를 보내도다.

아름답구나! 一區에 八景이 부사의 경치를 화출하니 이것이 망해당의 주경이리라 西쪽으로 큰 산을 지고 東으로 평야를 이루니 농사할 장소 무궁하고 北으로 긴 시내가 근접하고 남으로 큰 바다를 상통하니 고기와 소금의 운반이 쉬운지라 어찌 백성이 편안하지 아니하랴 하니 군수가 답하여 월 북쪽의 근심을 나누고 칠정을 거쳐 남주에 명을 받으니 백가지 폐단이 소멸하고 公을 가까이 모

시니 충의에 마음이 더욱 간절하고 백성과 함께 사랑하는  
정이 씩씩하고 노소가 다 모임에 일에 힘쓰니 이것이 다  
임금님이 주신 것이요 존공이 난을 평정하신 공이 있다  
하고 서로 축하를 파연하다.

正祖二十三年己未士論齊起皆曰以襄惠公之貞忠大勳尙未建  
祠設享者旣違朝家褒忠之典亦非士林尊賢之義太學通章及四  
長官通章一時齊發建祠宇樂安邑東一里許春秋官享

[譯文]

정조二十三年 기미년에 선비들의 의론이 일치되며 말  
하되 양혜공의 공은 충성과 큰 공훈이 있었음에도 오랜  
세월에 사당을 세어 제사를 올리지 못하였음은 나라에서  
충신을 대접하는 예나 선비들이 어진 이를 높이는 의리가  
이에 미흡하였다. 하고 태학 통문과 四長官 통문이 일시에  
일어나 사당을 낙안읍 동쪽 十里에 세우고 춘추로 관에서  
춘추로 관에서 제사를 올리는 행사가 있다.

襄惠公設享祝文

伏以山嶽之精邦國之英簪纓華族經綸指掌早探經禮晚成文章  
奮起南服蔚然有聲粵在國初島夷陸梁公時布衣倡義興兵掣鯨  
戰鯢擊雷震霆義旅先登妖氣廓清再戰滅惡一掃凶鋒南氓乃粒  
東土以寧 朝家褒賞崇秩斯獎出則仗鉞入以調鼎盛烈峨峨恩  
諡煌煌俎豆享遲章甫齋恫館發褒章鄉議并興瞻彼新祠文武雙  
忠輿情連配芬苾維同於粢籩豆禘儀歎將多士駿奔英靈庶暢不  
孤隣德喜溢幽明潔爾粢盛敢盡虔誠猗歟英靈庶幾格饗

(譯文)

엮드려 고합니다. 산악의 정기요 나라의 영웅이라 높으신 저례로 경륜에 밝으시고 일찍이 경과 예를 배우시고 늦게 문장을 이루었다. 분연히 일어나 남쪽을 평란하고 의연히 명성을 떨쳤다. 오직 극초에 왜적이 침입하니 이때 공이 민간으로 의리를 부르짖어 병을 일으켜 고래와 싸우듯 뇌성병력과 같이 남보다 앞장서니妖氣가 맑아졌다.

두 번째로 멸악산에서 흉적을 일소하니 남쪽이 평안하고 전국이 태평하다. 나라에서 포상을 하니 높은 직위를 장려하다. 밖에서는 칼을 잡고 안에서는 공정하였다. 성열이 높고 높으니 받은 시호가 밝고 밝다. 조두의 드림이 늦으니 장보들 이제 창하다. 관에서 포장문을 발하고 향리에서 어른이 일어난다.

저! 새 사당이어 文武가 쌍충하도다. 여론이 연배(정충장 莽과 임충민 慶業연배)하니 세분의 충훈은 오직 같

다. 제물의 접시가 빛나니 거동이 이에 장하다. 많은 선비가 모여드니 영령은 상쾌이 하소서. 인덕은 외롭지 않고 즐거움은 유명을 넘었다. 정결한 기장쌀은 감히 정성을 다하였으니 의롭도다. 영령이시여 잘 흠양하소서.

### 春秋祭享祝文

白衣建節漆齒屏跡名傳來裔事光遺籍

#### [譯文]

흰옷으로 대절을 세우니 적이 자취를 감추다. 이름을 후예에게 전하니 하신일은 유적에 빛나다.

### 太學通章

其辭曰我國四百年來文教丕振封疆數千里內院宇相望凡有一節一行莫不以施以享而獨金先生襄惠公諱贊吉有茂行懿烈尙未躋於俎豆之列心竊慨惜之久矣卽接僉君子通諭則亶出一道之輿論實爲百年之公議鄙等咨歎之欽仰之夫孰有訾議耶以道學言之則修鄉學立家塾眞所謂古之鄉先生也以勳烈言之則起

義旅斥倭奴亦可謂古之烈丈夫也旻聞鄭忠莊林忠愍兩賢建祠  
貴邑則襄惠公同舉醑亨之儀實爲全美之事鄙等冒在首善之地  
俯從貴道之議敢此回諭惟原

僉尊亟舉禱儀俾彰遺德幸甚

右敬通于樂安鄉校 己未十月初吉日

文學齋任 李性中 沈憲祖 李基憲 曹漢

[譯文]

우리나라 四百年에 文教가 부진하여 강토 수천리 안에서 원과 사우가 많이 있어 일절일행도 정려를 내리고 설향 하였건만 어찌 金先生 양혜공 휘 贊吉은 성한 행과 열이 있으되 오히려 조두행렬에 따르지 못하였으니 마음에 개탄한지 오랜지라. 곧 여러분의 글을 본즉 그 도의 여론이 정성에서 나왔으니 실로 백년에 공정한 의론인지라. 우리들은 자탄하고 흠향할 뿐 누가 생각하여 의논할리 있으리요. 도학으로서 말하건데 시골에 학교를 수립하고 집에서 서당을 세움이 예로부터 이르기를 향선생이요 훈열로써 말하면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배척함이 또한 예로부터 이르기를 열창부라 하였다.

듣건대 정충장 임충민 두 어진이의 사당이 귀읍에 있으니 양혜공을 같이 설향케 함이 실로 좋은 일이니 首善하는 처지에 있어 귀도 회의에 따를 것을 회답하니 여러 존좌는 주선하여 유덕을 빛나게 하면 심히 다행하게 생각한다는 요지를 우와 같이 낙안향교에 통지함.

## 八道疏廳通章

其辭曰褒忠獎節卽我 國四百年不易之大典或以贈爵諡或以  
設俎豆或以

旌閭者 聖明在上曾所未揚之節義無不畢舉不待士論而斷自  
宸衷行之者不知其許歌誦 聖恩遠邇惟均自古儒賢武忠建祠  
俎豆者多而旻聞樂安故忠臣襄惠公金先塞贊吉之偉功盛烈惟  
之數百年相與倫比者幾希有如是之貞忠偉烈而尚無俎豆之所  
者是豈非昭代之欠典哉大抵金公麗朝洛川君隨孫直提學彌子  
經學高明志氣慷慨入孝出悌爲士林所宗當國初洪武丁丑倭奴  
入寇列邑奔潰之日公而白衣奮烈起義旅連戰克捷追奔遂北至  
泗川南海而斬馘甚多因還率部民築土城鎮撫三年倭寇畏避屏  
跡南陲宴然 上嘉之一歲中詔遷爲水軍都節制使後加檢校政  
丞及卒 朝家優傳 贈諡襄惠金公前後事蹟備載國乘及海東  
功臣錄其偉功盛烈班班可考如此偉功盛烈可謂光國家澤生民  
而尚未祭祀崇報者豈不爲慨然處乎茲於疏會所齊議發通貴郡  
既有林忠愍賢祠則金公忠烈宜無異同於林公且京鄉儒林公議  
又如是則貴邑章甫同爲相應幸以金先生并享于林忠愍祠一以  
奉 朝家崇節之義一以副士林樹風之望幸甚樂安校中

己未十月 日疏廳發文

幼學張錫憲	幼學金 鈇	進士金日偉	幼學韓肯履
進士李敬緝	進士朴鳳章	幼學金載龜	李基誠

鄭煥奎	幼學趙在祐	尹憲烈	進士鄭在章
魏元德	李教新	李鳳秀	幼學金在燮
進士李基彩	幼學金 埏	柳廷輝	曠煥周
幼學奇商俊	俞春柱	金洛沂	

## [譯文]

충의 포상하고 절의를 장려함은 우리 조정 四百年의 바꿀 수 없는 法이므로 혹 벼슬과 시호를 주고 혹 사당을 세우려 정열을 내리는 것은 임금이 위에 계서 일찍이 절의를 찬양하여 다하지 않음이 없이 선비의 의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대궐에서 단행함이 허다하여 성은으로 축복함이 원근이 고르니 자고로 어진 선비와 충신을 사우를 세워 제사를 올리는 자 많건만 전하여 듣건대 고 충신 양혜공 金선생 贊吉의 큰 공과 성열은 수백 년 서로 비교할 자 드문데 이 같은 정충과 위열이 아직 제사드릴 곳 없음은 이 어찌 밝은 시대에 흠됨이 아니리오. 김공은 고려 때 낙천군 隨의 손자요 직제학 彌의 아들로 경학에 고명하고 지기가 강개하여 집에 들어 효도하고 밖에 나가 공경함이 사람의 으뜸이 되었다.

국초 洪武丁丑년에 왜구가 침입하여 각 성읍이 무너지게 된 때에 공이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역전연첩하여 사천지방 남해까지 추격하여 적을 베인 수가 많았고 곧 돌아와 주민을 거느리고 토성을 쌓아 진을 치니 삼년 만에 왜구가 자취를 감추니 남쪽이 편하였다.

임금께서 아름다워 하시고 그해에 특진하여 수군도절제사가 되고 후에 금교정승에 오르고 서거함에 이르러 임금님이 후이 부조하고 시호를 양혜라 증하시니 김공의 전후사적이 국사와 해동공신록에 실리고 그 큰 공과 성열이 반반하며 가이 국가에 빛나고 민생에 혜택이 되었음에도 아직 제사를 올리지 못하니 어찌 개탄치 않겠는가? 이제 그곳 여론이 일치하여 반문하니 귀문에 기히 임충민 현의 사당이 있으니 김공의 충열은 마땅히 임공과 다름이 없고 또한 경향의 유림의 공의가 이 같으니 귀읍의 장보들이 상응하며 김선생을 임충민 사우에 함께 배양하면 첫째는 나라에서 승절하는 의리요 둘째는 사람에서 풍속을 세우는 상징이 되면 심히 다행하도다.

### 本道通文

其辭曰猗歟吾東 聖朝在上四百年來凡所扶風樹教之道靡不用其極八域之內前世所未及褒揚崇報之忠烈行義舉皆不待士論斷自宸衷或賜爵或贈諡或建祠或賜額者不知其幾許先賢列邑由茲興起前世之遺賢未及立祠者皆得建祠餼享百歲俎豆而旻聞樂安故忠臣襄惠公金先生諱贊吉之偉功盛德閱來數百年尚無俎豆之所此不爲昭代之一大欠典哉大低金公天資英邁經學高明志氣慷慨智略絕倫入孝出悌修鄉學立家塾爲士林所宗當 國初洪武丁丑倭奴入寇列邑奔潰之日公以白衣起義旅連戰克捷追奔遂北至南海泗川而斬馘甚多因還帥部民築土城鎮

撫三年倭賊畏避遠逃湖南沿邑賴公之力晏然樂業自 上嘉之一歲中超遷至水軍都節制使後加檢校政丞及卒賜諡襄惠金公前後事蹟備載浮槎邑誌及國乘且現於海東名賢錄其鬼勳盛烈班班可考如此偉功盛烈可謂光 國家而澤生民者也以如此功德尚未祭祀崇報者豈不爲士林之慨然處乎茲於道會所齊議發論一邊授通於浮槎本鄉而第聞金公後孫多居生於貴邑云貴邑乃浮槎鄰邑也茲又通諭伏願僉尊與浮槎章甫會議發論於洛於寶間趁速建祠以設俎豆一以起曠世偉烈一以光士林風教之地幸甚

己未八月 日 本道發

羅州洪千榮	靈光李以鑑	海南閔東顯	光州高廷櫟
咸平李敦復			
井邑孫 維	全州金相宜	萬頃柳學洙	長城金志述
南原黃顯洙			
長興魏守亮	高敞沈東煥	唐津金奎洽	和順林泰籙
綾州李春馨			
茂長吳咸煥	昌平吳伯源	務安鄭致魯	玉果許 卞
順天趙顯夏			
南平徐一榮	興陽宋啓弼	興德白師徽	靈巖朴履信
淳昌洪秉俊			
古阜孫福孝	扶安金得採	潭陽李達膺	樂安金以鉉

[譯文]

이 글도 취지는 이상의 두 문장과 대체로 동일하고 문법

의 표현만 다르기로 번역을 생략하니 字句를 비교 연구하면 내용을 알기에 진도 있으리라.

樂安多士上書

其辭伏以褒忠獎節國家之盛典闡幽揚善士林之美事也本郡故忠臣襄惠公贊吉洛川君隨之孫而前後事蹟昭載於本郡邑誌又載於國乘及海東功臣錄則其巍勳盛烈班班可考大低襄惠公金先生居在此土經學高明志氣慷慨入孝出悌爲士林之所宗郡稱鄉先生矣當 國初洪武丁丑倭奴入寇列邑奔潰之日公白衣奮然起義旅連戰克捷追奔遂北至於泗川南海而斬馘甚多因還率部民築土城鎮撫三年倭寇畏避屏跡南陲晏然 上嘉之一歲中超遷爲水軍都節制使後加檢校政丞及卒 朝家優賻 贈諡襄惠其偉功盛德可謂光國家澤生民而尚未祭祀崇報者豈不爲慨然處乎本邑既有林忠愍鄭忠莊兩公祠于故合享公議積有年所而自然遷就尚未行芬苾之禮其所士林之抑鬱爲如何哉今太學通與八路疏會所通文連次來到則尤不勝慨歎茲以仰籲伏願城主閣下俯案前後文蹟及士林之公議以爲并享俎豆之禮於兩賢祠宇特奉 朝家褒忠獎節之義千萬幸甚

辛酉正月 日 章甫 柳馨根 金璜 朴最鎮

題辭 襄惠公豐功盛烈若是卓然雖蒙爵諡之 贈尚欠俎豆之薦誠爲慨然特從士論并享兩賢祠極爲專美事

[譯文]

本文도 文意가 前記 내용과 동일함.

襄惠公勝戰碑前面文

正憲大夫三道水軍都節制使檢校政丞金贊吉勝戰碑  
碑在全羅道樂安郡東滅惡山下

丹誓鐵卷

太宗大王與開國定社翊戴佐命諸功臣會盟祝文

維歲次甲申十一月己亥朔十六日甲寅

朝鮮國王臣李芳遠謹率開國定社佐命功臣等敢昭告于

皇天上帝 宗廟社稷山川百 神之靈伏以國之有君臣朋友猶  
家之有父子兄弟當以忠信誠懿固結其心永保終始况乎要質鬼  
神歃血同盟者哉惟我

太上王神武之質獲天人之助而予小子亦克左右必成大業開國  
之初首與勳臣同盟以固忠信不期權奸懷私背盟分朋造黨挾功  
奪嫡謀害我兄弟將危我宗社幸賴

天地宗社陰騰之佑忠賢奮義凶徒自潰以嫡以長扶立上王天倫

是正 宗社再定又與勳臣同結盟好未幾讒邪復背其盟構釁閱  
 墻稱兵作亂親勳將相應機勘定罪人斯得既伏厥辜是則違盟必  
 戮現有徵驗可不懼哉捷予小子繼位之後又與佐命之臣同歃盟  
 血期與保全于茲有年自是三盟之臣協心保我式至今休凡有慶  
 吊問與赴集可謂和洽無間矣尚慮前後不如同盟者其心猶以爲  
 未固也特涓吉日乃會三盟之臣昭告

上下 神祇庚尋前盟以固其志自今既盟之後各自勉勵異體同  
 心忠誠相信恩相好親如骨肉堅如金石殫誠盡忠夾輔王室忘其  
 私憾惟順公道常以安

社稷利國家爲念孜孜協力終始無變永享福祿共保安榮世世子  
 孫無忘今日苟有匿私挾邪踰盟背好潛懷疑貳外親內忌構讒造  
 釁分朋結黨陰圖傾覆誣陷同盟者是欺

天地慢 鬼神背君父也幽則必有神誅明則必有王法非止其身  
 殃及子孫有犯關係 社稷者當以法論亦如前盟所載皆自取其  
 誰之咎

天地神明昭布在上各欽誓言永勉無忽謹以大牢式陳明薦

尚饗 讀畢 上親對銅盤手酌玉盃君臣共歃盟血論功施賞各  
 以次序而封爵焉始自初盟至三盟或有黜陟者被讒故也

太宗大王會盟錄六十六員出秩

同德奮義開國靖難定社佐命功臣義安大君臣李 和

推忠協贊靖難定社院臣寧安君臣李良祐

推忠協贊靖難定社院臣奉安君臣李福根

輸忠翊戴佐命功臣完川君臣李 淑

奮忠仗義同德開國靖難定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上洛府院  
 君臣金士衡

奮忠仗義靖難定社佐命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晉山府院君臣  
河 崙

輸忠翊戴同德佐命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昌寧府院君臣成石  
璘

奮忠仗義同德開國靖難定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  
政丞平壤府院君臣趙 浚

推忠翊戴同德開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政丞安平  
府院君臣李 舒

奮忠仗義靖難定社佐命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丹山府院君臣  
李 茂

奮忠仗義靖難定社佐命孔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漢  
山府院君臣趙英茂

推忠翊戴開國工臣輔國崇祿大夫寧城君臣吳事忠

推忠靖難翊戴佐命功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政丞鐵城君臣  
金贊吉

推忠翊戴開國功臣輔國崇祿大夫青原君臣沈淙

(會盟功臣六十六名中五十二人員移記中略爲徵考丹誓鐵卷及  
丁酉譜)

[譯文]

以上 本文은 太宗大王(李芳遠)이 나라와 社稷을 잘 지  
키고 군신 간에 의리를 중히 하고 동료 간에 신의를 공고  
히 하기로 맹서를 하기 위하여 당시의 문무공신 六十六명  
을 인솔하고 천지신명에 피로서 제사를 올릴 때 쓴 축문

이며 功臣 六十六명 중 본권에 十四명만 등재하니 나머지 五十二명은 丹誓鐵卷 또는 丁酉譜 문헌록 爲參考.

### 太宗大王佐命策勳時賜牌教書

王若曰不遇盤根何以試利器不賴良士無以定國亂維爾等蘊不  
 霸之才秉難奪之節力可以扼虎勇可以兼人變通適用循義忘身  
 服勞王家夙著成績且精射藝發而必中所謂熊虎之士瓜牙之才  
 者也當逆臣朴苞等陰挾宗親煽亂之日 社稷之危間不容髮爾  
 乃不愛軀命以詢大義奮臂而群凶攝伏長呼而大懟克清扶 社  
 稷於累卵之危措國家於泰山之安予用嘉之曰篤不忘仍命有司  
 繪形立閣紀績鐫碑兼土田臧獲銀帶一腰表一套廐馬一匹至可  
 領也嗚呼膺茲異數懋昭乃勳對揚鴻休無替成命故茲教示想宜  
 知悉

### 答進命樂章教書

王若曰蓋聞君臣之間貴於進誠聲樂之道在於象成故九叙之歌  
 禹旣戒之 賡載之歌皐陶亦陳之此虞庭君臣交上警戒以興至治  
 者也迨乎成周其道寢備雅頌之作洋洋至今惟卿等天資明敏學  
 術精微所見之正卓爾其高所守之堅確乎不拔入而陳謨必盡其

規出而施政必極其詳嘗戮力以定社又殫誠而佐命嘉乃丕績  
再與同盟俾長庶僚以輔予治今觀所進觀天庭受明命樂章二  
篇非直歌詠功於陳戒惟予之入觀也臣子職分之當然其受命也  
天子恩數之幸及其在否德皆無可可卿乃作為詩歌以寓勸勉規  
戒之意蓋欲永思其艱以保其成於無窮也思義之誠謁然可嘉矧  
其辭意聲氣之和可以追配古之作者亦可以傳於後世也觀覽之  
際良深慙愧己令有司被之管鉉以以為宴享之樂不忘規戒之辭  
於戲文德舞歌雖可愧事功之不逮五言出納宜益在治忽而罔愆  
遣言指不多及故茲教示想宜知悉

[譯文]

위 두 글 문장 중 사패교서는 太宗大王께서 문무 제신  
에게 공훈을 봉하고 사패한 교서이고 다음 교서는 諸臣에  
게 공훈을 봉한 뒤에 격려한 문장임.

贈右議政諡襄惠公遺蹟碑碣文

贈右議政襄惠公竹崗先生金公은稟山嶽之氣하고兼文武之材  
하여遭逢建國之初하니若可有爲而繼值倭寇之大亂하여纔試  
武略而未有文著하니豈不可惜가公之沒이距今六百餘年이라  
士林이立祠俎豆하여己伸偉烈之追慕하고子姓이收錄零星하  
여將闡遺蹟之潛光할새公之裔洪俊明魯가與樂安鄉章甫林滿

浩朴鎬로聯鞭하고北走三百里하야徵余其文하니固辭不獲免  
 則乃按狀에狀出全齋任文敬公筆이라依狀屬辭에得免冒昧之  
 咎歟아公의諱는贇吉이며竹崗은其號也라系出固城하니祖의  
 諱는隨니以高麗名臣으로有翊社勳하여封洛川君하고考의諱  
 는彌니經業文章이著于當世라官은正憲大夫直提學이며妣는  
 羅州鄭氏開城少尹佶의女니雪齋文靖公可臣의孫이라生公于  
 樂安樂生洞하니卽今竹薪洞이다體貌가壯魁有膽略이라幼而  
 能通經史하고暇習武藝하니其清德智勇이爲時推重이러니洪  
 武丁丑에倭賊이 大舉入寇于沿海諸郡하여至犯樂安界라爲彼  
 所轢에人心이凶凶不可支의라工曰事急矣이라非我면無以靖  
 難이라하고以白衣로倡義旅하여屯于本郡南門外하니賊이不  
 敢近이라近邑이改服公威武하여應檄集結하니公이傾財椎牛  
 하고大饗士卒誓之曰若不退倭酋之侵이면 將至社稷之危하리  
 니爲國臣民者安敢不戮力擊退乎하니諸軍이莫不奮臂力戰이  
 라公이身先突入賊陳하여鏖戰良久에賊勢崩潰하니士卒이氣  
 益壯하여無不一當百이라斬萬餘級하니賊大敗走하다奏捷에  
 藝祖嘉之하사賜以甲冑節鉞玉帶金銀하고特除三道水軍節制  
 使하니公이建白道內要害處에置萬戶하여用漕轉之便하고且  
 設諸島屯田하여以足般軍之食하고以除仰給國庫之弊하다盖  
 公이忠直勤儉하고長於水戰이라軍士有病이면盡心治療하고  
 寒凍者는解衣衣之하며常與士卒로同甘苦하고追寇行船則奮  
 不顧身하니軍士莫不出死力이라所至에必捷하고每受金銀賞  
 賜에悉分與軍士之有功者하고一不私有焉하니其施愛士卒이  
 有如此之厚也라越明年戊寅에倭復入侵하니公이又大戰郡南  
 滅惡山하여追擊南海大破之하고聞于朝에超遷至兵曹判書와

檢校政丞하며錄佐命勳하고封鐵城君하니公之立朝에 正直盡  
 忠하여翊戴王室에裨益이弘多러라辭還本鄉하여率郡民築城  
 하고因鎮撫南服하니倭奴가不敢爲寇라沿邑이賴公以安하다  
 公이築精舍於伯夷山下玉山之上하고扁曰望海堂이라하고退  
 休之暇에被鶴氅하며持羽扇하고遊目騁懷秀竹茂林과朝霞暮  
 月하니眞幽居之勝槩也라本倅慎原節이慕公之功成身퇴하여  
 屠牛設宴하니公이酒酣而歌曰白衣掃塵하고錦衣還鄉이라百  
 里南州오一堂風景이라伯夷清風은感忠臣之高節이요寶嵐明  
 月은迎醉客之豪興이라玉山翠竹은詠君子之遺篇하고金岡暮  
 鍾은勸道僧之佛說이라澄山宿霧는鎖隱士之清襟하고平地浮  
 槎는駕仙子之遐蹤이라하니其高標清逸之韻이足令後人으  
 興感於百世之下也로다晚暮에移居高敞이라가又值倭亂하여  
 督戰于興德沙津浦하여斬獲數十級이러니將星告隕에公이遂  
 殉節하니上이驚悼褒諭하여贈議政府右議政하며諡를襄惠라  
 하니因事有功曰襄이요愛人好與曰惠라禮葬于高敞邑七里甌  
 山下巽坐之原하니朝家之崇報가至矣盡矣라 公所著忠義篇  
 과倡義錄等書는并失於壬辰兵燹하니嗚呼惜哉로다當時襄度  
 李公天佑께서欽歎公之豐功與貞忠曰我東一人이라하니此可  
 謂百世公評也라後生何敢更贅리요是役也에洪俊이始發議하  
 니樂安士林이推進之하고列郡子姓이誠萃而成이나然其特出  
 誠者는相德丙發台均永和也라其誠이可可라因并及之하노라  
 檀紀四千三百十九年丙寅清和節 光山 李玟秀 撰

증 우의정 양해 죽강선생 金公은 山嶽의 기운을 받고 文武의 재주를 겸비하여 我朝 조선 건국의 초기를 만나 큰 공적을 이룰 것 같았었는데 곧 이어서 倭寇의 큰 난을 만나 겨우 武略를 시험 하였을 뿐 文으로 나타남이 있지 아니하였었으니 어찌 애석타 아니하랴 공이 歿한지가 지금으로부터 五, 六백년이 되는 바 士林들이 사당을 세워 享祠하여 이미 위대한 功烈에 대한 추모의 정성을 펴었고 자손들이 또한 흠어진 사실들을 수록하여 장차 묻혀진 유적들을 드러낼새 公의 후예인 洪俊과 明魯가 낙안 고을의 章甫인 林滿浩와 朴文鎬와 더불어 함께 북쪽으로 三百里 길을 달려 나에게 비문을 청하였다. 내 이에 이를 固辭하지 못하고 行狀을 살펴보았더니 公의 행장을 全齋 任文敬公이 지었는지라 이에 행장에 이거하여 글을 짓게 되었는바 혹 뒷날 冒昧하다는 허물을 면하게 될는지 모를 일이다.

公의 휘는 贊吉이며 죽강은 公의 호이다. 고성김씨로서 祖의 휘는 隨니 고려 명신으로 翊社의 공훈이 있어 낙천군에 봉하였고 考의 휘는 彌는 經業과 문장이 당세에 나타났었으며 벼슬이 정헌대부 직제학에 이르렀었다. 그리고 妣는 나주정씨 개성소윤 佺의 여로서 설재문정공 可臣의 손녀인데 公은 낙안 낙생동 즉 지금의 죽신동에서 출생하였다.

公은 체모가 壯魁하고 담력이 있었으며 어려서 經史를 통하고 여가에 武藝를 연습하니 公의 清德과 智勇이 당시의 추증히 여기는 바 되었었다. 洪武 丁丑에 왜적이 沿

海의 여러 군읍을 대거 침략하여 낙안지경에 까지 이르러 고을이 적들에게 유리됨으로써 인심이 흉흉하여 안정되지 못하며 공이 이르기를 사태가 위급하니 내가 아니면 난을 평정치 못하리로다. 하고 白衣로써 義旅를 일으켜 본군의 남문 밖에 주둔하니 사람들이 공의 威武에 감복하고 檄文에 호응하여 집결하니 이에 공이 재산을 기우려 소를 잡고 사졸들을 크게 대접하면서 맹서하여 이르기를 만일에 왜적의 침략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장차 社稷<sup>1</sup> 위대한데 이르게 될 것이니 나라의 臣民이 되는 자 어찌 감히 함을 다하여 적을 격퇴하지 않으랴 하였었다.

이에 諸軍들이 모두들 분발하여 力戰하였고 공은 선봉으로 적진에 돌입하여 한참동안 서로 접전 끝에 적의 세력이 마침내 붕괴하니 사졸들의 기운이 더욱 가성해져 모두들 일당백으로 적의 머리 만여급을 베어 적을 크게 패주시켰다. 승첩을 上奏하매 藝祖께서 가상히 여겨 甲冑와 절월과 玉帶와 금은을 하사하시고 특별히 삼도수군 절제사를 제수하였었다.

공은 이에 조정에 건의하여 도내의 요해처에 만호를 설치하여 漕轉의 편의를 얻게 하고 또한 諸島에 屯田을 설치하여 수군들의 군량미를 자급케 함으로서 국고에서 보급되는 폐단을 제거 하였었다. 대개 공이 총직하며 근검하였고 수전에 능하였었는데 군사들이 병이 들면 마음을 다하여 치료해 주었고 추위에 떨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입던 옷을 벗어 주었음 항상 사졸로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하였었다. 배를 이끌고 적을 추격할 때면 선봉을 당하여

한 몸을 돌보지 않으니 군사들이 모두들 死力을 다하여  
 접전할 때마다 반드시 승첩을 하였고 매양 금은의 상을  
 받을 때면 전공이 있는 군사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 한  
 가지라도 사사로이 소유하지를 아니하였는바 사졸들을 사  
 랑함이 대개 이와 같았었다.

이듬해 무인년에 왜적이 다시 침입하니 公은 또 한 번  
 郡의 남쪽 멸악산에서 크게 접전 끝에 적을 남해로 추격  
 하여 크게 격파하였었는데 이와 같은 전공이 조정에 알려져  
 병조판서와 검교정승으로 승배되고 佐命勳에 책록되었으  
 며 鐵城君에 봉해졌었다. 公은 조정에 있어서는 정직과  
 지극한 충성으로써 왕실을 도와 기여함이 컸었고 사직하  
 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君民들을 인솔하고 성곽을 쌓아  
 남쪽 지방을 鎭撫함으로써 왜적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  
 여 沿海의 고을들이 치안을 유지하게 되었었다.

公은 精舍를 伯夷山 밑 玉山위에 지어 望海堂이라 이름  
 을 하고 退休의 여가에 鶴氅衣를 입고 깃털부채를 손에  
 쥘 채 秀竹과 茂林의 사이에서 아침 안개와 저녁 달빛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는바 진 실로 幽居의 승계가 아닐  
 수 없었다. 본군 邑宰인 慎原節이 公의 功成身退함을 사  
 모하여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니 公은 술이 취하매 노래  
 를 불러 이르기를 백의로 戰塵을 소탕하고 錦衣로 고향에  
 돌아오니 백리의 南州에 一堂의 풍경이네. 伯夷의 청풍  
 은 높고 절개를 느끼게 하고 寶嵐의 밝은 달은 취객의 호  
 탕한 흥취를 맞이해 주네. 玉山의 푸른 대는 公자의 遺  
 篇을 읊게 하고 金崗의 저문 종소리는 道僧의 佛說을 권

장하네. 澄山의 저녁 안개는 습은 선비의 清襟을 잠그게 하고 명지에 뜬 뗏목은 仙子の 먼 발자취를 건네 하였네 라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公의 세속에서 높이 뛰어난 清逸한 운치는 족히 후인으로 하여금 百世의 아래에서 조차 흥감케 함이 있었다.

公은 만년에 고창으로 이거 하였다가 또다시 왜란을 만나 흥덕 사진포에서 독전하여 적의머리 수십 굵을 참획하고 마침내 將星이 떨어져 순절하니 上께서 驚悼하고 褒諭하여 의정부 우의정을 증하고 襄惠의 시호를 하사 하였는바 시호의 뜻인즉 사업으로 인하여 공이 있음을 襄이라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기를 좋아함을 惠라 하는 것이다. 고창읍에서 七里쯤 되는 甌山아래 巽坐의 언덕에 禮葬하니 朝家이 公에 대한 승보의 恩典 가히 지극 하였다고 하겠다. 公이 저술한 바 있는 忠義篇과 倡義錄 등의 책은 모두 임진왜란의 병화에 손실되어 전해지지 아니하였다.

오호라 애석하도다. 당시에 양도 李公天佑께서 公의 정충을 흠탄하여 이르기를 우리 동방에서 제일가는 사람이라 하였었으니 이 말이 바로 公에 대한 公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에 다시 후생이 무슨 贅言을 할 수 있으랴 이번에 役事는 洪俊이 처음에 발의하고 낙안의 士林들이 추진하였으며 列郡의 자손들이 정성을 모아 성취한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정성을 바친 사람이 相德 丙發 台均 永和 인지라 그 정성이 가상하여 아울러 언급을 하였다.

### 禮曹上疏文(原文)

全羅道務安幼學金鼎現謹齋沐再拜上書于

太宗伯閣下伏以生先祖襄惠公諱贊吉系出固城小伽倻國王而衣固城爲貫提學彌之子也在 太祖朝掃平倭亂官至正憲大夫水軍都節制使檢校政丞 贈右議政諡襄惠有二子曰原亮卽生之十三世祖也曰希亮卽金說之十二代祖也

生以宗派世守襄惠公職帖居于務安金說以支派居于高敞務安高敞兩派俱是襄惠公後孫則兩派當同貫固城而壬辰兵燹之後金說之中世以樂安爲貫貫以樂安者蓋因大亂後文獻無徵而以襄惠公生于樂安臆度以爲貫者也生等聞姓苑賢譜開刊之期約以同來而金說先登納單襄惠公姓貫書以樂安而去何其不察事理輕先若是也生之所傳守者樂安邑誌與襄惠公曾孫質通戶口及其八代孫進士弘呂試紙封內而皆貫以固城則文籍之可考準信者莫過於此而生姓貫之爲固城不辨自明也金說之執證者以襄惠公事蹟載於輿地勝覽樂安人物部貫以樂安其昧於義理一至於此乎且襄惠公生于樂安則著於樂安人物部理所固然而勝覽所記只載事業不錄姓貫則金說之指證勝覽以樂安爲襄惠公姓貫萬萬不可而且生之十一代祖弘治戶口則古今相距爲三百三十餘年而金說之據以勝覽則未滿四·五十年生等四百年來姓貫可考之文案戶口爲的乎勝覽爲信乎景烈公鄭地爲河東鄭氏而生於錦城故事載於錦城人物部則各家姓貫之不以勝覽昭

然明白而金說之還貫固城有何不可之事世或有一本分貫而愷  
因封君之號則金說之先無樂安之封而遽自謂樂安人乎大抵支  
孫必法宗孫則金說之先納襄惠公單子而記以樂安人者其無稽  
甚矣茲敢具由仰籲於禮理之下伏願 嚴明題下襄惠公單下樂  
亞二字改以固城俾無忝先之端于萬祈懇之至恭侯

太宗伯閣下處分 戊子九月 日

[譯文]

이 上原文은 戊子年 九月에 務安派의 諱는 鼎現 號 昧  
翁께서 禮曹에 上疏하신 原稿文에서 移越登書한 重要 文  
案이므로 下帳에 二重 記載와 同時에 本原文에도 吐解를  
달고 또한 國文으로 詳細하게 번역하여 文狀이 句節 句節  
이 해석되어 있음으로 下帳에 參照바람.

禮曹上疎文 題辭 (吐解文)

全羅道務安幼學金鼎現이 謹齋沐再拜하고 上書于  
太宗伯閣下伏以生에 先祖襄惠公에 諱는 贊吉이요 系出은 固城  
이니 小伽倻國王而以 固城으로 爲貫하고 提學에 彌之子也 在  
太祖朝하야 掃平倭亂으로 官至 正憲大夫에 水軍都節制使 檢校  
政丞하고 贈右議政하니 諡는 襄惠라 有二子하니 曰 原亮은 卽  
生之十三世祖也 曰 希亮은 卽 金說之十二代祖也 生이 以宗

派로世守襄惠公의職帖을居于務安하고金說은以支派로居于  
 高敞하되務安高敞兩派가俱是襄惠公에後孫則兩派가當同貫  
 固城而로되壬辰兵燹之後에金說之中世以樂安으로爲貫하니  
 貫以樂安者는盖因大亂後에文獻이無徵而라以襄惠公이生于  
 樂安하니臆度으로以爲貫者也라生等이聞姓苑賢譜을開刊之  
 期約하고以同來而金說이先登納單襄惠公에姓貫을書以樂安  
 而去하니何其不察事理로輕先若是也라生之所傳守者樂安邑  
 誌와與襄惠公에曾孫質通戶口와及其八代孫에進士弘呂의試  
 紙가封內而皆貫이以固城則文籍之可考을準信者하니莫過於  
 此而요生에姓貫之爲固城이不辨自明也라金說之執證者가以  
 襄惠公의事蹟이載於輿地勝覽하고樂安人物部하니貫以樂安  
 으로其昧於義理가一至於此乎아且襄惠公이生于樂安則著於  
 樂安人物部에理所固然而勝覽所記에只載事業하고不錄姓貫  
 則金說之指證勝覽하야以樂安으로爲襄惠公에姓貫하니萬萬  
 不可而且라生之十一代祖에弘治戶口則古今相距가爲三百三  
 十餘年이요而金說之據以勝覽則未滿四五十年이니生等이四  
 百年來에姓貫을可考之文案하니戶口爲的乎아勝覽爲信乎아  
 景烈公의鄭地爲河東鄭氏가而生於錦城固로事載於錦城人物  
 部則各家에姓貫之不以勝覽이昭然明白한而金說之還貫固城  
 이有何不可之事리요世或有一本分貫而皆因封君之號則金說  
 之先이無樂安之封而로대遽自謂樂安人乎아大抵支孫이必法  
 宗孫則金說之先納襄惠公의單子를而記以樂安人者는其無稽  
 甚矣라茲敢具由仰籲於禮理之下에伏願嚴明題下는襄惠公單  
 下에樂安二字를改以固城하시와俾無忝先之端于을萬祈懇之  
 至恭俟이로다.

大宗伯閣下處分 一八二八年 九月 日

[譯文]

전라도 무안에 사는 幼學 金鼎現은 삼가서 재계하고 대종백(禮曹判書) 閣下께 재배하고 글을 올리나이다.

엿드려 고하옵건대 生의 先祖이신 襄惠公의 諱 贊吉은 그 系統이 固城小伽倻國王으로부터 나와서 固城으로 貫鄉을 삼았으며 提學인 彌의 子입니다. 우리 太祖朝에 있어서 倭亂을 평정하심으로 벼슬이 정헌대부 수군도절제사 금교정승에 이르렀고 위의정이 증직 되었으며 시호는 襄惠입니다.

두 아들을 두셨는데 맏아들 원량은 바로 生의 十三世 祖요 둘째인 희량은 즉 金說의 十二代祖입니다.

生은 宗派로서 代代로 양혜공의 職帖(辭命書)을 가지고 무안에서 살고 있으며 기멸은 支派로서 고창에 살고 있는데 무안과 고창 兩派가 모두 양혜공의 후손이니 兩派는 다 같이 관향을 고성으로 함이 마땅한데 임진란 兵燹후에 김열이 중간 先代에서 낙안을 관향으로 삼았으니 貫을 낙안으로 삼은 사람은 대개 大亂後(壬辰倭亂)에 문헌이 증거 할 바가 없으므로 인함이라 양혜공이 樂安에서 탄생하셨다고 하여 推測하고 관향을 삼은 것입니다. 生 등이 들으며 姓을 모아서 賢譜를 발간키로 期約하고 때를 같이 하여 와서 김열이 먼저 양혜공의 성관을 낙안으로 기록하여 納單한 것은 지나간 역사가 어떠한지 그 사리를 살피

지 아니하고 경솔히 이 같이 합니다.

생이 전해서 가지고 내려오는 바 낙안 읍지와 양혜공의 증손 질통의 호적이며 또한 八代孫 弘呂 進士 시지내봉 (封彌라 고도하여 科擧 答案紙 右端에 受驗生의 人的事項을 써서 封한 것)이 관향이 고성인데 문적에 기준하여 믿고 상고 할 것이 이것보다 더 明白함이 있으리요. 성관을 고성으로 함이 변론 할 것이 없고 自明한 지라 김열이 증거로 하는 것은 양혜공의 사적이 輿地勝覽의 낙안 인물부에 기재 되었다고 관향을 낙안으로 써 한 것은 그 義理에 어두워서 한갓 이에 그쳤음이었도 또한 양혜공이 낙안에서 나신 즉 낙안 인무부를 보되 이치가 固然하게 승람에 기재된바 다만 사업이 실려 있을 뿐 성곽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김열이 승람에 증거만 가지고 낙안으로써 양혜공의 성관을 함이 한번 한번 이것이 옳치 않습니다.

生의 十一代祖의 弘治年間(成宗十九 ~ 燕山 十一年)의 호적인즉 古今 相距가 三百三十餘年이요 김열이 승람에 증거한 즉 四,五十年 미만이니 生 등이 四百年 두고 성관 문안과 호적을 상고함이 적실하다고 하겠습니까? 승람을 믿겠습니까? 景烈公의 정씨를 處地 河東정씨가 금성에서 난 고로 사적이 금성 인물부에 기재 되었으나 各家에서 성관을 승람으로 써 하지 아니 한 것은 昭然히 明白하니 김열이 고성으로 관향을 돌이킴이 옳치 아니함이 무엇이 있으리요.

世대에 或 一本이 分貫하는 것은 다 봉군의 號호 인함 인즉 김열이 선대의 중간에 낙안에 봉군한 일이 없는데

좇속히 스스로 낙안인 이라고 이르리오. 대저 지손이 반드시 종손을 본 받아야 하는 것인데 김열이 양혜공의 단자를 낙안인으로써 기록하여 先納한 것은 그 심히 살펴서 상고하지 못함이라 이에 모든 事由를 禮理 아래서(禮曹內) 엄하게 밝히시어 題辭를 내려 주시기를 높이 仰請하오며 양혜공의 單子아래 낙안 두 글자를 고성으로 써 고쳐 주시기를 엮드려 바라오며 先祖들로 하여금 욕되지 않도록 천만번 간곡히 빌면서 삼가 공손히 기다리겠습니다.

#### 禮曹批答文

觀此狀辭且考粘呈弘治年間帳籍則貫鄉之爲固城可謂明白無疑而金說之以樂安納單云 者必是未及見此年久信蹟而然是如乎姓貫歸正本曹元不關涉而名家貫鄉之如是異同不無駭異茲以論題以此徃示金說則似無異議

尙事 十月初六日 (禮曹之印十一個處捺印)

#### [譯文]

이 글장과 또한 顯著하게 上모한 狀辭를 觀察할진대 弘治年間(成宗十九年에서 燕山十一年사이) 帳籍인즉 貫鄉이 固城으로 됨이 可히 明白하다고 이를 것이오 의심할 것이 없는데 金說이 樂安으로 써 納單을 云云한 것은 반드시

이에 歷史가 年久한 信蹟을 보는데 미치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하였을 것이오. 모든 姓氏의 關涉를 歸正함에 있어서 本 禮曹로서는 元內 關涉하여 干涉하지 않으나 名家의 關涉이 이같이 되어서 異同함으로 駭異함이 없지 아니하여 禮曹로서도 이에 事情이 怪異하고도 干涉하여 써 論題를 씀이니 이것을 가져다 金說을 보이면 이 事實에 對하여 아무런 異議가 없이 모든 일이 이대로 행사가 잘 될 것이다.

#### 固城金氏高敞派姓貫歸正序跋

嗚呼龍蛇之亂尙何言哉士大夫家文籍之失傳無稽者居多而鄙家貫鄉之一歎尤極甚矣當其湖南蹂躪之日奪身不暇而家傳文蹟豈能藏守雖或藏守亦何保全乎而况長老不在子子播遷無正向而止者適高敞也但知小伽倻國王之裔自樂安而來就考樂安邑誌中十三代祖襄惠公職銜與行蹟昭載而未審以嶽降之地入於人物部錯認以姓貫之鄉在於邑誌中居高敞而貫樂安矣在中年奉玩務安宗氏鼎現世傳文蹟則襄惠公有二子第一諱原亮務安派之先祖也第二諱希亮吾家之先祖也務安派之弘治年間襄惠公之曾孫文川訓導公諱質通戶籍尙在而貫鄉以固城填之文獻之信實於斯徵矣務安派之爲宗孫而自先世傳守之信也高敞派之爲支孫而在中世失傳而然也且在近京中李章九哀集本國

名賢事蹟註錄時營關下來先府君奉襄惠公事蹟貫以樂安矣宗孫鼎現以固城之貫呈書于禮曹題內考弘治年間帳籍則貫鄉之爲固城可爲明白無疑而金說以樂安納單云者必是未及見此年久信蹟而然云節節量度信不信較然矣先府君恒以是慨嘆矣到今修譜捨其樂安之貫而從其固城之貫焉伏惟 僉宗氏垂燭焉崇禎紀元後四丙午十二月下澣 不肖遠孫 相宅 謹識

[譯文]

오호라 龍蛇의 亂을 어찌 말로 하라 士大夫家로서 文籍의 傳함을 잃음이 상고 없는 者 허다하나 우리 宗中 貫鄉의 一款이 더욱 極甚한지라 其湖南躁躍(한 가지 亂의 意)의 때를 당하여 避身의 餘暇도 없는데 傳하여 내려오는 大籍을 어찌 能히 藏守하며 장수 할지라도 또한 어찌 保存하리요. 況次어른이 계시지 아니하고 單身조차 고단하게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 居住한 곳이 高敞이다.

但知 小伽倻王國의 後裔가 樂安으로부터 온 줄만 알고 樂安邑誌를 나아가 상고하니 十三代祖 襄惠公의 직함과 더불어 행적이 明白히 登載되었으나 貫鄉의 내려움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姓貫의 鄉의 邑誌 中에 있느니라.

그를 인정하고 高敞에 居하여 樂安으로 貫한지라 中年에 있어 務安 宗孫 鼎現이 代代로 傳하여 오는 文蹟을 본 즉 襄惠公이 三子가 有하니 第一의 諱는 原亮이니 務安派의 先祖요 第二의 諱는 希亮이니 吾家의 先祖라 務安派의 弘治年間に 襄惠公의 曾孫 文川訓導 諱는 質通이니 戶籍

이 오히려 있고 貫鄉은 固城으로써 있으니 文獻의 信憑이 이에 徵한지라 務安派의 宗孫됨이 先代로부터 傳守한 信標요 高敞派의 支孫됨이 中世에 있어서 失傳한 然故니라.

이에 近京李章九哀集에 本國名賢事蹟을 주錄할 時에 營關下에 先府君이 來하여 襄惠公事蹟을 받들어 貫을 樂安으로써 하고 宗孫 鼎現은 固城을 貫으로서 글을 禮曹에 呈書하니 題內에 弘治年間の 帳籍을 상고한즉 貫鄉이 固城으로 됨이 可히 明白하고 疑心이 없으며 金說이 樂安으로서 納單한 것은 반드시 이 年久의 信蹟을 보는데 미치지 못하여 그러하였느니라. (以上은 禮曹의 判決文임)

節節히 헤아린 것이 信不信이 밝혀짐으로 先府君께서 恒常 이으로써 慨嘆하시더니 이번 修譜에 이르러 樂安의 貫을 捨하고 固城의 貫을 從하오니 엇드려 말씀하건대 僉宗은 垂燭하소서.

### 龜巖公事蹟

公諱貫字汝玉號龜巖姓金氏小伽倻末露王爲鼻祖其都今固城故仍以爲貫奕世簪纓曾祖諱潤華高寧府院君諡貞烈祖諱焮文林郎考諱海龍政堂文學公受業于益齋李齋賢門從遊于牧隱李穡梅溪元松壽以居敬窮理爲入學之方性剛直廉潔不事產業公年十八生進一等李十文科累薦司憲府掌令恭愍辛丑紅巾賊入據京城抄掠州郡壬寅正月公以兵馬使金得培判官與都元帥安

祐都指揮使李芳實巡察使李餘慶摠兵管鄭世雲率兵二十萬進討退屯兜率院公與李餘慶麾下護軍權僖諷探賊勢曰賊之精銳盡聚崇仁門若出其不意攻之可克與僖等率數十騎跛噪奮擊賊衆驚諸將乘之四面夾攻斬賊魁獲元寶以功擢拜右代言同年十月有地震之變王下教求言公與黃瑾諸諫官詣闕論信賞罰重名器斥佛遠佞辭甚峻嚴王見疏怒甚出補東京度僉議柳淑進曰求直言罪言者可乎王怒猶未解越年五月王聞逃臣崔濡叛奔入元謀客本國者將元納德興君卽忠宣王庶子逃奔入元元立爲高麗王于本國散遣宰臣分屯邊境以公爲東北面兵馬使與都指揮使韓方信屯和州永興以備東北矣明年女眞三善三介入寇咸和時經年飢寒兵革連仍着簞自溫斗米換馬軍無戰鬥之心公與韓方信率勵將卒堅保鐵嶺以待 太祖大王回軍二月我 太古大王自西北面引軍還與公及韓方信三面進攻大破賊兵悉復咸和諸州事聞于朝論功進封公固辭不受乞骸歸鄉王下書曰寡人素服嘉績思欲共理授卿宰樞之任幸爲蒼生一顧公不終應命退居高陽龜巖閉門掃却觴詠自娛出處中權始終一節卓有逸民之風凡案蕭然只有六經四子閩洛諸書遠近聞風從學者日踵其門稱公以龜巖先生云爾

[譯文]

公의 諱는 貴이요 字는 汝玉 號는 龜岩이요 姓은 金氏니 小伽倻末露王을 始祖로 하고 그 都邑地가 只今의 固城이라 因하여 貫을 하다. 명문계례로 曾祖 휘는 潤華니 高寧府院君이요 시호는 貞烈이시다. 祖의 휘는 燁이니

문림랑이요考的 휘는 海龍이니 정당문학이시다.

公이 익재 이재현 문인으로 牧隱李穡과 梅溪元松壽를 따라 공경함과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학문의 법을 삼으니 천성이 가직 겸결하여 익재선생의 사랑을 받았다. 공께서 十八세에 生進하고 二十세에 文科를 하고 천을 받아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

공민왕 신축년에 흥건적이 서울에 들어와 주와 근에 노략질을 하였다. 다음해 正月에 공이 병마사가 되어 金得培 判官으로 더불어 도원수 安祐와 도지위사 李芳實 순찰사 李餘慶 총병관 鄭世雲과 병이십만을 거느리고 직격할 때 두소원에 진을 치고 공이 이여경 휘하호군 權僖로 더불어 적정을 탐지하니 적의 정예부대가 거개 崇仁門에 뭍 치거늘 그 뜻하지 않은 바를 틈타서 먼저 그 허한 곳을 공격하면 가히 이긴다 하고 僖등과 함께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북을 요란히 울리며 힘써 적을 공격하니 적군이 놀라는 틈을 타 모든 장수가 사방으로 에워 쳐서 괴수 元寶를 잡으니 이 功으로 右代言에 발탁되었다.

同年 십월에 지진으로 큰 변이 나니 포이 하교하여 기탄없는 말을 하라 하니 공이 黃槿과 모든 간관이 대궐에 나가 상과 벌을 公平히 하고 名器를 중히 여겨 불교를 배척하고 망령됨을 멀리 하라는 진언이 심히 엄준하니 포이 노하여 동경에 나가니 첩의 유숙이 말하기를 바른말을 求하고 말한 사람을 꾸짖음은 옳지 않다 하니 포의 노여움이 오히려 더하더라. 다음해 오월에 포이 도망하였던 신하 최서가 원병을 거느리고 도망하였던 덕흥군을 왕으로

삼고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公으로 동북면 병마사를 삼고 韓方信을 도지휘사를 삼아 和州에 주둔하여 동북을 지키게 하였다.

그 다음해 女眞·三善·三介가 침입하고 咸和地方은 흉년들어 飢寒이 자심하여 쌀 한말과 말(馬)을 바꾸니 軍이 전의를 상실함에 公이 한방신을 쫓아 장졸을 독려하여 철령을 굳게 지켰다.

태조대왕이 서북방으로 군사를 이끌고 와 한방신과 公으로 더불어 삼면을 진공하여 적을 대파하니 咸和地方의 일을 조정에서 듣고 功을 의논하여 벼슬을 높이니 公이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아니하고 귀향하기를 바라니 왕께서 글을 내려 가로되 『과인이 본래 그대 공적을 사모하여 경에게 재상을 책임을 맡겨 창생을 돌보게 하고자 하니 다행히 뜻을 다시한 번 돌려 보라』 하였으되 公은 끝내 듣지 아니하고 물러나 고향땅 구암에 살며 두문불출하고 詩를 읊어 스스로 즐기시니 出世와 勇退가 시종 탁월하여 逸民의 풍도가 있고 阜上의 숙연하여 다만 육경·사자가 놓였으니 원근에서 풍도 있음을 듣고 학문하는 자 날마다 그 門에 들어와 公을 가르쳐 구암선생이라 하였다.

敦睦齋公行狀

公諱麟瑞號敦睦齋固城人小伽倻末露王爲始祖麗朝大臣洛川

君諱隨生諱彌直提學諡良平生諱仁吉我 太宗朝戶曹佐郎  
 贈戶曹參議號草堂生諱震亮副司直於公之高曾祖考也公世襲  
 簪纓天資明敏早讀經傳性情剛毅武藝過人每以孝悌文武自勉  
 世祖朝文科行牙山縣感有治名世祖十二年爲月松浦萬戶見部  
 下誣告遂退居鄉里以聖經賢傳爲果家之子姪與鄉里儒生爲塾  
 其教導淳淳敦睦鄉里章甫稱敦睦齋因以爲號其後累薦顯職不  
 出明 孝宗正德元年壬寅 中祖擁立時從遊幾人參於翊戴而  
 公亦嘗知之事也明年癸卯四月都承旨洪景舟奉傳旨特除承文  
 院提調錄原從一等勳公正冠頓首四拜受旨嘆曰小臣年已老而  
 力已盡就不爲盡忠竭力大恨也數月後卒 朝家褒建祠高敞  
 贈額忠烈祠嗚呼公之行蹟僅僅家譜之載者其子孫無顯者不得  
 先賢下筆之致歟蓋公之狀簡而略然以無謂有之戒如右叙之以  
 俟後之立言君子焉爾  
 後孫 遇秋 謹識

## [譯文]

公의 諱는 麟瑞요 號는 敦睦齋니 固城人이라 小伽倻末  
 露王이 始祖로 고려 때의 大臣 洛川君 휘는 隨字시니 諱  
 彌를 낳으시고 直提學에 시호 良平 휘 仁吉을 낳으시니  
 我太宗때에 호조좌랑을 역임하시고 서거하신 후 증호조참  
 의를 받으시고 호는 草堂 휘 진량을 낳으시니 부사직이  
 니 公의 高祖와 曾祖와 祖와 父親이시다.

公께서 대대로 명문에 태어나 성품이 밝고 민첩하여 어  
 린 시절부터 경전을 읽고 천성이 곧아 무예를 잘하여 호

제와 문무에 힘써 세조 때에 文科에 올라 아산현감에 재임시 어진 이름이 있었다. 세조 十二年에 月松浦만호가 되었던니 부하 사람이 무고로 상관에게 고함을 보고 관직을 버리고 향리에 돌아와 성인의 경서와 현인의 글로써 일과를 삼고 향리와 유생으로 더불어 서당을 하여 가르치고 인도함이 순수하고 돈복하니 향리에 어진이를 돈복채라 부르니 이로써 호를 삼았다. 그 후에 여러 번 현직에 천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으셨다.

명나라 효정 정덕원년에 이조 증조를 받들어 세울 때 문인 몇 사람이 공신의 일에 참여함을 공이 먼저 하셨다. 그 다음해 계묘 四月에 도승지 홍경주가 승문원 제조를 제수한 교지와 원종 一等 훈에 기록한 훈장을 전하니 공이 예복을 갖추고 머리를 조아려 사배하고 교지를 받아 탄식하여 曰 소신이 나이 이미 늙고 근력이 이미 다하여 나아가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큰 한이라 하시더니 두달후에 서거하셨다. 나라에서 포창하여 사우를 고창에 세우고 충렬사라 사액하고 관에서 제사를 지냈다.

오호라 공이 행적이 근근히 가보에 있을 뿐이니 자손이 현명한자 없어 선현에 글을 얻지 못한 탓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건대 공께서 행적이 간략하고 약한듯하나 그러나 없는 것으로써 있다고 하지 말라는 경계를 쫓아 右와 같이 기재하여 후일에 좋은 글로 군자를 기다리노라.

### 遯齋公事蹟

公諱 明號遯齋生而雋里幼有至性事親極孝才藝過人七歲入小學能遵師訓服膺勿失讀至敬身篇端跪曰敬一字是做人底樣子丈席奇之曰汝當爲大儒十歲通論語孝經等書至言忠信行篤敬之訓再三圭復斂膝而坐曰苟不如是何以爲人先輩歎美之曰齠齡意見無里長者里日當爲偉器及長安貧樂道不工科業喫緊經學行義文章爲士林師表內而訓子弟外而教生徒述聖學要覽二卷惇惇教諭成就人才作家庭訓十條惓惓訓勉化養子侄皆可爲後世法其家訓十條一曰秉心以正二曰立身以敬三曰事親以誠四曰奉祀以禮五曰語人以信六曰出聲以和七曰處事以爲八曰待人以恕九曰接賓以厚十曰用財以節以是爲日用之常一門之內莫不服訓能盡孝悌之道爲三南法家人稱之曰公誠孝似徐節孝行義同毛義教訓等胡安定行義文章昇聞于朝 嘉靖二年中廟朝除文川訓導誘進後學爲善士者甚衆後三年除任實縣監辭不赴職末年寓趣溪山頤養精神遂爲四韻詩曰半世無心鷓鴣列殘齡有約鶴鳧洲箇中剩得江湖樂富貴在天豈妄求四韻逸半又題浴沂圖曰三月和風一氣新從容起對聖師前吾生恨晚千載下未伴雩壇詠歸人其他從遊諸賢贈答之詩風月邊吟詠之篇兵火中失傳未能記載惜乎公之所居卽先府君府使公卜居之舊基也因構精舍三間號曰遯齋大江抱村而東流月岳矗天而南對沙浦歸帆月夕之漁歌可聽石亭秀林烟朝之勝狀可觀讀書之暇凭軒靜坐騁懷烟霞遊目溪山足以暢叙幽情飲酒微醺按瑟而歌曰人間當貴是南柯之一夢湖上崗巒信幽軒之佳賞山高水長子陵之清趣可尚雨細風斜志和之豪興庶追笑彼榮利之客趨趨於貴

門之下樂此遺逸之民偃仰於幽廬之中從吾所好何求於人貴其自適不願乎仙遂作遯齋記及卒 贈司憲府持平三南章甫聞公之卒莫不奔走而痛哭哀輓致尊皆有吾輩安仰之歎京師群賢競致慰狀優賻公之所述聖學要覽家訓遺篇失傳於壬辰兵火中嗚呼惜哉

後孫 鼎現 謹識

[譯文]

공의 휘는 明 字는 文素 號는 遯齋시니 태어나시며 남보다 특별한 지성으로써 부모를 섬기고 재주가 뛰어나 七세에 스승의 가르침을 잘 복종하고 경신장을 배운 뒤에 몸가짐을 더욱 정직하게 하니 선생이 귀엽게 여기시어 너는 훗날에 큰 선비가 되리라 하였다. 열 살에는 논어와 효경등을 재삼 재독하고 이 글을 아니 배우고 어찌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으랴 하니 선배들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長者들도 이에 따를 수 없으니 후일에 큰 그릇이 될 것이라 하더니 이미 자라서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고 正道를 즐겨 경서를 독실이 읽어 士林의 표본이 되었다.

子弟와 생도들에 성학요람을 가르쳐 인재를 배출하고 가훈 열 가지 조항을 지어 그 집에 법도로 삼으니 첫째 마음을 바르게 하고 둘째 몸을 공경하고 셋째 부모를 잘 섬기고 넷째 제사는 예로써 받들고 다섯째 말은 믿음으로

하고 여섯째 음성은 순하게 하고 일곱째는 일을 의리로 하고 여덟째는 사람을 용서하고 아홉째는 손님을 후히 대접하고 열째는 재물을 절약하라 하고 이것을 실행하니 三南에 法家가 되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의 효성과 의리는 예사람 못지않고 교훈은 胡安定과 비교된다는 소문이 조정에 들어가니 본조 中宗께서 文川 고을에 훈도를 삼으시니 후진을 잘 가르쳐 많은 선비를 배출하다. 삼년 뒤에 임실현감을 임명 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침치 않으시고 말년에 산천의 자연을 취미삼아 정신을 수양하며 詩文을 많이 남기셨으니 그 중에서 두어 글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半世無心鶴鷺列이요 殘齡有約鶴鳧洲라 箇中剩得江湖樂이요 富貴在天豈妄求라』 다음은 『三月和風一氣新하니 從容起對聖師前이라 吾生恨晚千載下하니 未伴零壇詠歸人이라』 기타 저술한 글이 난리로 인하여 분실되어 후세에 전할 수 없으니 슬프다.

공이 사시던 집은 부친 府使公의 옛터다. 깨끗한 집 세칸을 지어 이름하여 돈재라 하니 큰 강이 마음을 안고 동으로 흐르며 하늘을 찌를듯한 산은 남방에 있고 沙浦에 돌아가는 돛대는 달밤에 어부의 노래를 듣고 석정에 울창한 수풀은 아침 연기에 경치가 좋다. 글 읽고 마루에 고요히 앉아 회포를 뜯 구름에 보내고 시내와 산 좋은 경치를 만족히 하여 그윽한 정을 펴고 술을 마셔 훈훈할 즈음 거문고를 타고 노래하여 가로되 인간 부귀는 南柯一夢이요 호숫가에 높은 산은 진실로 그윽한 아름다운 경치다.

산이 높고 물이 깊음은 子陵의 맑은 취미를 가상하고 가는 비 빛긴 바람은 뜻이 흥왕하여 호걸을 거의 쫓을지 로다. 우습다. 저 영리에 손들은 귀문아래 드나들고 자연 속에 즐기는 백성은 오막살이 가운데 누워 쫓아하는 바를 쫓으니 타인에게서 무엇을 바랄소냐. 스스로 하는 일을 귀히 여길 뿐이요 신선되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것이 돈재 기문이다. 서거하신 뒤에 사헌부지평을 증직 받으니 三南 여러분들이 듣고 칭송하여 조상하지 않은 이 없었고 서울에 있는 어진이들도 많은 조상과 부의를 보내어 장사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 參議公事蹟

公諱世應字國良襄惠公四世孫生于高陽楮田村天姿剛毅氣岸豪邁才智過人能承祖武人稱之曰襄惠公可謂有孫明於經學每以忠孝自勉上而定省之誠下而教訓之方能盡其道皆可爲士夫家儀範 世廟朝登科第丁丑宰藍浦越十年丙戌都屯串李施愛滿注亂人情恟恟公有敵愾之心上啓于朝因發府兵牛酒大饗誓于師曰嗟汝有衆明聽誓言余分憂任職 國恩罔極蠢茲凶賊敢寇大邦一乃心力討此凶賊有違余言爰及于誅諸軍莫不畏服於是公躬環甲冑直突賊陳勢若迅雷一軍齊奮極力討賊以一當百斬首數千級餘賊遠遁不敢復犯奏捷 天朝上嘉之特加賞賜伊後歷典數郡治平常爲三南第一及卒 贈戶曹參議事載靖難一

等功臣錄遂爲之贊曰倚歟美哉襄惠公討強賊樹大勳才未滿百歲而公之孫參議公繼先烈掃凶鋒都菴之功庶無愧於滅惡之勳有是祖有是孫豈非上天之眷佑我東而降此賢輔於世將之家乎祈山綿竹之戰孔明家祖孫之忠勳也河北河東之戰光弼門父子勳業而今此滅惡都菴之戰襄惠公祖孫之勳勞則孔明之世業罔專美於漢代光弼之世烈可復見於吾東矣

崇禎紀元後四丙午十二月下澣 族孫 復鉉 謹撰

[譯文]

公의 諱는 世應 字는 國良이시니 襄惠公의 四世孫이고 高陽郡 楮田村에서 탄생하시니 기골이 장대하고 재주가 뛰어나 능히 先祖의 무예를 이으니 타인이 칭하여 양혜공은 가히 후손을 잘 두었다 하더라. 또한 경학에 밝아 충효로써 스스로 일을 삼아 위로 부모 섬김을 정성으로 하고 아래로 후손 가르침을 道로서 하니 사대부 집에 모범이었던다. 세조 때 무과에 오르고 丁丑년에 남포수령을 지내고 十年 후에 이시애의 난에 인심이 흉흉할 때 공이 자원하여 조정에 글을 올리고 군사를 이끌어 반적을 토벌하고 특진을 받아 여러 고을에 수령을 역임하였으며 서거 후 호조참의를 증직 받으시고 정난 공신록에 기록되었다.

찬사에 가로되 아름답구나. 양혜공이 적을 토벌하여 공을 세운지 백년이 못되어 후손 참의공이 또 반적을 격퇴하였으니 공을 멸악산에서 세운 것에 못지않으니 그 조상에 그 자손은 하늘이 우리 동방을 도와 어진이를 나게

하니 祈山 의 錦竹전쟁에서 공명의 자손 충훈과 하북 하동전쟁에서 光弼의 나고 광필의 세열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보겠도다.

### 聾啞公事蹟

公諱璜自號聾啞以卓行廉潔鄉人屢薦爲儒林領袖萬歷五年呈辭自退築室栢灘隱居教授多植松竹鄉人號曰竹林先生自銘曰日三省吾身事親有未誠歟修身有未盡歟待人有未信歟盖公實行卓異文章富瞻以孝友貽子孫家法淳厚以詩禮獎後學鄉鄰矜式遠近莫不推仰非但鄉里之屢薦中年道內公議齊發連呈營門將至啓剡矣于時混竿之弊許多故未得蒙褒士林慨惜子孫孤窮終歸泯沒後人景慕之歎尚今未歇爲后孫者寃鬱如何哉今當修譜之日以實蹟舉槩追錄於刊牒中昭昭詳載勿遺後悔是所欽望

### [譯文]

공의 諱는 璜이요 號는 농아니 귀먹고 병어리 된다는 뜻으로 스스로 호를 지으시고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신중히 하며 행실이 탁월하고 결백하니 향리 사람들이 천거하여 유림에 영수가 되셨다. 선조 정축년에 영수를 사퇴하고 백탄골에 집을 지으시고 은거하여 후생을 가르치며 소나

무와 대나무를 많이 심으니 향리 사람들이 죽림선생이라 하더라.

하루에 내 몸을 세 번씩이나 살펴본다 하고 부모를 섬김에 성의를 다하였는가가 그 하나요. 몸을 닦으며 공정하지 않음이 있는가가 그 둘째요 사람들을 대하여 신용치 못함이 있는가가 그 셋째다 하니 이것은 공의 행실이 탁월하시고 문장이 도내 일원에 어진 이름과 전파됨으로 그 후에 후손들이 수보하는 날에 공의 실록을 밝혀 후손들에게 전하니 자손 된 사람들은 잘 읽어서 공의 뜻을 따르기 바라노라.

### 敬齋公事蹟

公姓金氏諱成遜字成日號敬齋系出小伽倻末露王后諱隨高麗朝以原任大臣有翊社勳封洛川君生諱彌經業文章顯名當世官平安伯正憲大夫直提學高祖諱贊吉入我朝開國元勳官兵曹判書檢校政丞 贈右議政諡襄惠曾祖諱原亮官吏曹正郎祖諱進卿國子進士考諱慶賢咸吉道巡撫中軍妣淑人陽川許氏埴女公生于全羅道高敞德井面京方洞公天姿英邁氣像魁偉才力過人於世之榮辱利害得喪怡然無所動其心性至孝事親服勤左右愛敬俱至逮至世祖朝咸吉道李施愛其弟施合稱以魯山復位舉兵作亂咸興以北望風響應殺其守令互相侵伐人情洶洶上憂之乃命康純魚有沼南怡等爲大將以征之公之大人爲巡撫中軍從

征焉時公以邈然一書生兼習弓馬之藝矣不忍其親之遠赴危地乃陪從而往左右宣力躬冒矢石大破賊于洪原北青間時又有明朝建州衛李滿住之叛明乃徵兵于我國魚有沼南怡等仍奉命往援公之父子亦從往到于建州挾擊大破之大輝兵威而還此役公父子之功最多故上嘉其績特超資除嘉善大夫中樞府事伊後后孫仍居鏡城焉配貞夫人全州李氏重輝女舉一男崇杰行淑陵參奉嗚呼爲國家者崇德尚功使一世皆感奮興起敵愾捍患爲子孫者是其祖先有德有功當請于 朝顯于當世理也公之事親愛敬備至能盡其職且公之父子奮起遐裔能不顧身冒險赴難以解丙枕之憂輝武揚威以致異域之服其忠孝之素養于中者以爲何如哉朝家當旋其至行而褒其宏勳顯于世而蔭其後使人有所咸發徒以卿列爲塞望焉子孫者以遐陬窮居不能籲于 朝而蒙其恩褒至德盛績泯然無聞于世無徵于後豈非可慨也哉其後孫奎泰來訪示公事行一通不佞竊有感于中因書此于末而還焉  
丙寅陽月 日 前進士嘉林 趙玄植 謹識

[譯文]

公의 姓은 金이요 諱는 성손 字는 성일 號는 경재니 小伽倻末露王으로 이어 내려왔다. 諱는 隨는 高麗朝에 원 임대신으로 익사훈이 있어 낙천군에 봉하고 휘 彌를 낳으시니 경업과 문장이 당세에 이름났으며 平安伯에 직제학을 지내고 고조의 휘는 빈길이니 이조에 들어와 병조판서에 검교정승을 지내고 우의정을 증직 받으시니 시호는 양혜요 증조의 휘는 원량이니 관이 이조정랑을 지내고 조의

휘는 진경이니 진사요 부의 휘는 경현이니 함길도 순무증  
군을 지냈다.

어머니는 양천허씨니 식의 女라 공이 전라도 고창군 덕  
정면 경방동에서 태어나 천자가 영매하고 기상이 준수하  
고 재력이 과인하여 세간에 부귀와 영욕에 동심됨이 없고  
천성이 지극하여 효도로 부모를 섬기고 좌우를 사랑하고  
공경함이 또한 지극하더니 세조 때에 함경도에서 이시애  
가 그의 아우 시합과 단종을 복귀한다 하고 군사를 일으  
켜 작난을 하니 함흥 이북이 바람에 쏠리고 소리에 응하  
여 그 수령을 죽이고 서로 죽이니 인심이 흉흉하여 왕게  
서 근심하여 강순·어유소·나미 세 사람으로 대장을 삼  
아 정별케 하니 공의 부친이 순무증군이 되어 종군케 되  
었다.

그 때 공이 소년의 일개 서생으로 활과 말의 재조를 익  
혔더니 그 부친이 멀리 위치에 부임함을 염려하여 모시고  
쫓아가 좌우로 협력하여 흥원지방과 북청지방에서 크게  
파하여 승전하였다. 다시 국명을 받아 대군을 돌려 이만  
주의 잔당을 섬멸할 때에 공의 부자가 공적이 큼으로 상  
께서 아름답게 여겨 특히 가선대부에 증추부사를 주셨다.  
그 자손들이 함경도 경성에서 살게 되었다. 配에는 정부  
인 전주이씨 증엽의 따님이라 한 아들을 낳으니 휘는 승  
결이니 숙능참봉을 지냈다.

오호라 위국한 사람의 덕을 높이고 공을 찬양함은 세상  
에서 자국정신을 높이고 위환을 막고자 하는 뜻이요 자손  
된 사람은 그 선조의 덕과 공이 있으면 나라에 칭하여 세

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라 공이 사친하는 도리 또한 극진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위험한 땅에 이르러 나라에 근심을 덜고 공을 세웠으니 그의 충성과 효는 본 천성이 이러함인가? 나라에서 마땅히 그의 지극한 행적과 그의 큰 훈을 포상하여 후세에 나타나게 하여서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함이 있어 본받게 함이라 자손된 사람이면 모퉁이 궁한메골에 살아 능히 나라에 전달치 못하여 포상함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알지 못하게 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라. 그의 후손 유래가 찾아와 공의 행적 일통을 보이니 잘하지 못한 내가 느낀바 있어 이와 같이 써서 돌려주노라.

### 綠野堂進士公事蹟

公諱彥珪隆慶二年 宣祖元年戊辰中司馬事親至孝友愛隆篤治家有法閨閣之內嚴若朝廷經學高明以行義見稱精神灑落識度過人居於三亭子構堂於龜島以詩酒托興逮夫壬辰亂不能赴亂未成殉國之義者年過六十衰癯日甚氣息奄奄行義猶存而終未攄衛 國之忠亦未遂平生功名自期之志豈不痛心哉晚年以詩酒自娛詠其綠野堂詩是乃發憤護慰之詩也且其行狀及奉先祀戒後孫之文極爲嚴裁而其於士林相和詩集積成卷#矣宗家失火之後如是卓異之行手澤無傳嗚呼哀哉碑銘云述夫公蹟何明倚歎小成堂并綠野晚節如擎覽載輿誌貫由固城孝慈性品灑落

精神年代符契昭載詳明文集隨燼不朽者名貽基尚在龜島誰爭  
十室零裔新修舊塋羹墻寓喝百代猶榮奔浪砥屹疾風草勁如論  
進退誰弟誰兄

[譯文]

公의 諱는 彦珪요 隆慶二年(선조원년무진)에 진사 시험에 합격하고 부모님께 지극히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독실이 하여 집안에 법도가 있어 조정과 같이 엄격하고 학문에 밝아 의리로써 행하고 정신이 총명하여 식견이 남보다 넓어 혹 정자에 있고 혹은 집에서 시를 지어 낙을 삼더니 임진왜란을 당하여 능히 나아가 순국에 의를 이루지 못함은 나이 육십을 넘어 기운이 점점 쇠진하니 큰마음은 있으나 나라를 위하여 적을 몰아 공을 세우지 못하니 사람이 평생에 시기를 잘 얻고 못 얻음이 공을 세우고 못 세우는데 있도다. 말년에 녹야당에서 시와 글을 지어 읊고 읽으니 사람들이 즐겨 읽고 배웠다. 우리나라에 병화도 많았지만 초가집 생활 수백 년에 실화도 많아 문헌을 전하지 못하니 자손된 사람으로서 한심치 않으랴.

月村公事蹟 85

公諱仕弘號月村我 朝開國忠臣襄惠公之八世孫也生于固城

月里山下事親極孝喫緊經學年二十兼學兵書器宇寬弘識見明  
 敏文武全才每有襄惠公之風逮于 宣廟朝壬辰五月倭船數十  
 餘隻下陵於本縣南門外突入城中士女奔竄其鋒不可當其時太  
 守趙凝道與百餘人避亂自卯島甲午春又遷加龍浦公與其兄彥  
 弘倡率城中散卒數百人突入賊陳奪倭砲數十柄斬首百餘級賊  
 兵奔走退陳於邑南佛巖山築土爲城公堅守城中絕其糧道而過  
 數日賊逃走丁酉三月初九日倭奴又復入寇公與本倅趙凝道守  
 城將朴愛生追至橘子島戰船破敗公僅得免禍而還戊戌十二  
 月初十日水陸天兵合勢大破倭奴萬歷三十三年四月十六日都承  
 旨申欽敬奉 傳旨特除守門將錄二等勳傳曰宣武原從功臣一  
 等乙良各加一資子孫承蔭宥及後世父母封爵二等乙良各加一  
 資子孫承蔭宥及後世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其中無子孫者  
 兄弟婿侄中從自願加散官一資三等乙良各加一資子承孫蔭宥  
 及後世爲乎矣各等通訓以上乙良子孫兄弟甥侄女婿中一人從  
 自願加散官一資物故人乙良各依本等施行爲祿各追贈一資爲  
 齊犯罪作散人乙良并於本品叙用爲齊永不叙用人乙良許通仕  
 路爲齊職牒收取人乙良并只還給爲齊妻子乙良限品安徐爲齊  
 公私賤口乙良爲只免賤爲齊係十逆黨及因逆賤公私間事被罪  
 者乙良復爵一欸舉行安徐只爲下吏曹爲良如教 宣武功臣都  
 監 堂上推忠奮義平亂忠 貞亮效節竭誠協策扈 聖功臣大  
 匡輔國崇祿大夫鰲城府院君李恒福 堂上忠勤貞亮效節協策  
 扈 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陵府院君李好閔 堂上忠勤貞亮  
 效節協策扈 聖功臣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義禁府事錦溪  
 君朴東亮 堂上效忠伏羲宣武 臣嘉善大夫戶曹參判吉昌君  
 權校

## [譯文]

공의 휘는 仕弘이요 호는 月村이니 조선개국공신 양혜공의 팔대손이라 고성군 월성리에서 태어나 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경전을 독실히 읽으며 겸하여 병서를 읽어 식견이 명민하여 문무에 재주가 있으니 양혜공이 기세가 미쳤도다. 선조임진년 오월에 왜 전선 수십 척을 본군 남문밖에 하륙하여 성증으로 침입하니 태수 趙凝道가 적의 날카로운 공격을 당하지 못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자란도로 피난하였다가 갑오년 봄에 또 다시 가용포로 옮기니 공이 그 형 彦弘과 더불어 성증에서 흩어진 병사 수백을 모아 적진에 돌입하여 왜포 수십 정을 빼앗고 백여 명을 죽이니 적이 도망을 하다 정유 삼월에 다시 들어오니 공이 本倅 趙凝道와 수성장 朴愛生과 더불어 橘子島까지 적을 쫓다가 전선이 무너져 공이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무술년 십이월에 수륙 천병과 합세하여 왜군을 크게 大破시켰다. 선조 을사년 四月 十六일에 도승지 申欽이 전지를 받들어 전하니 수문장직을 내리고 二等훈에 기록하다.

《以下 未譯》

振威將軍金公墓表(月村公)

公諱仕弘字再仁號月村吾固城之金自小伽倻 末露王爲始歷  
 羅麗文武之才盛多而入朝鮮有諱贊吉號竹崗 藝祖洪武丁丑  
 以白衣起旅討倭奏捷累次 上歎賞超遷兵曹判書 贈右議政  
 諡襄惠封鐵城君再傳諱益卿號滄江行礪山府使又再傳諱貴赫  
 燕山朝以通德郎見時政之非棄官下鄉卽固城落葉歸根朝耕暮  
 讀自足而終於公會祖也祖諱雄東 贈通政大夫考諱汝弼龍驤  
 衛副護軍妣令人盆城金氏汝順外祖也公二棣之季生于 宣祖  
 癸酉性勤儉淳厚多讀經傳又讀六三書嘗有超衆諸氣像當龍巳  
 之亂賊船十餘隻到城外上陵城遂難固公兄弟奮然而起與士民  
 數百人助本倅趙凝道死力守城敵終不敢入退屯于海上山頂窺  
 於我情此時公出計議于趙倅乘夜以火先攻敵船敵大驚於是公  
 要處伏兵一時電擊而斬首百餘得火砲數十門生捕數十名而奏  
 捷 上嘉之褒賞除振威將軍守門將其兄彥弘亦褒賞除宣略將  
 軍守門將奉指使都承旨象村申欽來傳配南平崔氏永南其考也  
 生丁亥而無育兄彥弘次子崗粹立后公墓固城之天王山亥坐雙  
 封公以襄惠公之八世孫智略勇猛非人人所及行功蹟彷彿乎先  
 祖則世之有祖有孫之稱豈其虛哉日十一世孫大權(聖大)而不  
 遠千里訪余於東海之濱託公阡道之文余老衰不文辭而不得乃  
 考事蹟而略記如右以俟立言君子云爾

隆熙紀元後再庚辰季冬庚午 傍裔孫 永和 謹識

[譯文]

公의 휘는 사홍이고 자는 재인이요 호는 월촌이시니 고  
 성김씨가 소가야 말로왕으로부터 시조로 하여 신라와 고

려를 거쳐 지나오며 문무의 인재가 풍성하게 많이 나섰고 우리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휘는 윤길 호는 죽강이 태조 홍무 정축년에 왜적이 침입하여 백의로써 군대를 일으켜 왜적을 물리치고 공적을 여러 차례 임금께 상주하니 왕이 탄상하여 병조판서에 올리고 우의정을 증직 받고 시호를 양혜라 하고 철성군에 봉했다. 二대를 전해 내려와서 휘는 익경, 호는 창강은 여산부사를 지내셨고 또 二대를 전해오다가 휘 귀혁은 연산군조에 통덕랑이 되셨다가 정사가 그릇됨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하향하시니 곧 고성 땅이라 낙엽이 떨어져서 그 뿌리로 돌아감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 갈고 저녁에 돌아와서 글 읽는 것을 스스로 족하게 여기고 생을 마치시니 공의 증조이시다. 할아버지의 휘는 윤동이니 통정대부를 증직 받고 아버지의 휘는 여필이니 용양위 부호군이라 어머니는 영인 분성김씨요 여순은 그의 외할아버지다.

공이 들췌의 끝으로 선조 계유년에 나시니 천성이 부지런하고 근검하고 순후하여서 성현(聖賢)의 경전을 많이 읽으시고 또한 육도(六度)와 삼략(三略)의 병서를 읽어 일찍이 보통사람보다 기상이 초월하더니 임진왜란을 당하여 적함 십여 척이 성 밖에 와서 상륙하니 성을 굳게 지키기 어려운지라 공의 형제가 분연히 일어나서 사서민(士庶民) 수백 인으로 더불어 본진이 성장 조응도를 도와 사력을 다하여 성을 지키니 성을 지키니 왜적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마침내 물러나서 행상산정에 진을 치고 우리의 정세를 살필 때에 공이 조응도를 도와 의논하여 계책

을 내어 야간을 이용하여 화공으로 먼저 적함을 치니 왜 적들이 크게 놀라는 지라 공이 요소마다 북병을 배치하였다가 일시에 일어나 우레와 같이 쳐서 적의 머리 백여 수를 베고 화포 수십 문을 획득하고 수십 명을 생포하여 임금께 아뢰니 왕이 가히 여겨 포상하고 선략장군 수문장에 제수하실 때 도승지 호는 상촌 신희으로 하여금 교지를 받들어 와서 전하니라. 배위는 영인(令人) 남평최씨요 영남은 그의 아버지라 정해년에 나시고 자식이 없어 兄彦弘의 둘째아들 崗粹가 뒤를 이었다.

공의 묘는 고성땅 천왕산하 해좌 쌍봉이라 공이 양혜공의 八世손으로 지략과 용맹이 남보다 뛰어나 여러 사람들이 다 미치지 못하는 바라 행하신 공적이 先祖를 망블케 하였은즉 세상에 그런 조상님이 계시고 그런 후손이 있다고 일컫는 것을 어찌 그 허사라고 하리요. 어느 날 十一세 손자 대권(성대)이 천리 길을 멀다 아니하고 동해 물가에 내 집을 찾아와서 공의 천도(千道)의 비문을 부탁함에 내가 늙고 쇠잔하여 그를 못한다고 사양하였으나 부득이하여 마침내 공께 사적의 역사를 상고하여 오른쪽과 같이 기록하고 이로써 입증하여 줄 군자를 기다리노라.

### 松軒公事蹟

公諱弘呂號松軒襄惠公九世孫公性慷慨有大節從去樞齋崔瑍

受業自幼讀書必端跪不與群兒戲狎及長喫緊經學索其精妙每以忠孝自勉操行堅確文章夙著與松梁應鼎爲道義之交講論經義 天啓四年甲子 仁祖朝中進士科常有戀君之心每誦朱夫子正爾滄洲趣難忘魏闕心之詩恨不得進補褒職又誦杜工部葵藿傾太陽物性固難奪之句曰丈夫秉心當如是矣性愛松植松於軒側作松軒記其略曰松植物也其性直直以立身君子以之其節堅堅以立志君子以之觀其歲寒之姿而君子秉心終始不渝覽其晚翠之色而君子爲德貴其漸進孔夫子范魯公有取於松者良以是夫余坐松軒之上及其清陰滿座而鄙心自消條風灑頂而襟懷忽爽松之於人固爲異類而其有助於余則反有勝於君子人歟嶺上之松遠矣遠之則無以覽其性而立余之身澗邊之松外也外之則無以看其範而立余之志是以近之而植於庭畔親之而移於門側偃仰之際不離於目動靜之間恒留於觀時時焉察其性每每焉省其節以物之君子爲余之柯則松耶人耶物吾同歸廉溪之愛蓮與我同志而淵明之愛菊獨何意歟余惟愛松而遂爲之記因以自號曰松軒甲子聞迺變有敵慨之心倡義募兵至咸平加里驛聞靖難而還師松川相善友詩云學術冉閔繼文章屈宋傳崢嶸扶正氣勘亂素心全又值丙子變倡募義旅數百兵糧百餘石將西上勤王至水原邁虜陳衝突力戰殺數百馳入南漢之際卒以和議慟哭歸鄉書崇禎日月四字於座杜門以終事載湖南節義錄司馬榜

[譯文]

공의 휘는 弘呂요 호는 송헌 양혜공의 구세손입니다.  
일찍이 榘齋·崔埶과 수업할 제 글 읽기를 독실이 하여

문장이 능함으로 松川 양응정과 더불어 사이가 돈독하고 경과 의를 강논하시다. 인조 갑자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항상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하여 주부자께서 滄洲의 대궐을 잊지 못하여 읊은 시를 외우며 매양 송나라 때 여섯 어진이의 글을 읽고 또한 杜氏와 蔡氏의 글을 외워 가로되 장부의 마음가짐이 마땅히 이와 같이 할지로다.

소나무를 사랑하여 마루 언덕에 많이 심고 기문을 지으니 대략 그 말에 소나무는 식물인데 그 천성이 곧고 곧으니 입신하는 굳자가 그 곧음을 본받아 몸을 바르게 하고 그 절개가 굳으니 그 굳은 걸 본받아 그 뜻을 세우고 그 빛이 푸르고 푸르니 그 푸른 덕을 본받아 마음에 덕을 삼아 공자님이 范魯공에 술을 사랑함이 옳다 하시니 홀연히 맑아지니 술과 사람이 종류가 달라도 나를 벗어나 도리어 도움이 크도다.

저 높은 봉의 소나무는 멀어서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몸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없고 저 시냇가 술은 밖에 있어 내 뜻 세우는데 도움이 없으니 뜰 가에 심고 문 앞에 옮겨 놓아 일어날 즈음에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고 들 때에 항상 어루만져 때때로 그 천성을 살피고 나날이 그 정절을 사모하니 그 물건이 성스러움이 나의 법칙이 되니 소나무가 나 같구나. 周濂溪의 연꽃 사랑함과 도련명의 국화 사랑함이 무슨 뜻인가? 나는 소나무를 사랑하노라. 記文을 지어서 스스로 호하여 왈 송헌이라 하다.

甲子年 (1624년)에 이괄이 반란(仁祖二年 평안도 도병마사 겸 부원수인 이괄이 공신 선정에 불만을 품고 일으

킨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적개심으로 창의병(왕과 나라에 변란이 있을 때 의병을 일으킴)을 모집하여 함평 가리역마에 도착했으나 난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스승 송천공과 서로 우의를 돈독하게 나누며 지냈다.

詩에 이르기를 학술이 약하여 민망하게 이어지고 문장은 중극의 높고 깊음보다는 못하나 바른 기운으로 혼란스러움을 다스려 오로지 마음을 결백하게 했으며 또 병자호란(1636년 청나라 태종의 침략)이 일어나자 창의병 수백명과 군량미 백여 석을 모아 장차 근왕(왕과 나라에 우환 있을 때에 돕는 일)을 위해 서쪽으로 북상도중 수원에서 적진을 지나다가 충돌하여 힘써 싸워 적 수백 명을 죽이고 달려가 남한산성 근처에 도착했으나 화친(삼전도에서 항복으로 청의 신하가 됨)으로 병자호란이 끝났음을 알고 통곡하며 고향집으로 돌아가 崇禎 日月 四字에 두문불출하다가 돌아가셨다. 이러한 일들은 호남 절의록에 실려 있고 사마록(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기록함)에 알려지고 있다.

### 節巖公行狀

竊觀君子之道成之以純性繼之衣本善行必發乎邇見乎遠者有忠孝則人必知其忠孝有道學則人必知其道學豈用浮華而著竹

哉節巖金先生天姿英偉志尚氣節自幼聰穎頗有老成之儀而其在事親惟誠孝二字迨長遊學明師沉潛詩書着緊孝經通念曉析識量漸進以道義托契於宋海狂學有淵源又遊於高霽峰門多見獎詡一時諸賢皆器重之顧不偉哉究其教授節目學識純至功業昭著而其設學之方儀形胡公之經義授教之規崇慕文翁之儒化此可爲考德興感者歲在壬辰公幡然起曰遭此危難之世豈獨圖生而忘國乎至於捨生而捐軀則臣道極矣歸於倡義使金公相與協心於誓死討賊之策赴入賊中規畫方略多所裨益金嶺之捷尤有戮力焉立大節於晉陽而事載于家藏義錄晉州叙事尤詳且備矣於乎懿哉貞忠偉節可與秋霜凜氣則不朽之迹固如是而人爲公祭文曰學慕顏曾功如蕭張者亦足以徵實蹟噫遺光餘烈邈矣難及可久則賢之德可大則賢人之業人之所以知公者知其有德學則不知有忠孝知其有忠孝則不知有德學知與不知何有於公乎公之次子成範袖其家傳本記公之狀草請余爲弁首之文曰吾考有德學忠孝兼備之行而終是暗昧不記則必爲子孫之過也將以總略記實壽傳於來世余以不文辭之未獲者果有世誼之自異也因其公之遺稿及諸公文字以爲修補若干辭語其有未盡之意以俟後之立言君子考正焉

崇禎六年癸酉孟冬 監察 洪鍾聞 謹識

[譯文]

생각을 하건대 군자의 大道를 이루는 것은 천성의 근본을 이어 행함이 반드시 가까운데서 피어나게 되고 먼데서

나타나는 것이니 충효가 있는 즉 사람이 반드시 그 충효를 알고 도학이 있는 즉 사람들이 반드시 그 도학을 알게 되니 널리 써서 빛나게 하라.

호 절암 김선생은 公侃이요 자는 士如이니 천자가 아름답고 뜻과 기운이 절도가 있어 어릴 때부터 총명하더니 장성하여 그 아버지를 섬기는데 크게 효성 있고 스승을 맞이하여 유학을 배울 때에는 시와 서예 沉潛하고 효경 읽기를 더욱 독실이 하며 송해광의 문하와 고재봉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고 도의를 강론하니 그 뜻이 높음으로서 모든 어진이들이 증하게 여기었으니 돌아보건대 위대하지 아니한가?

그 학신에 지극한 공과 후생을 가르치는 법도가 선현들 못지않더니 임진왜란 때에 변연히 일어나 가로되 이 같은 위란한 세상을 만나 홀로 살기를 도모하고 나라를 잇을 수 있겠는가 하고 김문열공을 따라 동심협력하여 죽음으로써 맹세하여 적을 치매 금령 전장에서 공이 있었고 진주에서 大節을 세우니 사실이 지문과 진주서사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이 같은 정충위절은 가을 서리에 늠늠한 기운이니 그 자취는 썩지 않으리라. 사람이 있어 公은 사람이 있어 公을 위한 제문에 월 학은 증자와 안자를 사모하고 功은 소화와 장량에게 비한 글귀 있으니 또한 족히 이것으로써 실지를 증거 하겠도다.

오호라 끼쳐놓은 빛과 남겨놓은 열이 선현의 덕이요 선열들의 업이다. 公을 아는 사람은 그 덕학을 알아도 충

효를 알지 못하고 그 충효를 알아도 덕학을 알지 못하니 그 알고 모르는 것이 어찌 공에게 달렸겠는가? 공의 차자 성범이 소매 속에서 공의 장초를 꺼내어 보이며 나에게 공의 행장문을 칭하여 말하되 나의 아버지 덕학과 충효가 검비함이 있음은 생각이 모자라 기록하지 않은즉 반드시 자식된 도리의 허물이다.

실지를 기록하여 다음 代代에 길이 전하고자 한다 하니 글 못하는 사람으로서 사양하다 이루지 못하고 과연 세이가 각별하여 공의 유고와 다른 분의 문자로서 간략히 지으니 그 뜻을 갖추지 못함이 있을 것이니 후일에 입증할 군자가 그릇된 점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 縣監節巖金公世阡碑銘并序

夫我邦之湖南類乎菟裘地靈種淑人傑輩出儒化大振忠孝兼備者多矣竊惟南平之鄉號節巖金公諱公侃字士如及若孫諸公實得其儒化之風者歟其先固城小伽倻 末露王爲肇祖至麗朝有大臣洛川君諱隨逮至我 太宗朝有諱贊吉號竹崗行兵曹判書世子師傅 贈右議政諡襄惠餽樂安忠愍祠卽公之八世祖也高祖諱潛正言曾祖諱萬諤號退思郡守祖諱順紀號錦溪參奉考諱璣號儉齋奉事妣端人晉州河氏兵使澄外祖也公天姿穎偉早事師宋海狂濟又從遊高霽峰敬命學慕顏曾才蕭張諸友推重儒門大袖 宣祖己丑特除教授遞陞興陽縣監以治著興學之功縣人

豎治績碑至壬辰島夷之亂從文烈公金千鎰倡義而殉於晉州事  
 載晉州叙事監察洪鍾聞稱之狀曰忠孝之人德學君子云配宜人  
 光山金判書景憲女兵腥之際生卒未詳而但墓在南坪之鳳山洞  
 壬原合封生二男四女長成範次宗範早夭女適利川徐鸞瑞彥陽  
 金用誠卽文烈公之次子密陽朴樞潘南朴明中成範生五男鼎夏  
 鼎臣號砥峰府使墓在節巖公階下壬坐合兆鼎重鼎泰鼎九號草  
 峯以文學德行聞于朝 贈執義享栗峰祠大司憲李敏德作行曰  
 烏山之學鳴於湖聞於洛公之曾孫通德郎仁采之墓在府使公階  
 下壬坐雙封噫諸公之嘉言善行以兵燹之禍沒泯于世而惟節巖  
 公據其狀則以補國澤民之材終不展蘊而殉忠可勝歎哉嗟乎公  
 之若孫同阡之意取程夫子族墳此安彼安之戒宋夫子先塋最古  
 之謂也歟又今數百星霜未伐貞珉者堪輿說之云云故也然而爲  
 后孫者闕珉之恨極矣公之十世孫相善氏謀豎世阡碑於場外訪  
 余於千里江陵之柄山請陰刻之文余非其人不文而感其慕先之  
 誠勉旃睦族之誼舉其略而書之銘曰

固城右族伽倻畿原白衣起旅襄惠遺昆殺身成仁是祖是孫以  
 文踐形以武有痕朝野欽慕亦蒙 國恩惟公陰德雲仍衍蕃降帛  
 鳳山配命永言我銘世阡不孤忠魂

隆熙紀元後再甲子八月 日 旁裔孫 永和 謹撰

[譯文]

대범 우리나라 호남은 菟裘와 같이 땅의 정기가 모인데  
 라 인걸이 많이 나고 儒化가 크게 펼쳐 충신과 효자가 갖  
 추어 난 곳이다. 생각하건데 남평 고을의 절암 김공의

히 공간 자 사여와 그 손자 제공은 실로 이 儒化의 풍습을 받은 분들이 아니겠는가?

관향은 고성이니 소가야 말로왕의 시조이다. 고려조에는 大臣 낙천군 휘 隨가 나섰고 우리 태종 조에는 휘 贊吉 호 죽강께서 행병조 판서와 세자 사부였고 유의정을 증직 받으시고 시호는 양혜공으로 낙안 충민사에 모셨으니 公의 八世조이다. 고조의 휘 潛은 정언이요 증조 휘 萬諤 호 퇴사는 兪수요 조의 휘 순기 호금계는 참봉이요 고의 휘 璣 호 검재는 봉사요 妣는 단인 진주하씨는 병사 澄의 여라 공은 천품이 뛰어났는데 일찍이 부터 해광송제를 스승으로 섬기고 또 제봉 고정명과 宗유하여 학문은 안자와 증자를 사모하고 재주는 소하와 장량 보다 더하므로 벗들이 儒門의 우두머리로 떠받들었다.

선조기축에 특별히 교수를 제수하고 곧이어 흥양 현감으로 승진했는데 치적이 현저하고 학교를 일으킨 공로로 고을 사람들이 치적비를 세웠다. 임진왜란 때에는 문열공 김천일과 창의 하였다가 진주에서 순절하여 사적이 진주 서사에 실렸고 감찰 홍종문은 행장에 충효한 사람이고 덕학있는 君子라고 했다.

配 의인은 판서 광산 김경현의 女로 난리 통에 생사가 확실치 못했는데 다만 묘가 남평 봉산동 壬原에 합장으로 되어 있다. 아들 딸 2남4녀를 두었다. 맏이는 성범이요 다음은 종범인데 일찍 죽고 딸은 이천 서난서 언양 김용성 밀양 박추 반남 박명증에게 출가했는데 김용성은 문열공의 차자이다.

성범의 아들이 5남이니 정하요 정신에 호 지봉은 부사요 묘는 절암공의 계하임좌 합봉이고 정증과 정태요 정구는 호 초봉은 문학과 덕행이 조정에 들리어 증직이 집의이고 율봉사에 모셨는데 대사헌 이민덕 지은행장에 鳥山の 학문이 호남에 율리고 서울에 알려졌다. 공의 증손 통덕랑 인체의 묘는 부사공 계하 임좌 쌍봉이다.

아아! 저 공들의 가언과 선행이 병화로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오직 절암공은 행장에 의거하는데 나라에 도움이 되고 민중에게 혜택을 들 인재인데 미쳐 내 포부를 펴보지 못하고 순충 하였다 했으니 한탄스럽지 않은가? 공의 자손들도 山所를 같이한 뜻은 정부자 족분하면 조상도 편코 자손도 편타한 경계와 송부자가 선영이 가장 길한데라고 하신 말씀들을 취한 것이리라. 또한 지금 수백 년 토록 비석을 세우지 못한 것은 풍수들이 하는 말 때문이었으리라.

그러나 후손으로서는 비가 없는 한이 지극했었는데 고의 十世손 상선씨가 별밖에 세천비를 세우기로 하고千里나 되는 강릉 병산까지 나를 찾아와 비문을 지어 주기를 청했다. 내가 그럴 사람도 못되고 글도 못하지만 선조를 사모하는 정성에 감복되기도 하고 목족하는 정이를 힘써야겠기에 사적의 대략을 쓰고 다음과 같이 명은 한다.

固城에 우족이요 가야의 본 손이로다. 양혜공의 자손으로 백의로 기병하여 살신성인 하였으니 그 선조에 그 자손이로다. 글 배워 천형하고 무로 치적 남기매 조야가 흠모하여 또한 죽은을 입게 되도다. 오직 공의 음덕은

후손이 번성하도다. 봉산에 묻히니 길이 배명했도다.  
내 세천비에 명하였으니 충혼이 외롭지 않으시리.

### 默溪公事實

公姓金諱公柱字國保默溪其號也公之始生有虎入室之夢兆而  
僅過數朔骨格魁梧材識穎悟年及三四言語動靜異於凡人入於  
學文稽聖經訂賢傳無不通撤高尚節義常有憂國之歎矣特蒙啓  
薦 宣祖己丑蔭軍資監直長兼尚衣院判官 仁廟甲子行平海  
郡守在官未久承內慶之訃音解紱還鄉年及老矣更不就徵肯構  
堂於竹林木石之間盃酒尺琴優遊自娛消遣世慮不知老之將至  
富貴如浮雲安分身無辱之句於心爲切戒鄉黨士友咸稱曰金公  
事有終始俊髦之義氣隱逸之節行兼得乎夫 孝宗甲午追 贈  
禮判殊恩覃重初從心志事業依若如司馬溫公獨樂園李文饒公  
平泉意趣也座上客常滿樽中酒不空如孔融之風致也高出人間  
復有何所求乎公之貫固城小伽椰末露王後裔以世襲簪纓公之  
譜牒弁文前人詳悉載錄予何敢容贅哉亭曰默亭號曰默溪公之  
家聲雖千百之後不爲磨泐公之裔孫夙夜勉旃毋忝所生焉登斯  
亭之人何不有欽慕也哉

丙辰孟春

幸州 奇字萬 謹書

## [譯文]

공의 성은 김이요 휘는 공주요 자는 國保 무제는 그 호니 공이 처음 날 때에 범이 집에 들어온 꿈을 꾸었더니 겨우 두어 달 경과한즉 골격이 수성하더니 三, 四세가 되어 언어와 동정이 범인에 비하여 다르고 학업에 들어가 선현의 경서를 상고하고 어진이의 전을 강론하여 통철하지 않음이 없고 절의에 고상하여 항상 우국하는 마음이 두텁더니 천거함을 받아 선조기축년에 균자감 직장이 되고 상의원 판관을 거쳐 인조갑자년에 평해군수로 부임하였다가 오래 있지 아니한 후 어머니의 부고를 받고 인장의 끈을 놓고 향리에 돌아와 연세가 저물어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당을 증림목석간에 지어 놓고 한잔 술과 작은 거문고로 스스로 즐거워해서 세상 생각을 소견하여 늙어감을 잊고 부귀를 뜯구름 같이 여기고 분수를 지켜 편안히 하여 몸에 욕이 없는 글을 늘 마음에 경계 삼으니 향리의 사우들이 다 일컬어 가로되 김공이 일에 시종이 있어 의기가 준수하고 온 일에 절행이 접했다 하더니 효종 갑오년에 예조판서를 증직 받고 특별히 은전을 내렸다.

처음 먹은 마음을 쫓아 사업이 이러하니 사마온 공이 홀로 낙원에서 즐김과 이문호 공이 평천에서의 취미와 같더라. 자리에선 손님이 가득하고 동이 가운데에는 술이 비지 아니하고 공용에 풍치와 같더라. 공과 같은 분을 인간에서 다시 어디 가서 구할까?

공이 소가야 말로왕 후예로 대대로 잠영을 잇고 공의

보침 서문을 선인들이 상세히 기록하였으니 내 어찌 감히 쓸데없는 글을 덧붙이리요. 정자의 이름을 묵정이라 하고 스스로 호를 묵계라 하였다.

공의 가정이 비록 천백 년 후에라도 같아서 달치 않으니 공의 후손들은 주야로 힘써 조상의 덕행과 이 정자를 윤택하게 하면 이 정자에 오른 사람이면 어찌 흠모하지 않으리.

#### 草峯公行狀

夫道學一體也道一而已學誠而已其所以誠一者執中無間而惟其條理則道爲體學爲用也探頤衆理以之大體涉獵諸簡以成大用而至欲爲昭柝顯隱通釋微奧符合典例行之不暇而况又加以孝潤之以德者非博學君子而豈曰能之哉草峯先生諱鼎九天姿清粹志操確充幼而慕之者周乎愛親以盡其定省之職壯而行之者不越乎力學以極其教術之方言念其根天之仁實地之工無非聖賢書中做來而工有大小之序事有終始之善矣懿歟休哉爲孝也其於養生靡不庸極而至若事死何其躬行之甚勤物感之固然居憂廬墓盡禮過節攀栢悲號樹卽枯焉是爲至孝治爲德也輕財重義恤窮救貧不溷塵白之累徒尙急難之風無徃不惠無人不譽焉是爲懿德也爲學也專廢舉業祇勉經術磨礱於孔孟之書沉潛於思曾之傳燭而爲鑑貫道而爲器可謂師之所存道之所存者嗟夫不幸出於世降教弛之世以興學明教爲己任而於變虽虽之

俗以致彬彬之士蓋其興學養士之道有得於朱夫子南康設教之方耶無損於胡安定湖蘇置學之規耶烏山之學鳴於湖聞於洛而矧且文章名士多出斯門東方文獻之盛可復徵於當世南州矣斯文不泯至今資其講習其學式之備教條之詳不下於南康湖蘇造士種德輿誦無己屢有褒獎達于 聖朝下批曰金鼎九爲南州儒家之模楷賞之以物復之以戶寔是其孝也至其德也博其學也正格於物感於人聞於 天者也如是文學之鄉建祠宇設俎豆也足以報公庶無後生尊慕之餘蘊嗚呼不知人而錄其行者似或有昵書豈斯人余披翫本狀不覺紙毛且觀其宗裔錫淵甫則從事翰墨承訓家庭克闡祖業之積累以明家學之作述而竟有蒙臺職之恩典者其誠亦極矣於是乎不佞追感右文之繁該崇躋當時之壁範其於弁簡之請終不能獲辭刪繁撫略尤不能盡其實蹟殆近乎不得於言未達於言後之立言君子或謂斯言之有玷也夫  
崇禎紀元後柔兆執徐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 德水 李敏德  
序

## [譯文]

도와 학은 일체라 도는 한결같은 뿐이요 학은 정성스럽게 할 뿐이니 정성과 한결같은 것은 강옷을 잡아 틈 없게 함이니 그 조리를 말한즉 도는 몸이 되고 학은 응용함이라 이치를 탐구하여 대체로 알고 모든 글을 익혀 대응을 이루고 나타나고 숨은 일을 밝게 파악하며 희미하고 심오한 것을 해석하여 법에 합당케 하고자 하여 이 행함이 독실하고 효도로써 어버이를 봉양하며 덕으로써 가문을 윤

택케 하는 자 박학군자가 아니면 어찌 능히 하겠는가?

초봉선생의 휘 정구씨가 천자가 청수하고 지조가 확실하여 어려서부터 아버이를 사랑하여 그 보살핌이 극진하고 하는 일을 배우는데 힘쓰며 가르치는 법을 극진히 하여 지나지 아니하고 그분은 하늘을 근본한 효를 바탕으로 성실한 공부는 성현의 글 가운데서부터 오지 않는 게 없어 공부에는 크고 작은 차례가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에 착함이 있으니 아름다움이며 그 효도함이 아버이를 봉양함에 극진하고 지극함이 그다지도 심히 부지런한가?

묘소에 시묘할 때 예절을 다하여 잣나무 밑에서 슬피 부르짖어 울더니 나무가 말라 죽으니 이것이 지효와 지적의 증거가 아니라. 재물은 가벼이 여기고 의리를 중히 여기며 빈궁한 자를 구제하고 구걸한 사람까지도 혜택을 받지 않은 이 없어 사람마다 송하니 이것이 덕학이 아니라. 업은 경전에 힘써 공·맹의 글을 연다하고 자사와 증자의 전에 참여 이치를 밝히고 도학을 통하여 큰 그릇을 이루니 스승에 오르고 도를 밝힌 자라고 말하겠도다.

오호라 불행하여서 문교정책이 밝지 못한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을 일으키고 교육을 밝힘은 소임으로 삼아 어리석은 풍속을 변화시켜서 갓춘 선비는 그 학문을 이루고 선비를 胡安定공과 湖蘇에 설치한 규범인가? 烏山の 학행이 호남에 올려 서울까지 들리고 문장명사를 이문에서 많이 배출하고 문헌이 성대함은 가히 당세의 남쪽 골에 이 글이 내려와 지금까지 강습의 자료가 되고 학식의 갖추어 되고 가르치는 조목에 자상함이 되어 옛날 학자들에

못지않았다.

이러한 일을 나라에 고하니 하명하여 가로되 김정구는 남쪽 고을에 선비의 집에 모범이니 물건으로 상을 주고 집을 부응케 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효도라 그의 덕이라 그의 학이라 마음을 바로 함이라 물리를 아리랴 사람의 감덕함을 나라에서 들음이 있음이라 이 같은 문학에 사골에서 사우를 세우고 제사를 함이 족히 공을 보답함이요 후생들의 존모함이라.

오호라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의 행적을 기록하는 자 혹시 친근에 끌려서 우짜 사람들을 속이고 쓰겠는가? 내 이 분 장문을 헤쳐보고 흠모함에 잠겨 종이 가 털이 나도록 읽었고 그의 손자 석연을 보니 글을 읽고 쓰는데 종사하여 가정지훈을 이어 그의 선조의 업적을 밝히고 가정지학을 지어 마침내 나라의 은전을 받았으니 그 정성 또한 지극한지라 이러함으로 하지 못한 내 감동함을 미루어 오른쪽 글에 적당히 아름다움을 높여서 당시에 표범을 하여 그의 머리글을 칭하니 마침내 부득이 사양치 못하여 번화함을 덜고 간략히 모아 능히 그 실적을 다 기록하지 못하고 절반이나 말할 것을 못 다하고 말할 곳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이 뒤에 기록하여 줄 군자가 혹시 이 글을 읽고서 옥에 흠을 냈다고 할까 생각하노라.

一門六孝事蹟(順天派栢洞)

孝子兌潤字士貢開 國功臣襄惠公十二代孫忠孝世德儒素餘風在其髫齡孝於兩親得一佳味不敢先嘗歸而必獻年及稍長必慎操行恐貽親憂至於有室以孝造端怡聲氣供甘旨盡色養之道愛髮膚慎跬步切全歸之心其他定省之節溫涼之道靡不殫誠及其慈幃之病劇食飲全廢刀圭無効每夜祝天願以身代將至殞絕斷指注血有項得甦其非上天默感於冥冥之中乎鄉鄰欽嘆儒狀闡揚誠孝實蹟入於海東三綱錄其孫之一能繼祖武孝思不匱又當其父之殞絕指血注口幸得一日之回甦而習朝永逝回甦則天感永逝則天命奎五弟奎良是則是效孝心益篤又當其母之命殞剖指注血乃得三日之甦三日延命亦非孝感而然乎奎五妻許氏孝心出天又從家範奉養舅故克盡誠敬其舅以輪瘡三年委席百藥無効一日舅聞醫工之言願服生臬之血許氏致齊祈天忽有二臬來投于裳卽仍捉之注血於口病尋蘇完且其子啓文以父母之心爲心克誠克孝愈久愈篤不幸父母猝邁染疾病勢蒼黃僅以喉言願服生雉啓文頓足呼天自何一雉忽墜于家後竹林間因擒烹炙從願進服果得差効又當再痛垂死之時再剖指血先注於父之口復注於母之口一時俱甦此豈非格天之誠感物之孝所致而然耶然則一門六孝繼出於祖子孫三世好善之心人皆有之是以鄉論齊發儒狀繼起呈官呈營又呈于繡衣前後題旨莫不嘉尚而冰鯉雪笋之稱尤極副實所可恨者以如許孝烈尚未蒙褒然而天理昭監必有日後之表旌耳

丙午十二月上澣

族人 復鉉 記

## [譯文]

효자 兪潤의 자는 士貢이요 공신 양혜공 十二세 손이니 충효에 세덕이요 유림에 여풍으로 어린 나이에 양친에게 효도하여 맛 좋은 음식을 만나면 먼저 들지 않고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받치더니 장차 자라서 행실을 삼가고 부모에 대하여 근심하여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고 소리와 기운을 부드럽게 하고 성심으로 공양하며 좁고 더운지를 잘 살피 지성을 다하였으되 그 어머니가 병환으로 식음을 전폐하시어 의원을 불러 치료를 하였으나 효력이 없음으로 밤마다 하늘에 기원하더니 사경에 이르러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복용하여 갱생하시니 하늘이 감동하사 묵묵히 도우심이라 향리에서 감탄하고 유림에서 표창하여 해동삼강록에 기록되었다.

그 자손 之一이 능히 그 할아버지의 효행을 본받아 손가락을 잘라 그의 어버이를 갱생케 하고 之一의 자 奎五가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효행을 이어 그의 아버지가 서거할 즈음에 손가락을 잘라 겨우 하루 회생하신 후 고이 잠드시고 奎五의 아우 규량이 그 어머니의 병환에 이같이 하여 겨우 삼일 후에 운명하셨다.

奎五의 처 허씨의 효심이 또한 지극하여 가규를 따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겨 그 시아버지가 수년간 학질로 인하여 자리에 누워 백약이 무효하거늘 시아버지께서 의원에게 들은 말로 산올빼미 새의 피가 약이 된다 하니 허씨가 몸을 단정히 하고 하늘에 기도하니 홀연

히 올빼미 두 마리가 날아와 처마 앞에 떨어져 곧 약용으로 공양하니 완치되었다.

그 아들 계문이가 독실이 부모를 공양하던 중 부모가 전염병으로 병세가 위독하여 겨우 입의 말로 꿩고기를 원하거늘 계문이 발을 굴러 하늘에 부르짖으니 난데없는 꿩 한 마리가 집 뒤 대나무 숲 사이에 떨어지므로 대접하니 과연 차효가 있었으나 다시 그 후 병으로 사경에 이르렀을 때 두 손가락을 잘라 하나는 아버지께 하나는 어머니께 약을 한바 일시에 갱생하니 이 어찌 효성이 하늘에 닿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여 一門에서 여섯 효열이 이어서 三代에 났으니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며 향리에서의 의론과 유림에 솟장이 일시에 일어나 감사에게 올려 六孝의 정열문을 받았다.

### 贊文

族人能百遂爲之贊曰一門六孝今古罕聞百里負米仲由之孝由之後未有繼六歲懷橘陸績之孝而績之後亦無傳然則六孝之繼出於一門惟我先宗長兌潤氏家而已兌潤氏性格于天延母之命終享壽考胎厥孫謨而之一氏孝感彼蒼甦父之命又終千年曾孫孝止奎五兄弟誠孝所感雙親俱甦得保數日奎五妻許氏祝天致梟蘇姑之瘡奎五子啓文竭誠得雉復親之膳噫王祥冰鯉實由天感而許氏致梟與之同符孟宗雪筍旣非人力而啓文得雉亦爲一

致况此梟也雉也俱致於一家則尤有光於兩人之笋鯉也是知一孝猶難而六孝系出茲豈非襄惠公忠孝餘烈累世積蔭之報應乎余不勝欽歎於是乎書

丙午十二月上澣

族人 能百 謹贊

[譯文]

죽인 능백이 찬하여 왈 一門六孝는 고금에 드문 일이라 백리에 쌀을 저 날러 부모를 봉양하든 子路에 지극한 효도의 자로의 후손이 계승치 못하고 여섯 살에 橘(귤)을 품든 陸積의 효성도 그 자손이 전하였다는 말이 없으니 六孝子가 계출함은 오직 우리 문중의 존장인 兌潤씨 집뿐이 아니겠는가? 태윤씨 一門에서 효성이 하늘같이 높아 어머니 수명의 연장시켜 마침내 장수를 누리게 하고 그의 손자 之一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케 하여 천수를 다하게 하고 증손 奎五 형제에 효성이 지극하여 며칠 동안 갱생케 하고 圭오의 처 허씨가 하늘에 빌어 올빼미를 잡은 것은 孟宗의 설순과 같아서 사람의 힘이 아니로다. 啓文이 꿩을 얻은 것도 또한 올빼미 얻음과 같으니 一家의 한 효자가 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六孝가 이어 나니 이 어찌 양혜공의 충효의 여운이 여러 세대를 두고 내리니 내 어찌 길이 감탄치 않으리오.

### 慕隱堂公墓誌銘

孝子慕隱堂金公衣履之藏在全義松峙枕艮之原公胤子旻煥嘗從余遊一日排纜公遺事來謁幽堂之誌誠溢于辭有不可以病閣筆妍辭謹按公諱樂聲字汝俊慕隱其自號也蓋取終身慕父母隱居不求富貴之意云系出固城高麗洛川君隨遠祖也歷一世諱贊吉始入我朝有討倭勳官至檢校政丞諡襄惠號竹崗自是簪紱相禪至諱世應縣監亦有討倭功 贈戶曹參議又四傳至諱德章早謝功名讀書禔躬寔公曾祖也祖諱萬慶考諱龍三妣安東金氏德珪之女公性仁慈謹厚年十三丁外艱善事偏母母病頭風積歲沉痾醫云正月鳩可療公冒寒徧求得雙鳩立奏效人以爲孝感所致自伯氏坳益竭力奉養嘗值荐歉齏藜藿度朝脯而別具小鍋必炊飯以進甘旨之物亦未嘗乏絕母年八十一而終公哀毀踰節附身附棺誠信無憾勤劬勞力置祭田墓田公居家以儉見得思義恭於兄和於族信於友未嘗以拂言戾色加諸人皆孝之推也嘗謂胤子曰吾有三恨不能學問一也不能爲先二也不能教汝三也又曰使汝效吾曾王考世父之學伯氏之孝則庶解吾恨自其垂裕式穀之意亦可謂至矣臨沒無恒化意命胤子曰喪具務從儉約無至負債貽辱且慎勿埋我於他人是非之地也遂以 哲廟癸亥九月五日沒距其生 純廟辛酉爲六十三歲及葬冬日甚暄會下者皆以公平日有厚德故乃爾云配光州鄭氏忠愍公賜湖之后喜元其考也舉一男卽旻煥旻煥二男載永載求噫公夙邁閔凶未及致力於詩書天性所植至行範世古所謂未學而必謂學者以其務實也公實有焉而旻煥述公遺志篤志力學於是乎公亦可無恨矣是爲銘銘曰

循彼南陵言採其蘭馨爾夕膳潔爾晨飡白華朱萼彼於幽薄終  
晨三省匪惰其恪曠世一揆可述其美有封四尺過者必式  
崇禎四丁卯孟夏日

嘉善大夫吏曹參判兼成均館祭酒侍講院贊善 西下 任  
憲晦 撰

[譯文]

효자 모은당 김공의 장사 지낸 땅은 전의 땅 송치고개  
간좌다. 공의 맏아들旻煥이 일찍이 나를 쫓아 놀더니  
하룻날에 공의 遺事를 지어 가지고 심방하여 공의 묘지문  
에 대하여 상론하는 지성이 말보다 넘침이 있어 가히 내  
가 병으로 붓과 벼루를 달고 글을 아니 짓기로 한 뜻을  
사양할 수 없으므로 삼가 안찰하니 공의 휘는 樂聲이요  
자는 여준 모은은 自號라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한다는 慕  
字요 세속과 옥 속에는 거리를 두고 산다는 隱字다. 상  
세계는 소가야 固城으로부터 하고 고려의 낙천군 휘 隨는  
원조니 一世를 지나 휘 贊吉이 我朝때 왜적을 물리친 공  
으로 금교정승을 지내고 시호는 양혜요 호는 죽강이니 이  
로부터 학문과 벼슬이 서로 있었다.

휘 世應은 현감에 이르러 또한 왜적을 물리친 공으로  
호조참의를 증직 받고 또 四世에 이르러 휘 德章은 일찍  
이 공명을 사양하고 글을 읽어 몸을 편안히 하니 공의 증  
조요 조의 휘는 萬慶, 부의 휘는 龍三이요 모친은 안동김  
씨 덕규의 딸이라 공이 천성이 인자 근후하더니 나이 十

드세 부친의 상사를 당하여 편모를 모실 때 모친이 두풍 병으로 여러 해 고생하더니 의원이 처방에 정월 비둘기가 치료에 특효라 하여 공이 지성으로 한 쌍을 구하여 약용을 하여 드린바 병상이 치유되니 인근에서 이구동성으로 효성이 지극한고로 치료되었다고 하였다. 형이 사후에 더욱 힘을 다하여 모친을 봉양하던 중 어느 때 거듭 흉년이 들어 초식으로 지낼 때에 특별히 작은 술을 구하여 반드시 밥을 지어 대접함에 맛있는 음식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모친이 八十一세에 서거하시니 슬퍼함이 절도에 이르고 호상과 관을 성심껏 마련하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제전과 묘전도 마련하고 집에서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소득을 볼 때에 의리를 생각하고 형에게 공경하고 친족에게 화합하게 하며 붕우에게는 진실케 하여 순한 언행과 온화한 모습으로 사람을 상대하니 이것이 다 효도하는 마음에서 나온이라 일찍이 그 아들에게 일러 가로되 나에게 세 가지 한이 있으니 학문을 못한 것이 하나요. 능히 선조를 위하여 못함이 들이요. 너를 가르치지 못함이 셋째라. 또한 너로 하여금 증조이하 三世의 학문과 큰 아버지의 효도를 본받을 것을 내 바라는 바라 하니 그 조상에서 내려오는 유덕의 뜻 또한 지극한지라 임종할 때 당하여 죽음을 슬퍼하는 뜻 없이 그 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상구는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여서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시비할 땅에 장사하지 말라 하시고 철종계해 九月五日에 돌아가시니 순종 신유년으로부터 六十三세라 장사지

널 때 겨울날이 심이 온화하니 모인 사람이 다 공이 평일에 후덕한 때문이라고 말하더라. 배에 光州鄭氏니 충민공 사호의 후예요 희원은 그의父라 한 아들을 낳으니 旻煥이요 민환이 두 아들을 낳으니 載永과 載求라.

오호라 공이 일찍이父를 여윈 때문에 詩書에 치력하지 못하였으나 천성이 곧고 행실이 지극하여 세상에 모범이 되니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배우지 못하였다고 하나 나는 반듯이 배운 사람이라 이르겠다. 배움보다 실행이 더 큰 자는 공이로다. 旻煥이 공의 유지를 받들어 뜻을 독실이 하고 배움에 힘쓰니 공이 또한 恨이 없으리로다.

이러함으로 위하여 명을 하니 가로되 저 남쪽 언덕을 돌아 말하나니 그 난초를 캄이로다. 너의 저녁 반찬의 향기로움이며, 너의 아침밥도 정결함이로다. 흰 꽃 붉은 꽃이 더욱 그윽하도다. 하루에 세 번 살핌을 마침이며 그 정성이 게으르지 않도다. 세상에 한 가지 규범이 됨이며 가히 그 아름다움을 지었도다. 四尺의 묘 있음이며 지나가는 자 반듯이 법 되리로다.

### 孺人鄭氏墓誌銘并序

不佞嘗誌金生旻煥先考學生公墓矣日旻煥殿以其先妣孺人鄭

氏隨銘來謁辭不獲又按狀而叙之孺人籍光州麗朝贊成事臣扈  
 初祖也赫世冠冕至諱賜湖號禾谷刑曹判書諡忠愍於孺人八世  
 祖也又傳至諱堉基奉事生諱嬉柱號紫巖受業于權遂庵蔡鳳庵  
 兩先生之門 贈司憲府持平金持平日柱撰兩世狀生諱益輝通  
 德郎生諱喜元以文行稱是爲孺人高曾祖禰而妣扶安林氏有婦  
 德孺人自幼聰慧過人不甚教督而知諺書聞他兒讀書輒誦之考  
 奇之曰使汝而男可大吾門授以小學能通大義八九歲已知事親  
 之道鷄晨必問寢考止之曰小兒何必乃爾對曰內則不云男女未  
 冠笄者昧爽而朝乎知而不行猶不知也胡可廢也自是凡女吏婦  
 訓靡不涉獵以自鑑戒人有遺以紋繡則曰此非窮鄉兒女所服強  
 而後受之又告于長者換吉貝以着之時年十三人稱其早有儉德  
 二十一執笄見姑事之盡愛敬雖弊衣菜羹極其精美姑每曰爾何  
 能使我適口便身女此此真吾孝婦也同居五六年無分門之意人  
 或勸之則曰古有九世同居者亦有七百口同爨者寧有兄弟而不  
 同居者乎及不得已析箸則不受田土曰宗家奉祭養親用度甚廣  
 遂勤力以自生生計亦稍裕自夫兄歿奉姑于家而養之值歲大無  
 居家食粥而別置一小鍋以五溢米三時炊飯以進子女或求食則  
 便責之曰吾聞程母不許絮羹况老人所供其敢生意乎姑歿哀痛  
 逾禮襲劍葬祭一無所憾權奉曾祖祀三十餘年致其蠲潔曰祭不  
 以誠不如不祭慈李教有過必撻又告夫子曰父不知子之惡由母  
 蔽之吾不爲是也每誦太任胎教孟母遷舍買猪事曰爲母之道當  
 如是遣子受學于塾師也雖一餅一臠苟有之必分與往饋曰事師  
 當如事父母平居見席不正則必正之見家人無禮則曰禮在於日  
 用常行之間人而無禮則不可一日生雅言勸者萬善之本怠者萬  
 惡之根士庶人不仁不能保四體不仁卽不勤之謂也每論事必引

經史以裁決之人莫不歎服庚午九月七日歿踞其生庚申十一月十七日壽七十一初葬全義西面五柳洞後遷于其南麓庚坐之原一男卽旻煥旻煥二男載永載求載永男壬鳳載求男癸鳳孺人戚姪金東益兄弟居在鄰閭習知其德美恒曰叔母事姑以誠孝聞處嫂叔以禮敬聞接娣姒以仁愛聞待親戚以和睦聞治家以規模聞至於紡績針線又何其多能也無乃天上仙人謫降以肥金氏家者歟嗚呼此其心悅誠服之言而人以爲實錄者也若孺人雖方之於古哲媛庶幾無愧而若其止茲一念遠過於人至有不針死生貫徹幽明者存亦可歎也已銘曰

嗟嗟孺人允義女士豈惟資美多識書史用是百行罔或有愆慈孰謂過亦足知仁金池之西有封若堂我替彤管銘告無彊  
西河 任憲晦 撰

[譯文]

내 일찍이 김생 旻混의 부친 묘지를 지었는데 오늘 旻煥이 그의 선비 유인정씨의 묘의 명을 알리어 청하니 거절하지 못하고 또 장문을 살펴서 기록하니 孺人의 본적은 광주라 麗朝에 찬성사를 지낸 扈氏를 시조로 하고 빛나는 세대에 벼슬한 명문으로 휘 賜湖에 호 화곡이요 형조판서를 지내고 시호 충민은 유인의 八代祖라 또 전해서 휘 堧基는 봉사요 휘 희주를 낳으니 호는 자암으로 權수암 蔡봉암 양선생 문하에 수업하고 사헌부 지평을 증직 받으며 김지평 日柱가 두 代의 행장을 지었다. 휘 익휘를 낳으니 통덕랑이요 휘 희원을 낳으니 세상에서 문장으로 일컬

으니 유인의 고조가 曾祖, 祖, 父가 됨 母는 부안임씨니 부덕이 있었다.

유인이 어려서 총명하고 지혜로움이 남보다 뛰어나 심히 가르치지 않아도 諺文(한글)을 아니 신기한 아이라고 소문이 났다. 글을 읽어서 문득을 외우니 아버지가 기히 여져서 가로되 만약에 네가 남자라면 우리 집 문호를 크게 하리라 하셨다. 小學을 가르치며 능히 대의를 통하고 八, 九세에 아버지 섬기는 도리를 알아 새벽닭이 처음 울면 반드시 問寢을 하니 아버지께서 그치기를 이르며 어진 사람이니 그러할 것 없다하니 대답하되 內則篇(소학편명)에 이르기를 남녀가 성동이면 조석으로 문안드려야 한다고 하였으니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알지 못함만도 못하니 어찌 그만 두겠습니까 하였다.

이로부터 여사의 婦訓을 빠짐없이 통하여 스스로 거울 삼더라. 어느 어른이 비단을 주니 말하기를 이것은 중한 시골 여자의 입을 바가 얹이라고 하며 사양함을 굳이 권하여 주게 되니 하는 수 없이 받아 어른께 말씀하여 검소한 옷감으로 바꾸어 입었다. 연세가 十三, 四세에 일찍이 사람들이 검소한 덕이 있다고 평을 받더니 二十一세에 출가하여 시모님을 뵈옵고 섬길새 사랑함과 공경함을 다 하여 비록 헌옷과 나물로 마련한 찬이라도 극히 정미(正味)하게 하니 시모님께서 칭찬하여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나의 입에 맞게 하고 몸을 편하게 함이 이 같으냐 하며 진정한 나의 효부라 하였다.

동거 五, 六년에 이르러도 분가할 의사가 없어 타인들

도 후 분가를 권하니 말하기를 옛 사람들은 九世를 동거하여 七百 식구가 함께 살았다 하였거늘 어찌 형제가 같이 살지 못하리오. 하더니 부득이하여 따로 살게 되니 전토를 받지 않고 말하기를 종가에서 제사를 받들고 아버지를 봉양하는데 용도가 심히 많다 하고 곧 노력을 껴하여 자활을 하니 생활이 점점 여유가 있더라.

夫의 兄이 돌아간 뒤로부터 시모님을 모셔와 봉양할 때 어느 해 큰 흉년을 만나 온 집안이 죽으로 때를 이을 때 별도로 작은 술을 마련하여 쌀로 세끼 밥을 지어 대접한 자녀들이 간혹 먹고자 할 때 문득 책망해 가로되 내 들은 바 정자님의 어머니도 먹고자 함을 허락하지 안 하셨으니 노인께 대접함을 그 어찌 뜻하는고 하더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애통함을 예에 맞도록 하고 장사하고 제사함을 정성 것 하여 유감이 없더라. 사정에 따라 曾祖의 제사를 二十년이나 받드는 동안 정결하게 하여 말하기를 제사에 정성스럽지 못하면 제사 지내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고 자식을 사랑하여 가르침에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종아리를 치고 또한 남편에게 고해 가로되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알지 못함은 어머니가 숨겨 주는데 있으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더라.

매양 太任에 태교와 맹모가 세 번 이사하고 돼지고기 사서 먹이던 일을 외우며 말하기를 어머니 된 사람의 도는 마땅히 이 같아야 한다 하더라. 아들을 스승에게 보내어 배우게 할 때 비록 작은 음식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나누어 먹게 하며 스승 섬기기를 마땅히 부모와 같이 하

여야 한다 하였다. 평소에 자리가 바르지 않은 것을 보면 반드시 바로 잡고 집안사람의 무례함을 보면 말하기를 예는 매일 행하는 가운데 있으니 무례함은 하루라도 바르게 살지 못함이니라 하였다. 말하기를 근면한 자는 만가지 보전치 못하니 어질지 못함이 곧 부지런하지 못함이 라 하였다.

매양 일을 의논할 때 반드시 경서와 사리를 인용하여 결정하니 사람들이 탄복하지 않는 이 없었다. 경오년 九月 七日에 돌아가시니 그 나신 해는 경신 十一月 十七日 이요. 수는 七十一世라. 처음에 전의 서면 오류동 뒤에 장사 하였다가 그 뒤에 남쪽편 산기슭 경좌에 옮겼다. 한 아들을 낳으니 旻煥이요 민환이 두 아들을 낳으니 재영, 재구라 재영의 아들은 임봉이요 재구의 아들은 계봉 이라. 유인의 척질 김동익 형제가 이웃에 살며 그의 미덕을 항상 일러 말하기를 숙모가 시어머니 섬기는데 효성이 지극하다는 소문이 있었고 시숙을 대함에 예와 공경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시누이들에 대하여仁和 사랑으로서 행세하는 소문이 있었고 친척을 대함에 화복으로 한다는 소문과 집을 다스림에 규모로써 치가하고 재봉이 또한 능하지 않음이 없다 하니 진실로 천상에서 선녀가 임하여 김씨의 가문을 빛나게 함인가?

오호라. 그 마음 즐거움은 실로 복종하겠으니 이것이 실지를 기록한 것이다. 유인 같은 이는 옛날 유명하신 여사들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 인자한 일념은 사람으로서 평생을 이르러 관찰하고 그윽하며 밝음이 있으니 또한 탄

식 하겠도다. 銘에 가로되 오호라 유인이여! 믿음직한 여사로다. 오직 아름다운 성품이여 많은 서사를 알았도다. 행실에 백행이 바르니 후시 잘못함이 있는 바는 잊었는가? 허무를 자숙할 줄 앎이여 또한 족히 어짐을 앎이로다. 金池이 서쪽 편에 묘가 있어 편안이 계시리라. 내 단정한 대쪽에 찬하노니 銘하여 끊임없이 고하노라.

### 鄭孺人述

孺人鄭氏籍光州禾谷忠愍公賜湖后也幼通小學書知大義鷄鳴問寢父母未笄或遺之文緞請於長者易綿布服之多識女史婦箴及歸率踐行之姑言新婦所造蔬糲甚旨麤衣甚安異哉爲介婦不求析產曰古人有九世同居七百口共爨者必異居何居姬旣句以尊姑命異炊卑之田辭曰宗家不贍用甚廣支子何憂無食夫兄歿奉姑養之歲大饑設粥獨置小鍋以五溢米日三進飯子女欲之拒不與權奉曾祖祀三十年必致潔曰祭不誠如不祭教子嚴有過不貸告夫子曰父不知子過由母蔽之吾不爲是也雅言勤者萬善之本怠者衆惡之根人而無禮不可一日生嗚呼孺人豈不賢乎余與孺人之子金君旻煥遊君學于任全齋篤信好禮溫淳有守其先考樂聲有孝行所受者然抑亦由慈教也全齋銘其考妣隨余爲述孺人以諷世之爲婦人者焉

全州 李象秀 撰

## [譯文]

이 撰文의 뜻도 전기 묘지명과 동일하고 문장의 표현도 같은바 한분의 행적에 두 분이 찬양하였음으로 흡사하여 번역을 생략함.

## 勇菴公行狀

愚昔事全齋任先生先生之門遠近人士多從之學剛介俊邁厚重深沉各有其品而獨勇菴金公以老成篤實見稱余於公常資其益而情好愈篤公歿後十六年其子載求錄公遺事囑余狀德余平生不輕爲人作此文寔懼不得其情而爲妄言之人爾今載求所記略而不繁質而不文余喜其事親之謹而善繼公之志也不辭而爲之言曰公諱旻煥字士仁固城人始祖小伽倻王中祖諱隨麗朝大臣封洛川君入 本朝諱贊吉號竹崗有討倭功贈右議政諡襄惠配享樂安四忠祠是爲公十三世祖也高祖德章曾祖萬慶祖龍三考樂聲四世皆有文行妣光州鄭氏喜元女禾谷諱賜湖後公以 純廟甲申八月五日生自幼孝順謹質不與曹偶娛戲勤於藝業長者咸器之家甚貧窶鄭孺人素又多疾公於樵採井白靡不身親以供甘旨而不憚劬勞得暇卽趨龍山朴公玩鎮問學殫誠求進內行益篤考疾革屬纊公斫指進血以延晷刻之命鄭孺人數十年貞疾諸藥不效公夙夜憂慮一日感異夢于田間掘取昔人所藏法油用之病遂差油之餘者忽如冷水不堪點燈茲豈非至誠所召歟前後喪情文備至葬後猶啜粥衰麻不去身其容纍纍然其於全翁之喪加

麻三年不服闔悟堂李公與之鄰比爲余道其謹於師喪如此如此其爲學常以躬行實履爲務其於騁辯逞能摛文于譽若疾痛焉經傳子集循序玩繹無陵躐欲速之失至老猶孜孜不休每與人談論務求本意而不求己勝彼或強辯公則微笑而止其於師友有深心厚誼丙子秋 朝家設酒禁全翁告廟斷飲因成羸疾公嘗道其狀淚垂言下並世群賢如立齋宋相公淵齋宋公悟堂及同門某某諸公或造謁請益或約會講義故舊衆至闔家歡喜爲設饌以供累日之費而不敢懈亦見公性於朋友而身教之行於家也同門有憑氣勢以擠其所親者觀人從違以禍福隨之儕流多畏憚莫敢言公與其人相熟始也盡必規正而不能改則毅然絕之彼就公先塋林木設計害之猶不顧也平生不喜著述惟讀書有得隨手劄記總若干沓今上癸未正月二十七日卒壽六十葬于全義松峙艮坐原從先兆也配坡平尹得圭女繼配南陽洪友燮女并各寔長男載永尹氏出次男卽載求洪氏出長房男學銖次亨銖側出男德銖次房男益銖公以淳質誠孝從事儒術爲鄉黨矜式宜其名登剡薦而惜乎其未也然公之雅志惟在內修其實而人之知不知蓋泊然無所入於胸中此其所以爲賢歟嗚呼昔與公相從於道成竹岸之里每語及倭洋侵凌之勢輒爲 國家有無窮之憂相與慨傷而止今數十年之間時變至此公之一枕冥然安知不爲福也耶顧余年迫六旬棲遯海上宜其悠然自適而猶不禁長流之淚亦不自知其何以然也今撰次公行治並書所感以告于立言君子伏惟幸悲其志而採其言焉

戊戌長至 潭陽 田 愚 謹狀

## [譯文]

내가 옛적에 全齋 임선생을 섬길 때 선생문하에 원근 인사가 많이 와서 배울새 그의 덕행이 각각 다름이 있으되 그 중에 용암 김공이 노성하고 독실함으로써 칭찬을 받았다. 내 공의 유익됨을 자료 삼아 정의가 유독했으니 공이 돌아가신 뒤 十六年에 그의 아들 재구가 공의 유사를 기록하여 나에게 장덕의 글을 위촉하니 내 평생에 가변이 사람을 위하여 글을 짓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망령되게 말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제 재구가 기록한 글이 간략하고 번거롭지 아니하여 글을 잘못하는 내가 그 사친하는 도리를 즐거이 여기고 공의 뜻을 이어 사양치 아니하고 위하여 말하여 가로되 공의 諱는 旻煥이요 자는 士仁이니 固城人이라 시조는 小伽椰王이요 증조의 諱는 수요 麗朝의 대신으로 낙천군에 봉해지고 本朝에 들어와 諱 빈길, 호 죽강은 倭적을 물리친 공으로 우의정을 증직 받고 시호는 양혜요 낙안읍 四忠祠에 배양 받으니 공의 十三世祖라.

고조의 諱는 덕장이요 증조의 諱는 만경이요 조의 諱는 용삼이요 부의 諱는 낙성이니 四代가 다 문행에 이름이 있었다. 모는 광주정씨 희원의 따님이요 화곡 諱 사호의 後라. 공이 순조 甲申 八月 五月에 나서 어려서부터 효도하고 순종하고 삼가고 진실하여 못 아이와 더불어 희롱

하지 아니하며 부지런히 학습을 연마하니 어른들이 칭송하였다.

집의 가세가 여유치 못하여 모친께서 자주 병환으로 계시니 공이 몸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되 수고로움을 기탄치 않고 틈만 있으면 즉시 용산 朴公 完진씨에게 달려가 학문하기를 정성스럽게 하여 행하기를 더욱 독실이 하였다.

부친의 병환이 위급할 때 공이 손가락을 찌어 진혈하여 잠시 연명시켰으며 孺人께서 여러 해 굶은 병으로 모든 약이 효가 없으니 공이 날마다 우려하더니 기이한 꿈을 얻고 밭 가운데를 파서 옛사람이 소장한 법유를 얻어 써서 치유하신 후에 남은 기름이 물로 변하여 불이 붙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지성의 소치가 아니겠는가?

부모의 전후 상사에 조객과 조장이 많았다. 장후에 철즉 三年에 상복을 벗지 아니하니 그 형용이 상주의 표본이었고 金齋선생 상에 복을 입고 三年간 오당 李公의 문하에 들어가지 아니하니 우리 도를 위하여 그 스승의 상사를 근심함이 이 같으니 그 학행함이 항상 몸소 행하고 실지를 이행하는데 힘쓰고 헛되이 말만 잘하고 실지 없는 글을 쓰는 것을 병통으로 인정하고 경전과 자집을 차례로 읽어서 실수 없이 이르러 부지런이하여 매양 사람으로 더 붙어 본의를 힘쓰고 자기의 이로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호시 강변으로 옳고 그른 것을 꾸미면 공은 미소 지을 뿐이니 그것은 朋友間에 마음을 깊게 하고 우의를 두텁게 함이더라.

丙子年 가을에 나라에서 금주령을 내리니 선생이 사당에 고축하고 술을 끊으며 자연이 병이 생기시니 공이 일찍이 그 증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 때에 모든 어진 이들 입재 송정승과 연재 송공과 오당 이공과 同門人 여러분들도 강호를 베풀어 환희함이 집안에 가득하게 이르니 찬을 마련하여 여러 날을 대접하되 조금도 해이함이 없으니 또한 공의 천성이 병우에 보임이요 자기의 교화가 집안사람에게 끼침이라. 동료 가운데 세력이 있는 사람이 천척을 보고 화복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은 바른말을 못하거늘 공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또한 바른길로 인도하여도 능히 고치지 않은 즉 우연히 끊으니 그가 공의 선영에 林木을 해할 계획을 하여도 본체하지 않더라.

평생에 글짓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직 글 읽는데 전념하여 편지 정도로 기록한 것이 약간 있다. 고종 계미년 정월 二十七日에 별세하시니 수는 六十이시다. 전의 송치 간좌에 장사하니 선인들의 묘 근처라. 配는 파평윤씨 득규의 女요 繼配는 남양 홍우섭의 女니 묘는 한제절에 각기 봉분하였다. 장남은 재영이니 윤씨가 낳고 차남은 재주니 홍씨가 낳았다. 맏아들의 男은 학수며 夭壽하고 형수, 덕수요 둘째아들의 男은 익수라.

공의 순미한 자질과 지성한 효도로서 유술에 종사하여 해당에 공식이 되니 그 이름으로 천거함에 올라 아깝게 쓰이지 못하였으나 공의 뜻이요 직안으로 그 실상을 뒤음에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아닌 것은 흥중에 아니 두고 이것이 그의 어짐을 말하여 줌이라.

오호라 과거에 공과 더불어 서로 상종할 때도 성대밭 마을에서 매양 말하기를 왜놈들이 우리를 업신여겨 자주 침범하니 이것이 나라에 무궁한 근심이 된다 말하고 서로 개탄하고 상심하였더니 이제 수십 년간에 시변이 이 같으니 공의 긴장이 어찌 복되지 않으랴. 돌아보건대 나의 연륜이 육순에 해상 조그마한 섬에 도망하여 아득히 자적하여 길게 흐르는 눈물을 금할 길 없으며 또한 스스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더니 이제 공의 행장을 찬하게 되니 아울러 소감을 써서 뒷날의 군자에게 고하니 엿드려 빌건데 다행히 그 뜻을 예쁘게 여겨 이 말을 채택하면 하노라.

#### 勇菴處士金公墓碣銘并序

勇菴處士金公以寡黙之資誠孝之行早遊全齋任先生門得聞修齊之要而終有老成篤實之稱偉哉其從玄孫顯相氏與本孫炳俊齋良齋先生狀德之文千里東來介其族永和甫請壽阡之文余之末學何敢贅哉永和甫同門長德言實而重不敢辭依狀而叙之諱旻煥字士仁勇菴號也固城金氏始祖小伽倻國末露王中祖諱隨麗朝大臣封洛川君生諱彌直提學諡良平生諱贊吉號竹崗討倭功 贈右議政諡襄惠享樂安忠愍祠朝鮮 太宗勳臣公十三代祖也諱德章諱萬慶諱龍三皆有文行諱樂聲號慕隱堂有仁孝之行全齋先生撰碣銘四世而光州鄭喜元女禾谷諱賜湖之后妣也

公生而仁厚眞實嘗不遊戲性勤藝業父疾革斫指進血母病數十年百藥無效夢感于田間掘取則昔人所藏法油用之得差此非孝誠所致耶前後喪哀禮備盡全齋先生之喪加麻三年其誠實之行質諸鬼神無疑常以躬行踐履爲務惟經傳是讀不爲外物所累師友間有深信望而如從遊立齋相公淵齋宋公悟堂及同門諸賢可知矣平生不多著述文集若干卷行于世 純廟甲申八月五日高宗癸未正月二十七日生卒而壽六十初葬于全義後移安于燕岐東面合江里 坐原與二夫人合封二男載永尹氏出載得洪氏出入系于義煥后載永男女學銖亨銖德銖綾城具然瓚妻載得男女益銖瑞山柳鎮基妻餘略公之實行實德洋溢乎師友間而爲鄉黨矜式則若有縣薦而施則於邦家化民成俗之道豈爲小補哉惜乎未也噫繼以銘曰

淳實其資孝悌其行早遊全翁趣向端貞去私取仁背暗磨明襄惠之后能傳其聲忠孝其家天必降榮人孰不敬處士之塋  
檀紀社三三三年庚辰立秋節 江陵 咸弼鎬 謹撰

[譯文]

勇菴處士 金公이 과묵한 자질과 성효의 행으로 일찍이 全齋 任선생 문하에 들어가서 수신제가의 도리를 얻어 들어서 마침내 늙어서 독실하다는 일컬음이 있으니 위대하신 분이다. 그의 從현손 자 현상씨가 本孫 병준으로 더불어 長齋 田선생의 행장문을 쌓아가지고 천리 동쪽으로 와서 그의 죽인 영화씨를 소개하여 묘갈문을 나에게 청하거늘 내 넉넉지 않은 배움으로 어찌 감히 군말을 하리요.

영화씨는 같은 문하의 덕이 있고 언행이 신중한 사람이라 감히 사양치 못하고 狀文을 의지하여 그를 떠나 휘는 旣煥이요 자는 사인이니 용암은 호라 고성김씨니 시조에 소가양극 말로왕이요 中祖의 휘는 隨니 麗朝의 대신으로 낙천군에 봉했고 휘 彌를 낳으시니 직제학에 시호는 양평이요 휘 빈길을 낳으시니 호는 죽강이라.

왜를 친 공으로 우의정을 증직 받으시고 시호는 양혜요 낙안 충민사에서 배향 받으시니 조선 태종조의 훈신이니 공의 十三代조라. 휘 덕장과 휘 만경과 휘 용삼은 모두 문행이 있었고 휘 낙성, 호는 모은당이며 어질고 효도한 행실이 있어서 全齋 선생이 묘갈명을 찬하였으니 이분들이 四世시고 광주 정희원의 女요 화곡 휘 사호의 后는 어머니시다.

공이 나서 인후하고 진실하여 항상 놀고 희롱하지 않으며 오직 부지런하고 제일만 힘썼으며 아버지의 병에 손가락을 찌어 피를 먹였으며 어머니 병 수십 년에 백약이 무효하더니 꿈을 꾸고 발득에서 옛사람이 간직한 法油를 굴취하여 써서 효를 얻으니 이것이 효도의 소치가 아니겠느냐? 부모 상사에 슬픔과 예를 갖추어 다했고 全齋선생 상사에 삼년간 베옷을 더하니 그 성실한 행실에 진실함을 모든 귀신들도 의심치 않았다. 몸소 행하고 실천함을 힘썼으며 오직 경전 읽기를 힘썼으며 옳지 않은 일을 범하지 않았다. 선생과 벗 사이에 깊이 믿고 바램이 있어서 입재 상공과 연재 송공과 오당 및 그 동문 제현이 가히 서로 두터웠다.

평생에 많이 저술하지 않아서 문집 약간 책이 세상에 행하며 순조 갑신 팔월오일과 기미 정월이십칠은 생과 즐기고 수는 육십이라 첫 번째 장사를 전의에 지냈고 후에 이장하여 연기 동면 합강리 좌원에 두 부인과 합봉했다. 두 아들이니 재영은 윤씨가 낳았고 재득은 홍씨가 낳았는데 의환의 아들로 출제했다. 재영의 아들과 딸은 학수, 형수, 덕수요 능성구연찬의 처라. 재득 남녀에는 익수요 서산 유진기의 처라. 나머지는 생략한다.

공의 실행과 실덕이 사제간에 넘쳐서 해당의 공식이된 즉 만약 고을에서 천거함이 있어서 벼풀어진 즉 나라와 집에 화민하고 成俗에도 어찌 도움이 적었으랴. 아깝도다. 그렇치 못했으니 슬프도다. 이어서 명에 가로되 순실한 그 자질이여 효도하고 공경한 그 행실이로다. 일찍이 전공을 찾았음이며 취향이 단정하도다. 사를 버리고 인을 취하며 어둠을 등지고 밝음을 행했도다. 襄惠의 후손이여 능히 그 소리를 전했도다. 충성하고 효도한 그 짐이여 하늘이 반드시 영화를 내릴지로다. 사람마다 누가 공경치 아니 하겠는가? 처사의 모로다.

### 龜庵公事蹟

公諱慶長字敬德號龜庵又瓦退修堂小伽倻金末露王後也開國功臣襄惠公之六代孫旅軒張顯光門人 明宗丙寅生于高陽楮

田村天姿清秀才力果人自幼孝奉兩親定省之節溫清之道克遵古禮母嘗有疾月餘晝宵焦憂年未四十鬚髮盡白疾愈還黑時值冬寒母欲食辛甘菜公泣菜忽生而進饌 光海朝除縣監辭不赴職隱於紫霞山林間構精舍數間因號曰退修堂講究性理發揮經傳爲士林宗匠 仁祖丙子遭於胡亂倡募義旅公之時年七十一載率數百人躬環甲冑至結城郡而聞和成痛哭還鄉而不勝忿恨杜門不出嘆曰大丈夫平生雅志一掃凶賊立身揚名以顯父母錦衣還鄉是男兒快事未得如意嗚呼痛哉是亦運也奈何事見邑誌  
丁酉秋菊月望日 趙在元 謹撰

## [譯文]

公의 휘는 慶長이요 字는 경덕 호는 구암이니 또한 퇴수당이라 하였다. 소가야 김말로왕의 후예라 개국공신 양혜공의 六代손이요 여헌 장현광의 문인이라 明宗丙寅에 고양 땅 楮田村에서 나시니 天姿가 청수하고 才力이 과인하여 어려서부터 효도로 양친을 섬기되 尊하고 살피는 절차가 온후하고 바른 도리의 古禮에 막게 하시더니 모친께서 일찍이 병환이 있어 연말이 넘도록 주야로 근심하여 연세 四十미만에 수염과 모발이 백발로 변하였으나 병이 치유되시니 다시 검어졌으며 추운 겨울에 어머니께서 얇은 채소를 원하심으로 公이 전원에서 구하고자 애원과 낙루로 근심하니 홀연히 생채를 얻어서 모친께 바치게 되었다.

광해조 때 현감을 제수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  
이 하시고 자하산 숲 사이에 정자 二間을 세우고 퇴수당

이라 이름하고 성리학을 강구하며 경과 전을 발휘하여 사림의 중장이 되셨다. 인조 병자에 호란을 만나 의병을 모집하니 공의 시연이 七十一

세라 수백 인을 거느리고 모에 갑주를 입고 결성군에 이르러 화에 이루어짐을 듣고 통곡하며 환향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며 두문불출 하시며 탄식하여 가로되 대장부 평생에 가진 뜻이 한번 흉적을 쓸어버리고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나타내고 금의환향함이 남아 채한 일이거늘 이 뜻을 얻지 못하였으나 오호 통재라 이 또한 운이거늘 어찌할고 하더라. 평생하신 일이다. 읍지에 실렸다.

### 僉使金公墓表

麟經之義炳然數十而尊攘爲大在昔島夷之猖獗也余入五臺山與固城金公重教握髮耦耕以俟河清因講其先系則曰本朝襄惠公諱贊吉有討倭功六傳龜庵諱慶長張旅軒門人配昌寧成氏生諱春茂以擊串僉使當 仁祖丙子胡亂而和議梗生於南漢城遂成千古之耻公自以不能盡忠報國茹恨飲泣投紱入摩尼山沒齒人或勸起而不屑焉配濟州高氏班松峴卯坐是藏也二男長銀亮判官次德亮長房一男成立判官次房二男繼立副護軍禮立我金之居江都者自僉使公始也當日酬酌完如疇昔而於焉數十星霜日金公之孫永和問僉使公墓文誼難牢辭乃述厥祖之言而曰嗚呼丙子之事尚忍言哉公所處之地相左所帶之職不稱故旣不能

討滅胡酋又不能與金仙源同殉但事定後憤慟噓唏如林忠愍之於義州而已雖然厥後君國如舊故百官各守其職而當時君子以不出爲第一義理蓋重麟經之意也公之忍痛含冤土處木食俱與名字欲湮於天壤間其或默會此意而有甚不得已者歟道喪此世孰知其貴其視臨難苟免忍耻事雙者不可同日而語也後必有辨之者矣

江陵 崔永大 撰

[譯文]

麟經에 의리를 밝힘이 수십의 이치가 존양함에 위대하다. 전날 왜적이 창궐할 때 내가 오대산에 들어가고 고성 김공 증교로 더불어 머리털을 잡고 발을 갈며 河水가 맑기를 기다릴 때 그의 先祖들을 강하여 왕 本朝에 양혜공 휘는 빈길이 왜적을 물리쳐서 공을 세우고 六世에 구암 휘 경장이 장여헌 문인이니 배는 昌寧成氏요 휘 춘무를 낳으니 벼슬이 月串 첨사로 인조 병자호란을 만나 갑자기 화의가 남한선성에서 체결되어 천고의 수치를 이루니 공이 몸소 능히 진중하여 보국하지 못하고 여한의 눈물을 머금고 인근을 버리고 마이산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다시 벼슬하기를 권하였으나 듣지 않고 천수를 다하였다.

配에 제주 고씨요 반송현 묘좌에 장사하였다. 두 아들을 낳으니 장남은 은량이니 판관이요 차남은 덕량이라. 은량의 장남 성립은 판관이요 덕량의 장자 계입은 부호군이요 차자는 예입이라. 우리 김씨가 강도에서 사는 자

첨사공으로 시작 되었다고 이약 한 날이 완연히 옛날 같다. 수십 성상이 지났는데 어느 날 김공의 손자 영화가 첨사공의 묘문을 청하니 글이 사양할 처지 못 되어 인하여 그의 선조 첨사공의 묘문을 지으며 가로되 슬프도다.

병자 때에 사세를 차마 어찌 말할 수 있으랴만 공의 거처가 상소하고 또한 소임한 직분에 한계가 정한대로 능히 호병의 추장을 쳐서 떨하지 못하고 또한 능히 김선원과 같이 죽지도 못하고 다만 사태가 잘못되어 분통하고 통탄함이 임충민의 의주에서와 흡사하였다.

비록 그러하나 임금님과 나라가 무사하고 백관이 각기 그 직분을 지켰으나 당시에 군자분들이 출세치 안함을 第一의리로 삼았으니 이것이 다 인경을 증히 여긴 뜻이라 공이 아픔을 참고 억울함을 머금고 토담에서 살고 목피로 연명하며 이름자로 더불어 천양 간에 숨기고자 함은 그혹시 존양의 의리가 묵묵히 부합하여 유심하게 부득이한 자 아닌가? 도를 승상치 않는 이 세상에서 누가 그 귀한 것을 알리요 어려움을 당하여 구차하게 면하고 수치를 참고 원수를 섬긴 자들과 가히 같은 날에 말할 바 되지 못하니 후일에 반드시 판단할 사람이 있으리라.

### 仙源派祖學生公墓表

府君諱德亮姓金系出固城小伽倻璿源而世代杳遠麗朝諱隨衣

翊社勳封洛川君生諱彌平安伯諡良平生謂贊吉號竹崗祖鮮國  
 太宗朝以功勳行兵曹判書 贈右議政諡襄惠府君之八世祖也  
 諱世應行魯城縣監 贈戶曹參議諱僖水軍僉節制使訓練院都  
 正諱慶誠號龜庵旅軒張先生顯光門人有孝名諱春茂保功將軍  
 月串僉使高曾祖欄妣淑人濟州高氏府君生仁祖朝壬申二月五  
 日忌九月十日配康津安氏生癸酉忌十月九日墓江華郡仙源之  
 錦月里永谷陽辛坐雙兆附左生二男長繼立秉節校尉次禮立長  
 生一男以宗次生一男以存嗚呼至今墓下數十基塚羅列是古之  
 周禮族葬之法也然墓之有表古之道也而都之古家多以堪輿之  
 說父具墓石吾先人亦已然既然則于今子孫轉居各地日居月諸  
 昭穆代謝其於無表之累累塚塚將何以辨之而伸其如在之誠乎  
 其然未然終不免黃山之牛黑夜之烏矣故有意者率先現誠詢諸  
 族而將各立表石而府君即仙源之派祖也故爲先謹具墓道排設  
 如儀爲孫之道也宗議如一囑余陰刻之文余不文辭而不得謹叙  
 之嗚呼悲夫府君以簪纓之後裔仁義禮智之行可述者應多焉數  
 百星霜河劫頻煩文獻無徵豈敢以無謂有姑略識如右以後之立  
 言君子云爾

十二代 雲孫 永和 謹識

[譯文]

府君의 휘는 덕양이요 성은 김이요 계통은 固城 소가야  
 옥골의 연원인데 세대가 묘원하고 고려조 때에 휘 隨가  
 翊社 훈을 받아 낙천군에 봉해지고 휘 彌를 낳으시니 평  
 안백에 시호는 양평이요 휘 빈길을 낳으시니 호는 죽강이

라 조선국 태종 조 때에 공훈으로 병조판서를 행하시고 증 우의정에 봉해지고 시호는 양혜라 받드셨으니 부군의 八代祖라.

휘 세응이 노성 현감을 행하시고 증 호조참의를 받으시고 휘 희는 수군첨절제사 훈련원도정을 지내시고 휘 경성호 구암은 여헌 장선생 현광 문인으로 효명이 높으셨다. 휘 춘무는 보공장군에 月串僉使니 高, 曾, 祖 櫺 四世요 비는 숙인 제주고씨라 부군의 생일은 인조 임신 二月五日 이요 기는 九月十日이요 배위는 강진안씨니 계유생이고 기는 十月九日이요 묘는 강화군 선원 금월리 영곡양지 후坐 쌍조니 부좌라. 두 아들을 낳았으니 맏아들 계입은 병절교위요 둘째아들은 예입이라 맏아들이 일남을 낳으니 이종이요 둘째아들이 일남을 낳으니 이존이라.

대단하다. 지금 묘하에 수십 기가 나열하였으니 이것은 주나라 족장 법이라. 그러하나 묘에 표석이 있는 것은 옛날에 도인데 江都에 고가들이 많아 지사의 말에 의하여 묘석을 갖추지 안이 하였으니 우리 조상님도 역시 그러 하셨다.

그렇게 한즉 지금 자손들이 각지로 옮겨가 살며 날이 가고 달이 쌓여 昭穆이 대사하여 그 표석 없는 여러 묘를 장차 어찌 분별하여 그 묘소 제시는 것과 같이 순서대로 정성을 펴리요 그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여 마침내 누른 산에 소와 검은 밤에 까마귀를 면하지 못하겠기로 뜻있는 분들이 술선하여 성의를 보여 제족이 장차 각기 표석을 세우기로 하고 부군은 곧 선원에 파조시니

때문에 먼저 석의를 배설함이 자손 된 도리라 하고 종증의 뜻을 모아 아에게 음각할 그을 말기니 내 글을 못함으로 사양하였으나 부득이 하여 삼가서 펴니 크게 슬프도다.

부군이 잠영의 후예로 仁, 義, 禮, 智에 행을 가히 지을 만한 것이 응당히 많으시련마는 수백 년 지나오며 역경을 빈번이 겪어 문헌이 증거가 없으니 어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리요 아직 간략히 기록하여 후세에 말할 근거를 기다린다.

行順陵參奉通政大夫月浦公墓表

府君諱秉斗字子成號月浦姓金固城人小伽倻國 末露王爲肇祖麗朝大臣諱隨封洛川君生諱彌平安伯直提學諡良平生諱贊吉號竹崗 藝祖洪武丁丑以白以起旅討倭功三道水軍都節制使召遷兵曹判書世子師傅贈右議政諡襄惠封鐵城傳之諱春茂行月串僉使府君九世祖諱壽康副護軍諱漢慶諱鳴大諱枝祿高曾祖禰妣潘南朴氏宗燁外祖府君以 純祖戊子十二月二十九日生 隆熙庚戌九月六日卒享年八十三配淑夫人晉州姜氏碩會其考 純祖庚寅十一月十八日生辛丑三月十六日卒墓江華郡仙源面永谷先塋下未坐雙窆附左生二男長龍燮娶竹山李國良女生四男三女長重鉉重哲重允重熙女適交河盧命天坡平尹順祚綾州具忠書次鳳燮娶瑞山宋厚天女生二男長重教重善鳴

呼不肖之弱冠吾祖考特招坐前而訓之曰汝之高祖考有淳厚之行明敏之學以鄉薦行順陵參奉退修前業自書扁額曰滿月浦書塾字專經傳書名播在鄉中學徒雲集多成人材中汝之曾祖考學行節義實有來矣云云之言如在其耳今譜牒之鄉薦壽通政之階不亦宜乎又府君手寫書冊若干卷傳于吾家見者感歎嗚呼百年家史如此其難證乎是亦兵禍所致歟後孫不敏之故歟執筆而太息也胄玄孫永甲與其從叔雄宰等謀石儀之久闕責余而記之余亦同地豈敢父文而辭之乎略記如右以備陵谷之患書中曾祖祖考之稱鳳燮重教也

隆熙紀元後再庚辰六月望 玄孫 永和 謹識

[譯文]

府君의 휘는秉斗요 자는子成이요 호 月浦요 성은 金이요 固城人이니 소가야국 末露王으로 비로소 祖上을 삼고 麗朝의 대신 諱 隨가 낙천군에 봉해지고 諱 彌를 낳으니 평안백에 직제학이요 諡는 양평이라 諱 빈길을 낳으니 호는 죽강이라. 我태조 洪무丁丑年에 의병으로 일어나 倭를 대판한 공으로 삼도수군 도절제사가 되시고 특별히 불러서 병조판서와 세자사부가 되셨다. 우의정을 증직 받으시고 諡호를 양혜라 하고 철성군에 봉해졌다.

전해가서 휘 春茂께서 月串첩사를 하셨으니 府君의 九代祖시다. 諱 壽康이 부호군이요 諱 한경 諱 명대 諱 지록은 高, 曾, 祖, 櫛요 母는 반남박씨니 증업은 외조다. 부군이 純祖 무자 十二月二十九日에 낳시고 隆熙 경술 九

月六日에 卒하시니 享年이 八十三이라. 배는 숙부인이니 진주강씨요 석회는 그의 아버지라 순조 景인년 十一月十八日에 낳으시고 신축 三月十六日에 卒하시니 묘는 강화군 선원면 영곡 선영하에 미좌 쌍편 왼쪽에 모셨다. 二男을 낳으시니 맏아들 용섭은 죽산 이극량의 女와 장가들이 四男을 낳으시니 맏아들은 증현이이요 차는 증철이요 次의 鳳燮은 서산 송후천의 女에 장가들어 二男을 낳으셨으니 重敎 重善이라 오호라 불초가 약관의 나이에 할아버지가 특별히 불러서 앞에 앉히고 훈계하여 가로되 너의 고조할아버지의 순후하신 행실과 명민하신 학식으로 시골의 천거를 받아 順凌참봉을 지내시고 물러와서 前業을 닦아 스스로 현판을 만월포 서숙이라 써서 붙이고 스스로 성경과 현전을 일삼아 그 이름이 널리 전파하니 행증의 자제들이 많이 모여와 배우기를 원하니 오는 사람을 막지 못하여 가르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한 가운데 너의 증조할아버지의 학행과 절의가 실로 부군의 전함이 아니겠는가.

부군 少時에 冊書 약간권이 우리 집에 전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감탄치 않는 이 없다. 슬프다. 백년의 집 역사가 이와 같이 증거 하기가 어려운가? 이 역시 난리가 잦은 때문이나 후손이 밝지 못한 연고이나 붓을 잡고 크게 탄식하노라. 현손 영갑이 그의 종숙 응재와 그 당내 여러 분들과 더불어 오래도록 산소에 석무 없음을 갖추고자 하여 나에게 표문을 지으라 하니 나 역시 같은 처지라 감히 그 못한다고 사양치 못하고 대략 오른쪽과 같이 기록하여 써 능곡에 患을 면하고자 하노라. 글 가운

데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일컬음은 鳳變 重教이시  
라.

### 終慕齋行狀

惟我固城之金以孝行聞於順天者有終慕齋開國功臣襄惠公之  
遺裔也公諱文煥字文賢自幼奉兩親一物不敢先嘗一事不敢自  
專每每焉必以誠年及稍長操行堅確言語慎重毋攻人惡貽親憂  
至於有室以孝造端下氣怡聲必盡色養甘腴之物亦未嘗乏絕其  
他定省之節溫清之道靡不用其極及其慈幃之患食飲廢止刀圭  
無效每夜祝天願以身代將至殞絕斷指注血僅救三日之命次斷  
十指因爲三月得甦其非上天感佑於冥冥之中乎鄉鄰欽嘆儒林  
闡揚本倅聞極嘉尙別具奉亨饌需以送母年七十一而終公哀毀  
踰節誠信無憾因爲廬墓孝終三年勤劬努力置祭田墓田公居家  
以儉見得思義敬於長恭於兄和於族信於友皆孝之推也世號爲  
終身慕父母之意云鄉論齊發儒狀層出呈官呈營前後題旨文蹟  
具失於甲寅水患中尙未遺傳嗚呼惜哉如是卓孝實蹟古今罕有  
而未及蒙褒然天理昭監不無日後表旌故余不勝感歎而於是乎  
書以俟立言君子感其誠而采擇焉

崇禎紀元後己亥二月上澣

族人 源三 謹識

## [譯文]

우리 固城金氏가 효행으로서 順天에 소문난 자는 종모재라는 분이 있으니 개국공신 양혜공의 후예며 공의 諱는 文煥이요 자는 문현이니 어려서부터 양친을 봉양함에 한 점의 음식도 감히 먼저 먹지 아니하고 한 가지 일도 감히 스스로 결정함이 없더니 장차 자라서 행실이 확실하고 언어가 신중하고 사람의 잘못을 공박함이 없고 부모가 불편하시면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운을 화하게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반듯이 모색으로 그 뜻을 즐겁게 하며 맛있는 음식은 끊이지 않고 정성하는 예절과 온정의 도가 극진 않음이 없이 하더니 그의 어머니의 병이 위독하매 음식을 전폐하고 의원과 약을 써도 효가 없으니 밤마다 하늘에게 자기 몸을 대신하기를 빌더니 운명 하실 때에 이르러 손가락을 끊어 피를 흘려 넣어 겨우 삼일동안 명을 구하니 차례로 열 손가락을 끊어 석 달간 회생케 하였으니 그 어찌 하늘이 감동하여 아득한 가운데 도와줌이 아니겠는가?

행리사람들이 흠탄하고 유럽에서 찬양문을 보내니 본군 군수가 듣고 극히 가상히 여겨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보냈더라. 어머니 연세가 七十一세로 마치니 공이 애희함을 절도에 맞게 하여 정성스러움이 유감없이 하고 여묘생활 三年을 마치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제전과 묘전을 마련하였다. 공이 집에 있을 때 검소하게 하고 어른께 공경하고 형에게 공손하며 친족에게 화합하고 붕우에게 신의하니 이것은 다 효심에서 비롯됨이라.

세상 사람들이 종모라 하니 그 뜻은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한다는 뜻이라 향론이 일제히 말하여 유림들의 장문이 여러 번 군수와 감사에게 전달되었다. 모든 문적이 갑인년 물난리 동안에 유실되어 아직 전하지 못하니 슬프고 애석하구나. 이 같은 높은 효행이 예나 지금이나 희소한데 아직 정려를 받지 못하였으니 하늘에 이치가 밝지 않음이 없으니 일후에 표창함이 있으리라. 믿고 내 감탄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써서 훌륭하신 군자 여러분에 그 정성을 감동시켜 채택하여 주기를 기다리노라.

### 芝隱公墓誌銘

金繼固城伽倻後中祖第土受貫久國初靖難襄惠某定社安民功無右嗣後昌熾天報厚文行顯仕實罕有遯齋經術南儒首光禪血胚知有受振鐸厥考李氏母己巳以生幼孝友八歲小學開蒙部十歲文藝騰人口枕被四人老相守貧叔衣糧常在手族戚不吝分尺斗婚葬周急及鄰部洗濯其心同去垢資益後輩足啓牖芝隱爲號良非偶入室恍如出塵白惟孝友于垂提誘浮雲富貴義不取鄉里矜式式無咎德行在公公不朽再周辛未罹陽九六十三年未爲壽配德爰有裴氏婦同葬玉盤申其負三子克家承矯揉洛現龜奎錫類否哲權求銘三山走人微文下慙覆甌

歲戊戌大呂月

幸州 奇宇萬 撰

## [譯文]

김씨는 固城 가야국의 후예요 中祖도 차례로 封君과 봉작이 많이 하였다. 국초에 난을 평정한 양혜공이 사직을 안정케 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여 功이 크도다. 후손들이 번창함은 하늘이 도우심이니 文行과 빛난 관직이 실로 간간 있어 돈제공의 경학은 남쪽 유럽에 으뜸이 되어서 현맥을 받아서 이름이로다.

진택은 그의 아버지요 이씨는 그의 어머니라 기사년에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八세에 소학을 배우고 十세에 글재주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고 사형제가 침구를 서로 같이 하고 어려운 숙부에 옷과 양식을 항상 이어 주고 친척에게 포백과 쌀을 나누어 주는데 인색치 않고 혼인과 상사에 급함을 도움이 이웃에 미치도다.

그 마음을 깨끗이 하고 후배를 양성하여 어리석음을 깨우치니 芝隱이라 호를 함이 진실로 마땅하도다. 집에 들어가면 조심하고 밖에 나가면 처신을 잘하며 효도와 우애로 이끌어 사귀고 부귀를 뜬 구름과 같이 하고 義에 합당치 아니하면 취하지 않으니 향리에 공식은 덕에 허물함이 없는지라 덕행이 공에게 있으니 공은 영원히 썩지 않으리로다.

기사년에 낳아 신미년에卒하니 수는 六十三세를 다 못살았으니 配는 덕원배씨며 玉盤땅에 합장하니 좌향은 신좌라 세 아들 극진히 집의 전통을 이으니 맏아들은 낙현이요 둘째는 구현이요 셋째는 규현이니 주석 같지 않으

라. 哲權이 이 비문을 받으러 三山에 쫓아오니 사람은 희미하고 글은 잘 못하니 부끄럽게 여긴다.

### 聾默軒行蹟

公諱相宜號聾默軒生而雋異天性至孝事親極誠才藝過人八歲入小學從師服膺十歲通論語孝經等書至言忠信行篤敬之訓及長安貧樂道不工科業喫緊經學行義文章爲士林所宗時繡衣李秉貞聞見公之德行家聲稱而贊之曰千里南來一見君子云因號曰聾默軒及卒本倅李永琦聞公之訃慨歎追輓優賻于時吏曹正郎金明國承訃驚歎尙致慰狀哀輓今當修譜之日以實蹟舉槩追錄於刊牒中以傳子孫公之所述家訓未得盡記日後必有表旌之意是所欽望

辛丑二月上澣

幸州 奇宇萬 謹書

### [譯文]

공의 휘는 相宜요 호는 농무현이니 固城人이라 나서 문장 학습이 타인에 비하여 다르고 천성이 지극히 효도로서 부모를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고 재능이 또한 출중하여 八세에 소학을 배울 때 스승을 따라 복종하고 十세에 논어와 효경의 글을 통하여 언중신 행동경 편에 이르러 읽기를 독실이 하니 성장하여 간구함을 인내하고 도를 즐거이

하여 과거 공부를 아니하고 경학에 힘쓰니 행의와 문장이 사람의 으뜸이 되니 어사 이병정이 공의 덕행과 가성을 전문하고 칭찬하여 말하기를 천리 남쪽에 와서 군자를 보았도다 하더라.

전하고 인하여 호를 농묵헌이라 하고 돌아가신 후에 본군 군수 이영기가 공의 서거하심을 듣고 슬퍼하여 만사문과 많은 부의를 하였고 그 때 이조정랑 김명국이 부고를 받고 경탄하여 위장문과 만사를 보내왔다.

이제 족보를 수록하는 날을 맞이하여 실적을 기록하여 보첩 중에 끼여 자손들이 알게 함이며 공이 지으신 가훈을 다 기록하지 못하니 일후에 반드시 표하고 정할만한 뜻이 있으니 이것이 흠족한 바라.

#### 丁孺人述

孺人丁氏籍靈光諱夏元之女不憂軒克仁之後也十七而笄十八于歸之初載值其夫之病殞斷指割股瀉血注口幸得一日之回甦翌朝永逝回甦則天感永逝則奇數崩城之痛無人可言噫以哀寃之心僅過襄禮初暮而痛殞之心抑爲層生遽及大祥之日終喪之禮無憾於誠心而有徹酢之後不勝痛寃節死夫之墓下天地晦暝星月無光山川寂寥草木失色于時以諺書作結寃辭其辭曰哀痛老母難忘呼泣孤子生別身世已無羽翼未作青天之飛鴈雖有音信難得碧海之躍魚生前遺業死後虛事三年家產萬頃風波千金

田土九疑雲霧手中傳物秋山落葉胷中藏語春水解冰斷指割股  
雖有活夫之性殞命結冤煥愧失主之魂因死墓下侄子有鎮氏發  
喪作解冤祝祭于墓前上下人民莫不悲感因以誦歌曰丁烈婦之  
結冤金孝子之解冤萬古無雙云尤極副實所可恨者如許之貞烈  
尚未蒙褒不勝慨歎於是乎述

崇禎紀元後五戊戌十二月下浣  
幸州 奇字萬 謹  
撰

[譯文]

유인 丁씨의 적은 영광이니 하원의 따님이요 불우한 극인의 후예로 十七세에 성례하고 十八세에 固城金氏 가문에 들어와 그 해에 남편이 병환으로 운명할 즈음에 손가락과 다리를 베어서 피를 먹여 약을 하여 그날은 갱생하고 다음날 영원히 운명하니 회생함인즉 하늘이 감동함이요 길이 간고로 즉 그 수가 다 한곳에 있다. 그 슬퍼함은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음이라.

오호라 애원하는 마음으로서 겨우 양례와 소상을 지내고 통절한 마음 금할 길 없어 대상 날에 상사 마치는 예를 유감없이 성심껏 마친 뒤에 통탄함과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망인의 묘 밑에서 죽으니 천지가 암담하고 별과 달이 빛이 없고 산과 내가 적적하고 초목이 실색하더라. 유서를 남겼으니 그 글에 썼으되 애통하는 노모를 잊기 어렵고 호흡하는 외로운 아이를 이별하도다. 신상의 의탁할 곳이 없으니 청천에 나는 기러기를 짓지 못하고 비

록 음言이 있으나 벽해에 뛰는 고기를 얻기 어렵도다.

생전에 남긴 업은 사후에 헛된 이이요 三年가산이 만경  
풍파로다. 천금이 田土는 구의에 운무로다. 手中의 전  
물은 秋山의 낙엽이요 흥중에 잠긴 말은 春水에 해빙이로  
다. 손가락을 자르고 다리를 베인 것은 비록 지아비를  
살릴 마음이었으나 운명하여 결원하니 도리어 주인 잃은  
혼이 부끄럽도다 하였다.

조카 유진이가 발상하고 해원에 축문을 지어 묘 앞에  
제사하니 上下人民들이 모두비감하게 여기더라. 인하여  
가로되 丁氏의 열부인 결원함을 김효자가 해원함은 만고  
의 무쌍이라 하더라. 실로 가히 안 된 것은 이 같은 정  
열로써 포상을 받지 못함이 개탄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  
같이 지었노라.

### 遯庵公事蹟

公諱색官 顯廟守門將號遯庵竹林先生之曾孫風神秀明無意  
仕宦仍遯居矣陽舊庄勸勉子孫之文學爲業敦睦親戚之厚誼爲  
戒 顯廟賓天之日以身在外縣未由赴喪入山痛哭每朔望設壇  
焚香使人莫知憂國誠忱事親甘旨愈久愈篤鄉黨鄰里莫不以忠  
孝兼全推許平生調窮信交之節難可殫記八耄享壽一心不懈猗  
歟休哉

## [譯文]

공의 휘는 색이요 호는 돈암이니 현종 때에 수문장을 지냈으며 그 후 벼슬에 뜻이 없어 곧 향리에 돌아와 자손에게 학문을 권장하고 친척에게 돈목함을 장려하더니 현종도 승하하시어 연고 있어 부상치 못함을 더욱 슬퍼하여 정결한 곳에 단을 묵고 초하루 보름으로 망곡함을 태만이 않고 부모 섬기기를 독실이 하며 서용으로 벼를 사귀니 향리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보더라. 八순이상을 살았으되 몸가짐이 단정하였으니 그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 雪月公墓表

永平之南三十里許角飛之麓枕壬而面丙者故嘉善大夫金公諱南宗字宗淑號雪月暨其貞夫人昌寧曹氏之合塋子孫欲成墓儀六世孫稷洙銘洙求表請文曰斯祖守分飲啄清儉所愛雪松月梧之操雖有稱述者文獻無徵願子孫以表其墓噫凡今之人或以別人之行掩其真面者多有之惟此固城金氏則無是也使乃祖不爲別人於九原子孫之賢祖先之德可徵可芬且聞公之後裔今爲數百官冕不有積行之德垂啓者可如是耶公得其壽壽階嘉善大夫昌寧曹氏有二男長光澮次光粹又有五孫雲庵公之經義竹軒公之卓行師峯公之德學睡庵公之志節遯亭公之清雅班班綿綿實爲後人觀感而興起焉夫

丙辰孟春 行州 奇宇萬 謹書

[譯文]

영평남 삼십리 각비산밭에 임방을 베풀고 병방을 행한 자는 故 가선대부 김공 휘 남종 자는 宗淑 호는 설월이니 그의 정부인 창녕 조씨와 합장한 묘라 자손들이 묘비를 이르고자 하여 六世손 진수와 명수가 표문을 구하여 가로되 이 할아버지가 분수를 지켜서 음택이 청금하여 늑속 소나무와 달밀오동나무를 사랑하여 글 지음이 많았으나 문헌이 없으니 자손이 그 표에 표식함이 원이라. 무릇 지금 사람들이 혹시 별난 사람에 행실로 그 참 얼굴을 가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오직 고성김씨는 그렇지 않으니 선조가 九原에서 별난 사람 되지 아니하여 자손의 어짐과 조상의 덕을 가히 증거하고 가히 믿으리라.

또한 들으니 지금 공의 후예가 수백 인이나 되는데 벼슬하는 사람 있지 않으나 덕행이 대대로 계승된 지를 알겠도다. 공이 그 수함을 얻음으로 수로 가선대부가 되고 정부인 창녕 조씨가 두 아들을 낳으니 맏아들은 광회요 둘째는 광수요 손자는 다섯을 두었다. 운암공의 경이와 죽헌공의 탁행과 사봉공의 덕학과 수암공의 지절과 돈정공의 청아가 반반하고 면면하여 실로 후인들의 보는 감동을 흥기하는 도다.

### 宋夫人孝烈事蹟

夫人宋氏籍恩津父宗甲之女也年十九嫁爲固城金志傑之妻天賦之性順婉淑德規範已有異操凡事舅姑順志之孝甘旨之供奉祀之禮無一少懈依若小學顏氏家訓之道也親戚悅服隣里鄉黨孰不欽歎也哉不幸夫子以風疾委席半年浸以危劇夫人嘗藥殫誠冀得回天而竟不救甦不滅燈火夜以繼晝六月十六日終無少懈此非天出之烈何如是耶終天之時以托養育夫人年二十九孤兒錫準年八歲也殯葬祭尊式禮不弛三年之間不矧不翔不櫛髮不易衣夏不搖扇冬不近煖有人所不堪者而處之若是固然終喪不違臨終遺言夫人或欲下從孤兒扶泣救生強忍不爲以釋兒至孝已闕三年又遭舅艱哀毀禮節一如夫喪以三從之義爲道宗族鄉人孰不感歎哉噫方今世界滔滔無由上達天陞未蒙旌閭之命可歎可歎古之烈士垂名彤史者亦何以加此哉一烈猶難而兼備孝行自今而往罕世之事也詩云永錫爾類其在斯歟夫人長孫銘洙甫抱實錄請余一言不敢容贅而感其孝烈心僅構數行焉

乙卯除月下澣 日 幸州 奇宇萬 書

#### [譯文]

부인 송씨의 본관은 은진이니 종감의 따님이요 나이 19세에 시집와서 고서 金志傑의 처가 되었다. 천성이 순환하고 숙덕하여 모든 일에 규범이 있게 하여 남보다 다르며 구고를 섬기되 뜻을 순하게 하고 음식을 맛있게 하여

극진히 효도하고 제사를 받들되 예와 정성을 다하여 조금도 해이함이 없이 하며 소학에 안씨집 가도와 같게 하니 친척들이 즐겨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칭송하였다.

불행히도 남편이 풍병으로 반년이 지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니 부인이 약과 정성으로 도와 등불을 끄지 못하고 주야로 있는 지 육개월 十六일이 되어도 조금도 해이하지 아니하니 하늘이 내린 열부가 아니겠는가? 어찌 회생치 못하고 세상을 마칠 때 부인에게 어린 아이들을 잘 기르도록 부탁을 하였으니 부인이 나이 二十九세요 아들 석준의 나이 八세였다.

장사와 제사 때에 예를 다하여 웃어도 치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보행 시에도 손을 들지 않고 머리를 모양내지 않도록 하며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여름에 부채를 쓰지 않으며 겨울에 따뜻하게 입지 아니하니 사람마다 이렇게 하기 어렵건만 처신함이 굳게 하여 장사를 마치고 임종 때의 유언은 혹시 부인이 따라 죽을까 염려되어 한 말이므로 고아의 손을 잡고 울며 억지로 참아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하였다.

어린 아이도 지극히 효성스럽게 이미 三年상을 마치고 또 시부의 상사를 만나 모든 예저를 먼저 상사 때와 같이 하며 여자로서 삼종지도의 예를 쫓아하니 종족과 향리 사람들이 누구나 감탄을 아니하겠는가? 슬프다. 지금 세계의 인도가 함함하여 향리 사람들이 나라에 천거하는 법도와 나라에서 정렬을 내리는 법도 없으니 가히 탄식하겠도다.

옛날의 열녀와 열사들로 이름을 남기는 자 어찌 이보다  
나으랴 열행 한 가지 만으로도 어렵거늘 효행 또한 이 같  
으니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드문 일이라 주역에 영석  
편과 같음이 이에 있구나. 부인의 큰 손자 명수가 실록  
을 제시하고 나에게 한마디 하여 주기를 청함으로 감히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고 그 효열에 감동하여 겨우 몇 줄  
글을 짓도다.

#### 明菴公行狀

余昔聞湖南地方勝氣萃往往鍾賢君子多矣今按昇平士人抄明  
菴行錄信傳聞之不謂盖公姓金諱奎煥字聖源明菴其號也貫固  
城小伽椰末露王之后我 朝靖難功臣諱贊吉號竹崗官檢校政  
丞贈右議政諡襄惠之十六世孫 中宗朝有諱世珍行水軍節度  
使於公十二世也曾祖諱兌潤以孝行登鄉道繡薦道諱鴻卓有文  
行考諱之烘以儉德稱妣星州裴氏泰永女公以憲廟庚子十一月  
五日生稟性剛明端直六七歲時能知子敬之道父母之命靡有少  
違八歲入學不惟才藝之穎悟言必恭行必正如老成人同窓儕流  
爲之敬服纔過十歲孝經小河等書無不通曉其夙茂特達盖如是  
也欲就賢儒門執贄無奈於家勢之貧瘠於是以功令爲業遊於鄉  
塾而亦恨費之不贍母氏學誠極至己則鱣粥生活而血心補羸紙  
筆墨則手所織而資之也時當澣濯無以替舊借鄰服而着之隣人  
有謂如是其因保命尚難何教子之切切乎曰生子不教奚足以知

義方奚以立世間乎且人而無教不如無生爲父母者曷父力於所以教之耶教之而卓乎有成則亦足榮矣吾固甘於苦而不自苦也少無懈怠之心自是鄉里以孟母比之公承順其意孜孜篤學夜以繼日至十八九科文六體盡熟之尤善於賦人稱賦仙以至三十從事舉業京鄉試場連未中第遂決意捨去曰富貴有命難以力求不如移此心盡於奉養之道聞有嘉味則不計遠近必往質得供旨不節凡親患進糜侍湯躬自手之少不離側戊寅四月奄遭外艱哀毀踰節雖盛暑衰麻不去身旦暮省墳不避雨雪三年喪畢專心於經學整襟危坐性理群書手不暫釋因築室於溪傍清纓濁足聊以自適遠方人士多從之稱爲溪隱先生乙酉年間居郡校時本倅李範晉重之公事之暇輒至庠舍講論經義遂加歎賞曰君子哉若人更號以明菴蓋取其明經之義也戊戌二月又丁內艱葬日朝雨滂沱公仰天頓足大聲痛哭曰親體入地之日是何光景必吾不孝之所由雖震死無恨長立於暴下之中祝天不已少頃雨忽快晴襄禮安行人皆曰孝感之致或者云哀誠上通天以淚雨送葬公之守禮始終凡百一如前喪公有三十餘年服中宿病每當症發慮慈堂之愁外若不痛至於危則母氏令巫覡禱之公曰吾平生不好看妖事而此則母使之也安敢逆乎哉及其永感也嚴禁巫覡不入家庭作妖宗孫身死奉先祀以至誠家弟早亡育姪子如己出和於家敦於族厚於戚信於友未嘗以呌言戾色加諸人 高宗甲辰十月九日卒壽六十五葬于別良面栢洞後麓子坐原有遺集事載郡道誌配仁同張氏世權女舉二男四女長男碩鎬婦完山李在容女次男昌鎬早死婦慶州李鍾淵女以烈行有士林褒彰狀亦詳於郡道誌一女適青松沈宜鍾二女適文化柳尙燦三女適文化柳在潤四女適玉川趙昌勳孫琫溱正洙一房男碩鎬出洪洙玟洙二房男昌鎬出噫

公之至行碩德如是卓爾故刪煩撫實略叙如右後之立言君子更採擇而考正焉

丙寅九月下澣

嘉善大夫行承政院右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安東  
金炳秀 撰

[譯文]

내 전날에 들으니 호남에 정치 좋고 공기 맑아 간간이 어진 군자가 많이 난다 하더니 지금 승평 땅 선비들이 기록한 명암행록을 살펴보니 전날에 들던 바가 속임이 없구나. 공의성은 김이요 휘는 유헌 자는 성원이요 명암은 그의 호다. 관은 고성이니 소가야 말로왕의 후예요 我朝에 와서 난을 평정한 공신 히 빈길 호 죽강은 금교정승을 지내고 우의정을 증직 받은 시호 양혜공의 十六세손이다.

증증 때에 휘 세진이 수군절도사를 지냈으니 공의 十二세라 증조의 휘는 태윤이니 효행으로 도천을 받았고 조의 휘는 흥탁이니 문행이 있었고 부의 휘는 지홍이니 검소한 덕이 있었다. 어머니는 성주 배씨니 태영의 딸이라 공이 현종 경자년 十一月 五일에 출생하였다.

천성이 강직정대하여 六, 七세에 능히 효경의 도를 알아 부모님의 명령을 어김이 없었다. 八세에 입학하여 재주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반드시 공손히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여 어른과 같으니 동창 모든 아이들이 다 공경하여 복종하였다.

나이十余세 되어 효경과 소학을 통달하여 일찍이 조달함이 이 같으니 儒賢門에 나가 공부하고자 하였으나 가세가 어려워므로 시골 서당에 들어갔으나 비용을 부담할 길이 없더니 그의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하여 죽으로 생활하며 지필묵을 구하여 공부를 시키니 이웃 사람들이 이끄를 빈곤한 생활에서 어려운 가운데 아들 가르침이 이같이 지극하리요 하니 말하기를 자식을 낳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의리를 알지 못할 것이니 어찌 세상에 서리요 또한 사람을 가르치지 않으면 낳지 않음만 못하니 부모된 사람으로 어찌 가르치지 않으리요 가르쳐서 큰 그릇을 이루면 또한 영예가 될지라 내 스님을 달게 여긴다 하고 조금도 해이하는 마음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이 맹자의 어머니 같다고 하더라.

공이 그 어머니 뜻을 받들어 독실이 배울 때 밤을 낮 삼더니 십팔 구세에 이르러 과거 글 여섯 체에 익숙하되 더욱 부를 잘 지음으로 사람들이 부잘 짓는 신선이라고 부르더니 二十세가 되어 과거장에 나아가 몇 차례 시험에 미급하여 뜻을 거두어 돌아옴에 말하기를 부귀가 명예 있으니 힘으로 구할 수 없다 하고 부모 공양을 극진히 하여 부모가 편찮하실 때 손수 약과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잠시도 옆을 떠나지 않더니 무인년 四月에 아버지 상사를 만나 슬퍼하며 도에 맞게 폭서에도 상복을 벗지 않고 조석으로 성묘에 비와 눈을 피하지 않고 三年상을 마친 후 옷깃을 여미고 꿇어앉아서 학문을 독실이 하여 성리학에 전념하며 집을 시냇가에 세워 스스로 청취해 즐기니 원방

의 인사가 많이 따라 계은 선생이라 하였다.

을유년에 본군전교시에 군수 이범진이 공을 증히 여기더니 어느 날 향교에 나와 경의를 강론하고 드디어 찬성하여 월 참으로 군자답다고 하고 호를 고쳐서 가로되 明菴이라 하니 그 뜻은 경의에 박음이라. 무술년 二月에 어머니 상사를 당하여 장사날 아침에 비가 많이 내리니 공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통곡하여 가로되 아버지 몸이 땅으로 가시는 날 이 어떤 일인고 반드시 나의 불효한 소치라 하고 폭우 아래 오래 머물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잠시 있다가 홀연히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쾌청하여 장례를 편하게 하니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효감의 소치요 슬퍼하는 정성이 상천에 통하여 하늘도 공의 모친 장사를 슬퍼하여 눈물에 비가 왔다고 하였다. 공이 예를 다하여 시종법백을 아버지 상사 때와 같이 하였다.

공이 삼십이 넘어 가슴앓이 병이 항상 있어 자주 발증을 할 때 그의 어머니께 근심을 끼칠까 우려하여 아픈 기색을 아니하다 근심한데 이른 즉 어머니가 巫家에게 비니 공이 말하기를 평생에 요사한 일을 보고 좋게 여기지 않으나 어머니의 하시는 일이라 어찌할 바 없더니 그 후에 가정을 엄히 하여 요사한 일이 없더라. 증손이 일찍 죽으니 대신 제사를 받들되 정성을 지극하게 하고 또한 아우가 일찍 죽으니 그 조카를 기르고 가르침 제 자식과 같고 집을 화합하게 하고 가족을 돈독케 하며 겨레를 두터이 하고 벼를 신용으로 하여 일찍이 꾸짖는 말과 노하는 빛이 없이 하였다.

고종 갑진년 十月九日에 서거하니 수는 六十五세라 별양면 백동뒷산 자좌에 장사하였다. 문집이 있고 군도지에 실렸다. 부인은 인동장씨니 세권의 딸이요 두 아들과 네 딸을 낳은 장남은 석호 며느리는 완산 이재용의 딸이요 차남은 창호니 일찍 죽었다. 며느리는 경주 이종연의 따리니 열행이 있음으로서 유림의 표창을 받았고 郡道誌에 실렸다. 맏딸은 청송 심의종에게 출가하고 둘째딸은 문화 유상혁에게 출가하고 셋째 딸은 문화 유재윤에게 출가하고 넷째 딸은 옥천 조창훈에게 출가하였다. 손자 봉진과 정수는 맏아들이 낳고 홍수와 문수는 둘째 아들이 낳으니 오호라 공의 지극한 행실과 큰 덕이 이 같으니 번거롭게 적음을 덜고 오른편과 같이 그 실상을 적어서 기록하노니 뒤에 입증할 군자가 다시 바른 것을 참고하여 채택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芝村金隱士墓碣銘 并序

昔聖人言危邦不入亂邦不居天下無道則隱余生遭我邦末造危亂已極而至於不可言外他則又皆無入之道矣我安適歸悲夫若近故芝村金公鳳燮字舜元庶幾其有得聖人之教者歟公世居江華府生而性勤篤篤學夙就將出而用世顯揚其親不幸遇甲午乙未之變遂絕意當世至甲辰乙巳則尤上慘下黷無可以容足乃盡室而東千里入五臺山中種藹讀書糊口守身不聞人間事以隆熙

後丁卯七月二十三日卒距生 哲廟庚戌壽七十八藏平昌之求  
 昔村枕子原孺人瑞山宋氏厚天女後公五年年八十六而終墓祔  
 左男重教重善重教生元宰亨宰成宰德宰道宰重善生仁宰奠宰  
 景宰其先固城人以本 朝襄惠公贊吉有勳節龜庵慶誠有德學  
 高祖以下諱漢慶鳴大枝祿秉斗而晉州姜碩會外祖也嗚呼士遇  
 亂世不入不居則猶有可適之邦至若無道而隱則無可適只得滅  
 影天地間已矣近世太白山中有真隱夫妻負戴而不道姓名里人  
 稱夫爲負者妻爲戴者有詩曰東畔雉鳴西畔睡風吹鬢髮剩有餘  
 問津何不一杖指使知千載有長沮梅山洪先生謂避世而無名亦  
 可謂高於沮溺余念高則誠高矣至不道姓名則其必有甚不得已  
 者存聖人所謂隱有精義在而又何嘗然若公則吾知其爲中正無  
 偏也重教又能繼述全髮而守身此爲士之大節風吹鬢髮句在今  
 日尤使人神往不害其爲公父子贊以公狀若遺事謁余銘墓若余  
 隱不爲隱而孤危極矣羨公之勇而愧余之局束朱先生釋聖人之  
 言曰惟篤信好學守死善道者能之公既能之餘不需問而知銘曰  
 棄妻子變姓名何必如宋公之行入潮州全髮終其有聞徐氏之風  
 萬古五臺山永安求昔村士而若懷居而不能遷蜀以能勿汙而身  
 名完噫

公之歿十二年己卯孟秋 首陽 吳震泳 撰

[譯文]

옛나 聖人이 말씀하시기를 위태한 나라에 들지 말고 어  
 지러운 나라에 살지 말며 천하의 도가 없는 즉 숨는다 하  
 였더니 내가 나서 우리나라의 망할 징조를 만나 위태하고

어지러움이 극도에 달하여 가히 말할 수 없으며 사람이 도가 없으니 나의 갈 곳이 어디인가? 비통하다. 근년에 돌아가신 芝村 김공 봉섭, 자는 순원, 은거하여 성인들의 가르치심을 얻음이 있는 분이로다.

공이 세대로 강화에서 살았으므로 강화에서 났다. 천성이 부지런하고 독실하여 성실히 배워 일찍이 성취되니 장차 나아가 세상에 쓰여서 그의 아버이를 나타내고자 하였더니 불행히도 甲午, 乙未에 변을 만나 드디어 세상에 나갈 뜻을 끊었더니 甲辰, 乙巳년에 이르러 위의 사람은 흑독하고 아랫사람은 아첨하여 가히 발 붙일 곳 되지 못하니 곧 온 집안을 데리고 동으로 천리 오대산에 들어가 감자를 심고 글을 읽으며 입에 풀칠하고 몸을 닦으며 인간 일을 간섭치 않더라.

유희후 丁卯년 七月二十三日에 졸하고 철종 庚戌년 丁月 五일에 났으니 수는 七十八세라. 평창군 진부면 구석촌 자좌에 장사 지내고 유인 서산 송씨 후천의 딸은 공보다 오년 뒤에 八十六세에 졸하니 묘는 왼쪽에 있다. 자에 重教, 重善이니 증교가 원재와 형재와 성재와 덕재와 도재를 낳고 증선이 승재와 명재와 용재를 낳았다. 그의 선조는 고성인이니 소가야 말로왕의 후예라 본조에 양혜공 빈길이 있고 慶誠은 덕학이 있고 고조이하 휘는 한경명대 지록 병두요 진주 강석화는 외조라.

오호라 선비가 난세를 만나서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 살지도 않은 즉 오히려 갈 나라가 있건만 만약 모두한테 이르러 숨은 즉 갈 곳이 없으므로 그림자를 천지간에 나

타내지 않을 따름이라. 근세에 태백산 중에 참으로 숨은 사람이 있으니 남자는 지고 여자는 여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마을 사람들이 이르기를 지고 다니는 사람 또는 이고 다니는 사람이라 부르더라. 시를 지어 가로되 『동반치구서반수하고 풍취빈발잉유여라 문진하불일장지 하니 사지천재유장저라』 하더라.

매산 홍선생이 이르되 세상을 피하는데 이름을 알려주지 않음이 또한 가히 장저보다 높다하시니 나의 생각에는 높은 것은 진실로 높으나 성명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가 반듯이 심이 부득이 함이 있음이니 성인이 이른바 숨는 것이 정의가 있어야 한다 하니 또 어찌 이렇게 하리요. 공과 같이한 즉 내가 알기로는 그가 증용의 도를 바로하여 편벽하지 않았다.

重敎가 또 능히 계술하여 터럭을 온전히 하여 몸을 지키니 이 선비의 大節인 풍취빈발귀가 금일까지 있어 더욱 사람과 귀신으로 하여금 와서 해롭게 못하게 하니 공의 장문과 遺事로 나에게 묘명을 아뢰니 내가 숨음이 되지 못하며 외롭고 위태로움이 극한지라. 공의 용력이 부럽고 나의 역량이 적음이 부끄럽구나.

朱子께서 성인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로되 오직 독실이 하고 신실하며 배우기를 좋아하고 죽기로서 좋은 도를 지키는 자는 능하다 하니 공이 이미 능한 사람이라 나머지는 묻지 아니하여도 알겠음으로 명의 가고되 처자를 버리고 성명을 변하는 것은 어찌 반듯이 송공의 행함이며 조주에 들어가되 털을 온전히 하여 맞침은 그 서씨의 풍도

를 들음이 있도다. 만고 오대산의 길이 구석촌에 편안하  
도다. 선비가 회포를 안고 살아서 능히 옮기지 않으면  
어찌 써 능히 때 없이 하여 몸에 이름을 완전케 하라.  
오호 슬프다!

### 松坡公行狀

公姓金諱源大號松坡貫固城小伽倻 末露王爲始至于高麗朝  
中祖諱隨以原任大臣封洛川君崑勳偉烈現于麗史逮夫 太祖  
朝諱贊吉號竹崗洪武丁丑靖難元勳官兵曹判書 贈右議政諡  
襄惠於公爲十七世祖高祖諱應喆號芝隱曾祖諱洛現號蘭齋祖  
諱基烈號俊竹考諱珪鎮號默睡堂公生于務安芝村幼有大志不  
拘小節七歲早孤居喪致客寬待依禮哀毀逾制長老贊曰韶齡意  
見如彼卓然豈非士夫家儀範耶奉養偏母一物不敢先嘗一事不  
敢自專年及稍長操行堅確言語慎重母攻人惡貽親憂下氣怡聲  
必盡色養甘腴之物未嘗乏絕其他定省之節溫清之道靡不用其  
極矣性本愛松植于庭畔時時焉寓目每每焉撫手曰大夫立志當  
如爾節自號曰松坡終日乾乾喜怒不形於色世稱隱君子越庚寅  
秋以大同譜繼咸事遍訪諸宗略抄先蹟而至江原江陵宗事未成  
因病卒焉嗚呼當此修譜之日感其誠而忘拙記實以俟後立言君  
子採擇焉

[譯文]

공의 성은 김이요 휘는 원대요 호는 송파요 관향은 고성이니 소가야 말로왕으로 시작되었다. 고려조에 휘 수는 낙천군에 봉해지고 我태조조에 휘 빈길 호 죽강은 정난공신으로 병조판서를 지내고 우의정을 증직받고 시호는 양혜니 공의 十七代祖라.

고조의 휘는 응철이니 호는 지은이요 증조의 휘는 낙현이니 호는 난제요 조의 휘는 기열이며 호는 후죽이니 부의 휘는 유진이요 호는 묵수당이라.

공이 무안군 지촌에서 나 어려서부터 뜻이 있고 남다른 일곱 살에 그의 아버지 상사를 당하여 오신 손님을 너그러이 대접하고 예의에 맞게 하고 슬퍼함이 제도에 넘치니 노인들이 찬하여 가로되 어린 나이에 의견이 저같이 탁월하니 어찌 선비의 집 의범이 아니냐 하였다.

편모를 봉양함에 한 가지도 감히 먼저 들지 않고 한 일도 감히 스스로 결정함이 없더니 장성하여서 행실이 확실하고 언어를 신중히 하고 남에게 악한 것을 말하지 않고 어머니가 근심함이 있으면 기운을 나직이 하고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그 뜻에 맞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항상 준비하여 끊이지 않고 정성지절과 온정지도에 극진하지 않음이 없더라. 공이 천성이 본래 소나무를 사랑하여 뜰가에 심어 놓고 때때로 보고 매양 만지며 가로되 대장부의 뜻이 마땅히 이 같아야 한다. 하고 스스로 호를 송파라 하고 즐겨하고 노함을 얼굴빛에 나타내지 않게 하여 군자의 풍토가 있더니 경인년 가을에 대동종보를 이어 수보를 하

고자 모든 종족을 찾아 성인의 행적과 수단을 초잡아 강원도 강릉에 이르러 병으로 돌아와 종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서거하니 슬프다. 이제 또 족보하는 때를 당하여 그 성의를 생각하여 나의 부족함을 망각하고 그의 실행을 기록하여서 뒤에 어진분이 입증하여 채택하여 주기를 바란다.

#### 農庵公行狀

我良齋老先生以靖獻之節兼繼開之責而四方士咸出門下余見金君柔少年中英明最可愛今累然憂服千里而再至謁余狀厥考行顧諛陋何能然其哀誠有不忍終辭按公諱性洙字寬有號農庵其先出小伽倻王小伽倻今固城也有諱隨麗朝大臣洛川君諱贊吉仕我朝有功靖難贈右議政諡襄惠享樂安四忠祠於公爲十八世也高祖諱鴻贊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曾祖諱之壹贈嘉善大夫戶曹參判祖諱奎五以壽進同知中樞府事兩世皆孝廉著名考諱秉源妣坡平尹氏其考在玉也公以哲宗辛酉七月十日生隆熙紀元後十七年癸亥十一月十六日卒葬在德亭桃花谷良坐原齊利川徐氏禧根之女癸亥二月二十日生舉三男二女男長東元次暎季東哲女適全州崔鍾澈慶州鄭正午公九歲而孤不克孝養爲終身恫忌辰必躬市祭物極力豐潔而不避風雨以親墓不可意殫必擇地汲汲如不及而曰堪輿家言子孫禍福吾固不可知而地之美惡而體魄有利害則目擊矣旣卜吉喜形于色曰

先父母之靈其庶安歟竟以拘時而莫能遷厝罔晝夜愁恨病#而謂柔曰吾將死矣不得安葬父母不孝之罪何以贖諸因泣下如雨繼高祖之宗敗沒無餘公出死力以保之猶不能自存則獻賢烝嘗而盡其誠入祠門則必漣如也祭畢或復大哭呼天恨宗祀之不見祐其性於孝思類此痛早孤不學一生心血亶注穀似一念躬稼勤業以資之晨昏之間諄諄然勉戒曰吾抱恨終身矻矻田疇所望在汝成學每默禱于上帝既送柔師良翁又戒曰托身儒門名義顧不重歟惟勤惟慎到得良翁地位則汝乃安吾心矣鄉人嘗勤赴大會觀公辭却之曰往返之費可當吾兒一年遊學之贏聞良翁喪哀傷如親戚欲爲子卜築湖中以求卒業地不幸未就而病臨沒執柔手曰不及見汝學成命也吾死後篤學友于勿負乃父平生之志也其炳炳苦血可以貫徹幽明有如此湖南東匪之亂順天尤甚誘脅相續禍色燔空而公能終始毅然不染遠惡親善卽其素守也有友無辜陷死地公奮義力辨而脫之凡窮而求我者未嘗不惻烈施之而猶患力之不充其剛義厚仁之性又如此故葬之日會者皆哭之哀至有涕以終晷嗚呼自夫學政廢人物壞而世禍滔天時方仇雙聖賢而鳩毒經傳雖素號有識罔不率子弟胥入蟹篆鳩舌之科公乃獨教之學聖而復欲北徙而遠就則實在弊隣不佞愧無以富其意而至情活血義方之教則有足感伏人者此其資品過人遠矣故以孤童成家終於亂世未嘗有義理之講至治之蒙而不喪夫天賦之性能自盡於人所富爲之道嗚呼亦賢矣柔苟不早暮刻勵大厥成德奈賢父泉臺之靈何其爲先生弟子亦愧矣遂點綴行錄爲狀使柔泣而讀之常視形聽聲而不敢忘云爾

甲子陽月 日

首陽 吳震泳 撰

## [譯文]

우리 良齋선생님이 정헌의 절과 계개의 책임으로 사방의 선비가 다 문하에 나올 때 내가 김군柔를 볼 때 손년중에 영명함이 가장 사랑할 만하더니 이제 오래 되었는데 천리의 상복을 입고 두 번이나 와 그의 아버지의 행장을 아뢰니 돌아 보건데 그렇게 누가 능히 하겠는가? 그 슬퍼하고 정성스러움이 차마 사양할 수 없어 살펴보니 공의 휘는 성수요 자는 관유요 호는 농암이니 그의 선조는 소가야왕으로부터 남이라. 소가야는 지금 고성이다.

有諱하니 隨는 麗朝의 대신으로 낙천군에 봉해지고 諱贇吉은 我朝에 벼슬하여 왜적을 토벌한 공이 있어 우의정을 증직 받고 시호는 양혜요 낙안 사충사에서 배향 받으니 공의 十六세조라. 고조의 휘 흥찬은 통정대부 승정원의 좌승지를 증직 받고 종조의 휘 지일은 가선대부 호조참판을 증직 받고 조의 휘 규오는 수직으로 동지중추부사를 하니 두 代가 효명으로 정명하였고 부의 휘는 병원이요 母는 파평 윤씨니 그의 아버지는 재옥이라.

공이 철종 신유년 七月 十一日에 낳으시고 융희기원 후 十七년 계해 十一月 十六日에 서거하고 장사하였다. 배는 이천 서씨 희근의 딸이니 계해년 二月 二十一에 낳고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으니 맏아들은 동원이요 둘째는 유요 막내는 동철이요 맏딸은 전주 최종철에게 출가하고 둘째는 경주 정정오에게 출가하였다.

공이 구세에 아버지를 잃어서 효도를 다 못한 것을 중

신토록 슬퍼하여 제삿날이 오면 몸소 시장을 보아 제물을 극력으로 풍성하고 정결하게 하고 아버지의 묘지가 좋지 않음을 짐작하고 풍우를 피하지 아니하고 탄심 전력하여 택지하는데 급급히 여기며 말하기를 지관들이 자손의 화와 복을 말하나 내 진실로 알지 못하겠으나 땅이 좋고 못함이 체백(體魄)에 이롭고 해로운 것이 있는 줄을 목격하였다. 하며 이미 길한 땅을 얻었으니 즐거운 형상 좋은 빛으로 말하기를 선부모의 영혼이 거히 편하시리라 하더니 마침 때가 맞지 않음으로서 능히 옮기지 못하고 주야로 근심하더니 병들어 유에게 일러 말하되 내 장차 죽겠으니 부모를 안장치 못한 일 불효한 죄, 어찌 하리요 하고 눈물을 흘리더라.

고조에서 분가하여 증손이 패가 절손하니 공이 힘을 다하여 보호하였으되 능히 자활치 못하여 모든 제물을 갖추어 이르러 제사를 마친 뒤에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종사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크게 한이 된다하니 그의 천성의 효성이 이 같으며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배우지 못한 것을 일생에 통탄하게 생각하고 몸소 농사를 하여 근실히 하니 성가하였고 아침저녁으로 순순히 힘써 경계하여 가로되 내가 종신토록 한포한 것은 너에게 학문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상제에게 목도하였다 하고 유를 간재 선생 문하에 보낼 때 또 경계하여 말하기를 너의 몸을 유문에 의탁하였으니 너의 이름이 중하니 오직 부지런히 하고 삼가 간재 선생의 위치에 비교되면 네가 나의 뜻을 이음이라 하고 향리 사람들이 박람회의 주경을 가자고 하니

말하기를 가고 오는 여비는 우리 집 아이 일 년 유학비를 당할 것이라 하며 가지 않았다.

간재 선생이 돌아가시니 슬퍼하기를 친척과 같이 하며 자식을 위하여 졸업할 땅을 구했더니 불행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하고 병들어 돌아가실 즈음에 유의 손을 잡고 가로되 너의 학문을 성취하게 하지 못하고 죽으니 이것은 나의 명이라 내 죽은 뒤에 학문을 독실이 하여 이 아비에게 평생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시니 그 밝고 밝은 갓은 피는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이같이 하였다.

동학 난리가 순천에 더욱 심하니 유도하고 협박함이 끊이지 않아 말할 수 없으나 공은 종시 의연히 물들지 아니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하여 본심을 지키더라. 친한 사람이 죄 없이 죽을 마당에 빠진 것을 보고 공이 분연히 일어나 힘을 다하여 변론하여 풀어 주고 궁한 사람이 있어 나에게 구함이 있으면 도와 주고 일찍이 나에게 환난이 있으면 자기 힘을 다하여 해결하니 그의 리에 강하고 인에 두터운 천성이 이 같음으로 장삿날에 모인 사람들이 애통히 여겨 눈물을 흘리니 슬프구나.

학문이 폐지되고 온 세상이 병들 때로부터 성현들을 원수같이 여기고 경전을 독사같이 여겨 비록 유식한 체하고 자제를 뿔 글씨와 비들기 소리 같은 말로 과업을 지키되 공은 홀로 성인의 학을 가르쳤다. 다시 북쪽으로 이사하여 멀리 가버리고자 한 것은 이웃이 상종할 바가 못 되기 때문이라 내 그의 뜻을 당할 수 없는 것이 부끄럽구나.

지극한 정과 산피와 외로운 법으로 가르침은 족히 사람

들을 감복케 한 그 자품이 사람에게 지남이 먼고로 외로운 동자로서 성가하고 마침내 난세를 당하여서 서서를 읽어 의리를 강론치 못한 사람으로 하늘이 주신 본성을 잃지 않고 스스로 사람이 할 도리를 다하니 슬프다. 또한 어진 사람이로다. 유가 아침저녁으로 힘써서 큰 덕을 일지 않으면 어찌 어진 아버지의 명령 앞에 그의 선생과 제자됨이 또한 부끄럽지 않을까? 드디어 행적을 마쳐 행장을 지어 유로 하여금 눈물을 흘려 일게하여 항상 형용과 소리를 듣고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감히 잊지 않게 하노라

### 教官公行狀

公諱大植姓金氏龜巖先生官司憲府掌令諱賁十六世孫也公之事親也其在齠齡晨昏定省又有少闕隣里鄉黨莫不稱舉及其長成出告反面養志養體未嘗少弛忽一日親有疾病氣息奄奄數朔沉湎百藥蔑效公誠心禱天願以身代有名醫家遍往問疹或云若用生龜調服庶見神效然而時適寒沍勢難求致晝宵焦煎矣聞靈興島大澤中或產此物云跋涉往視則水堅數尺難可剖解哭至半日忽然冰坼有大龜數尾從中躍出此非上天攸感於至誠者乎古之孟宗筍王祥鯉匪此而何歸而試之病即回蘇居二載天年而終公號天哀毀侍墓不懈觀公之孝寔出乎天士林齊議 天陞升聞

命豎旌閭且加恩啣至今膾炙於一鄉焉

歲柔兆攝提格季秋上吉

通政大夫前永平郡守 盧謙洙

撰

[譯文]

공의 휘는 대식이요 성은 김씨니 구암선생(右代言) 휘분의 十六世손이라. 공이 어려서부터 아버이를 섬기며 아침저녁으로 살핍이 한 번도 꺾이지 않으니 향당 사람들의 칭송이 많았다, 장성하여서 출입할 시는 반듯이 가는 곳을 말하고 돌아오면 반듯이 아뢰어 뜻을 즐겁게 하고 몸을 편안케 하여 조금도 해태함이 없더니 아버지께서 어느 날 병을 얻으며 기운과 빛이 근심함이 넘치더라.

수개월이 경과하여도 백약이 효력이 없더니 공이 성심껏 하늘에게 자기 몸을 대신할 것을 축원하더니 의사가 말하되 산 자라가 약효가 적당하다 하였으나 그때가 동절이라 구하기가 극히 어려움으로 밤낮으로 근심하더니 영흥섬 큰 못에 흑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도착하여 본즉 얼음이 두터이 얼어 있음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못가에서 방황하며 한낮까지 우는데 홀연히 얼음이 갈라지며 그 가운데서 큰 자라가 뛰어나왔으니 이 어찌 성천이 그 효성에 감동함이 아니겠는고. 옛날 맹종의 눈 가운데 대순과 왕상의 얼음 속에 잉어가 바로 이 이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고. 가지고 돌아와 대접하니 병이 즉시 나으셨다.

두어해 편히 사시다가 천수가 다하여 돌아가시니 공이

하늘에 우러러 애회하며 삼년 시묘에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공의 효성은 실로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 유림에서 천거문을 나라에 올려 정려문을 받아 그 향리에 서있다.

### 柳川公行狀

屢世吾宗廬昇平之南創於上而徽徽烈德旣固其根繼於下而邃學卓行暢達其枝彬彬乎其足述者如林而有柳川公繼之傑然矣公諱昌洙字振化柳川其自號也麗朝大臣洛川君諱隨之后我朝靖難功臣 贈右議政諡襄惠諱贊吉之十八世孫有諱世珍水軍節度使卽昇州創於上之初祖而於公爲十四世也高祖諱鴻贊贈承政院左承旨曾祖諱之壹 贈戶曹參判祖諱奎良人稱大孝皆繼於下之最也考諱秉權妣廣州李氏其考鎮憲也配坡平尹永勳之女早沒再娶利川徐連欽之女舉二子曰東仁東漢一女適達城徐丙玉公以 哲宗壬子正月二十三日生生而端正器宇神清未出襁褓已有才藝超群之象幼而讀書穎悟過人長而經史子集多縱橫而功令文大其躬行又能戰戰兢兢事親而竭其力師弟而盡其友教子必義方勉宗族則和睦是尙其於門中子侄及諸事無不如己子己事至於威儀之嚴肅處事之明決又足畏服無實之之徒未宇犯且斯者焉甲午東匪之亂舉世土崩風靡而公自誓不染力討其教術之虛無作怪而戚親之入者必諄諄然救而出之乃於東匪之散亡也民間所費甚夥產不能自保者比比時公以鄉校之選爲一方袖領盡己百旋而許多浮費一切蠲除使之安堵而無事

入皆頌之不忘蓋其力量足以當大事然生平不好事惟所喜所事在文學故雖貧窮未嘗自苦簞瓢或空而晏如也文友則有梅泉黃珉氏道友則有農山申得求氏而晚悔業科潛心性理頗有所覺則乃發浩歎曰身旣老矣恨早不登儒賢之門矣往者未可追而來者無幾日矣抱經修養以卒餘生猶賢乎己耶又常誦程夫子訪花隨柳之句曰甚矣君子獨得之樂也活潑潑兮其神乎妙哉而無窮兮遂種柳于前川此其所以自號之也 高宗丙午十月十七日卒聞其訃者莫不揮涕哀傷葬在昇州所居之北六七武冷泉洞之乾坐原嗚呼上之創業下之不能繼則畿乎泯泯而能創能繼者蓋鮮矣吾宗先世之烈德後世之彬彬可謂有是祖有是孫而柳川公足以屈指於能繼其繼之烈矣成於家而油然有孝友敦睦之行應於亂而毅然有關邪之道酬於衆而藹然有盡己之忠老而求於身慨然有抱經修養之真而仙仙有訪花隨柳之趣有是德則可以堂堂立天地間矣嗚呼豈不是吾祖之孝子慈孫乎後之子孫必柯則於公則先世烈德庶乎不墜矣余生也晚未得受教於公之無恙日惜哉公之子於余爲三從徵余有記不敢辭謹狀

丙寅菊秋日

再從姪 喙再拜 謹狀

[譯文]

여러대로 우리 종족이 성평 남쪽에서 창건하여 위로 자주 열덕이 있어 이미 그 뿌리를 공고히 하고 아래로 깊은 학문과 높은 행인 가지를 창달케 하여 빛나고 빛남이 그 저술한바 많다 하나 그중에 유천공의 행적이 더욱 빛났으니 공의 성은 김이요 휘는 장수요 자는 진화요 유천은 그

의 호라.

소가야 말로왕의 후예니 조선조에 정난공신으로 우의정을 증직 받고 시호는 양혜요 휘는 빈길의 18세손이요 휘세진 수군절도사는 승주에 창건한 조니 공의 십사세라. 고조의 휘는 흥찬이니 승정원 좌승지를 증직 받고 증조의 휘 지일은 통정대부에 호조참판을 증직 받고 조의 휘 규양은 세상사람 이르는 효자요 부의 휘는 병준이요 모는 광주 이씨니 그의 아버지는 지현이라. 배는 파평 윤영훈이 딸이니 일찍 죽고 再配에 이천 서연흠의 딸이니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으니 아들의 이름은 동인·동환이요 딸은 달성 서병옥의 아내가 되었다.

공이 철종 임자년 정월 二十三日에 나니 용모가 단정하고 정신이 총명하요 어려서부터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 글을 배우며 속히 깨닫더니 성장하여서 경서와 사기며 모든 문집을 많이 읽어서 공부를 크게 넓히고 그 몸소 행함을 조심하고 어버이 섬기는데 힘을 다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우의를 베풀고 자식은 반드시 이롭게 기르며 종족에게 화목을 힘써 문중 자질을 자기 자식과 달리 아니하고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하며 우의를 엄수케 하며 처서하기를 밝게 하며 실상이 없는 무리들은 속임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더라.

갑오년 동학란에 온 세상이 빠져 들어가나 공은 물들지 않을뿐더러 그 교술의 허무하고 실상 없음을 친척과 친지들에게 순수히 말하여 주어 구출하였더니 동학 난리가 진정됨에 어린아이들과 늙은 노인들만이 남아 능히 자활하

지 못하는 사람들을 백방으로 주선하여 안도케 하니 사람들이 다 우러러 송축하기를 마지않더라.

그이 역량은 족히 대사를 담당할 만하나 평생에 일하기를 족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학문하기를 즐기는 고로 비록 궁핍함이 있어도 기탄치 않더라. 매천 황현과 농산 신득주는 문학과 도덕이 있는 벗이었다. 전일 과거 공부에만 힘쓴 것을 뉘우치고 성리의 학문에 잠심하여 크게 깨달은 바 있을 때 탄식하여 가로되 몸이 이미 늙었으니 한은 일찍이 유현문하에 들어가 대도를 듣지 못함이라 하고 추억할 바 아니요. 오늘이 적다하니 경서를 아니하고 정신을 수양하여 여생을 마치겠다 하고 항상 정자님의 꽃을 찾아 버들을 따라 앞내에 지냈다는 글귀를 외우며 가로되 근자만이 호를 유천이라 하였다. 고종 병오년 十月十七日에 서거하니 부음들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려 슬퍼하더라. 승주군 냉천동 건좌에 장사하였다.

오호라 조상에서 창업하고 후손이 능히 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건만 우리 집 선조 열덕이 후세에도 빈빈함은 그 할아버지에 그 자손이 있음이니 유천공이 족히 그 선계를 이어서 효우 돈목하는 행금으로 난세를 무사히 넘기고 늙어서 경서를 앎고 방화수류를 취미삼아 정신을 수양하니 이 같은 덕행은 당당히 천지간에 떳떳하니 우리 할아버지들의 자식 되어 효도하고 부모 되어 사랑함이 대대로 전하던 증공이 더욱 세덕을 빛나게 하여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늦게 나서 공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으나 공의 아들과 내가 삼종간이 됨으로 나에게 행

장문을 부탁하니 내 감히 사양치 못하고 삼가서 짓노라.

### 樂圃公孝行事實

夫孝者百行之源而人道之大本也孰不知孝之當爲而能盡其孝者蓋鮮矣聖人不云乎生事之以禮死葬之以禮祭之以禮迹公平生蓋庶幾乎此其孝可謂盛矣自孩提之時天根之純誠若是乎卓異八歲奄遭外艱擗踊哭泣口不絕聲哀慕盡誠一一合禮親戚鄉黨孰不感歎也哉母夫人宋氏決意下從見孤兒誠意懇到卒回其心殯葬祭尊禮式不怠服闋一致天性一家之烈孝實是天出之行也公行年六十遭內憂一一從禮哀毀盡誠皆爲天賦之性而無一毫末強作也此公之遯世無悶採山耕田以供甘旨依然若董安豐之隱居行誼矣公之孝行宋夫人烈行上達 天陞宜蒙棹楔之命噫王迹浸遠夷教肆行駸駸然入長夜而惟此少一之太息也雖然豈無剝復之理乎公諱錫準號樂圃籍固城世系自伽倻璿源九世至羅麗朝文景公忠貞公固城君洛川君良平公最爲至赫實爲三韓甲族逮我國初有諱贊吉官贈右議政行兵曹判書諱文亮贈戶曹判書諱公柱贈禮曹判書諱應立是爲顯祖世襲軒冕孰不欽慕也哉金公之長子銘洙甫抱實錄要余以立言感其孝心不敢固辭略書數語焉

歲乙卯孟春上澣 南陽 諸葛夏帛 謹書

[譯文]

무릇 효도는 백행의 근원이요 인도의 대본이라 누라 효도의 당연함을 알지 못할까만 능히 그 효도를 다하는 사람은 적다.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 모든 일을 예로서 하고 죽어서 장사할 때도 예로써 하고 제사에도 예로써 한다 하더니 공의 평생 자취가 거의 같으니 그 효도함은 가히 이를 만 하도다.

어릴 때 천성이 순직하고 성실하여 다른 아이보다 특이 하더니 八歲에 아버지 상사를 만나 가슴을 치고 땅을 굴러 우는 소리 끊이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정성을 다하여 일거일동을 예에 합당케 하니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뉘 아니 감탄하리요. 모친 정부인 송씨가 남편의 뒤를 따르고자 결심하였으나 그 어린애의 정성을 보고 차마 할 수 없어 마음을 돌이켜 초종장사와 三年제예를 마치니 모자의 일치된 천성은 한집의 열효를 이루었다.

공의 나이 六十세에 모친상을 당하여 일거일동이 다 예에 따르고 슬퍼함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니 이것이 다 하늘이 주신 천성을 다할 뿐이요 털끝만이라도 억지로 할 수 있겠는가? 공이 부귀에 뜻하지 않고 산에서 캐고 밭에서 갈며 어머니 봉향하는데 힘썼으니 소학에 있는 동씨의 행적이 부럽지 않구나. 공의 효행과 송씨부인의 열행은 마땅히 포상을 받을 만 한데 왕도의 자취가 멀어지고 오랑캐의 가르침이 성행하여 달리고 달려서 암흑으로 빠져 들어간 어찌 박괘와 복괘(剝復卦)의 이치가 없겠는가?

공의 휘는 석준이요 호는 낙포요 적은 고서이니 소가야 왕 九世로부터 신라와 고려조에 혁혁한 문벌을 이었으니 실로 삼한의 甲族이라. 李朝에 이르러 휘 빈길이 우의정을 증직 받고 휘 공주는 예조판서를 증직 받으셨다. 이렇게 조상님들이 높이 드러났으니 뉘 아니 흠모하겠는가? 김공의 맏아들 명수가 그의 행적을 적어와 나에게 그의 실록을 지어주기를 요청하니 그의 효심에 감동하여 굳이 사양치 못하고 몇 마디 적어서 주노라.

註：박과라 함은 다 떨어지고 맨 마지막 하나 남음을 말함이요, 복과라 함은 떨어진 씨가 다시 움이 되어 나음을 이룸이라.

### 芝谷金公行狀

公諱源三字京一號芝谷貫固城高麗原任大臣翊社勳業封洛川君諱隨本朝有討賊勳官檢校政丞號竹崗諡襄惠諱贊吉乃列祖也高祖諱應喆號志隱曾祖諱奎現號光菴祖諱基福號蓮波考諱大鎭妣靈城丁氏處震女哲宗戊午正月六日生公于牛坪里第自幼聰明穎悟簡重寡默舉止莊重行義志節清高絕俗不喜舉子業杜門斂跡專意實學設塾教導鄉里從學者甚衆命送二胤于遠溪贊謁于淵齋宋先生先生嘉其教子之誠意扁之曰芝谷居士盖其許心之深乃類此也事親養志體臨喪極其哀祭祀致其敬月之朔

望必省先墓大小夷險舉皆懈懔而棟樑之東匪搶攘作詩以視正大之義庚戌聯邦北望痛哭以叙風泉之恨又於先山爲勢家勒葬偕本邑倅立會徃掘之非爲先之誠感人深者能如是乎此皆公之行事梗槩若其盡錄罄竹難旣然看鳳一毛五彩可知嘗一臠九鼎之味知矣嗚呼戊辰五月二十四日考終于正寢壽七十一葬于生馬山先塋右坐丙之原娶晉州鄭氏漢奎女甚執婦道柔閒貞靜有女士之稱丁巳三月九日生乙丑正月九日卒墓祔于所天生二男一女男炳柱憲柱女坡平尹商重性休性天長房出性述性年性白性午秀房出曾玄以下多不盡錄吾友金泳福氏袖公家狀囑余狀德不敢父文辭略叙如右望勿以人廢言以俟貴宗詞伯之鑿括而裁擇焉

丁酉臘月上澣

仁川 蔡鎮斗 撰

[譯文]

공의 휘는 원사미요 자는 경일 호는 지곡이요 관은 고성이니 고려조에 原任大臣으로 익사훈을 받아 洛川君에 봉해지니 휘는 隨요 본조 초에 대적을 물리친 공으로 금교저승을 지냈으니 호는 죽강이요 시호는 양혜 휘는 贊吉 이시다. 고조의 휘는 應喆이요 호는 지은이요 증조의 휘 奎現 호는 광암, 조의 휘 基福 호는 연파요 父의 히 大鎭 이라. 어머니는 영성 정씨니 처진의 딸이라.

철종 무오 正月 六日에 우평마을에서 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심증이 과묵하여 행의지절이 총고하며 퇴속을 즐겨하지 않고 자손을 가르치기에 힘써 實學에 전

넘하여 서당을 세워 향리 사람들을 가르치니 성의를 아름답게 여기어 말하되 지극제거사의 그 마음씨 깊다 하더라.

부모를 잘 봉양하고 상사를 당하여서 극히 슬퍼하고 제사가 이르매 공경하고 달마다 초하루 보름에 반드시 성묘하고 크고 작은 험한 일도 다 잘 보살피더니 동학 난리 때 시를 지어 바르고 큰 의리를 보였고 경술 구치 때에 양천통곡하여 風泉에 한을 지으셨다. 선영 산소에 세력 있는 사람이 와서 가까이 장사지내니 본군 군수를 입회세우고 그 묘를 파니 이것이 다 위선하는 정성이 지극함이라. 공의 행적 하나하나를 다 다 적어 밝히지 않아도 봉황의 한 털을 보고 오색문채를 가히 알 것이요 한술의 국을 맛보아도 큰 가마에 국 맛을 알 것이다.

오호라 무진년 五月 二十四日에 정침에서 마치니 수는 七十一세요 장지는 생마산 선영 오른편 병좌다. 진주 정씨 한규의 딸에게 장가 들으니 부인이 정숙하여 여사를 풍도가 있더니 정사년 三月 九日에 나서 을축년 正月 九日에 졸하였으니 묘는 합장이다. 하늘이 주신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으니 아들은 병주·헌주요 딸은 파평 윤상증의 처가 되었고 性休·性天는 맏아들이 낳고 性述·性年·性白·性午는 끝의 아들이 낳았다. 증손과 현손은 다 기록하지 못한다. 나의 친구 김영복씨가 공의 가장을 나에게 제시하며 행장문을 위촉하니 글 잘못함으로써 감히 사양하다 못하여 간략하게 오른편과 같이 하여 귀종증의 글 잘하는 분의 채택을 바란다.

## 通政大夫節庵公行狀

世謂物莫壽於金石事蹟之欲傳於後世計者必鏤之於金勒之於石然金有時而銷石有時而泐焉在其久遠不泯乎不若筆於君子之立言閱千載而不銷不泐也愚雖蔑學公許巨知心之誼故略舉公之逞行實蹟于左以俟後日立言君子之秉筆謹按公諱弘燮字元七號節庵固城人也生于 哲宗戊午正月十五日自齠齏之齡身經貧寒備知稼穡之艱難故修身齊家常以勤儉爲本不染美麗奢侈之風且天性剛毅正直好善如就芝蘭惡惡如避蛇蝎物若不義一芥不以取人亦不以與人且有果斷忍耐之性雖半盃点肴不入於口尺帛寸錦不近於身至於聲色玩好淡然如木偶人世人之如公之心者有幾至於毀譽之間晏然少不動心常曰千萬人譽之我無實譽之行有何益焉千萬人毀之我無實毀之蹟有何損哉此亦公之踏實地而行實力也嘗自料體大量大思其節食之方買二合容鉢而日以爲常不加一匙半箸此豈尋常充口腹輩之所能跋及也哉少時借中庸於安門姨母宅氏以新襪裏而付之乃思曰婦人愛青氈家物如此誠深可欽可慕也其後專往書舖買四書五經背負而婦藏焉按月輪誦文義淹博頤究奧旨不好吟詠者非惡其詩律也稱以詩會終日飲酒浪題花紅柳綠空吟風清月白虛送光陰但以醉談戲謔爲高致少無修身操行之實工公之所惡不亦宜乎爲其會者不知反躬自省反以惡之爲目豈不慨然乎夫六藝者士當日常學習而射可以觀德行矣先正其心然後持弓矢審固可

以言中故不怨勝己者反躬自省也故魯論曰君暫無所爭必也射乎此貴其反省故也公時常習之正心之工豈有虛發乎果於高宗壬午春式年本都之試獲參沒技及第之科諸借射觀試者莫不欽歎焉時公門關賂官路數錢一資半級少無公薦公行之道故無意於求仕之路勤農教孫送其居諸歲在甲申登榜而久不調者例薦之際拜陞堂上正上品通政大夫折衝將軍行龍驤尉副司果之教旨配淑夫人金海裴氏從夫之職也嘗育二男纔及中年次第而喪西河之慟忍何言哉辛有令孫三郎不羨謝家之芝蘭教以義方乃有承家趾美之風足爲晚年自慰之樂也及當丁未歲汚吏貪饕益甚土豪武斷專橫生命財產未能自保內亂外侮皇室將危壇土日縮適日進會起大書而榜瓦皇室存重壇土維持財產保護生命安全四大綱領爲目的公思瓦果若實行此目的庶可爲國泰民安之機也乃參會中居首席而觀其會員所爲外棄目的專事肥己至於決訟行私少無公平之義公悔而急退更父投跡或以此非之然未解公之心也觀公之進退爲國之誠與衆共榮之義昭然可知何有損於公哉常時有暇寸陰是惜耽讀書史之中尤精於論語大文與註誦如冰上推匏人莫及焉又篤慕聖之誠釋尊享祀之日入校參拜所謂入齋生者不識五聖之姓諱十哲之維何徒聚喧譁少無明禮之誠盜貧酒肉廉恥都喪儒風靡盡公不勝慨然古聖統淵源爲題長時講論上自堯舜禹湯文武周公孔孟暨于宋朝濂洛諸賢玉振金聲始終條理恍然如剖明珠瞭然如視諸掌然聽者雖聽之而不解其旨不聽者背而笑之可徒費唇舌言之將何補哉時任本倅例以初獻來傍聽之執公手而謂之曰以公之抱負居首善之地掌講序之任儒道可庶幾也屢勸直員之任然牢不聽許者雖程朱復生莫可爲也自此不入校門或勸其義捐者不過敗寺殘僧賣佛

資生之計也若校任者少有誠意於聖廟豈待人之勸請哉必先爲之捐補矣觀其人之所爲雖捐以巨額稱以修理某處都歸私橐豈不悵歎哉常居家待賓命炊新飯而飼之然或者非之曰待客無一杯酒此亦未解公之意也公之戒酒銘于心肝證于神明故雖知待酒之易而炊飯之不易然不待之以易而待之以不易者不斯時而不負神也公之用心接人如是得富然猶得談於世者何也涅而不緇磨而不磷故也享年八耄有七歲在甲申冬十一月二十五日捐館葬于陽谷山下癸坐之原時愚以寒疾脚氣承訃驚怛而已不能匍匐往哭及葬不能執紼永訣奄過三年孤負平素知愛之誼自訟于心悔之靡及也素慕公之實力實行故亦以愚之實情實言結之若公之英靈知之必謂此狀之不誣也

隆熙紀元後乙酉冬至月甲子

綾州 具然昱

謹識

[譯文]

세상에서 말하기를 물건이 오래가는 것은 금과 돌만 같지 못하니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자는 금에다 새기고 돌에다 새기나 금도 때가 있고 돌도 때가 있어 녹고 모질어짐이 있다. 영구하게 있는 것은 군자들이 증거한 붓이니 천년에도 녹고 모질어지지 않음이라. 내 비록 배움은 없으나 마음을 아는 우의가 있는 고로 공이 실행을 다음과 같이 하여 후일에 증거할 군자의 붓을 기다린다.

삼가 살피니 공의 휘는 홍섭이요 자는 원철이요 호는 절암이니 고성인이라. 철종 무오년 정월 십오일에 났다.

적은 나이 때부터 몸소 어려움을 겪은 고로 수신제가에 항상 부지런히 하고 검소함을 근본으로 삼고 사치하는 풍습에 물들지 않으며 천성이 정직하여 선한 것을 좋아하기를 지초와 난초 같이 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기를 독사와 전갈 같이 하며 물건이 의리가 아니면 취하지 않고 사람도 의리가 아니면 더불어 상대하지 않음 과단하고 인내성이 있어 반잔의 술과 한 점의 안주도 입에 넣지 않고 한자의 비단도 몸에 가까이 않고 소리와 빛이 완호 담연하여 나무사람 같아서 세상 사람이 공의 마음을 아는 자 몇이나 있겠는가? 혈뜬고 기리는 사이에 이르러 조금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며 항상 가로되 천만인이 칭송을 하여도 나에게 실상 칭송 받을 만한 행실이 없으면 어찌 이로우 것이 있으며 천만인이 험구를 하여도 나에게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 무엇이 손해되리요 하니 이 또한 공이 실지를 행함이라.

일찍이 스스로 몸과 역량이 큼을 헤아려 그 절도 있게 먹는 방법을 생각하여 두 홉들이 그릇을 사서 날로 쓰고 한잔 술과 반점도 더 먹지 아니하니 이 어찌 심상하게 입과 배를 채우는 무리들이 따라올배냐? 소시에 증용책을 빌리어 안씨문하 이모 댁에 가니 새보 속에 두었거늘 생각하기를 부인이 가장 지물을 사랑하는 성의가 이같이 깊으니 가히 공경하고 사모하겠다. 하고 후에 서점에 가서 史書와 五經을 사 가지고 돌아와 간직하였다.

시와 율을 써 읊는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본심이 시와 율을 미워함이 아니요 시회를 핑계 삼아 나이 다

하도록 술을 마시고 꽃 붉은 것과 버들의 푸른 것을 쓰고  
공연히 바람이 맑고 달이 흰 것을 읊어 광음을 허송하며  
다만 취한 말로 기롱함을 높은 체하니 조금도 몸을 닦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없으니 공이 미워함이 마땅  
하다. 그 모였던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줄 모르고 도  
리어 밋게 보고 반목하니 어찌 개연치 아니한가? 무릇  
여섯 가지 재주는 선비들이 마땅히 배워 익힐 것임으로  
활 쓰는 것은 가히 덕행을 봄으로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한 후에 활과 살을 잡아 중심을 맞추고 못 맞춤을 말한  
고로 나보다 나은 자를 원망치 않고 스스로를 살핍이라.  
그러므로 논어에 가로되 군자는 다룰 바 없어도 반드시  
활을 쏠 때에는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그 반성을 귀하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공이 때때로 익혀서 마음을 바로 가지고 공부를 삼으니  
어찌 헛되이 발함이 있으리요. 고종 임오년 본군 시험  
때 공이 급제에 오르니 모든 사람들이 그의 활 재주를 보  
며 흠탄하더라. 이 때 관문에서 뇌물 없이 공도로 공을  
천거하지 아니함으로 벼슬을 할 뜻이 없어 부지런히 농사  
하여 자손을 가르치니 갑신년 시험에 다시 올라 예의를  
쫓아 벼슬길에 나아가 절충장군에 이르렀다.

배는 김해 배씨로 지아비의 직품을 따라 숙부인이 되었  
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겨우 증년시대에 조졸하니 그의  
통탄함을 어찌 다 말할까? 다행히 손자 세 사람이 있어  
다른 집 지초 난초를 부러워하지 않고 정의롭게 가르쳐  
집을 이어 단란하게 살아가니 이것으로 족히 말년에 낙을

삼았다.

정미년을 당하여 안으로 탐관오리가 더욱 심하고 토호들의 횡포가 끊이지 아니함으로 내란이 우려되고 밖으로 황실을 넘보아 강토가 위태하더니 어느 날 들으니 일진회에서 네 가지 대강령을 발표하니 하나는 생명을 안전케 함이라. 과연 이같이 실행하면 극태 민안할 수 있는 기틀이 되리라. 생각하고 한 차례 참석하여 본즉 그 괴수들이 하는 일이 표리가 달라 옳치 못하므로 급히 물러나와 다시 가지 않으니 이로써 빈축하는 사람이 있으니 공의 본심을 알지 못함이라.

공이 진증위극하는 정성을 보면 대증으로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의리가 소연함을 가히 알리라. 어찌 공도를 손실함이 있으리요. 시간만 있으면 글 읽기를 좋아하여 더욱 논어를 정밀하게 읽어 대문과 주를 다 외우니 성인을 사모하는 정성이 독실하더라. 어느 때 향교 제삿날에 들어가 참배한 뒤 모든 입제한 사람들과 더불어 문답하제 공자·안자·증자·자사·맹자·오성의 성과 휘자며 십철이 누누누누인가를 알지 못하고 한날 떠들며 제사를 정성으로 받드는 성의마저 없이 주육을 탐하여 염치를 상하여서 유품을 어지럽히니 공이 개연함을 이기지 못하여 옛날 성현들의 영원을 장시간 강론할 무렵 요순으로부터 우탕과 문무주공 공자 맹자에 이르러 송나라 육현에 이르기까지 조리 있게 말씀하셨으나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적어서 도리어 돌아서서 웃음을 짓기도 하고 욕설도 하는 사람이 많았다.

본군 군수 절예를 쫓아 초헌으로 왔다가 방청하고 공의 손을 잡고 일러 왈 공의 포부는 마땅히 강서에 책임을 지고 유도를 흥기시킬 분이라 하고 여러 번 즉원책임을 맡겼으나 듣지 않은 것은 비록 정자와 주차가 부생하여도 어쩔 수 없는 때문이더라. 이후로부터 향교문에 들어가 지 않더니 향교에 수리할 곳이 있다 하여 의연금을 모으기 위하여 사람이 왔으니 그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피폐한 절의 중들이 시주하고자 각호 방문하는 것은 보았으나 유림에서 어찌 성현들의 사당에 의연금 때문에 방문하기를 앉아서 기다리시오 하고 술선하여 의연한 것이 그 사람의 하는 것을 보니 거액을 수집하였으나 향교 수리에는 능가림이요 실지는 사사로운 이득만 거두었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으리요.

공이 집에 기거하여 손님을 접대할 때 반드시 명하여 새로 밥을 지어 대접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접객하는데 한잔 술도 없다하고 빈축하니 또한 공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있다. 공이 계수한 명에 술은 마음과 간과 정신에 해롭다 한고로 술대접 하는 것은 쉽고 밥 짓는 것은 쉽지 않으니 쉬운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쉽지 않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은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신을 저버리지 않음이라. 공이 마음 쓰는 것과 접인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세상 사람에게 득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악한 풍습에 젖어 배우지 못한 때문이라.

향년 八十七세 甲申 十一月 二十五日에마치니 양곡산하 제좌에 장사하였다. 그때 내가 각기병이 있어 부고를 받

고도 능히 가서 조곡하지 못하고 발인에도 참석하지 못하여 문득 삼년이 지나도록 평소에 서로 사랑하던 우의를 저버리니 스스로 마음에 민망함이 이를 데 없으나 본래에 공의 실력과 생행을 사모하는 고로 나의 실정과 실언을 뱃으니 공의 영령으로 하여금 알게 되면 반드시 이 글장이 거짓이 없다고 하리라.

#### 孺人全州李氏行狀

孺人姓李氏籍全州 定宗王子德泉君諱厚生之后也世以簪纓承襲曾祖諱陽郁祖諱漢亨考曰勉權妣曰東萊鄭氏崙泰之女孺人以 高宗庚午九月二十六日生天姿端淑齡十九戊子三月三日歸于金公學銖乃固城世族也逮祖諱隨在麗朝封洛川君又有諱彌官直提學平安伯入我 朝有諱贊吉號竹崗佐太祖討賊立大勳官兵曹判書 贈右議政諡襄惠公享樂安四忠祠諱希亮太宗朝文科官至兵曹判書自是珪組蟬聯文行趾美至慕隱堂諱樂聲以孝聞有遺訓全齋任先生撰墓銘厥有配光州鄭氏以女士稱悟堂李公有述於公爲曾祖考妣也祖諱旻煥以全門高弟踐履篤實世所稱勇庵君子良齋田先生撰行狀甲辰以學行褒贈教官所著稿幾沓將入梓以壽其傳考諱載永濡染家勳習於詩禮妣清州韓氏錫履女孺人入門纔數月所天遇奇疾竟效杞哭卽戊子十二月七日也孺人忍痛啣哀闋三霜不以戚容見於外專意治生以惟至誠養舅姑必具甘旨家有園柿秋實紅熟摘取而貯之器一介

不散與童幼至冬月待其膳濃晝供宵進于舅適時無闕當明春匱而後止年年以爲常辛丑遭姑喪丁巳舅以壽終哀毀如一克遵禮制凡三十年間柿味之供終始不怠隣里咸稱憐其守義歎其竭誠其宅處家撫下各盡其道者推一而可百矣庚申十二月十五日以天年歿葬于燕岐西面土玉洞坐癸原與公墓附右以夫弟亨銖子泳宇爲嗣噫一醮終身烈也養舅不衰孝也孝且烈孺人可謂難矣不有表章之安知不泯沒而無聞也孺人偲從昆弟之子泳福嘗向余言福之從叔母成婚而孀冰玉貞節難以盡形而平日菽水之誠靡所不至供飭一事此尤最著自幼常目所覩不能忘者也因泫然不己余感其言而嘖嘖矣居幾日泳福與亨銖略記孺人生卒月日來請爲狀余匪彫史之筆豈其作者任也反以思之不沒一善古聖賢之攸訓且終辭則何以爲世道勸而興行也遂按之如右孺人勇庵公之冢孫婦也勇庵公德學旣積於躬美于家而裕于後宜其有尸祀之婦如孺人云因書其所概聞者而歸之以竣立言君子採擇焉

[譯文]

유인의 성은 이씨요 본은 전씨니 정종대왕의 아들 덕천군 휘 후생의 후예라 세대로 잠영 승습하였다. 증조의 휘는 陽郁이요 조의 휘는 漢亨이요 부의 휘는 勉權이니 어머니는 동래 정씨요 崙泰의 女라. 유인이 고종 경오년 九月 二十六日에 나 천자가 단정하고 숙덕하더니 나이 十九세 되는 해 무자 三月 三日 김공 學銖에 우귀하니 고성 의 세족이라.

후 수에 이르러 고려조에 낙천군을 봉하였고 휘 彌는 직제학을 거쳐 평안백을 지내고 아조에 휘 贊吉 호 즉강은 태조를 도와 적을 쳐서 대훈을 세워 병조판서를 지내고 우의정을 증직 받고 시호는 양혜요 낙안 사충사에 배향 받으시고 휘 희량은 태종 조에 문과를 하여 병조판서에 오르니 이로부터 벼슬길이 열리고 문행이 뒤를 따랐다.

모은당 휘 낙성에 이르러 효행 소문이 있었으니 全齋任先生이 그의 묘지를 찬술하시고 그의 배 광주 정씨를 여사라 일컬었고 오당 이공이 그분에 수를 지으니 공의 증조와 증조모라. 조의 휘는 인환이니 전재 문하에 높은 제자로 踐履함이 독실하여 세상 사람들이 용암 군자라 일렀고 전간재 선생이 행장을 찬하였다.

갑진년에 학행으로서 교관의 직을 받고 저술한 글 몇 권을 장차 발간하여 전하고자 한다. 부의 휘는 재영이니 가훈에 젖어 실례에 익숙하였고 어머니는 청주 한씨니 석이에 딸이라 유인이 가문에 들어온 지 겨우 두어 달에 하늘과 같은 남편이 기이한 병으로 사별하니 무자년 十二月七日이라 유인이 아픔을 참고 슬픔으로 삼상을 마치되 슬퍼하는 빛이 밖으로 보이지 않고 뜻을 치산하는데 두고 오직 지성으로 구고를 봉양하여 반드시 맛있는 것을 갖추더니 집 뒤에 감나무 있어 가을에 열매가 붉게 익으며 따서 잘 저장하여 한 개라도 허비를 하지 않고 동월에 이르러 능숙하기를 기다려 낮에 받치고 밤에 내오는 것이 때를 맞추어 껌함이 없이하여 이듬해 봄까지 하더라.

매년 이같이 하더니 신축년에 시어머니 상사를 당하고 정사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애회함이 연일하여 극히 예의 제도를 따름이라. 三十年間 구고 봉양함을 시종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마을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그 의리를 지킴과 그의 정성을 다함과 그의 처세함과 또한 아랫사람에 대함이 각각 그 도리를 다했으니 하나를 미루어 가히 백가지를 알지어다. 경신년 十二月 十五日에 하늘이 주신 수를 다하였다. 장사를 연기준 서면 토옥동 계좌 언덕에 공의 묘를 오른쪽에 장사하였다.

남편의 동생 흥銖의 아들泳宇를 계자로 삼으니 오호라 한번 초례하고 종신토록 열을 지켜 정성껏 구고를 공양함은孝니 효와 열은 부인을 일러 말함인가? 표창하는 글장이 있지 않으면 어찌 멀리 전하리요 하여 유인의 시종昆弟의 자 영복이 일찍이 나를 향하여 말하되 영복의 종숙모가 성훈하자 과부되니 열음과 옥 같은 정절은 더 형용하기 어렵고 평일에 구고를 성김에 지성답지 않은 것이 없건만 감을 대접한 일이 더욱 나타나며 나이 어릴 때에 항상 눈으로 본바니 아직 잊을 수 없다 하므로 눈시울을 적시며 마지않으니 내 그 말에 감동하여 색색하며 며칠 있더니 영복이 흥銖로 더불어 유인의 나시고 돌아가신 날 짜를 기록하여 제사하고 장문을 청하니 나 같은 사람으로 그 어찌 이런 글을 지으리요 하고 돌이켜 생각하니 한 책임을 맡은 것도 한 가지 착한 것이 없어지는 일이 없게 하는 옛 성인의 유훈이요 또한 어찌 세상을 위하여 도를 전하여 행함을 일으킴에 기여치 않으리요.

드디어 안찰하여서 상과 같이 지으니 유인은 용암공의  
 만손부라 용암공의 덕학이 몸에 쌓여서 집을 아름답게 하  
 고 뒤에 남아서 그 제사 받들 며느리 유인과 같은 사람이  
 있으므로 그 대략을 써서 어진분에 채택되기를 바란다.

### 樵山金公墓表

昇州之別良有幼苦厄困而力自振發以立家者曰樵山金公諱洛  
 鎬字乃京公以 高宗辛未生六歲母夫人見背父子相依爲命十  
 年父又病公躬扶持左右時時乞貸人以療疾夜明燈獨坐聞鷄必  
 竈下父有所欲必致之隣里憐其幼能孝多助之父竟不起疾則子  
 然莞孤尤無以自聊猶能得傭直供祭祀未嘗以窶廢禮及娶室借  
 人衣以行其艱蓋可知也積勤置田業痛昔未給養而力於追遠朝  
 夕輒就塾習文字數年能通涯略教二子學書資之常裕而約己不  
 自寬見人幼孤飢且寒爲流涕恤之初喪母有庶母育一妹父以不  
 愛公故欲去之公泣曰母固愛我幸勿疑且母去如彼妹何父感而  
 止父沒母遽棄女去公憐其妹撫且嫁有踰人同母弟跡公一生始  
 艱而終亨繇其苦心勤骸以成之然世固有拔困而致巨貲者矣此  
 猶未足多也值人倫之變而順之以理慨田野之樸而有志學文是  
 眞人所難能者矣余則特以此賢之金氏籍固城右議政贊吉 本  
 朝有靖難功諡襄惠享四忠祠高祖兌潤曾祖鴻卓祖之濂考奎炯  
 皆以孝傳妣淳昌趙氏公娶慶州金昌宜女生三男文洙琪洙泰洙  
 癸未十月五日水德山艮原其歸眞之月日及幽宅也琪洙累訪余

於蘆山之下托以闡其幽者余嘗爲人作墓文多矣如公眞足無愧  
辭安得不踴躍而書之

丁酉之朞月望

光山 金文鈺 撰

[譯文]

승주군 별양면에 어려서 고새하고 곤액을 겪고 스스로  
힘써 한집을 세운 자 있으니

초산 김공 휘는 낙호요 자는 내경이니 고종 신미년에 나  
육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부자가 서로 의지하더니 십세에  
아버지 또한 병드니 극진히 붙잡아 유지할 제 때때로 사  
람에게 빌어 병을 치료함에 밤에는 등축을 밝히고 홀로  
앉아서 닭소리가 들리면 부엌에 들어가 아버지가 원하시  
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구하여 대접하니 이웃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능히 효도함을 어여삐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  
더니 아버지가 마침내 혈혈 단신으로 일어나지 못하니  
스스로 살길이 막연하나 밥을 짓는 고용을 두어 제사를  
받들고 가난하였으나 예를 폐할 수 없어 장가들 때에 남  
의 옷을 빌려 입었으니 그 어려움을 가히 짐작할지라.

부지런히 힘써 전답을 마련하게 되니 옛날 아버지 봉양  
할 때를 추억하여 슬퍼하더라. 아침저녁으로 서당에 나  
가 문자를 읽힌 지 수년에 약간의 글을 통하여 두 아들을  
가르칠 때 배우고 쓰는 자료를 항상 넉넉히 하여 몸에 다  
말져 알아서 하게하고 어린 아이가 외롭게 되어 배가 고  
프고 추위함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구휼하더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모가 한 딸을 낳아 기를 때 아버지가 공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여 버리고자 하니 공이 울며 말하기를 어머니가 진실로 사랑하여 나에게 다행하니 의심하지 마시라 하고 또 어머니를 버리면 이복동생의 정상은 어찌 되겠는고 하니 아버지가 감동하게 보시더니 그 아버지가 사후에 서모가 딸을 버리고 달아나니 공이 가련하게 보고 그를 잘 키워 출가 시킬 때 같은 어머니가 낳은 동생과 같게 하더라.

공이 일생에 처음에는 어렵다가 나중에 형통함은 쓴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여 이루어짐이라. 세상에 곤할 한데서부터 거부된 자가 많으면 이치로써 순이하고 전야에서 등굴었어도 뜻을 학문에 담은 진인도 능히 하기 어려우니 내 특히 이것으로서 어질다 하겠다.

김씨의 적은 고성이니 우의정 빈질이 극초에 정난공신으로 시호는 양혜요 사충사에 배향 받고 고조에 兌潤이요 증조에 鴻阜이요 조에 之濂이요 부는 奎炯이니 모두 효행이 있었다. 어머니는 순창 조씨요 경주 김창의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삼형제를 낳으니 문수·기수·태수라 제미년 十月 五日에 돌아가시고 수덕산 간좌는 그의 묘라 기수가 여러 번 나를 노산아래 찾아와 그의 그윽한 것을 밝혀주기를 부탁하니 내 일찍이 사람을 위하여 묘문을 많이 지었건만 공 같은 분은 진실로 죽히 말하여도 부끄러움이 없으므로 어찌 즐겨 쓰지 않으리.

## 孺人慶州李氏紀行碑

世以婦人從死者爲烈雖誠烈矣而孰若守寡終身之爲難又孰若養舅姑育孤以繼亡夫之志之事之爲賢也哉昇州之德亭有金母李孺人賢有行鄉里頌之嗣孫來圭以孺人之行宜勒諸金石以垂久遠且狀來請余書之按孺人其先慶州人兵曹參議應春之裔士人鍾淵之女也年十八嫁金公昌鎬金貫固城襄惠公贊吉爲厥名祖旣生二男夫得病瀕危孺人斫指灌口得甦三日竟又絕孺人號擗矢下從爲傍人所止歎曰死易耳舅姑呱呱者又無所庇死固忍乎於是治事如夫在時尊几省墳朝夕罔懈懼傷舅姑懷哭不敢聲而枕席間淚班班有瘍家故窶織紝以爲養未嘗告乏教兒資之學俾得知名鄉間晚歲置田遂廣家以得裕孺人喪公時年二十四及以老壽終則六十九矣嗚呼婦人以從夫爲道夫死則亦從子耳然若乃子幼而育之教之以成就之又能承艱匱之餘得衣食之資在孤危之中持門戶之責是則萃丈夫者矣孰謂從於人者而能若是哉銘曰

昔嫠晝哭淒淒閨房有兒在襁有老在堂十指夜寒以績以紡資人刀尺厭我糝糠迨厥晚暮兒孫成行婉婉晨夕載欣載康薦之祖廟籩豆有香孺人斯顧鬢髮女霜彼誰丈夫或敗其藏乃如孺人承艱以昌子孫食報嗟何敢忘鑱石紀行用詔茫茫  
丙申仲春之望 光山 金文鈺 撰

[譯文]

세상에서 부인이 쫓아 죽는 것을 쨌이라고 하니 열은 열이라 뉘 능히 종신토록 혼자되어서 어려움을 겪으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린 것을 길러서 간 남편의 뜻을 이은 일도 어진분이라. 승주군 덕정리에 숲의 어머니 추유인이 어질어서 능히 행하니 마을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계 손자 내규가 유인의 행적을 금석에 새겨면 세상에 전하고자 하여 장문을 휴대하여 나에게 글을 청하기로 살펴보니 유인의 선계는 경주인이요 병조참의 응춘의 후예요 선비 종연의 딸이라 나이 十八세에 김공창호에게 시집오니 숲의 본관은 고성이요 양해공 贊吉이 그의 명조다.

이미 두 아들을 낳은 후에 남편이 병이 위독하니 부인이 손가락을 베어 입에 피를 흘려 약을 하고 삼일을 회생한 후 마침내 운절하니 부인이 울부짖고 가슴을 치며 쫓으려하니 옆에 사람들의 만류로 탄식하며 가로되 죽기는 쉬워도 늙으신 시부모와 고고히 우는 아이들이 또한 의지할 곳이 없으니 죽음을 진실로 참으리라 하고 모든 일을 지아비 생전과 다름없이 처리하여 진중히 제전과 묘의 성묘함을 조석으로 잊지 않으며 시부모님 상심할까 두려워하여 소리 없이 울며 베개와 자리 사이에 눈물 흔적이 얼룩져 있더라. 가세가 어려워 길삼하여 시부모를 봉양하되 없음을 말하지 않고 아이를 가르쳐 학문에 향간에서 이름을 나게하고 만년에 전답을 사서 드디어 집을 여유 있게 하였다.

남편이 운명할 때 유인의 나이 二十四세요 늙어서 수를

마칠 때는 六十九세라. 오호라 부인이 남편을 쫓는 것으로서 도를 삼으니 지아비 죽은 즉 또한 아들을 쫓으려니와 만약 아들이 어려서 기르고 가르쳐서 성취케 하고 또한 능히 무한대서 유를 찾아 의식의 자료를 해결하고 외롭고 위태로운 가운데 문호에 책임을 유지하니 이것은 글센 장부라도 누가 부인을 쫓아 능히 이같이 하겠는가?

銘의 가로되 옛날의 과부 한낮에 울음소리 슬프고 슬픔도 유방이로다. 아이가 포대기에 있고 노인이 내당에 있다. 밤마다 열손가락이 시리도록 길삼과 남의 바느질을 일삼고 내 조강을 맛있게 여겼다. 그 늦고 저문 봄을 만나 아이와 손자가 성행하여 곱고 고운 새벽과 저녁으로 즐거움도 있고 편안함도 있다. 조상의 묘에 제사도 드림이여 바구니와 접시가 향기롭도다. 유인을 돌아봄이여 댕기머리 서리와 같도다. 저 누구누구 장부라. 혹시 그에 간직함을 패하였는가. 유인과 같음이어 어려움을 이어서 창성하게 하였도다. 자손에 먹을 것을 값음이어 슬프다. 어찌 감히 잊을고. 돌에 새겨 기록한 행이여 써서 고함이 마땅하도다.

烈孝婦慶州李氏褒彰狀

本會謹據湖南昇平郡儒林之通文則夫人李氏籍慶州諱鍾淵之女固城金公諡襄惠諱贊吉之十六世孫明庵諱奎煥之子昌鎬之

配也天性至孝奉養父母克盡誠敬承順父母之命少不違逆隣里稱美年十八歸金門親執井臼誠養舅姑定省不懈敬事君子敦睦親族有女士之風及至李十四夫有急病將至殞絕斫指灌血得河日之回甦無乃天限竟至命終擬欲從後被族屬救挽未果家雖貧窶送終等節朝夕饋尊一遵禮制朔望省墓不避風雨霜雪慮舅姑之疾懷不敢放聲哀痛雖無感容而枕席間斑斑血淚之痕未嘗少乾又能治家有規訓子勤篤爲鄉中望士長洪洙洪洙婦星州襄日煥女次玟洙婦尙州朴南錫女孫來圭來雨亦繼家聲嗚呼烈者婦人之大節而孝又極至夫人可謂能事畢矣於不休哉茲以齋沐特書闡揚庸表欽仰之忱

甲子二月 日

正憲大夫前議政府贊政兼掌禮院卿奎章閣提學  
撰

朴箕陽

[譯文]

본회에서 삼가 호남 승평군 유림의 통문을 본즉 부인이씨의 본관은 경주요 휘는 종연의 딸이라 고성김공 시호 양혜에 휘 贊吉의 十六세손 명암 휘 규환의 아들 창호의 아내와 천성이 지극히 효도하여 부모를 봉양함에 정성과 고경을 다하여 병을 순하게 하여 조금도 어김이 없으니 이웃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나이 十八세에 김씨문에 시집와서 친히 부엌에 들어 성심껏 시부모를 봉양하여 저녁에 정하고 아침 일찍 살피는데 게을리 않고 남편에게 공경하고 친족에게 돈독하여 여

사의 풍도가 있더니 二十四세가 되어 남편이 운명할 때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려 약으로 三日間 회생함을 얻었으나 하늘이 정한 명이 이러하니 어찌 하리오. 마침 명이 떨어지니 쫓아 죽으려함을 친척들이 구하여 과연 뜻을 펴지 못하였다. 가세가 비록 어려우나 장사에 예절과 아침저녁으로 괴연 드리는 절차에 예를 잘 지키고 초하루와 보름날 비가 오나 눈이오나 성묘하고 시부모가 슬퍼할까 우려하여 감히 소리쳐 울지 않고 비록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으나 침석 간에 눈물 자욱이 얼룩 저 항상 마르지 않았다.

또 능히 집을 다스림에 규칙이 있고 자식을 가르침에 부지런하고 독실하게 하니 한 시골에 훌륭한 여사가 되었다. 맏아들은 홍수니 며느리는 성주 배일환의 딸이요 둘째아들은 민수니 며느리는 상주 박남석의 딸이라 손자 내규가 또한 선인들의 가성을 이으니 오호라 열이라 함은 부인의 대절이요 효는 또한 극히 지극함이라 부인은 가히 일을 능히 하였다고 이르겠으니 썩지 않겠구나. 이로써 찬양하노라.

### 學生金公墓碣銘 并序

天下無道則賢人達士徃徃避世避地以善其身沒其齒窮餓而不悔其志高矣其情亦憾矣聖人所以許之非若隱者果於忘世也近

故學生金公諱重教字聖述亦其一流人也歟往在甲辰年間見國事多艱自京畿之江華府陪親入五臺山中終身不出而沒嗚呼悲夫亦賢矣所謂見幾而作不俟終日者歟固城金氏遠祖襄惠公諱贇吉曰諱鳴大枝祿秉斗鳳燮公之高曾祖考也妣瑞山宋氏以洪陵甲戌三月二十四日生己卯八月二十七日卒享年六十六墓平昌之道岩面高橋村後向午原配清州李氏父興俊五男元宰亨宰成宰德宰道宰女江陵金振海孫男女十數人不盡錄嗚呼公質美而早歲失學其愛親之誠接人之厚憂世之歎勤儉之至蓋其性然也晚而好學志同氣合者老少遠近而就見之見害義悖禮尚華無實者若將免焉嘗見其季胤之陷於夷俗而不如一枕冥然遂飲毒蒙被而臥渾家遑急莫知其所以而元宰來起余余往問曰何哉公曰於君不可不言也余曰孰欲久居此世也然死得其所難矣公然之家人救療而過者卽回親意亦可謂幸也公嘗曰晚學難誠觀場不出是爲大恨也其先人碣銘乞得於吳石農先生而欲躬往致謝而病未就而卒噫翌年月日元宰屢囑江陵崔永大爲銘墓以其爲平日相善也辭不獲謹叙之係以銘銘曰

亂世隱遯聖人遺訓豈專美古惟公亦奮德義俱備可警俗頹我失耦耕雲深五臺

庚辰菊秋日 江陵 崔永大 撰

[譯文]

천하에 도가 없는 즉 선비와 달한 선비가 간혹 세상을 피하고 땅을 피하여 그 몸을 착하게 하고 그의 연치를 마치고 궁하게 살아서 녹을 받지 아니하여도 후회치 않으니

그 뜻이 높음이요 그 정이 또한 슬픈지라. 성현들께서 옳게 여기셨으니 만약 습은 사람이 과연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니다. 요즘 고학생 김공 휘 重教 字 성술은 또한 그중의 한사람인가? 지나간 갑진년에 나라일이 잘못됨을 보고 경기 강화로부터 아버이를 모시고 오대산에 들어와 종신토록 나가지 아니 하였으니 슬프고 슬프구나 또한 어질다. 이른바 기틀을 보고 지어서 날이 마치도록 기다리는 자가 아니겠는가?

固城金氏 원조의 양혜공 휘 贊吉이요 휘 명대·지록·병두·지록·병두·봉섭은 고조 증조 조부라. 어머니는 서산송씨니 고종 갑술년 三月二十四日에 나시고 기묘년 八月二十七日에 졸하시니 향년이 六十六세라. 묘는 평창도암면 高橋村 뒤 자좌 오향이라. 배에 청주이씨니 그 아버지는 흥준이고 아들 五兄弟니 원재·형재·성재·덕재·도재요 딸은 강릉 김진해의 아내라. 손자 남녀 십여인이 있으나 다 기록치 못하노라.

공의 바탕이 아름다우나 소시에 큰 학문을 배우지 못하였으나 그 아버이를 공경하는 종신과 사람을 대접하는 두터움과 세상을 근심하는 탄식과 부지런하고 검소함이 지극함은 그의 천성이 그러함이라. 느직히 학문을 좋아하여 뜻이 같고 기운이 합하는 자면 늙고 젊고 멀고 가까운 데 다 나아가서 보더라. 의리를 해롭게 하고 예를 어기며 잘난 체하고 실상이 없는 자를 보면 장차 덜었으며 일찍이 그의 끝 아들이 오랑캐 풍속에 빠지니 잠자리를 같이 아니 하더니 어느 날 독한 약을 마시고 약독을 입어

누워 있으니 온 집안이 황급하여 어찌된 줄을 알지 못하여 원재가 나에게 왔거늘 내가 가서 물어 가로되 어찌된 일인고? 하니 공이 왈 그대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말하기를 뉘가 오래도록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할까 마는 그러나 죽는 것이 그 목적을 얻기가 어렵다. 하니 공이 그렇다 하더라. 집안사람이 구하여 효험이 있었고 허물을 지은 자 즉시 어버이에 뜻을 따르니 또한 다행하구나. 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배움이 늦어서 이루기 어려워 마당을 보고도 나갈 수 없으니 이것이 크게 한이 된다 하더라. 그의 선인 묘비명을 오석농 선생에게 빌어 얻어서 몸소 나아가 치하하고자 하였으나 병들어 가지 못하고 졸하니 슬프다.

다음해에 원재가 여러 번 강릉 최영대에게 묘명을 위촉하니 그로 더불어 평일에 서로 친하였으므로 사양하여 얻지 못하고 삼가서 세계를 적어서 명하니 명에 가로되 어지러운 세상에 숨고 도망하는 것은 성인들의 기친 유훈이라. 어찌 아름다움이 옛날에만 있을까 오직 공이 또한 출신하여 덕과 의리가 구비함이며 가히 무너진 풍속을 깨우쳤다. 내가 발같이하는 짝을 잃음이며 주름 깊은 오대산이로다.

晚惺金處士碑銘

晚惺金處士隱居五臺山中衣吾衣髮吾髮無一點俗態而超然氣  
 像聞伯夷之風而起者耶抑聖人所謂不見知而不悔者耶偉哉公  
 也天資純厚氣宇宏大言顧行行顧言能守其身而事親盡誠年三  
 十一之甲辰年間見賊臣之貧欲東夷之侵略不與立於同世自京  
 畿之江華陪親率家而遯跡無悶朝而耕暮而讀山而樵水而漁養  
 親志體具全教子法度甚嚴怠慢不設於身鄙俗不出於口招賢士  
 以教後生寄食貧兒以遂學心而諸子中或入於不義者則失死而  
 回之雖或親友中懦弱而志不立者若將免焉追時付勢之輩不容  
 於心其平日尊華斥倭之義承善裕後之道處人所不能處行人所  
 不能行非存順沒寧者之流孰能然哉重教其諱也聖述其表德也  
 固城之氏遠自小伽倻國末露瓦爲始歷羅麗入朝鮮 朝諱贊古  
 諡襄惠 太宗朝兵曹判書世子師傅贈右相曰鳴大曰枝祿曰秉  
 斗行順陵參奉壽通政曰鳳燮號芝村文章節行可起衰世而石農  
 吳先生撰喝銘四世也妣瑞山宋氏厚天外祖也洪武甲戌三月二  
 十四日己卯八月二十七日公生卒而壽六十六初葬于求昔村後  
 移于平昌之道巖高橋谷將軍巖子坐原配清州李氏父興俊辛未  
 七月二十八日丙戌十一月二十四日生卒而婦德甚備鄉里稱焉  
 墓合祔五男元宰亨宰成宰德宰道宰女江陵金振海長房男女永  
 和永哲永學密陽朴夏植安東權赫瑀江陵崔善貞次房男女永佶  
 礪山宋春根全州李基九三房系男永擇女江陵崔麟圭南陽房聖  
 振新安朱容洙四房男女永璨永桓隨城崔承三江陵金振極延安  
 金柱大晉州姜大均慶州金東基五房男女永俊永擇系出永默全  
 州李鍾九驪興閔始垠金婿男亨起曾玄以下繁不盡錄嗚呼公之  
 高節卓行益奮齋老先生崔永大之碣文嘗備矣余之末學何敢用  
 喙於其尾哉胄孫永和甫同門長席其繼志述事之孝慤懃丁寧之

誼不敢強辭而叙之如右爲銘曰

惟公風節可起頽俗島夷猖獗心固義直吾髮吾衣千里東隱五  
臺之陽漢水之源惟耕惟讀或 山或水林泉自樂不知老之高  
橋陽阡萬年幽堂松栢蒼蒼雲水呈祥我撮其要昭揭石章

隆熙紀元後辛未剝棗月 日 江陵 咸弼鎬 謹  
撰

[譯文]

호 만성 김처사께서 오대산중에 숨어살 때 옷은 옛 우  
리 옷을 입으시고 털은 옛 우리 털을 보전하셔서 한 점의  
속된 태도가 없이 초연한 기상에 伯夷의 바람을 듣고 일  
어난 분이 아니겠는가? 돌이켜 생각하건데 성인이 들어  
내지 않은 바를 아셨기 때문에 후회치 않은 분이 아닌가?  
대단하신 분이시다.

공이시여! 하늘에서 받은 성품이 순후하고 기운과 도  
량이 응대하고 말과 행이 일치하여 능히 그 몸을 잘 지키  
시고 부모를 섬기는데 성의를 다하여 나이 三十一세에 갑  
진 을사 사이에 적신들의 탐욕과 동왜의 침략으로 더불어  
같은 세상에서 살지 못할 것을 알고 경기도 강화에서 어  
버이를 모시고 솔가들하고 자취를 감추되 민망함이 없이  
일찍이 밭 갈고 저물게 글 읽으며 산에 나무하고 물에서  
고기 낚아서 아버이를 봉양하는데 온전히 하고 아들 가르  
치는데 심히 엄했고 조금도 게을리 안하시고 더러운 풍속  
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어진 선비를 불러 후생을 가르치며

기식하는 가난한 아이를 써 배울 마음을 도와주고 모든 아이들 중에 혹시 불의에 빠진 즉 죽기를 맹세하고 돌아 오게 했으며 혹시 친한 벗 가운데 유약하여서 뜻이 서지 못한 자를 자아 덜었으며 때를 쫓아서 세력에 아부하는 무리를 마음에 용납지 못하고 그 평일에 증화를 높이고倭는 배척하며 의리와 착한 것을 잇고 뒤를 넉넉히 하는 도에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능히 했으며 사람들이 능히 행치 못한 것을 행하고 살아서는 순히하고 죽음을 편안히 여긴 분이 아니겠는가? 누가 능히 이렇게 하리요. 重敎는 휘요 聖述은 그 덕을 포함이라.

固城金氏가 멀리 소가야 말로왕으로 시작하여 신라와 고려를 거쳐서 조선조에 휘는 贊吉, 시호는 양해가 태종조에 병조판서 세자사부에 우의정을 증직 받으시고 휘 명대 휘 지록 휘 병두 행순능참봉 수통정 대부요 휘 봉섭 호 지촌은 문장절행이 가히 쇠한 세상을 일으켜 쓰며 石農 吳先生이 비갈에 銘하셨으니 이분들이 四世요 妣는 서산 송씨니 후천은 외조라. 흥무 갑술년 三月 二十四日 기묘 八月 二十七日은 공의 생졸이니 수는 六十六이라 처음에 구석촌 뒤에 장사했다가 훗날에 평창군 도암면 높은 다리골 장군바위편 자좌에 이안하였다.

배에 청주 이씨니 부에 흥준이요 신미 七月 二十八日 병술 十一月 二十四日이 생졸인데 婦德이 심히 갖추었음으로 마을에서 칭찬하였다. 묘는 부군의 묘와 부좌했다. 五男一女를 낳으셨으니 원재·형재·성재·덕재·도재요. 여는 강릉 김진해라. 맏아들의 남녀는 영화·영철·영학

밀양 박하식 안동 권혁우 강릉 최선정 둘째 아들에 남너는 영길 여산 송춘근 전주 이기구 셋째 아들에 제남 영택 여는 강릉 최린규 남양 방성진 신안 주용수 넷째 아들에 남너는 영준 영택은 계출이요 영묵 전주 이종구 여흥 민시은 김서남에 형기니 증현 이하는 번거로워 다 기록하지 못한다.

오호라 공의 높은 절개와 탁월한 행금은 익분재 노선생 崔永大의 갈문에 일찍 갖추었으니 나의 말학으로 어찌 감히 그 끝에 무슨 말을 하겠는가? 만손자 영화보가 동문의 장석으로 그의 뜻을 이어 술사에 효로 은근하고 정연한 우의로 감히 강하게 사양치 못하고 오른쪽과 같이 지어서 위하여 명해 가로되 오직 공의 풍절은 가히 퇴속을 일으키다.

섬 오랑캐가 창궐했을 적에 마음이 굳어지고 의리가 고았도다. 나의 털과 우리 옷으로 천리 동쪽에 습었으니 오대산 양지요 한수에 근원이라. 오직 밭 갈고 오직 글 읽으며 흑시는 산에서 흑시는 물에서 林泉에 스스로 즐겨서 늙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높은 다리 양지쪽 묘에 만년의 그윽한 집이로다. 소나무와 잣나무 푸르고 푸름이여 구름과 물이 상서를 드리도다. 내가 그 일을 촬영하여 발게 석상에 높이 달았도다.

奎鉉孝行錄

夫孝者人所難行之事也故己獨不知而人必先知者誠孝行于家則名聞達於時譬如風之自聲之應影響相隨故也亦非家喻而人說之也然知善而掩其行蔽賢而隱其名決非仁人之用心也噫金奎鉉氏本以仁厚苗裔農家子弟世居君業里卽議官公之次子也自弱冠既有誠心孝奉兩親甲午燹火之後寓居春川郡楓川里長子谷乃窮巷孤村也議官公常多韻致亦喜飲酒與鄉里諸益互相交遊每飲自家釀或賒野店醪無日不醉常往酒家至暮不還則明燭陪歸而峽路險傾又多石礫奎鉉氏盡力修治坦如大路而夏則除草冬則掃雪行步便利恐親之乖醉往來蹶跌被傷也且多小酒債一一酬報不令其親知之飲食之供賓客之奉極力營辦不計有無蓋恐親意知則不安也此孟子所謂事親養志者也議官一日覲疾憂心焦燥夜不解衣迎醫試藥終無差效醫云療其症勢則非蓼難治聞甚憂慮每夜誠禱山一夜有神人現夢昭詳指導明朝往求其處果得一箇山蓼供獻其親厥疾亦瘳矣隣里聞之驚嘆曰美哉此人所行非誠孝感天其能致此乎由是名播遠近奄遭慈艱自袒括之日哀毀踰節鄉隣憐其過哀親戚憂其傷孝襄禮已畢夜至墓所號泣良久懸燈而歸晨起復至亦如之虎吼狼叫不絕左右小無忌憚風雨寒暑不避艱險終始如一及期而除喪悲痛益切哀盡足吊者大悅居數勢因還故土始各分住相距稍遠一朔之間三四次省親則必酒饌獻養于親或抽身無暇則請行其親適口之物供進不絕如此者數十年議官公享年八十有四矣在戊辰之夏以老病欠寧自臥床之後終無一言遺教由是益切痛恨暫不離側百方治療其如天年何六月二十九日奄忽棄世叩地號天罔極之痛尚忍言哉養生送死少無遺憾居喪行儀一依前喪襄奉之日遠近畢至以挽詞赴唁者不可枚舉而治山凡節非不豐洽心猶不足后日造

山負土擔石獨任其勞役事已畢行路徃徃陟降觀其宏偉皆云壯哉金公之山也唯如此而後人子之道可謂盡矣日日稱頌者不知幾許人也余於是感發興起欲且陳情實而辭多文少未能提略構掘辭以俟多士之斤正唯願鄉洛諸君子之照覽幸須同心褒揚俾彰希世之懿行敬要

歲在庚午孟秋上澣 全義后人 李教恒 謹稿

[譯文]

무릇 효도라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고로 홀로 행할 일이지만 세상에서 반드시 먼저 알게 되는지라. 진실로 효행이 있는 집인즉 그 이름이 바람에는 소리가 있고 물체에는 그림자가 따르듯이 또한 집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착하고 어진 것을 가리고 숨겨도 결국 어진 사람의 마음씨가 아니겠는가? 슬프다.

김규현씨는 본래 인후한 후에 농가 자제로 세대로 군업리에 사니 즉 의관공의 차자라 약관으로부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양친께 효도하더니 甲午年兵火에 춘천군 품천리 장자곡에 와서 사니 궁한 메골과 외로운 마을이라. 의관공이 항상 호협한 기운이 있어 술을 즐기어 여러 벗을 서로 사귀어 자주 집에 술을 빚어 놀되 혹 야외에 나가 날이 저물면 등축을 밝히어 모셔 돌아왔다. 좁은 길이 험하고 또 돌이 많으니 규현씨가 힘을 다하여 길을 수리하여 대로로 만들고 여름에는 풀을 베고 겨울에는 눈을 쓸

어 보행에 편리하게 하니 그 아버지의 왕래를 편리하게 하고 다소 술값을 일일이 갚아 그 아버지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음식 공양함과 빈객을 대접함을 극력으로 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편안케 하니 맹자의 이른바 아버지를 섬김에 뜻을 다한다 하더라.

의관공이 하룻날 병이 드니 근심하는 마음 초조하여 밤에는 옷을 벗지 않고 의원을 맞아 약을 썼으나 차도가 없으니 의원이 말하기를 이 증세에는 인삼이 아니면 치료하기 어렵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밤마다 정성으로 기도를 하더니 하룻밤 꿈에 신인이 와서 자세히 지도하여 잠으로 밝은 날에 그곳을 가보니 과연 한 개 山蔘이 있음으로 캐서 아버지께 받쳐서 병이 나으니 인근 사람이 듣고 경탄하여 말하기를 아름다운 이 사람의 소행이여 지성스러운 효행이 아니면 감천함이 어찌 이 같으리요. 이로 인하여 이름이 원근 간에 소문이 나고 문득 모친상을 당하여 애회감이 절도에 넘으니 인근 사람들이 과애함을 여배 여기고 친척들이 傷考할까 근심하고 장례를 마치고 밤마다 묘소에 가서 오래도록 울다가 등불을 의지하여 돌아보고 새벽이면 일어나 또다시 이같이 함께 범의 소리 이리 소리가 좌우에 끊어지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풍우한서도 피하지 않고 한결 같이 하더니 상사를 마치는 날에 비통함이 더욱 애절하니 조상하는 사람들이 크게 칭찬 하더라.

두어해 살다가 분가하여 군업리에 돌아가 살게 되니 거리가 초원한데도 한 달에 三,四차례 아버지를 뵈을 때 반

듯이 주찬으로 봉양하고 혹 여가가 없어서 가지 못하면 그 아버이를 모셔다 이에 맞는 음식을 끊임없이 바쳤다. 이렇게 하기를 수십 년에 의관공이 무진년 여름에 향년 八十四세에 노병으로 병상에 누운 뒤에 말 한마디 유언도 없으니 더욱 슬퍼하여 잠시도 옆을 떠나지 아니하고 백방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천명이니 어찌할고. 六月二十九日에 세상을 버리시니 땅을 두드리고 하늘을 우러러 애통함은 차마 말할 수 없더라.

살아서 봉양하고 죽어서 전송함이 조금도 유감없이 하고 상사 치르는 의례를 어머니 때와 같이 하고 장삿날에 멀고 가까운데서 다 모였고 挽詞로서 조문한자 많았다. 찬산 범절을 흠족히 하였으나 마음이 오히려 부족하여 후일에 흠과 돌로 산을 지어 그 역사를 마치니 지나가는 사람 그 웅장함을 보고 김공의 산소라 일컫더라. 사람의 자손된 도리라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더라. 내 이에 감동하여 실지를 적어 진정하니 한일은 많아도 글이 부족하여 능히 약력을 다 기록치 못하니 많은 선비들이 동심하여 이 세상에 포양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 孝婦慶州金氏事蹟

夫人姓金氏籍慶州源祚之女樹隱公諱冲漢之后也生長法家天資婉順志操高 邁年十八歸于固城金斗烈相元其考贊成公諱

體義之十世孫也夫人孝養舅姑敬事君子友于娣姒睦于宗黨有古女士之風才有男妹二人夫人年二十餘其夫渡玄海而音信杜絕生死未辨夫妻相離三十有餘禩矣家運不幸子又夭此人所不堪而夫人處之泰然少無悲慘之態常以和悅之色承順適意益孝舅姑緊檢家事甘旨之供晨昏之節終無少懈舅姑有悲歎之色則夫人輒以和氣怡聲慰之而安舅姑亦不以戚容見於色常歎曰吾婦真出天之孝也姑沒喪葬祭尊一遵禮制以夫弟三烈之子在倫奉宗祀愛而育之無異己出教以義方獎進學業隣里欽歎累有面鄉之嘉賞登章甫之薦歲丁酉三月日本道知事李琦世表彰狀云孝婦行蹟顯著如此可爲道民龜鑑故茲以賞品授與嗚呼觀今倫彝敦敗婦之叛夫如棄蔽蓀況且無夫之舅姑乎余以是敢述夫人之事蹟以警世之爲人婦者焉

歲丁酉臨月哉生明 靈城 丁在奎 謹識

[譯文]

부인의 성은 金氏요 본적은 경주니 원조의 따님이요 수은공 휘 충한의 후예라 나서 법도가 있는 집에서 자라 천자가 완순하고 지조가 고매하더니 나이 十八세에 고성 金斗烈을 맞아 돌아보니 相元은 그의 부친이요 찬성공 휘 체의의 十세 손이다.

부인이 효도하여 시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며 남편을 섬기고 시동생들을 우애하며 친족에게 화목하니 옛날 여사의 풍도가 있더라. 귀여운 두 자녀를 낳으니 부인이 아니 二十여세라 남편이 현해탄을 건너가서 소식이 두절

하여 생사를 알지 못하여 부부가 서로 이별하고 가운이 불행하여 아들이 또한 일찍 죽고 이러한 처지 되면 사람마다 견디기 어려운데 부인은 태연하여 비참한 기색이 없고 화열한 빛으로 시부모의 뜻을 승순하여 효도하고 가사를 잘 보살피며 맛있는 찬으로 조식으로 보살피는 법도 조금도 해이지 아니하고 시부모 비통하는 빛이 있으면 부인이 문득 기운을 화하게 하고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위로하니 시부모가 어찌 슬픈 얼굴을 하겠는가?

항상 탄식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는 참으로 하늘이 내린 효부라 하더니 시어머니 상사를 만나 초종장사며 조석제전을 예를 따라 행하더라. 시동생 삼열의 아들 재운으로 종사를 이어 사랑하여 기르기를 내가 낳은 자식과 다름없이 하고 의로운 법으로 가르쳐서 학업에 나가게 하니 마을 사람들이 흠탄하여 여러 번 面과 郡의 상을 받았고 향당의 어른들이 천거하여 丁酉年 三月에 도지사 李琦世의 표창을 받으니 그 표창장에 가로되 효부의 행적이 현적함이 이 같으니 도민의 귀감이 되는고로 이로써 상품과 상장을 주노라 하니 오호라 이제 윤리가 퇴폐하여 女子 간혹 그의 남편을 배반하기를 헌집신짜과 같이 하거늘 장차 지아비 없는 시부모를 이같이 섬기겠는가? 내 이러므로써 감히 부인의 사적을 적어서 이 세상에 부인된 분들을 계우치노라.

## 石泉金公墓表

金君燦洙述其先考石泉公善狀屬余爲不朽圖余旣歎其至行有足感泣人又嘗私叩之其族人族人曰噫誠有是也其行尚在人耳目矣按公諱哲鎬字秉履自少患貧不致養每販屨供旨中歲遂得殖皆父以老病久在牀褥日夜護其側時其飲啖手自刷穢三年不少懈及喪口絕水醬累日值天雨必先省墳而後田有二弟早夭一弟廢疾十數年人所畏忌不敢近而一室共臥起至不可爲而猶藥之里人見者咸歎息先世祭田有人私鬻每歲輪次供具人皆不進力也公獨以爲任每祭必豐七年益勤一門竟效之昔人有悶其兄弟之病而分灸者矣有至性者此或可能若至於形貌臭穢已化爲異物矣而意傷之不忍其殘廢也至誠護之久而彌篤如公者古亦宇其人否乎余嘗爲浴川朴孝子鴻來書其事朴侍癩母八年卒能愈之公則父幸不能使其弟愈固亦有命焉然其心則又奚異焉固城氏以贈右議政襄惠公贊吉爲最著水軍節度使世珍始居昇州高曾祖禰曰兌華鴻貞之顯奎泳妣平康蔡氏配草溪崔祿秀女生男燦洙渙洙東洙女慶州李乙水尚州朴元錫全州崔七鎬公生高宗丁亥以壬午四月十九日卒享年五十五葬水封山先塋下乙坐原先是辛巳公遭母憂臨暝以不得終喪爲至恨遺戒諸子卒侍筵几如己在云

丁酉重陽前四日 光山 金文鈺 撰

[譯文]

김군 찬수가 그의 선고 석천공의 행장을 지어 나에게

영원히 전할 글을 위촉할새 내 그 지극한 행실은 족히 사람을 감동시켜 울리게 함이 있음을 탄식하여 그 죽인에게 물어보니 죽인이 왈 슬프다 진실로 이 같다 하여 그 행이 지금까지 귀와 눈에 남아있다 하더라.

살펴보니 공의 휘는 哲鎬요 字는 병하라 젊어서부터 집안이 어려움으로 매일 신을 삼아 팔아서 맛있는 것으로 부모 봉양하더니 나이 증년이 되어 드디어 가산을 넓혔으나 아버지 노병으로 오래 병상에 계시더니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고 때때로 그 담을 스스로 받아 내되 조금도 해이하지 않더니 상사를 당하여 초종 때에 물과 밥을 먹지 않았고 비 오는 날도 반듯이 먼저 성묘한 후에 밭으로 나갔다. 두 아우가 있었으나 일찍 죽었다. 한 아우는 폐질로 십여 년 사람들이 꺼려 감히 가까이 아니하니 한방에서 기거하며 약을 써주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더라.

先世祭田이 있으니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여 매년 자손들이 돌아가며 차라리 다 즐겨하지 않으니 공이 독담하여 七年을 정결하고 풍족하게 제사를 올리게 하니 일문에서 본받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뉘우쳤다. 형제간에 병들어 정성껏 치료하여 주는 사람이 많지만 참혹한 형상과 더러운 냄새와 배출되는 물건은 뜻이 상하여 차마 견디기 어렵건만 지성으로 보호하여 오래토록 독실이 함이 공과 같은 사람 예로부터 몇 사람 있겠는가?

내 일찍이 육천박효가 홍래의 사적에 쓴 그에 그 어머니 나병 팔년에 증히 날게 하였더니 공은 불행하여 능히

그 동생으로 하여금 낱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천명이 다함인가? 그러나 그 마음은 특이한 사람이라 증직 우의 정 양혜공 휘 빈길은 이름 높은 분이고 수군절도사 世珍이 처음으로 승주에 와서 살았다.

고조와 증조와 조와 부의 휘는 兌華 鴻貞 子顯 奎泳이요 어머니는 평강 채씨요 배는 초계 최록수의 딸이라 낱은 아들은 찬수, 환수, 동수요 딸은 경주 이을수 상주 박원석 전주 최철호라. 공이 高宗 丁亥年에 나서 壬午 四月 十九日에 졸하니 수는 五十五세라. 수봉산 선영하 을좌에 장사하니 그전해공이 모친 상사를 만났음으로 눈을 감을 때 아들들에게 유언하여 왈 내 있을 때와 같이 할머니의 괴연을 잘 모시라 하더라.

### 寶隱金公墓誌銘

公諱炳柱字士文號寶隱姓金氏籍固城我東望族入本 朝有熙贊吉號竹崗以勳 贈右議政諡襄惠享樂安四忠祠公之十八世祖也厥后有諱益卿以礪山倅 遂隱於務安仍世居文行相繼高祖諱奎現曾祖諱基福祖諱大鎮考諱源三號芝谷獎進後學從事斯文妣晉州鄭氏漢奎女 高宗癸未十一月二日生公端雅嚴峻孝友成性與其季憲柱受業於淵齋宋文忠公秉璿門潛心于學守志益堅先生亟稱曰觀其立志誠不易得底人特書寶隱而命其號蓋懷寶遜世之意也恪守師訓構亭於寶平山之東扁額以寶隱

是沒世不忘之義也與季同處墳麓湛和人比之以司馬氏之行公  
 直行危言爲衆惡之猜庚寅之變彼不敢犯兩胤橫遭慘禍一鄉嗟  
 愕毒憾以後公悒鬱成痼丙申正月十九日卒墓大鳳山坐艮之原  
 配務安朴氏淇駿之女有宜家之德壬午生忌七月二日墓遠馬山  
 先塋內巽坐有二男三女性休娶靈城丁祥璣女性天娶利川徐千  
 石女婿曰徐鍾國柳在權孫男龍在鶴在麟在鸞在性休出東在性  
 天出嗚呼公之平素操行清直遵道爲亂世之不容雖有一時之酷  
 禍然後裔之必昌天理之定也余畏友金泳福甫公之族而齋公行  
 狀來要以文欲圖不朽余雖不文誼不敢辭因銘曰

清直秉性濁世難容毅然氣槩高峰蒼松淵源之正斯文所宗嗚  
 呼毒禍厄會所逢天必有報雲仍茸茸命名永傳三尺之封

丁酉臘月之望 承訓郎前章陵參奉 完山 李錫永 撰

[譯文]

공의 휘는 병주요 자는 사문 호는 보은 성은 김씨요 적  
 은 고성이나 우리 동방 望族으로 본조에 휘 빈길 호 죽강  
 은 훈절로써 우의정을 증직 받고 시호는 양혜요 낙안 사  
 충사에 배향 받으시니 공의 十八代조라. 그 후에 휘 익  
 경이 여산 부사를 지낸 뒤에 드디어 무안에 은거하니 세  
 대로 문행이 끊이지 않았다. 고조의 휘는 奎現이요 증조  
 의 휘는 其福이요 조의 휘는 大鎭이며 부의 휘는 원삼이  
 요 호는 지곡이니 후학들을 장려하여 사문에 종사하였다.

어머니는 진주 정씨 한규의 딸이라 고종 계미년 十一月  
 二일에 낳으니 공이 단아 엄중하고 효도하고 우애함이 천

성을 다하여 그의 아우 현주와 더불어 학업을 연재 송문  
 충공 병선 문하에서 받을 때 학문에 잠심하고 뜻 세움이  
 견실히 하니 선생이 그 뜻이 바뀌지 않을 것을 보고 칭찬  
 하여 특히 보은 두자를 써서 명하여 그의 호를 하라 하니  
 대략 그 뜻을 보평에서 살며 어지러운 세상에 습으라는  
 뜻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깨우쳐 정사를 보평산 동쪽에  
 짓고 액자로 보은 두자를 써서 현판하니 이것은 영원히  
 잊지 말자는 뜻이다. 그 아우로 더불어 한가지로 살며  
 단란하고 화합하니 사람들이 司馬氏의 행실에 비하더라.  
 공이 행실이 곧고 말이 바름으로 무리들에게 시기함이 되  
 었더니 경인년 변을 당하여 공에게 감히 못하고 그 두 아  
 들에게 화를 입히니 일행이 슬퍼하고 슬퍼하더라.

공의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여 고질병이 생겨서 병신  
 년 正月 十九日에 졸하니 묘는 대봉산 간좌라. 두 아들  
 과 세 딸을 낳으니 맏아들 성휘는 영성 丁祥璣의 딸에게  
 장가가고 둘째아들 성천은 이천 徐千石의 딸에 장가들었  
 다. 사위 중 맏이는 서종국 둘째는 유재권이라. 손자  
 男에 용재 · 학재 · 린재 · 란재는 맏아들 성휘가 낳고 동재  
 는 성천이 낳았다.

오호라 공이 평소에 해금이 청직 준수하여 난세를 만  
 나 비록 한 시대에 혹독한 화를 겪었으나 후예들의 창대  
 함은 하늘에 이치 있음이라. 나의 벗 김영복이 공의 즉  
 친임으로 공의 행장을 가지고 와 글로써 휘하지 않기를  
 도모코자하여 맑고 곧은 정성은 탁한 세상에 용납하기 어  
 렵다. 글센 기개는 높은 봉의 창송이라 영원이 정당하니

사문의 소종이로다. 슬프다. 독한 화액이 소봉에 모였다. 하늘이 반듯이 갚음이 있으리니 후예가 행계하고 행계하리로다. 아름다운 일이니 기리 전하리니 서너 자 되는 봉분이라.

### 孝烈婦金氏行錄序

夫倫綱者人之所當行之路而其全而行之者幾稀故一有挺特之人立於世則自古帝王必旌褒之馳證之使天下之人感發而慕行之或有隱淪而未得贊揚者蓋因時勢之不利也若湖南咸平州之金孝烈婦是耳孺人籍金海牧使諱係熙厚持平諱德厚七世孫學生柄斗女自幼性行貞淑早失怙奉偏慈以孝鄉黨稱之年及笄將適于士人金琪柱其先貫固城文景公諱澤瓊后中祖襄惠公諱贊吉

贈工曹參議諱撫國十二世孫五世諱應喆號芝隱處士學生源琚爲其父也日夫人忽聞尊舅之訃轉倒奔哭曰侍父之福何其薄也哀號動人莫不流涕天性然也倫綱明矣啗素三年奉尊以誠禮養姑以志體姑愛之曰吾孝婦不幸中途患風症夫人以百方調護不得秦效至公祝天願代坐臥必扶持甘旨無所闕九年如一日及丁艱哀毀骨立過制焉事君子敬謹罔敢違禮又不幸夫邁疾於母夫人葬後祥前夫人哀遑之餘醫藥祈禱靡不庸極勢將危血指灌喉雖延半晌之命竟遭崩城之痛有一子代服其服而尙處以罪上之罪人朝夕朔望祥禫之尊每號哭仆地氣絕方甦一日從容謂其

弟曰今三燧已訖初忌又過生亦何爲其弟愕然寬慰而止之終乃仰藥自裁嗚呼孝且烈哉使史氏載筆豈不以孝烈雙美美之乎如是卓絕之行可使神人共感而時適倭仇之世其子弟族黨以其非時不欲汲汲於暴揚之議藏錄而至于今日猶懼久而泯焉故將付剞劂以壽其傳於不休哉噫今世何世倫綱塗地久矣夫棄婦如廢屣婦視夫如仇敵者徃徃聞之口不可言也可勝痛歎哉幸使是傳聞于後之當路君子褒揚之贊美之亦豈無補於立紀綱正風俗之道乎遂書此以歸之

歲丁酉臘月上浣 平陽 朴鍾述 序

[譯文]

삼강과 오륜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지만 그 온전히 행하는 자가 드문 고로 한 특이한 사람이 있어 세상에선 예로부터 제왕들이 반듯이 정표하여 주어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케 하여 그의 행을 사모하게 함이니 후시 습고 빠져서 찬양을 얻지 못하게 됨은 대개 시절의 형세가 분리하기 때문이다. 호남 함평고을 김효열부가 이렇게 되었다.

유인의 본적은 김해니 목사 휘 계희의 후손이요 지평 휘 덕후의 七世孫 병두의 딸이라 어려서부터 천성과 행실이 정숙하더니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효도로써 받드니 향당이 다 칭송이라. 연세 출가할 때가 되어

서 선비 김기주를 맞으니 그의 선계는 固城이다. 문경공 휘 태경의 후예로 증조의 양혜공 휘 贊吉 이요 공조참의 휘 무극의 十二世孫이고 五代조 휘는 응철이요 호 지은 처사라 휘 원숙은 그의 아버지니 어느 날 부인이 문득 시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정신없이 달려와 울며 말하기를 아버지 모실 복이 어찌 이다지도 박한가 하며 슬피 부르짖어 우니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천성이 그로하고 삼강에 밝음이라.

삼년을 소식하며 정성과 예로써 봉전하며 시어미 봉양하기를 뜻에 맞고 몸에 편안하게 하니 시어머니가 사랑하여 가로되 나에게 효부라 하더니 불행하여 증풍병에 거려 부인이 백방으로 약을 썼으나 차도가 없어서 하늘에게 자기 몸을 대신하여 줄 것을 빌며 앓거나 눕는 것을 반드시 부축하였으며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기를 九年을 하루같이 하더니 마침내 졸하니 애회함이 절제에 넘치더라. 남편 섬기기를 존경하고 삼가서 감히 예를 어김이 없더니 또 불행하여 남편이 병드니 母夫人의 장사 후요 소상전이라 부인이 슬프고 황망한 가운데 의원과 약이며 기도함이 극진하지 않음이 없더니 병세 더욱 위태하니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려 넣어 반나절을 연명하였으나 필경에는 성이 무너지는 듯 한 아픔을 만났으나 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지가 입을 복을 대신으로 입고 그 아버지 복도 입으니 항상 죄 위에 죄인이라 자처하며 조석으로 드리는 예와 초하루 보름이며 三年 喪祭禮에 부르짖어 울어 땅에 엎드려 기절하다가 다시 회생하여 하룻날 아우에게 일러 가로되

이제 三年喪이 다하고 첫제사도 지났으니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고? 하니 그 아우 놀라며 너그러이 위로하여 말렸으나 마침내 음독하여 자재하니 오호라 효부여 열녀로다.

역사를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찌 효와 열에 두 가지 아름다움을 실지 않겠는고. 이와 같이 탁월한 행실을 위신과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감동케 하건만 때가 외정의 시대를 만나 그의 자제와 족당이 때가 아님을 알고 급급히 포양하고자 하지 않고 하던 일을 기록하여 오늘날에 이르러 때가 오래되어 없어질까 두려워서 장차 판각에 붙여 썩지 않는데 전하고자 하니 슬프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된 세상이 삼강과 오륜이 땅에 떨어졌는지 오래여서 지아비가 지어미 버리기를 헌신짝 같이 여기고 지어미가 지아버지를 멸시하여 원수같이 여기는 것이 간혹 들려오니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고 가히 통탄하지 않겠는가? 다행이 이글로 하여금 뒷길을 담당할 근자에게 드러져서 아름다운 행실을 표양하게 되면 어찌 삼강과 오륜의 바른 풍속을 세우는데 도움이 없으리오. 드디어 이 글을 써서 들려주노라.

孺人孝烈婦曹氏讚揚文

右讚揚事謹按則羅州郡洞江面月良里孝烈婦昌寧曹氏富煥女

洛川君諱隨后諱應炯曾孫諱夢現孫諱基彩子金亨鎮妻天姿貞淑夙著美譽年當十四于歸無兄弟只有舅姑而家雖甚貧自幼能知事親之道克供甘旨遭喪葬尊以禮行素三年每當忌辰齋戒致誠聞者莫不感歎年至二十有一生自源午而於焉歲月如流年當三十有五夫偶嬰疾調護沒策雇傭得米以供藥餌之資夜則不寐益殫其誠祝天願代矣年當三十七竟遭終天之痛哭泣不絕於口矢以下從幼兒在膝不忍就義強存將事殮葬以禮泣血居廬三燧盡節雇織以資克護幼兒僅成門戶噫曹夫人之行盡其天賦之純性一心無改爲女士中模楷莫不欽感起敬而揆其實蹟則誰不感歎哉故本人等按其狀而一以爲益彰善行一以爲永樹風聲之意而茲敢讚揚事

檀紀四千二百九十年丁酉十一月 日 讚揚人 曹周煥

[譯文]

삼가 살피건대 나주군 월양마을 창령 조씨는 富煥의 딸이라 소가야 말로왕의 후예로 휘 응형의 증손 휘 몽헌의 손자 휘 기채의 아들 김형진의 처라 천자가 정숙하여 일찍이 아름답다는 이름이 있더니 나이 十四세에 우귀하여 형제 없이 홀로 시부모님을 봉양하되 집이 비록 가난하니 능히 사친하는 도를 알아 극력으로 주선하여 맛있는 음식을 봉양하더니 구고의 상사를 당하여 장사와 소대상을 예로서 제전하고 三年을 고기와 좋은 음식을 안 먹고 제삿날을 당하여 재제하여 정성을 다하니 듣는 자가 다 감탄하며 나이 二十一세에 아들 원오를 낳으니 세월이 여류하

여 당년 三十五세에 남편이 우연히 병이 들어 극진히 보호하여 약으로 공양하며 밤에도 자지 아니하고 그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게 자기 몸을 대신할 것을 빌더니 나이 三十七세에 당하여 마침내 종천함을 만나서 통곡하여 울음이 끊이지 않더니 죽어서 지아비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어린아이 슬하에 있어 참아 하지 못하고 염하여 장사할 때 예로서 하고 피눈물을 흘려 三年을 시묘하고 힘을 다하여 길삼하여 어린아이를 극진히 도와 겨우 한집 문호를 이루었으니 오호라 조부인의 행함이 하늘이 주신 순수한 천성으로 한 마음을 고치지 않으니 여사증의 모범이라 공경하지 않겠는가? 그의 실적을 보고 뉘 하니 감탄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본인 등이 그의 장문을 살펴 하나는 착한 행실을 더욱 빛나게 함이요 하나는 아름다운 소리를 길이 세우고자 하는 뜻으로 감히 찬양하노라.

賢婉星州洪氏褒장彰狀

宣略將軍諱壽康之五代孫枝擘子秉周妻洪氏夫人慶業之女也  
 入于金門之二年早寡家無應門之童獨宿空房家事專務內外庶  
 事少無拘滯之聲一如豫定之事宗族隣里咸服其度量矣至於歲  
 時伏臘亨祀之禮一遵家禮少無闕廢至誠奉之隣里有吉凶之事

必以資物助之若聞近洞間貧乏絕火之聲專人送物慰勞之至於  
晚年食貧支慳少無憂色年近九旬目察秋毫笑無露齒之笑自隣  
里聞于本郡多士有表彰焉

丁酉秋九月一日

宋在璇 謹撰

[譯文]

선략장군 휘 壽康의 五代孫 枝曄의 子 병주의 처 洪氏 부인은 경업의 딸이니 김씨문에 들어온 지 二年만에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여 혼자되었으나 집안에 한동자도 없이 홀로 집일에 전념하여 내외관계 모든 일에 구차함이 없이 예정한 일을 한결같이 하니 종족과 인근 사람이 그 도량에 감복하였다.

춘하추동 사시에 차례와 제사를 집예에 따라 조금도 꺾거나 폐함이 없이 지성으로 받들고 이웃에 길흉사가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며 동리에 생활의 어려움에 당한 소문이 있으면 물건을 보내어 위로 하였다.

만년에 이르러 의식하기 어려움이 이르러도 추후도 근심하는 빛이 없었고 연세 九十이 되어도 안광이 건안하여 매사를 살필 수 있었으며 웃음을 웃되 치아를 들어내게 웃지 아니하였다. 마을로부터 본군에서 그 소문이 퍼지니 선비들이 표창하였다.

## 晦産公號記

固城金公重善羲慶甫幼自江都之摩尼山下從親入江原之五臺山後移江陵之 鯨巖山又入襄陽之雪嶽山老年棲于道巖之龍山蓋安其二胤明宰之侍奉也明宰嘗從余遊累問其春堂之號余亦曾棲屑於五臺鯨巖之間者故熟知公之心事也我東自乙庚之後島夷猖獗先王先聖之道墜地盡矣公猶毅然衣吾衣髮吾髮書吾書宜乎不合乎世而流離於窮山絕峽之間也飯糗茹草友松伴石人或不堪而公則若吾分內事也若春山淡泊如笑秋山明淨如粧之際我之情緒隨感而見喜怒哀樂適其中和不佛乎大本達道之正全不似烟火塵埃中狀態若風流文章如古人者過之則必吟別有天地非人間與夫路通猶恐世人知之句矣韜晦于山原來公之實事則不待問號而知者也故余遂書晦山二大字而授明宰揭諸公所居之楣公應亦爲然而曰知我哉否

隆熙紀元後六十年丙午長夏 江陵 崔永大 撰

## [譯文]

고성 김공 증선 자희 경씨는 어려서 강화 마이산 아래로부터 아버이를 따라 강원도 오대산에 들어와 사시다 그 후에 강릉 경암산에 옮겨 사시고 또 양양 설악산에 들어가 사시다 노년에 도암 용산으로 옮기시니 그 둘째 아들 명재가 모실 때에 명재가 일찍이 나를 從遊할 때 여러 번 그의 부친의 호를 칭하니 내가 또한 일찍 오대산과 경암산에서 살았으니 공의 마음과 일을 익숙히 아는지라 우리

나라가 을사년부터 경술년 뒤에 섬 오랑캐가 창궐하여 선왕과 선성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 이러한 때에 공이 오히려 이연히 우리 옷을 입고 우리 털을 가지고 우리글을 읽어 세상을 위하지 아니하고 증산절벽 사이에 유리하며 초근을 잡수시고 술을 벗하고 반석으로 짝을 삼으니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데 공은 자신의 분수 안에 있는 일같이 여기시여 봄 산이 담백하여 웃는 것 같고 가을 산이 명정하여 단장한 것 같을 즈음에 나의 정서가 감동함을 따라 희로애락이 그 中和에 맞고 大本達道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바르고 온전함 烟火와 塵埃같은 상태에도 風流文章이 옛사람과 같은지라 지나친즉 반듯이 別有天地非人間을 말하겠느냐? 路通猶恐世人知句로다.(길이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서 한글이다) 산의 자취를 감춘 원래 공이 실제적인 일이니 호짚기를 기다리지 않고 알 수 있구나. 그러므로 내 드디어 晦産 두 큰 글자를 써서 명재에게 주고 공이 거쳐하시는 문 위에 달게하니 공이 응하여 그럴 듯하다 하시며 나를 아는 자가 아니겠느냐 하시다.

### 晦山金公墓表

蓋當陰陽易位是非混雜之世有不失本心不循流俗而能自立於泰然之域者曰故固城金公諱重善字義慶號晦山也其先小伽倻

歷洛川君隨襄惠公贊吉龜庵公慶長至僉使公春茂始居江都會  
 祖諱枝祿祖諱秉斗參奉考諱鳳燮號芝村青蛇之燮盡室隱于五  
 臺山石農吳先生撰碣瑞山宋厚天外祖也公以 高宗己丑八月  
 十七日生出言制行無不率意任真貧困禍患亦皆隨宜晏如享年  
 八十六之甲寅十一月十五日卒齊江陵崔氏元極女平章事立之  
 后生辛卯四月六日卒己亥五月三日墓江陵府西渭村之駕嶺西  
 坐原祔左也生三男三女丞宰明宰容宰李範龍閔泳集魚用璫妻  
 長房男永範永振永玉二房男女永敏永淑永惇永來江陵金順起  
 妻三房男永三永彬永台永一永碩李婿男碩宗閔婿男俊植魚婿  
 男允貞允學允賢允秀也餘略余與公相知數十年握髮嘯咏於殘  
 山剩水之間操瓠求履於斷簡絕編之中以余鈍劣之資不能效公  
 泰然之懷抱也今以平日素慕公者書公之墓石使其英靈不昧將  
 莞爾而笑曰世人皆不知我而惟某獨知我乎抑將曰人之知不知  
 我如浮雲然而子何必如是云云耶噫

丁巳仲春初吉 臨瀛 崔永大 撰

[譯文]

대개 음양의 위치를 바꾸고 옳고 그름이 혼탁한 세사에  
 당해서도 본심을 잃지 않고 흐르는 풍속을 따르지 않으며  
 능히 자립하여 태연하게 처분하였다. 故固城金公의 휘는  
 증선 자는 의경이요 호는 회산이라 그분의 선조는 소가야  
 니 낙천군에 봉하여진 휘는隨요 양혜공의 휘는贊吉이요  
 龜巖公의 휘는 경장이요 첨사공 휘는春茂에 이르러 비로  
 소 강화에 사셨다.

증조의 휘는 枝祿이요 조의 위는 秉斗니 참봉이요 부친의 휘는 鳳燮이요 호는 지촌이라 을사조약의 변란 후 온 집안이 오대산에 들어와 숨으셨다. 석농 오선생이 그의 묘갈명을 지으시고 서산 宋厚天은 외조부라 공은 高宗 乙丑年 八月 十七日에 나셨다. 言行이 뜻에 따라 진리 아님이 없고 빈곤할 때나 화란이 있을 때나 마땅히 晏如와 같이 하였다.

향년은 八十六세니 甲寅年 十一月 十五日에 서거하셨다. 배는 강릉 최씨니 원극의 따님으로 平章事立地의 后孫이니 辛卯年 四月 六日에 나시고 己亥年 五月 三日에 서거하시니 묘는 강릉시 서쪽 위촌리 멩애재 유좌에 합장하니 오른쪽이 공이라 三男三女를 낳으시니 남에는 승재·명재·용재이고 사위는 이범용 민영집 어용민이라. 맏아들은 영범·영진·영옥을 두고 둘째아들은 영민·영숙·영돈·영내를 두고 셋째아들은 영삼·영빈·영태·영일·영석을 두었더라. 큰사위의 아들은 이석종이요 둘째사위의 아들은 민준식이요 셋째사위의 아들은 어윤정·윤학·윤현·윤수니 나머지는 생략한다.

내가 공과 더불어 알게 된지 수십 년에 붓을 들고 잔산 흘러가는 물 사이에서 글 지어 읊고 표주박을 잡고 책과 책 사이에 이치를 구함에 나의 노둔한 자질로 능히 고의 태연한 회포를 본받지 못하였고 오늘날까지 공을 사모하여 왔는데 공의 묘의 글을 지으니 그의 명령이 어둡지 아니하시어 웃어 가로되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알지 못하였으되 오직 그대가 홀로 나를 알진저! 또한 가로되 사람

이 알아주고 몰라주는 것도 내가 뜬구름과 같이 여기는데  
자네가 이같이 밝히는고? 하신테이니 슬프구나.

### 秀巖公行狀

公諱燦現字子玉號秀巖固城人始祖小伽倻金末露王中祖諱隨  
麗朝大臣封洛川君入本 朝諱贊吉號竹崗有討倭功 贈右議  
政諡襄惠傳至諱#號遯蒼武行守門將傳至諱說號知非齋誠先  
訓子接人一遵禮制鄉稱知禮學者諱相奎號從容齋諱漢祖諱壽  
杓高曾祖考也妣金海金氏基尚女以 高宗辛卯十二月十五日  
生于高敞京邦里第稟性孝友溫厚醇實自幼異凡不離親側惟命  
是從及就傳不煩教督而無怠學而時習之工儕流莫先其誠勤當  
室養親志體兼備夫婦相敬無泥狎之態昆季四人公居於長處之  
以睦畢生無反目之事容貌魁偉受人敬服而生平無疾言遽色戒  
子侄未嘗有暴怒之叱交友以久敬爲本而又以信爲主接賓以謙  
恭爲主而待之極其誠酒則量寬以不及於亂性又好惠不忍見困  
窘而不吝貸借教子之誠居多迎師設塾者累年矣又誠於先累世  
先阡有入於人手處勸親傾困報債而還本襄惠公墓所因孫仍分  
散經年不掃而失傳者未知幾十年矣爲後者只是含恨而止已矣  
而公乃與其三從姪南教共奮廣蒐博採積年不弛至誠所感幸尋  
的所然爲人占有治墳末由乃徧訪鄉儒使大會于墓下成證乃得  
占有人自許大率子姪而治墳後又共南教徧尋域內諸派孫鳩財  
又乞巨匠文豎碑及床望石以衛隨道買數斗落土以固永年芬苾

無替之資嗚呼偉哉外此細行可則可範者不爲不多而只以梗槩論之眞可謂盡人道而無愧于萬物中最靈之聖訓矣卒以辛亥二月十七日壽八十一葬于高敞郡古水面芙谷里先兆下原丙坐配清道金氏鳳一女婦德甚備有克配君子之姿先公一年生十月五日後公卒同年十二月二十九日墓雙兆育三男六女男長炳教次弘教及正教后女適高順鎭金在炯李起南李起萬曹基成朴相重孫曾以下蕃不盡錄公之出后子正教與其戚叔西山姜公必秀氏訪余於窮居責以狀德曰知公行之祥莫如於君則願勿辭斯役顧念余亦蒙所愛於公者則難忘者存焉故雖非其人而不敢牢辭序述如右以竣後君子之採擇焉

光復後己未陽復月 晉州 鄭憲朝 謹狀

[譯文]

공의 휘는 燦現이요 자는 자옥 호는 수암 固城人이니 소가야 김말로왕을 시조로 하고 증종의 휘 수는 麗朝대신으로 낙천군에 봉해지고 本朝에 휘 贊吉 호 죽강이니 정난의 공이 있어 우의정을 증직 받고 시호는 양혜공이요 전하여 휘 #에 이르러 호는 遯庵이요 武로 수문장을 지내고 전하여 후 說에 이르러 호 知非齋니 先祖에 성심하였고 자손을 바르게 가르치고 사람대접함이 예로하니 향리 사람들이 知禮학자라 하였다.

휘 상규는 호 종용재요 휘 한조와 수표는 고조, 증조, 조, 부요 어머니는 김해 김씨니 基尙의 따님이라. 고종 신묘 十二月 十五日에 고창 경방리에서 출생하니 성품이

효우하고 온후하며 순실하여 어려서부터 붓 아이와 달라  
 아버지 옆을 떠나지 아니하며 오직 명하는 대로 시종하더  
 니 스승을 맞이하여 번거러히 가르치고 독려치 아니하여  
 도 배움이 게으름이 없이 때로 익히니 모든 동료가 그 성  
 심하고 부지런함을 따르지 못하고 집에 있어서도 아버지  
 를 봉양함에 뜻이 맞고 편안토록 하여 부부간에 서로 공  
 경하고 초잡한 태도가 없었다.

형제가 四人에 공이 만이 되어 화복으로써 처신하여 끝  
 까지 반목한 일이 없으며 용모가 위대하여 사람들에게 공경  
 하고 복종함을 받았으며 평생에 미워하는 말과 노하는 빛  
 이 없었으며 子姪을 경계하되 일찍이 몹시 꾸지람함이 있  
 지 않았으며 벼를 사귀되 공경과 신의로써 근본을 삼고  
 손님을 대접함에 경손하고 그 성의를 극진히 하여 술은  
 많아도 어지러운데 미치지 않으며 천성이 혜사하기를 좋  
 아하여 곤궁함을 보고 참지 못하여 대차에 인색치 아니하  
 고 아들 가르침이 성심스러워 스승을 맞이하고 서당을 설  
 립하기를 여러 해 하였으며 또한 선영에 정성을 기울여  
 여러 대의 묘 있는 산이 다른 사람의 손에 소유가 들어감  
 으로 그의 친척에게 건하여 정성을 기우려 채무를 갚고  
 환본을 하였으며 양혜공 묘소가 자손들이 산재하여 여러  
 해 소분치 못하고 실전상태로 후손된 사람들이 다만 슬퍼  
 할 따름이더니 공이 三從姪 남교로 더불어 분발하여 널리  
 수집하고 정성을 다하여 찾기를 여러 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지성의 소감으로 다행히 적실한 곳을 찾았으나  
 다른 사람이 점유하여 치산함을 만류하니 그 시골 선비들

을 편방하여 그들로 하여금 묘하게 크게 회의를 부쳐 증거를 이름에 곧 점유인이 스스로 허락함을 얻어 온 집안 자질들을 거느리고 치산한 후 또 남교와 같이 국내의 모든 각파 자손에게 구재하고 또 큰 선비의 글을 빌려 비를 세우고 상석 망주의 돌로써 묘도를 호위하고 몇 두락의 땅을 사서 이로써 영세에 제사 드리는데 끊임이 없는 자료를 굳게 하니 오호라 위대함이며 이밖에 세세한 행적이 가히 법도가 되고 가히 모범할 자가 많이 있으되 문득 간략히 말하자면 참으로 가히 사람의 도를 다하여 만물 가운데 가장 실령하다는 성인의 훈계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 이르겠도다.

서거하기를 辛亥年 二月 十七日이니 수는 八十一세요 장사는 고창읍 고수면 부곡리 선영하 정좌라. 배에 청도 김씨니 봉일의 따님이라 부덕이 갖추었음으로 넉넉히 궁자의 배필이 될 만한 자태가 있었다. 공보다 一年먼저 나시니 十月 五日이요 공보다 뒤에 졸하시니 같은 해 十二月 二十九日이라 묘는 쌍분이다. 三男六女를 길렀으니 장남은 병교 차남인 홍교와 정교는 출계하고 딸은 고순진 김재형 이기남 이기만 조기성 박상증이라. 손자와 증손 이하는 번다함으로 다 기록하지 못하노라.

공이 출계한 아들 정교가 그의 척축 서산 강공 필수씨로 더불어 나의 궁벽히 사는 곳을 찾아와 장덕의 글 책임을 부탁하며 가로되 공의 행적을 자세히 아는 사람 그대만 같지 못하니 원하건데 이 역사를 사양하지 말라 하여 생각을 돌이켜보니 내 또한 공의 사랑하는 바를 힘입은

사람인즉 잇기 어려운 일이 있는 고로 비록 글을 지을 사람이 못되나 감이 글이 사양치 못하고 右와 같이 지어 뒤에 글자가 채택하여 주기를 바란다.

鯨南齋金公墓碣銘 并序

江陵金永和甫以崔斯文永大爲介乞其先考鯨南齋墓銘話雖隔壁而奉閱蹟狀默有聲幾之感猥爲之叙公諱元宰字善長籍係固城麗朝大臣洛川君摛隨疑上調再傳諱贊吉本 朝以討倭功贈右議政諡襄惠膺樂安使忠祠全齋任先生狀基行六傳而龜菴諱慶長受業張旅軒門於工爲十三世祖也曾大父諱秉斗參奉大父諱鳳燮號芝村吳石農震泳銘其墓考諱重教號萬惺妣清州李氏興俊女以 孤宗甲午正月十八日生年十二陪父祖自京畿之江華府避地入江原省五臺山剪菑種藟以救性命暇日研經史驗實際視甘脆於堂闈而盡哀敬於喪祭交隣以和訓子以義舉世趣新而保吾襟髮不失皇黎之表後移江陵府西鯨巖洞南谷自號鯨南齋不求聞達而日耕樵吟哦於其中以丙申二月十三日卒享年六十三藏于珍富鄉求昔村上龜谷負辛原從先祖兆也齊昌寧曹氏秉瓚女乙未生生一女乙卯卒墓于公塋後后配江陵金氏振赫女壬寅生甲子正月二十三日卒墓附左生三男三女男永和永哲永學女密陽朴夏植安東權赫瑀江陵崔善貞餘未筭永和男岱植誠植佑植永哲男宗植孝植容植明植河植允植永學男健植旺植完植尙植朴婿男炳瓌權婿男純吉純範崔婿男尙泳公於平日雖

無縱沛之文辭煥赫之榮貴而其醇美之資默認之識闇章之德蒼  
秀之節足以表見於韓季之野乘可敬也遂爲銘銘曰

生丁不辰握髮逃裾白雲荷鋤碧窓燭書倚萬丈之臺岳待三島  
之桑蒼天靳遐籌乘化遽忙沒齒堪巖若無所揚宋公逃世見許紫  
陽我銘龜阡闡公幽微過者揩眸必致戲歎

隆熙紀元後五十七年癸卯季春 英陽 南軫永 撰

[譯文]

경남재 김공의 묘갈명을 아울러서 씀.

강릉에 사는 김영화가 선비 崔永大의 주선으로 그의 선  
고 경남재 묘문을 청함에 즈음하여 비록 알지 못한 처지  
였으나 행적을 열람한즉 묵묵히 聲氣에 감동함이 있어 외  
람되게 서하니 공의 휘는 元宰요 자는 선장적은 고성이니  
고려조에 대신 낙천군 휘는 수요 그 손의 휘는 贊吉 이니  
아조시에 왜군을 격퇴한 공으로 우의정에 시호는 양혜라  
받고 낙안 사충사에 배향 받고 전재 任先生이 그 행장을  
짓고 六代孫 호는 구암 휘 경장은 장여현의 문인이니 공  
의 十三世祖라 증조의 휘는 병두니 참봉이요 조의 휘는  
봉섭이요 호는 지촌이니 石農 吳震泳이 그 비문을 짓고  
부친의 휘는 증교요 호는 만성이요 모친은 청주 李氏니  
홍준의 딸이라.

고종 갑오년 正月 十八일에 생하여 十二歲에 할아버지  
와 아버지를 모시고 경기도 강화군으로부터 어지러운 세  
상을 피하여 강원도 오대산에 들어와 묵밭을 갈아 감자를

심어 연명함 여가에 경서를 연구하고 실체를 경험하며 효로써 부모를 받들고 슬픔으로써 상사를 치르고 공경으로써 제사를 드리고 화복으로써 이웃을 돕고 의리로써 자손을 가르치며 온 세상이 신식을 취하나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모발을 보존하여 韓民族의 표본을 잃지 않고 후에 강릉 서쪽 경암동에 이사하여 스스로 호를 鯨南齋라 하고 소문과 영달을 구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흑 발 갈고 흑 나무하며 詩를 읊어 즐기더니 병신년 二月 十三日에 졸하니 연세는 六十三이라. 진부면 구석촌 상구곡 후좌애 장사하니 선조의 묘 근처라. 배에 창녕 曹氏니 병찬의 딸이니 을미생이니一女를 낳고 乙卯에 졸하니 묘는 공의 묘 뒤라. 후배에 강릉 金氏니 진혁의 딸이요 을미생이니 三男三女를 낳으니 남에 영화·영철·영학이요 녀에 밀양 박하식 안동 건혁우 강릉 최선정이고 남은 딸은 미성이라. 영화 남에 대식·성식·우식이요 영철 남에 종식·효식용식·명식·하식·윤식이요 영학 남에 건식·왕식·상식이요 박서남에 병찬이요 권서 남에 순길 순범이요 최서 남에 상영이라.

공이 비록 큰 글과 빛나는 영위는 못하였으나 그 순미한 자질과 묵인한 지식과 습은 덕과 창수한 절개는 당연히 韓나라 말엽 野史에 오를 만하니 가히 공경할만 하도다. 銘하여 曰 나서 때를 만나지 못함이여 털을 잡고 도망하여 살았도다. 흰구름 속에 호미를 매음이여 푸른 창문에 책을 익히도다. 일만질 오대산 뒤편리에 의지하여 상전벽해 되기를 기다렸도다. 하늘이 긴 수를 주지 않음

이여 세상을 떠나심이 어찌 그리 빠르고 산과 바위를 벗하여 평생을 보냈으니 찬양할 바 없는 것 같으나 宋公이 난세에 숨어 삶을 주자의 찬양함을 보았도다. 내 거북골 묘를 찬양하노니 공의 그윽히 아름다움을 밝혀 주노라. 지나가는 사람 눈길을 돌려보면 반듯이 슬프고 슬픔을 이룰지로다.

#### 湖隱金公墓碣銘 并序

公諱泳福字潤德湖隱其號也姓金氏固城人始祖小伽倻末露王至諱承哲高麗補助功臣諡忠簡八世而諱之謙禮部尙書諡忠貞五傳至諱隨封洛川君入本朝諱贊吉號竹崗三道水軍都節制使行兵曹判書正憲大夫檢校政丞 贈右議政諡襄惠於公爲十六代祖此乃公之中世顯祖也曰樂秋曰義煥曰載得號松隱曰益銖高曾祖禰皆隱德不仕妣全州李氏鍾謙女公 高宗甲午十一月九日生于清原郡江外面萬水里第天姿溫雅純粹自齠齏雖群童聚戲之際悖慢之習鄙俚之語未嘗形於色出諸口同隊諸兒亦知敬憚孝養所后無間所生外艱三燧不脫衰麻朝暮省墳不避雨雪承奉偏慈老而彌篤家產素不豐富而見人之貧窮則特爲之矜憫焉孝友之行敦睦之誼出於本性公之雅性好禮文歲在癸酉獨自出貲發刊喪禮諺解頒布親知又戊申年間與余協意宋春溪文集印刷分給師友間非公之果敢之力何以及此常以忠信存心而至於淑匿必是非之際守之甚確處之不苟命名嘉譽終始無玷非謂

一代之完人者耶此乃公之事行也癸丑正月十日考終于正寢壽八十葬于清原郡江外面雙清里堂甘後麓甲坐原與夫人合窆焉配扶安林氏魯明女婦德甚備先公坳舉三男一女長顯相次顥相顥相女適朴点釗孫男炳瑚炳國炳或女金喆秀張喆熙長房出炳淇女盧根鎬李鳳遠次房出炳震炳久季房出外孫男朴聖仁曾玄以下不盡錄公之長胤顯相不遠十舍而來請墓文顧余學識淺陋衰耳又甚筆硯之事已非其任而賢胤往返至三而不止其誠意有足以感動人者遂据譜間附所感於心者如此以備立言家財擇焉係以銘曰

清原之郡江外面兮雙清之里堂甘後麓兮鬱彼佳城賢配同藏兮嗟夫公之令德兮際叔季之難覲兮胡畀之厚而蔑報施兮世道云亡天理亦舛兮公之後昆將見昌大兮我詞非謏兮大書貞珉兮檀紀四三一二年氣味七月下澣 前文廟典校 仁川 蔡鎮斗 撰

[譯文]

공의 휘는 泳福이요 字는 윤덕이요 湖殷은 그의 호라 성은 김씨니 고성인이라. 소가야 말로왕으로 시조하니 휘 승철에 이르러 보조공신으로 시호는 충간공이요 八世의 휘 지점은 예부상서를 지내고 시호는 충정이고 五世의 휘 수에 이르러 낙천군이요 本朝에 들어와 휘 빈길 호 즉 강이니 삼도수군도절제사에 병조판서에 정언대군 금교정승에 우의정을 증직 받고 시호는 양혜니 공의 十六代祖요

이분이 공의 증세 현조라 낙추 의환 재득의 호 송은이요  
 익수는 高, 曾, 祖, 父니 다 습은덕이 있고 벼슬은 없었  
 다.

씨는 전주 이씨니 종검의 따님이라 공이 고종 갑오 十  
 一月 九日에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집에서 나시니 천자가  
 온아순수하여 어려서부터 비록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희  
 롱할 즈음에 어긋나고 허황된 습성과 더러운 풍속 말을  
 일찍이 입에 담지 아니하니 같은 동료들이 또한 공정하고  
 두렵게 대하였다. 양부모를 잘 섬기더니 아버지 상사를  
 만나 三年을 상복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아침저녁 성못길  
 에 비와 눈을 피하지 아니하고 편모를 모심에 더욱 착실  
 히 하였다. 집 재산이 풍부하지 못하였으나 중한 사람을  
 보면 특히 위하여 도와주며 효우의 행과 돈목에 의가 본  
 성에서 나오고 공의 천성이 예문을 좋아하여 계유년에 스  
 스스로 독담하여 喪禮언해를 발간하여 친척과 친지들에 분  
 포하였다.

또 무신년에 나와 더불어 협의하여 송춘계 문집을 발간  
 하여 사우간에 분포하니 공의 과감한 힘이 아니면 어찌  
 썩 이에 이를 수 있으랴! 항상 충실하셨고 신의가 두터  
 웠으므로 시비가 있을 즈음에 심히 확실하게 하였으며 처  
 세함에 구차히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자 아니 하였으니 一  
 代에 完人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공이 행하신  
 일이다.

계축년 正月 十日에 정침에서 돌아가시니 수는 八十이  
 요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당감뫼산기슭 갑좌에 장사하니

부인으로 더불어 합편하였다. 配는 扶安 林氏니 노명의 따님이라 부덕이 심히 갖추신 분이랴 공보다 먼저 장사하였다. 삼남과 일너를 말하면 아들에 顯相·顥相·顥相이요 女는 朴点劄에게 출가하고 손자에 병호·병국·병욱 손서에 김철수 장철희는 맏아들의 소생이요 병기와 손서 노근호 이봉원은 둘째아들의 소생이요 병진 병구는 셋째의 소생이요 외손에 박성인이라 증손이하는 다 기록치 못하였다.

공의 맏아들 현상이 三百里를 멀다 여기지 아니하고 와서 묘문을 청하니 내가 돌이켜 보건데 학식이 천루하고 심히 쇠약하여 글 짓는 일에 소임치 못한다 하여도 재삼 왕반하며 그 성의를 그치지 아니하여 죽히 써 사람을 감동함이 있음으로 드디어 족보를 의지하고 마음에 감동하는 바를 붙여서 이와 같이 지으니 입증하여 줄 분이 자료 삼아 채택하여 주면 한다.

이어서 명하여 가로되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담감뒀 산이로다. 울창한 저 아름다운 성 어진 짝을 함께 장사함 이여 슬프다 공의 아름다운 덕이로다. 쇠한 세상을 즈음하여 보기 드문 분이여 어찌 주기를 두터이 하고 받기를 얹게 함이로다. 세상에 도가 쇠함이여 천리가 또한 결연하도다. 공의 후손이여 장차 창대함을 불지어다. 내가 글 지음이 속이지 앎이며 글쓰미 정민하도다.

### 烈婦孺人朴氏行狀

孺人姓朴氏籍密陽清齋審問后參奉鳳鎬女 高宗乙酉八月初七日生于一老面沙橋里第性素端莊早襲庭訓不煩提督孝於父母友於兄弟女工凡百無不能熟父母愛之曰適人他日必有桃夭之宜風大之吉及笄爲士人固城金錫鎮妻金卽襄惠公諱贊吉后基永第四自也年十八禮行于歸拜堂禮畢族戚內外見其端莊莫不賀得賢婦孺人孝於舅姑敬奉君子寡言笑簡出入夙興夜寐以視家事左右承奉克勤紡績事無大小稟而行之庭無間言年僅二十五不幸夫子遘疾委席百方救藥聞無不爲知無不行祈山禱斗祝天願代天命難回竟至誠崩攀號擗踊幾至殞絕幡然改悟曰四歲孤兒呱呱又况服在三朔之遺血今君棄血而不從則夫婦之恩喪失矣何顏見君子子卽漢午也噫自服闋以往二孤依母母依二孤喫辛吞苦鐵石益堅服田力穡治麻織布以爲生計空惟六十年家勢尠漸昌戒二孤曰別無所望汝等富以勤儉克復家聲最所願也其子勤儉行善皆孺人之德也如此嘉德貞烈士林頌之鄉黨欲褒之夫人強挽未遂可惜也享年八十四丁未十二月十三日卒墓夢灘面唐湖里狗尾峙鐵路上申坐乾位合墳育二男曰漢宙曰漢午卽遺腹自也長男漢宙娶達城裴得泳女生二男二女次男漢午娶全州李吉順女生二男五女良權義權利川徐順澤南陽洪昌一長房出仁權早卒正權羅州鄭光鉉四女未笄次房出曾玄以下不錄焉日孺人之肖胤漢宙氏請余一言余非其人何敢贅焉同閨之誼不敢辭嗚呼孺人之烈尚未褒闡後人是悼然其爲子孫者勿爲汲汲焉於今彝倫旣斲理當不昧自有闡褒之日而後之編錄三綱

者捨孺人而誰哉謹爲之狀以貽其家

歲己未秋八月下澣

達成

裴檜斗

謹撰

[譯文]

孺人の 성은 朴氏요 본적은 밀양이니 청재 심문의 후예  
 요 참봉 봉호의 따님이라 고종 을유 八月初七日에 일노  
 면 사교리 집에서 나니 천성이 본래 단정하여 일찍이 가  
 정교훈을 받을 때 번거롭게 가르치지 아니하여도 부모에  
 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며 여공 범백에 능숙치 않음  
 이 없으니 부모가 사랑하여 가로되 사람을 맞이하는 다른  
 날에 반듯이 복숭아꽃이 곱고 고음이여 집안사람에게 마  
 땅함이 있으리라 하더니 출가하여 선비 고성 김석진의 처  
 가 되니 공은 곧 양혜공 휘 빈길의 후예로 기영의 넷째아  
 들이라.

나이 十八歲에 예를 행하고 우귀하여 절하여 예를 마치  
 니 친척 내외 여러분들이 그의 단정함을 보고 어진 며느  
 리 얻음을 하례치 않은 분이 없더라. 유인이 구고께 효  
 도하고 남편에게 공경하며 말이 적고 웃음이 간략하며 나  
 고 들고 일찍 일어나고 주야로 집안일을 보고 보살피는데  
 모두 승낙을 받으며 극히 부지런히 방직하고 대소사를 불  
 구하고 어른께 여쭙어 행하고 가정에 간섭할 말이 없더니  
 연세 二十五세에 불행하여 지아비 병들어 자리에 누으니  
 백방으로 약을 구하며 들으면 하지 않은 것이 알면 행하  
 지 않음이 없으니 산에 빌고 북두칠성에 빌며 하늘에 빌

어 대신하기를 원하였으나 하늘의 명을 돌이키지 어려움으로 마침 성이 무너지는데 이르러 끌어 잡고 울며 두드리고 뛰어 거의 운절에 이르러 돌이켜 다시 깨닫고 가로되 네 살의 공가 고고히 울고 또한 하물며 복중에 석 달 된 끼친 피가 있으니 이제 만약 피를 버리고 따라 죽으면 부부의 은혜를 상실하리니 어찌 남편의 얼굴을 지하에서 보리요. 억지로 일어나 보내고 마치는 일을 보매 모든 절차를 예에 따라 행하여 조금도 유감없이 하고 정사한지 七個月 後에 남자를 출생하니 아들이 곧 한오라.

오호라 스스로 三年상을 마치고 삶에 두 외로운 아들은 어머니를 의지하고 어머니는 두 외로운 아들을 의지하여 쓰고 아픔을 철석과 같이 더욱 굳게 극복하고 밭에 힘써 심으며 삼을 삼고 베를 짜서 생활하기를 六十年에 가세가 점차로 향상하였으며 두 아들을 경계하여 가로되 별로 바랄 바 없으나 너의 형제가 마땅히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가성을 극복함이 가장 소원이라 하셨다. 그 아들이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행실이 착하니 이 모두 유인의 덕이라.

이와 같이 아름다운 덕과 정열을 선비들이 칭송하여 향당에서 포상하코자 하였으나 부인이 완강하게 거절함으로 이루지 못하니 가석하도다. 향년 八十四세 丁未年 十二月 十三日에 졸하니 묘는 몽탄면 당호리 구미재 철로위 후좌니 부군의 묘에 합장하였다.

두 아들을 길렀으니 한주요 한오는 곧 유복자라 장남 한주는 달성 배등영의 딸에 장가들어 두 아들과 두 딸을 낳고 둘째아들 한오는 전주 이길순의 딸에 장가들어 두

아들과 다섯 딸을 낳다. 양권과 의원과 이천 서순택과 남양 홍창일이니 맏아들이 낳고 인권은 죽고 정권과 나주 정광현과 시집가지 않은 네딸은 둘째아들이 낳다. 증손 현손이하는 기록치 않노라.

어느 날 유인의 맏아들 한주씨가 나에게 한마디 말하여 주기를 청하니 내 변변치 않은 사람으로 어찌 감히 군말을 하리요만 같은 마을에 사는 이유로 사양치 못하니 오호라 유인의 열을 오히려 포상하고 천명치 못하니 후인들이 이를 슬퍼하니 그 자손된 자 급급하게 생각지 말라. 일제 이윤이 이미 패하였으나 이치는 삼강장을 지어 그 집에 끼치노라.

### 夫人青松沈氏哀辭

夫人沈氏籍青松文林郎洪孚之后也年過及笄歸于固城金氏之門乃贊成公十世孫婦儀烈自婦圭述之妻也年雖少而甚執婦道善中饋事舅姑惟孝內外卑尊咸得其宜姑老而善病胃不受食而烹飪調和極其詳審至誠供藥餌未嘗有怠惰之意柔婉貞靜之德治產齊家之道奉先祭祀之節莫不遵禮鄉黨皆稱孝婦云云噫甲午五月姑老病卒哀毀逾節柴瘠骨立朔望之尊致敬盡禮悲夫禍不單行喪威荐臻是年七月奄遭城崩夫人忽不在家家人四路追尋望見江上將欲投水媳弟急追而泣謂曰兄今死矣丘嫂從死則七十老父幼穉吾身有誰奉養而保護耶言辭悲切乃不忍下從

仰天痛哭而歸家治葬凡節克遵禮制三年之內不笑不櫛不易服  
其孝烈之行可謂無愧於古之賢女也嗚呼吾聞爲善者天報以福  
溉根者食其實以若潛德純行孝烈特節旣不見報於其身何其苗  
而不秀耶天又與德而不與福無一子女獨守空壺福善之天胡乃  
如此無乃氣清者數局而然耶天不可必理實難諶辭曰  
嗟哉賢媛青松氏孝烈至行兮莫與儔視這徒食無塩女奚啻壤虫  
鸞鵠兮

丁酉臘月下泮

仁川 蔡鎮斗 撰

[譯文]

부인 심씨의 본적은 청송이니 승순의 딸이요 문림랑 洪  
孚의 후예라 나이 과년하여 고성 김씨 문에 들어오니 찬  
성공 十世孫婦니 의열의 자 유술의 아내라 나이 비록 젊  
었으나 심히 여사의 도를 다하여 시부모님에게 오직 효도  
하고 안팎으로 높고 낮은 사람이 다 마땅함을 얻었다.

시어머니 늙어서 병이 잦아 위에서 먹는 것을 받지 않  
으니 잘 끓여서 부드럽게 조화하여 지성으로 약을 봉양하  
되 일찍이 고달픈 빛이 없고 부드러워 여자답고 정숙한  
덕과 치산제가 하는 도와 제사 받드는 절차를 예를 쫓으  
니 향당에서 다 효부라고 이르더라. 甲午年 五月에 시어  
머니 졸하니 애희함이 절도에 넘어 몸이 가시와 같이 수  
척하였고 조석과 삭망제전에 공경하여 예를 다하더라.

오호라 재화가 또 찾아와서 거듭 그해 七月에 남편이  
돌아가시는 슬픔을 만나 부인이 보이지 않으니 집사람들

이 사망으로 추심하여서 강 위쪽을 바라보니 곧 물에 몸을 던지고자 하거늘 시동생이 급히 쫓아가 울며 일러 왈 형이 이제 죽고 형수씨도 따라 죽으면 七十노부와 어린 우리들은 누가 있어 봉양하며 보호할꼬 하며 언사가 비절하니 참아 쫓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집에 돌아와 장사의 범절을 극진히 예를 쫓았으며 삼년 내에 웃고 머리를 가꾸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孝烈의 행실은 가히 옛날 어진 여사가 부끄럽지 않구나.

오호라 내 들음에 착하게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써 갚는다 하고 그 근본이 있는자는 그 열매를 맺는다 하더니 이와 같이 잡긴 덕과 수수한孝烈行으로 그 몸에 갚음을 보지 못함은 어찌된 것이냐? 하늘이 이 같은 덕을 주고 복을 주지 않아서 슬하에 한 자녀도 없이 독수공방하였으니 선에 따르는 복이 어찌 이 같으리오 이것은 좋은 운수가 없는 탓인가? 하늘의 이치를 믿지 못한다면 말하기 실로 난감하도다. 애사에 왈 슬프다 賢媛 칭송 심씨여孝烈과 지행이 더불어 짝이 없도다. 도식하며 허황된 여자를 보니 저승 벌레와 만새와 새떼가 같을 뿐이다.

烈婦全州李氏實績碑陰記

世之尚論婦人之烈行者舉以其卓絕難行如斷指割體軀下從爲第一義烈是固烈則烈矣而其於中庸之道則遠矣聖人設教曷嘗

以毀軀滅性爲當行婦乎哉所貴乎烈者惟從夫從子各適其義盡其道而終身不改而已迺若烈婦全州李氏襄度公天佑后承老女生有美質早奉姆訓閨範夙著而聘爲襄惠公贊吉后贈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俊洙之子士人固城金相浣妻孝舅姑敬君子楷範鄉里而年纔二十一遭城崩抱屍哭擗累絕甦口不水醬決意下從親戚諭以後嗣無人遺孩在腹夫人改圖強起躬敦喪事易戚中禮禮終三霜天佑烈婦遺孩順婉咸以爲相浣有妻有子歿而不歿云家道赤食夫人惟勤紡績克家以法教子以義蓬頭垢面白首全節古語曰慷慨損生易從容就義難其李氏之謂歟向使李氏徑情自盡於夫亡之日則固城氏其不零替而豈有今日之昌大乎婦孺輿僮之至今稱誦鄉省士林之交章闡揚良以是也吁亦韙矣子炳振愷悌篤行人也以未承嚴顏爲穹壤之痛人言其父輒滋然流涕以至嗚咽兼養偏母極蓋誠孝所謂有是母有是子而芝醴之有根源者非耶炳振欲爲其母顯幽闡美而朝典已廢旌褒靡階因立石宅里謀所以不泯孝思可尚嗚噓千載之下過者必式焉耳炳振介其族東述甫基余以載碑之文李氏之懿行艷聞耳目已孰不能終辭遂識其實而歸之

乙酉端陽節 晉陽 鄭喆煥 識 于月泉精舍

[譯文]

세상에서 항상 의논하기를 부인의 열행이라 함은 그 높은 절개와 실행하기 어려움에도 손가락을 베고 체구를 베어 쫓아 죽는 일로써 第一의리를 삼으니 이렇게 함이 열녀는 열녀나 그 증응의 도에 적합하겠는가? 聖인들이 설교하

시기를 어찌서 몸을 죽이고 성을 멸하는 것이 마땅히 제 어미의 행실이겠는고 고귀한바 열이라 함은 오직 지아비를 쫓고 아들을 쫓아 각각 그 의리에 맞고 그 도를 다하여 몸이 마치도록 고치지 아니할 다름이라. 이에 烈婦 全州 李氏 양도공 천우 후예 승노의 딸 같은 이는 세상에 나서 아름다운 바탕이 있어 일찍이 여자선생을 받들어 규문에 모범됨이 일찍이 나타나더니 빙예를 받아 양해공 빈길의 後裔 증절총장군 준수의 아들 선비 고성 金相浣의 아내가 되어 시부모에 효도하고 남편에게 공경하여 향리의 모범이 되었더니 나이 겨우 二十一세에 남편의 상사를 만나 죽음은 안고 울고 두드리며 여러 차례 기절하고 여러 번 갱생하여 물과 장을 입에 넣지 않고 따라 죽기를 결심하니 친척들이 만류하고 뒤를 이을 사람이 없고 복중에 기친 아기가 있음으로 부인이 돌이켜 생각하고 억지로 일어나 몸소 상사를 돈독히 다스리고 슬픈 가운데 禮로 三年상을 마치니 하늘이 열부를 도와 기친 아이를 순산하시니 다 말하기를 相浣의 처가 있음으로 아들을 두었으니 죽어도 죽지 않았다 이르더라.

가도가 심히 어려워 부인이 직조를 부지런히 하여 집을 법되게 다스리고 아들을 의리로써 가르치고 흠어진 머리와 뼈 묻은 얼굴로 백발이 되도록 절개를 온전히 하였으니 옛말에 가로되 강개하게 죽기는 쉬워도 종용히 의리에 나아가기 어렵다 하더니 李氏부인을 이름이 아닌가? 전날 李氏로 하여금 처음 먹은 마음대로 남편의 죽던 날에 자진하였으면 고성 김씨가 끊이지 않고 어찌 이날에 창대

함이 있으리요 부인의 여론이 지금에 이르러 칭송함이 근과 도의 선비들의 문장으로 찬양하니 이 슬프고 또한 위대하도다.

아들 병진이 즐거이 또한 독실이 행하는 사람이라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함이 천지간의 슬픔이 되어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의 말만 내면 눈물을 줄줄이 흘리며 울어 목메이는데 이르고 편모를 봉양하는데 극진하여 지성으로 효도하니 이른바 이 어머니가 있음으로 그 아들이 있음이 향기로운 근원이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 병진이 그의 모친 그윽함을 나타내고 아름다움을 천명하고자 하나 국가의 정여하고 포상함이 폐지되어 어찌 할 수 없으니 이로 인하여 碑石을 집 마을 앞에 세워 사실을 전하고자 하니 효심이 가상하여 슬프고 슬프도다. 천년 후의 사람도 반드시 법되리라. 병진이 그의 죽인 동술씨를 소개하여 나로서 비석에 실을 글을 청하니 李氏의 아름다운 행실과 어여쁜 소문은 귀와 눈에 이미 익혔음으로 능히 마침내 사양치 못하고 드디어 실적을 기록하여 도려주노라.

### 孝行記(雙孝)

謹以通諭事褒彰善行蓋亦多術矣閭而旌之不若文而狀之碑而豎之不若口而誦之夫善行美蹟何代無之爲今日之計旌閭之典已屬先天事也而幸茲極天罔墜者秉彝也則當一心遠猷稱之於

口者之於史以圖不朽豈非立言者之責耶元南平士人固城金晉  
 洙草峰先生諱鼎九后也自垂髫天性純孝事親諸節一以古人爲  
 法克遵無違其妻光山金氏亦是法家賢閨及笄于歸克禮其君子  
 之懿行合力而奉親怡愉之容滌灑之奉蓋其餘事不必架床而往  
 在壬申春正月丁內憂祈山祝天願以身代嘗糞斷指僅延三天蓋  
 出於天而然也非人力所能爲也後奉扁侍嚴父益篤於母在之日  
 父以咳喘症日事刀圭醫云子夜半井花水無夜不飲則厥疾自瘥  
 云故與其妻金氏雖祈寒暑雨之夜一無間闕數十年宿崇漸次退  
 却豈非出天之雙孝耶時無古典雖無聽天表宅之閭而從當有太  
 史之健筆矣望頌僉彥同聲讚揚使此雙孝之實蹟母至泯沒之地  
 幸甚

甲戌年九月日 長城筆巖書院執綱 朴漢容外 會士二十  
 七人

[譯文]

삼가 전하여 널리 알리는 일은 선행을 표창하는 것은  
 저술하는 것이 많음이고 정여를 세우는 것이 글로 표창하  
 는 것만 같지 못함이고 또 비각을 세움이 말로서 칭송함  
 만 못하고 대개 선행과 아름다운 행적이 어느 대에든지  
 오늘날의 헤아림이 되지 않으리요. . 정예의 법은 이미  
 선천에 소관할 일이니라. 다행이 이 하늘이 다하도록 떨  
 어짐이 없는 것은 떳떳한 일이라 마땅히 멀리 알려져서 칭  
 송하고 사기에 나타나게 하여 썩지 않도록 도모하여 좁이  
 어찌 글을 지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리요.

元은 南平사람 固城 金鎭洙氏는 초봉선생 휘는 정구의 후손이라 어려서부터 천성이 순효하여 아버이를 섬기는 절차가 옛 사람으로서 본을 받아 극히 어기는 일이 없이 따르더니 그 처 광산김씨 또한 법가의 어진 딸로서 출가한 후 극히 부군의 행실을 본받아 힘을 합쳐 아버이를 섬김에 온화한 얼굴과 따듯이 봉양함이 대개 나머지 일은 책장에 올리지 아니하리요. 지나간 壬申 봄 正月에 내환을 당하여 산과 하늘에 빌면서 내 몸으로 대신을 원하였고 분비를 맛보고 단지한 피를 복용하게 하여 겨우 三日을 연명하였으니 대개 하늘이 내신 효도요 人力으로 능히 할 바 아니리라.

그 후에 시아버지를 봉양함에 더욱 시어머니 생존 시보다 공경하였다. 시아버지가 해소로 매일같이 죽기를 원함에 의원이 말하되 한밤에 샘물의 정화수를 밤마다 마시면 그 병이 낫는다 함으로 그 처 김씨로 더불어 더움과 추위를 가리지 않고 한 번도 빠짐없이 십여 년간을 대접하니 그 병이 점점 효과가 있으니 어찌 하늘이 내신 쌍효가 아니리요. 이때에 예법이 없어서 旌閣은 세우지 못하였으나 마땅히 찬성한 글은 있으리라. 그때 筆岩書院執綱 朴漢容氏外 名士의 찬양함이라.

叔不學生金公墓碣銘 并序

昔吾大王考隱士芝村先生居江都早詣經傳夙成巨儒將出而用世不幸見國祚將訖遂隱遯於世盡室而東千里入五臺山中吾王妣抱襁褓之幼而同輶以來者即公也及長氣質淳實無偽父祖之所教學而習之所命行而不懈耕讀自珍不求人知簞瓢自足以富貴不動其心是所謂有其祖有其孫也歟公姓金諱德宰字箕三籍固城小伽倻末露王爲鼻至麗朝大臣洛川君諱隨本 朝鐵城君諱贊吉號竹崗行兵曹判書 贈右議政諡襄惠諱春茂保功將軍行月申僉使因居江都公之十二世祖也高祖以下諱枝祿秉斗參奉壽通政鳳燮號芝村石農吳先生震泳撰碣重教號晚惺益奮齋崔先生永大銘其墓而清州李興俊外祖也以 高皇帝壬寅正月十日生丁未九月二日卒享年六十六墓求石村棧達里谷乾原配金海金秉淳女戊申六月五日生辛酉三月二十二日卒墓附左生二男五女男永璨永桓女適隨城崔承三江陵金振克延安金柱大晉州姜大均慶州金東基長房男蒼植瑱植次房男範植元植外孫男女十餘而煩不盡錄噫公生丁不辰耕樵吟咄於林泉巖穴之間而終嗟兮嗟兮今世道益降舉世推利而不知仁義綱常之道如是則近於夷狄禽獸也以夷狄禽獸之道能治天下者有乎今天下危急在於瞬間此亦利之極故也鄒聖曰王何必曰利亦有仁義聖人之道在於仁義而學聖經賢傳而篤行者其不謂仁義之士乎余嘗慮公之懿德善行泯於天壤間日從弟永燦請墓文撫念疇昔大王考與猶父之事識而爲銘以勉吾宗之裔銘曰

天下無道賢人晦迹隱士遊岱松栢猶碧遺墟五臺村名求昔驥行千里其尾亦奕時不如公不見可惜天報爲善委公何適我銘公阡餘慶滴石知者登臨自然俯脊

公沒後十六年癸亥五月丙戌 猶子 永和 謹識

## [譯文]

옛적에 우리 증조할아버지 습은 선비 지촌선생께서 여러 대를 강화에서 살으시며 일찍이 경과 전을 배워서 젊은 시절에 큰 선비가 되어 장차 나아가 세상에 쓰이고자 하였으니 불행하여 나라의 조짐이 다함을 아시고 곧 세상에서 隱遯하실제 온 집안이 동쪽으로 천리 五臺산중에 들어오실 적에 우리할머니가 포대기를 싸안으시고 한 가마를 타고 오신 분이 바로 공이라.

자라기에 이르러서 기운과 바탕이 순실하여 속임이 없으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가르치시는 바를 배워서 익히고 명하신 바를 행하여 게을리 하지 않으시고 밭 갈고 글 읽기를 보배삼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으며 작은 표주박으로 스스로 족하게 여기시고 부귀로써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니 이것이 이른바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가 아니겠는가?

공의 성은 金이요 휘는 德宰요 자는 기삼이요 관은 固城이니 소가야 말로왕을 시조로 삼고 고려조에 이르러 大臣 洛川君에 휘는 隨요 조선조에 철성군 휘는 贊吉 호는 죽강이 병조판서를 역임하셨고 증직으로 우의정에 오르시고 시호는 襄惠라 받으시고 휘는 春茂는 보공장군에 月串첨사가 되어서 비로소 강화도에 사시니 공의 十二世 할아버지라.

高祖이하 휘 지록이요 병두는 참봉에 壽 통정이요 鳳燮

은 호 지촌이니 石農 오선생 震泳이 묘갈문을 撰하고 重  
 敎는 호 만성이니 益奮齋 최선생 永大가 그 묘비명을 지  
 으시고 청주 이흥준은 외조이시라. 高皇帝 임인 正月 十  
 日에 나시고 丁未 九月 二日에 졸하시니 향년이 六十六이  
 라 묘는 구석촌 잔다리골 건좌라 배는 김해김씨니 병순의  
 딸이라 戊申 六月 五日에 나시고 申諭 三月 二十二日에  
 졸하시니 묘는 왼쪽에 모셨다. 二男을 낳으시고 五女를  
 낳으시니 남에는 영찬·영환이요 女는 수성 최승삼과 강  
 룡 김진극과 연안 김주대와 진주 강대균과 경주 김동기에  
 게 시집가고 맏아들의 男은 창식·진식이요 둘째아들의  
 男은 범식·원식이라 외손 男女 십 여인이니 번거로워 다  
 기록치 못하노라.

슬프다 공이여 때 아닌 것을 만나 밭 갈고 나무하고 글  
 읽고 노래해서 수플과 샘과 바위 구멍사이에서 마치시니  
 슬프고 슬픔이여 지금의 세상 도가 더욱 내려가서 온 세  
 상이 利만 추종하고 仁과 義와 綱과 常의 道(인의, 예지,  
 삼강, 오상, 지도를 말함)를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한 즉  
 夷狄과 禽獸에 가까운지라 이적과 금수에 도로써 능히 천  
 하를 다스리는 자가 있겠는가? 이제 천하의 위급함이 순  
 간에 있으니 이것이 역시 利에 극한 연고라. 맹자 가라  
 사대 포은 어찌하여 利만 말합니까? 또한 仁義가 있습니  
 다. 성인의 도가 仁義에 있거늘 성인의 경서와 어진이의  
 전을 배워서 독실하게 행하는 자를 어찌 仁義의 선비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내가 일찍이 공의 아름다운 덕과 착한 행실이 천지간에

서 소멸될까 근심하였더니 어느 날 從弟영찬이 묘 글을 청하거늘 내 옛날을 생각하고 더듬어서 증조할아버지와 더불어 숙부의 일을 기록해서 명을 하여 써 우리 종중에 후예들이 힘쓰게 한다.

명의 가로되 천하에 도가 없으니 어진 사람이 자취를 감추고 숨은 선비는 산에서 놀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오히려 푸르도다. 墟를 五臺산에 기쳤으니 마을 이름은 구석촌이로다. 기마가 천리를 행하였으니 그 꼬리가 또한 빛났도다. 때가 공과 같이 못하니 보지 못한 것이 아깝다. 하늘이 착한 이를 값는데 공을 버리고 어디로 갈고 내가 공의 묘에 명을 하니 남은 경사가 도를 적셨도다. 아는 사람이 올라가서 비문을 볼 것 같으면 자연히 등을 굽히리로다.

### 孝婦趙氏贊頌文

德亭金奉秀抱其先妣孝行褒彰狀과 與夫平素凡節詳記之文하고 訪余于龜洞弊居曰此吾先妣의 生平實蹟也라 願賜一言而侈之하소서 余改容曰居今之世에 如此懿行은 在古亦難이어 던 況今世乎아 乃案其狀과 及詳記之文하니 趙氏籍玉川禎泰之女也라 年十七에 嫁于固城金門하니 卽襄惠公諱贊吉十七世孫永汶之子東植之妻也니 于歸三年에 君子失真하야 不識夫婦之道하고 奔走四方에 或半月而歸하고 或一歲而歸하

되 見妻則毆打遂出이 日甚一日하니 夫人이 晝事刀圭하고 夜禱七星하되 誠無不至하니 如是者十有餘年이라 年過三十에 膝下에 無子女하되 不更之節이 確固不動하야 如松栢之節이 不變於霜雪之中하니 此不佞之所以改容者也라 一日에 有一僧이 來問所崇하니 答曰以術書로 失真하라 曰然則求 讀經之師하야 治病則可以得效리라 夫人이 卽從四方求之而 得之하니 不過數旬에 果得神效라 於乎라 至誠所到에 金石 을 可透라하니 眞格言也此非孔夫子所謂爲善子는 天報之以 福者也耶三十有五에 得二男一女하니 卽奉善奉秀也夫爲者 는 無所爲而爲之하고 爲名者는 有所爲而爲之하니 毫釐 之差에 千里之繆라 以此觀之컨대 此孝婦는 無所爲而爲之 者歟저 雖憂患之中이라도 善事舅姑하야 媳父愛酒에 家釀 을 不絶하고 適口之味를 竭力供之하며 出入遠近에 恐有酒 失하야 雖市門이라도 日暮而歸어던 必秉燭侍歸하니 一 生이 如一日이라 是乃天性而然也此可以爲扶頹俗而揚美風 者也라 今奉善之妻吳氏도 亦以孝婦로 聞於鄉里하니 豈非 觀感所致耶라.

庚申臘 月 日

高靈 申井休 識

### 兵曹參議公墓表

綿州東古墓院後枕壬原有墓此吾三十六世祖滄江府君之藏也 公諱益卿字公三號滄江金氏系出固城小伽倻國末露王爲鼻祖

也 侍中諱承哲諡忠簡尚書僕射諱澤瓊諡文景討鄭仲夫禮曹判書諱之謙諡忠貞大司憲諱轅從圃隱遊原壬大臣諱隨封洛川君直提學諱彌諡良平曾祖以上皆勝國名臣也祖諱贊吉號竹崗佐我 太祖錄靖難元勳洪武丁丑討倭立功行兵曹判書世子師傳正憲大夫檢校政丞退林高敞復值倭變沙津之戰大捷殉節贈右議政諡襄惠考諱原亮吏曹正郎妣恭人東萊鄭氏縣監敬玄女英陵甲子靖陵戊寅生卒也公天資英邁氣節倜儻忠孝自勉能麓祖武從佔#齋遊 成廟癸巳擢武科行礪山府使治績大著燕山政亂清流胎盡不勝憂憤投紱歸鄉自高敞遯于務安別巖之濱築亭種松日哦盤桓顏其亭以盤松尚志林泉水絕名途鎮鼎軒冕不能易其操也筵臣陳請贈兵曹參議事載錦城誌及寰輿勝覽配淑夫人務安丁氏參奉說女墓祔生二男長明字文素號遯齋訓導教授除縣監不就贈吏曹正郎次鈴通將仕郎孫男赫進士參奉長房出貴赫通德郎次房出曾玄不錄噫公行治可以蔽蔽  
癸未仲春日 十六世孫 炳柱 謹識

### 梅溪金公墓表

咸平治南十里巖多坊長芝村前生馬山庚原雙兆卽梅溪金公配朴氏之藏也顯刻尙闕後孫之齋恨久矣今年春門議詢同將伐貞珉八代孫性午奉公行狀謁余以非其人固辭不獲謹按狀金氏粵自小伽椰國末露王累傳至諱隨封洛川君諱彌直提學平安伯諡良平是爲貫祖厥後軒冕相承我 太祖朝有諱贊吉諡襄惠以靖

難元勳兵曹判書 贈右議政是爲顯祖 中廟朝諱益卿號滄江  
 官兵曹參議以務安縣監定基于牛坪是爲南下祖高祖諱撫國工  
 曹參議曾祖諱演祖諱弘聲考諱南斗隱而不仕妣靈光丁氏德薰  
 女婉順有德仁祖丁亥十一月十九日生公諱禹器字元甫梅溪自  
 號也尤菴宋先生門人質穎悟智勇超人篤信師說潛心性理之學  
 溫理經傳辨釋疑義著述甚衆而失於兵燹片言無傳可慨也已略  
 涉武藝早知弓術丙子胡變人心恟恟土賊犯境將逼里宇公手執  
 勁弓儼立堂上亂射于賊且命從者持受經竹數束布列廳中賊徒  
 望見疑以爲箭矢畏縮遠道四隣安堵庚寅八月二十八日卒壽六  
 十四配務安朴氏禮吉女戊戌二月五日生壬子二月二十五日卒  
 育三男三女男長兌鳴娶坡平尹世亨女次兌恒娶驪陽陳孝謹女  
 次兌重娶光山金大鳴女大邱襄景麟全州李益信羅州鄭益徵婿  
 也孫男時鐸長房出循鐸警鐸系彭尤后二房出振鐸允鐸季房出  
 曾玄不錄噫以公之德學智量出而需世則主君不受城下之耻人  
 民可免魚肉之禍州郡不薦杜門自靖運也奈何若其闡揚以竣後  
 人姑序次如右鐫于牲石

乙卯重陽日

武靈 丁在奎 謹撰

### 雲亭金公墓碣銘

公諱兌重字任重號雲亭金氏貫固城小伽椰末露王後裔鎮羅涉  
 麗名碩相承大阿角干封鐵城君諱爾鐵麗朝大臣洛川君諱隨  
 本朝諱贊吉號竹崗贈右議政諡襄惠享樂安四忠祠以上皆顯祖

也高祖諱連曾祖諱弘聲祖諱南斗考諱禹器號梅溪世有文行妣務安朴氏禮吉其考有右女士風肅宗己卯六月十日生公兄弟三人公其季也生有異質能知愛敬朝夕暫不離側出外見異味則必懷而進之雖菜果之微亦然矣及長志體之定養省之節不讓於諸兄侍瘠盡誠遭難遵禮前後如一與伯仲二兄友于尤篤寢則同枕行則職矜時人比之於薛氏三鳳壬辰七月十日卒墓嚴多面新溪里遠馬山艮坐原配光山金氏大鳴女貞淑德備武寅十月一日生辛未六月二十日卒苗上下兆育二男三女男長振鐸娶咸平李成旭女允鐸娶羅州鄭元中女女適羅州金慶瑞坡平尹迨羅州鄭光燮孫男應喆應銑應仁系從叔時鐸后長房出應參應弼次房出以下不錄公之墓儀久闕後孫協議將代石豎碑使性午命余相役不敢辭而爲之銘曰

公之孝親本於心誠公之敬兄出至情況公之歿世二百餘年公之顯刻嗚呼晚焉

乙卯陽月初吉日

靈城 鄭在奎 謹撰

### 蘭齋處士墓表

公始祖漢光武壬寅建國六伽倻中小伽倻國太祖末露瓦四十八代孫中祖麗朝大臣封洛川君諱隨其子諱彌直提學平安伯諡良平顯祖我 太祖朝倭賊討伐連戰大捷行兵曹判書 贈右議政諱贊吉諡襄惠十四代孫 中廟朝贈兵曹參議諱益卿務安縣監在職時定基于牛坪是爲南下祖曾祖諱兌重祖諱振鐸考諱應喆

公諱洛現字龜瑞號蘭齋英廟戊子一月十七日生卒乙卯九月十三日配全州崔氏範祚之女丁亥十二月十二日生卒丙辰十一月二十三日生育一男基烈娶坡平尹氏安宅女孫男珪鎮曾孫源大玄孫哲權衡權華權五代孫炳軫炳翼炳斗炳根六代孫在奎尙奎鎮奎七代孫鍾澤以下不錄外孫完山李準儀生于牛坪外家 高宗丁丑登科河東府使公自先者傳財千石大富之長男天姿純厚六藝旣備孝友敦睦之心用再以節之儀優越凡人惟我大同修譜營由爲雄莊別處建造累年接對編集卽丙午始譜外內積德之家鄉里稱頌日益過外必有天府之使未至四十平生宿命東馬山西麓寶山向明堂合墳期於千萬年永眠  
檀紀四千三百十年丁巳仲春日 從五代孫 性午 謹識

### 後岡金公墓表

固城金工의 諱는 炳軫이요 字는 連玉이며 號는 後岡이다. 始祖는 小伽倻國末露王으로 歷九代王하여 至十世에 生子 諱天寶는 新羅眞興王朝에 官이 軍營總統이요 傳至九世에 諱承哲이 高麗太祖朝에 門下侍中이요 歷累世에 諱贊吉이 朝鮮太祖朝에 兵曹判書世子師傅로 贈右議政이요 諡는 襄惠라 儒林이 建祠于樂安三忠祠하여 與鄭忠莊莽과 林忠愍慶業으로 同配享祀하고 是生諱原亮하니 官에 吏曹正郎宣略將軍이라 至七世에 諱弘聲이 生諱南斗하고 生諱禹器生 諱兌重生諱振鐸塞諱應喆하니 號는 芝隱이요 宋性潭煥箕門

人으로 有遺稿하고 生諱洛現하니 號蘭齋라 以上世世로 官  
 爵文行德業이 詳載於譜牒故로 此不煩錄하다 高祖의 諱는  
 基烈이요 號는 後竹이니 文行著稱하고 曾祖의 諱는 珪鎭  
 이며 號는 默睡堂이요 祖諱는 源大이니 號는 松坡요 考의  
 諱는 哲權으로 號는 竹幹이니 四세가 俱有學行하며 孝友  
 著稱하다 妣는 陽城李氏愚林女라 辛卯五月十四日에 生公  
 하니 氣宇爽朗하고 才質穎悟하여 自幼로 己知事親之道하  
 고 笑啼를 從命하며 矢溺를 擇方하니 父母가 甚奇愛之하  
 고 甫上學에 不煩教督하되 不懈課程하여 文思日進하니 塾  
 師가 獎誦하다 年纔十二에 奄遭父喪하여 哭泣之哀와 禮  
 制之節를 無異於老成人하니 見者莫不稱嘆하다 稍長에 奉  
 養偏母를 至誠極孝하고 兄弟四人에 公序居長으로 友于湛  
 樂하여 庭無間言하니 慈母가 甚宜安之하다 平居에 勤儉貯  
 蓄으로 好施不吝함 教子姪以義方하고 賓朋之接과 宗族之  
 睦에 款洽和厚하며 篤於先事하여 公이 九世嗣孫으로 每於  
 宗事에 協和敦成하니 宗門이 悅服하다 某年十二月六李卒  
 하니 墓在遠馬山先塋下卯坐原이라 配는 豐川任氏니 有婦  
 德하다 墓與公同原이요 舉三男하니 在奎尙奎鎭奎라 孫은  
 在奎無育하니 姪子東潤으로 爲嗣하고 尙奎長男東潤은 出  
 系伯父后하고 醒憂鍾局이요 鎭奎男에 鍾滿鍾義라 餘不記  
 하다 嗚呼라 公之事行을 宜有可述者多니 孝源百行하니 餘  
 可推諗이라 賢姪承奎甫가 將豎碣于其先考妣墓할세 亦其伯  
 父墓에 不可無碑라 하여 同時豎碣之意로 來余請文하니 固  
 辭不獲이라 因遽其譜乘而略敘하여 碑刻于石云爾

一九九四年(甲戌)四月十日

晉州 鄭福圭 撰

## [譯文]

고성 김공의 휘는 병진이요 자는 연옥이며 호는 후강이다. 시조는 소가야 말로왕으로 九代가 왕위를 역임하여 十代에 이르러 휘 천보를 낳으니 신라 진흥왕조에 관직이 균영총통이다. 구대를 지나 휘 승철이 고려태조조에 문하시중이요 몇 대를 지나 휘 빈질이 조선 태조조에 병조판서 세자사부로 우의정에 증직되니 시조는 양해이며 유림이 낙안에 삼층사를 세워 충장공 정분과 충민공 임경업과 함께 향사하고 공이 휘 원량을 낳으니 관직이 이조정랑 선략장군이다.

칠대를 지나 휘 홍성이 휘 남두를 낳고 남두가 휘 우기를 낳고 우기는 휘 태증을 낳고 태증은 휘 진탁을 낳고 진탁은 휘 응철을 낳으니 호는 지은이요 성담 송환기 선생 문인으로 문집이 있으며 휘 낙현을 낳으니 호는 란재이다. 위대대로 관작과 문행과 덕업이 보첩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으니 번거로이 더 기록하지 않는다.

고조의 휘는 기열이요 호는 후죽이니 문장과 행실이 저명하며 증조의 휘는 규진이니 호는 묵수당이요 조의 휘는 원대이며 호는 송파요 고의 휘는 철권으로 호는 죽현이니 四代가 다같이 학행이 있으며 효우가 현저하였다. 비는 양성이씨 우림의 따님으로 신묘년(一八九一年) 五月 十四日 공을 낳으니 기골이 장엄하고 쾌활 명랑한 기상이라 재주있고 영리하여 어려서부터 아버지 섬기는 도리를 알

고 부모 명을 거역치 아니하며 죄림을 분별하니 부모가 기특히 여겨 게을리 하지 않고 돈독히 함께 학문과 생각 하는 바가 날로 성취하니 승승이 권장하며 자랑하였다.

저우 十二世에 부친상을 당하니 곡하고 슬퍼함이 예절에 합치되어 성인과 다름없으니 보는 이로 하여금 칭찬과 감탄을 마지않았다. 점점 자라 편모를 지성으로 봉양하고 효도가 지극하였다. 四형제중 공이 장형이니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그 가정을 헐뜯는 일이 없으니 모친께서 몸과 마음을 편히 지내셨다. 평상시에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저축에 힘쓰고 좋은 일에는 아낌없이 사재를 희사하며 자녀들과 조카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손님이나 친구의 접대함과 종친간의 화목함에는 항상 너그럽고 사리에 합치 하였으며 조상 섬기기를 돈독히 하여 공이 九代 종손으로 매양 종종 일에 협의하고 타협하여 문증사를 성사시키니 온 문증이 모두 기꺼이 따라주었다.

묘년 十季月 六日 돌아가시니 묘는 원마산 선영아래 묘좌에 모셨다. 배위는 풍천임씨니 부덕이 있으셨고 묘 또한 한 벌 안에 모셨다. 슬하에 아들 삼형제를 두었으니 재규·상규·진규이다. 재규는 후손이 없어 조카 동윤으로 후사를 하고 상규의 장남 동윤은 백부에게 출계하고 차남은 성우와 종국이요 진규의 아들은 종만과 종의이다. 남은 후손은 기록하지 않는다.

아아! 공의 사적과 행한 일은 가히 기술할 것이 많으나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 하니 나머지 그 백부님 묘

에 비를 아니 세울 수 없어 함께 세울 뜻으로 나를 찾아  
와 비문을 청하기로 사양하다 못하여 보첩과 가승 등에  
의거하여 비석에 각할 것을 간략히 쓰노라.

### 鶴阜固城金公墓碣銘

公諱炳斗一名連浩字大準號鶴阜라 固城金氏가 遠有代序하  
야 始祖는 小伽倻國末露王으로 連九世爲王하다 歷麗朝하  
여도 至朝鮮朝에 諱贊吉이 三道水軍都節制使兵曹判書世子  
師傅贈右議政으로 諡襄惠니 與鄭忠莊 朴林忠 愍慶業으로 同  
配享祀于樂安三忠祠하니 是爲中現祖라 先系는 詳悉於先伯  
公墓文이므로 此可畧耳라 諱基烈과 奎鎭과 源大와 哲權은  
高曾若祖欄요 妣는 陽城李氏라 丁酉八月七日生公하니 端  
秀和柔하여 天稟孝友로 六歲에 失怙後常蒙偏母之深愛하고  
教訓을 未嘗有違하며 稍長에 與兩兄一弟로 被枕依食을 推  
共和樂하고 母有疾患에 侍瘳色憂로 迎醫合藥을 至誠不懈  
러니 及丁憂에 哀毀盡禮하다 平居에 容儀正肅하며 志氣高  
明하고 勤儉節用으로 家勢漸饒하니 族戚鄉隣之貧穹者에  
傾廩施惠를 少不吝嗇하고 至於流丐에도 與衣與食을 恒時  
爲事하니 見者稱頌하다 常戒子姪曰孝悌忠信은 爲人之道니  
勿爲橫恣乖戾之事하라 凡於非義蓄財는 奴輩之爲事니 當以  
勤實預蓄하여 用財를 節於小而用於大하며 好施勿吝이 丈  
夫之事也라하다 丁未二月二十三日卒하니 訃出에 鄉黨及士  
友來哭이 甚多하니 其平日에 見重於人을 卽此에 亦可想像

이로다 墓在遠馬山先壟下卯坐原이라 配는 羅州金氏斗衡女  
 니 貞淑有女士風하고 墓는 乾位同原雙兆라 舉四男四女하  
 니 性奎葦奎承奎利奎요 安東金良默全州李炳國羅州林奉采  
 務安朴鉉成은 婿也라 孫男女는 京鎬鍾皙正鎬는 長房出이  
 요 鍾勛鍾範鍾徹鍾根은 二房出이요 鍾八醫學博士와 炫秀  
 俊翰은 三房出이요 柄佑은 季房出이요 外孫은 金成煥李賢  
 基林慶錫朴壹善이라 曾孫男에 東炫은 京鎬生이요 侑澤은  
 鍾八生이요 餘는 方生未艾하다 嗚呼라 公이 以純厚之資로  
 見解高明하고 踐履篤實이라 居家에 怡怡也하고 處世에 謙  
 謙然하여 不以行能自矜하며 不以名利爲意라 其子孫이 繁  
 昌하니 天地福善을 斯可驗矣로다 行政書記官인 肖胤承奎  
 甫가 錄其事行하여 托以墓文하니 余曰公之實行美德을 至  
 今照人耳目而口碑相頌이거늘 又銘阡碣하니 如君은 可謂繼  
 承之孝로다 彝倫攸同에 豈以不文辭諸리오 遽狀爲銘하니  
 猗歎鶴翁은 聲望秀奇라 顧明思義는 君子以之라 諸子衆孫  
 은 高官是宜라 瞻彼幽宅은 萬歲尊基로다.

一九九四年(甲戌)四月十日

晉州 鄭福圭 撰

[譯文]

공의 휘는 병두요 일명은 연호이며 자는 대준이요 학고  
 는 호이다. 고성김씨가 상고로부터 대수가 정연하니 시  
 조께서는 소가야국 말로왕으로 九代가 연이어 왕으 하고  
 고려조를 거쳐 조선조에 이르러서 휘 빈길이 삼도수군도  
 절제사 병조판서 세자사부로 우의정에 증직되시니 시호는

양혜이며 충장공 정분과 충민공 임경업과 더불어 낙안의 삼충사에 배향되시니 이분이 증시조가 된다. 선계의 상세한 기록은 한 별안 큰형의 묘비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생략한다. 휘 기열과 휘 유진과 휘 원대와 휘 철원은 고조와 증조와 조고와 고의 휘요 비는 양성이씨다.

정유년(一八九七) 八月 七日 공이 태어나시니 용모가 단정 수려하시고 성품이 온후하시니 어려서부터 어른스러웠다. 천품이 효도하고 우애하며 여섯 살 때 부친을 여원 후 항상 편모의 깊은 사랑을 받고 가르침을 일찍이 어김이 없었으며 점점 장성함에 위로 두 형과 밑으로 한 아우와 함께 한 이불 안에서 잠자고 한방에서 식사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냈다. 모친 병환에 근심으로 간호하며 의원을 모셔다가 진찰하며 사랑을 지성으로 하여 게으름을 부림이 없었으나 상을 당하고 말았으니 슬피 울어 허리가 휘도록 예를 다하였다.

평상시에 용모와 우의가 단정 엄숙하고 의지와 기품이 고상하며 선견지명이 있어 근면하고 검박하여 씹씹이를 절약하시더니 가세가 점차 풍요로움에 친척들이나 이웃의 곤궁한 이에게는 창고 곡식을 털어 은혜를 베풀되 조금도 인색함이 없고 걸인에게 까지도 옷도 주고 밥도 주는 것을 보통으로 여기니 보는 이로 하여금 칭찬이 자자하였다. 항상 자녀들과 조카들에게 훈계하기를 「효도하고 공경하며 충실하고 진실함이 사람의 도리이니 횡횡 방자하며 사리에 거슬리는 일은 하지 말라 무릇 사리에 벗어나게 재물을 모으는 일은 모리배나 하는 짓이니 부지런하

고 독실이 모아 저축하며 씹씹이를 작은데서 절약하고 크게 은혜를 베푸는 데는 인색하지 않음이 대장부의 할 일이라」고 훈계하셨다.

一九六七年 二月 二十三日에 세상을 하직하시어 부고를 내니 향리의 사림과 벗들이 울며 말하기를 「우리 향리의 불행」이라 하니 평소 이분의 사람됨을 또한 가히 상사할 만하다. 묘소는 선영아래 좌원이다. 배위는 나주김씨 두형의 따님으로 정숙하고 여사의 기풍이 있었고 묘소는 남편과 한 별한 쌍분이다. 四男四女를 두었으니 성규 용규 승규 이규요 안동 김양묵 전주 이병국 나주 임봉채 무안 박형성은 사위다. 손자녀는 경호 종석 정호는 큰집 출생이요 종훈 종범 종철 종근 「옥경」은 들췌집 출생이요 종팔 현수 준한은 세췌집 출생이요 병우 「순강」 「영신」은 말췌집 출생이다. 외손은 김성환 이현기 임경석 박일선이다. 증손 남아에 동현은 경보가 낳고 광택은 종팔이 낳으니 나머지는 생산이 다하지 않았다.

아아! 공은 순수하고 온후한 자질로 사물을 접하는 명확한 판단력이 고상하였고 실천력이 독실하였다. 집안에서는 화락하게 지내시고 세상사에는 겸손하시어 모든 일을 잘 성사시키고도 과장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재력에 급급하지 아니함에 진실로 가히 후세까지 칭송이 자자하며 또한 자손이 번창하고 남은 경사가 면면히 어어지니 「하늘이 착한 이를 복 준다」 함을 이로써 가히 알겠도다. 행정서기관인 셋째아들 승규가 그 사실을 기록하여 비문을 부탁하기로 내가 말하기를 「공의 실천한 미덕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로 서로 칭송하거늘 또 비문에 새기고자 하니 그대는 진실로 효를 계승했다」고 이르리로다.

윤리의 떳떳함은 사람마다 한가지이니 내 어찌 사양하리오 행장에 의거하여 명하노니 「크도다 학옹이여! 성망이 기이 하도다. 명성과 의리를 돌이켜보노니 군자와 같을 지로다. 아들들과 손자들이 벼슬이 높음은 마땅한 일이로다. 저 무덤을 바라보노니 만세의 터를 정하였도다.」

#### 松隱固城金公墓表

公의 諱는 衡權이요 字는 平玉이며 松隱은 號也라 固城金氏는 小伽倻國을 創建한 末露王을 始祖로 九代王族이며 十代에 諱天寶는 新羅眞興王時에 軍營總統이며 累世를 지나 諱贊吉이 兵曹判書世子師傅로 贈右議政하니 諡號는 襄惠로 樂安의 三忠祀에 配享되었고 是生 諱原亮하니 吏曹正郎宣略將軍이요 是生 諱益卿하니 號는 滄江이요 贈兵曹參議로 務安縣監時에 牛坪에 定基하니 爲派祖요 公之十六代祖也라 高祖의 諱는 洛現이요 號는 蘭齋이며 曾祖의 諱는 基烈이요 號는 後竹으로 文行이 著世하고 祖考의 諱珪鎭號默睡堂考의 諱는 源大요 號는 松坡이니 孝行이 卓異하다 二妣에 羅州金氏로 相佑의 女는 無育早逝하고 錦城羅

氏로 應成의 女는 婦德이 純備라 公은 三兄弟中の 仲子로 高宗己卯(一八七九)年三月三日에 咸平郡嚴多面新溪里牛坪 本家에서 出生하니 天稟이 溫順하고 聰明이 拔群하여 承襲庭訓하고 盡力守基하며 隱於松下하고 杜門不出하며 自號曰松隱하고 靜養修身하며 積德爲業다가 己卯(一九三九)年十一月十二日에 考終하니 墓는 遠馬山先考墓右午坐原이다 配는 利川徐氏로 行儒의 女로 克配公德하고 己卯十一月一日生으로 甲申(一九四四)年十二月二十三日에 卒하니 墓는 同原이다 育二男二女하니 男은 炳元和 炳天이요 女는 慶州李圭祥과 坡平尹相喆의 妻라 炳元의 男은 大奎泰 奎正奎東奎요 女는 羅州吳益根과 羅州鄭曷華와 金海金鉉洙의 妻요 炳天은 無育하니 炳元의 次男泰奎로 入系하고 曾玄以下는 蕃衍不錄한다 嗚呼라 公이 生長名門하여 家業繼承하니 嘉言善行이 宜多可記어늘 勢遠難詳하니 後昆之感想이 爲如何哉아 今其嗣孫大奎甫가 將樹碑而記實할새 使其從弟承奎書記官으로 請文於余하니 世交之間에 不忍以不文으로 固辭하고 略叙如右라

一九九四年甲戌孟春

光山 金淵水 謹撰

### 後松固城金公墓表

公의 諱는 炳元이요 字는 成寶이며 號는 後松이니 本貫은 固城으로 上系는 同原의 先考松隱公墓碑에 詳記로 省略한

다 高祖의 諱는 基烈이요 號는 後竹으로 文行이 著世하고  
 曾祖의 諱는 珪鎮으로 號는 默睡堂이요 祖考의 諱는 源大  
 요 號는 松坡이니 孝行이 卓異하며 皇考의 諱는 衡權이요  
 號는 松隱이니 俱隱德不仕하고 妣는 利川徐氏로 行儒의  
 女니 婦德이 甚備라 公은 純宗戊申(一九〇八)年八月二日  
 에 牛坪本家에서 出生하니 天性이 至孝하고 友愛가 甚篤  
 하여 愛親敬長之禮와 友愛敦睦之道를 體得遵守하고 大小  
 家의 朝夕問安과 同氣間의 難題難事를 身自負荷하여 宗家  
 于先을 順理處決하되 初志一貫으로 平生如一하며 勤儉節  
 約으로 自手成家하여 子女教育에 獻身盡力하니 世人이 咸  
 稱曰眞實君子하다 甲辰(一九六四)年七月七日에 不起하니  
 苗는 苑馬山先考墓下午坐原이요 配는 務安朴氏로 彦和의  
 女니 壬子(一九一二)年十月二十七日生으로 于今九十康彊  
 하니 有女士之風이라 舉四男三女하니 男은 大奎泰奎正奎  
 東奎요 女는 羅州吳益根과 羅州鄭昺華와 金海金鉉洙의 處  
 다 孫男鍾基鍾必鍾鉉과 孫女美子賢珠는 大奎의 出이요 鉉  
 千은 叔父炳天에게 出系한 泰奎의 出이요 鍾皞鍾喆紅實은  
 正奎의 出이요 和亭과 玄亭이 種德餘蔭하여 子孫이 官界  
 나 學界에서 國家社會에 有功奉仕하며 後孫이 繁昌하고  
 貨泉이 洋洋하니 後日之福을 可期也로다 今其肖胤大奎甫  
 가 將豎石表阡할새 使其從弟承奎書記官으로 請文於余하니  
 余其哉아 固辭不獲하고 書之如右라

一九九四年甲戌孟春

光山 金淵水 謹撰

## 松坡處士固城金公墓表

松坡金工貫固城諱源大字景瑞라 系出固城하니 小伽椰末露  
 王으로 爲始하고 麗朝中祖諱隨는 以原任大臣으로 封洛川  
 君하고 太祖朝諱贊吉號竹崗公洪武丁丑에 靖難元勳官兵曹  
 判書世子師傅檢校政丞贈右議政諡襄惠公은 十七代祖也以上  
 繁官畧載라 高祖諱은 應喆號芝隱曾祖諱洛現號蘭齋祖諱基烈  
 號後竹考諱珪鎮號默睡堂妣全州李氏以赫之女라 夫病危急斷  
 指灌口하다 公生于牛坪里芝村항 幼有大志小節하니 七歲에  
 早孤居喪致客寬待하고 依禮哀喪逾制하니 長老贊曰齡意見  
 如卓然하니 豈非士夫家儀節耶라 奉養偏親에 一物不敢先嘗  
 하고 一事不敢自專터니 及稍長行堅確하고 言語慎重하며  
 母攻人惡하고 貽親憂면 下氣怡聲하며 定省之節溫清之道를  
 靡不用其極矣라 公은 哲宗庚戌生享年當四十一庚寅坳하다  
 配羅州金氏相佑之女己酉生丁卯卒配錦城羅氏應成之女己酉  
 生甲子卒配德不違하다 男長哲權娶陽城李愚林之女次衡權娶  
 利川徐行儒之女次華權娶礪山宋碩浩之女라 適天安全子漢利  
 川徐光鉉孫男炳軫炳翼炳斗炳根長房出炳元炳天次房出炳世  
 炳學炳烈季房出曾孫以下煩不盡錄이라 嗚呼라 庚寅秋以大  
 同譜繼之事로 爲遍紡諸宗先蹟而江原江陵宗事未成四十一秋  
 로 因病坳하니 當此修譜之日에 感其誠之忘拙記實也라 公  
 之墓久無顯刻이러니 今其後孫協贊하여 將伐豎碑할세 明奎  
 奉奎來請陰記於余하니 余以文拙淺弱으로 固辭不獲블호하  
 고 據其乘牒하여 畧述概要如右碑刻于石陰云爾로다

一九八三年癸亥孟春雨水日

四從孫 性午 謹識

## 竹軒處士固城金公墓表

維咸平治南巖多坊遠馬山先塋下合墳負卯而崇四尺之封은 卽  
 諱哲權字中吉號竹軒公의 衣履之藏也惟吾固城金이 羅麗兩  
 朝에 代出於名臣而世認畧述하고 太祖朝勝國功臣諱贊吉號  
 竹崗諡襄惠行兵曹判書世子師傅檢校政丞 贈右議政하니 惟  
 吾顯祖也라 諱益卿은 中宗朝贈兵曹參議니 公의 十六世祖  
 라 以上繁官不記故로 詳考先祖碑文也曾祖諱基烈祖諱珪鎮  
 考諱源大號松坡는 隱而不仕하다 妣羅州金氏相佑之女妣錦  
 城羅氏應成之女也公이 高宗己巳生壬人卒配陽城李氏愚林之  
 女庚午生戊子卒生育四男하니 長男炳軫娶豐川任柄鉉女次男  
 炳翼娶河東鄭淳喆女三男炳斗娶羅州金斗衡女季男炳根娶南  
 陽洪漢杓女宗孫在奎无育하여 尙奎長男으로 系后하고 尙奎  
 鎮奎는 長房出이요 明奎는 次房出이요 性奎茸奎奎利奎는  
 三房出이요 奉奎仁奎德奎는 季房出이라 曾孫以下繁不盡錄  
 이라 嗚呼라 公은 容貌端雅하고 能知事親之道하며 論說文  
 義常出入意之表하니 人皆莫不以遠大期之로 一代名碩風而  
 讚美之러니 亨立之加四秋로 考終于正寢하니 世人感嘆不禁  
 이라 孺人卽年立之加三春에 夫歿하고 資勢漸散하니 育幼  
 孤胤에 十載餘年을 晝夜不撤하고 漏流添衿터니 堪忍霜雪  
 하여 紡績織維하고 勤儉節約하여 免貧晴寒하고 教子以義

하며 隣人親善하니 鄉黨仁烈善美之義에 感爲讚揚難忘이라  
 後孫煩榮은 維公之仁義요 和氣滿堂은 維孺人之功蹟이라  
 久闕墓儀未具러니 次房肖孫明奎豎碑로 請記於余하니 謹按  
 歷籍而一碣表章하니 百世有光하리라

一九八三年癸亥孟春雨水日 族姪 性午 謹識

### 恭隱處士固城金公墓表

公의 諱는 炳翼이요 字는 連祚요 號는 恭隱이라 惟吾固城  
 之今이 自小伽倻末露王으로 爲始하니 公之五十三世孫也累  
 傳에 新羅神德王朝에 諱爾鐵은 行兵部令角干封鐵城君하고  
 諱承哲諡忠簡公은 麗太祖勝國補助功臣門下侍中이요 諱之  
 鎌鎰忠貞公은 行禮部尙書金紫光祿大夫요 諱隨는 封洛川君  
 하니 事見樂安人物誌也라 太祖朝行兵曹判書右議政諱贊  
 吉諡襄惠公은 惟吾顯祖也라 宣祖朝에 諱撫國號愛日齋工  
 曹參議는 十三世祖也曾祖諱珪鎮祖諱는 源大요 考諱는 哲  
 權요 字는 中吉이요 號는 竹軒也라 妣는 陽城李氏愚林之  
 女로 慈悲汎濫하고 婦德兼備라 公生 高宗甲午하고 卒丁  
 酉라 配河東鄭氏淳喆之女니 庚子生이요 卒丙子라 苗는 東  
 馬山右麓巽坐合墳也라 生育一男三女하니 男明奎는 娶順興  
 安德萬之女요 女適仁同張奉洙務安朴炅錫仁同張錫奎孫男鍾  
 大는 娶吉炳華之女요 次孫鍾閔은 娶綾城具齊奎之女요 曾  
 孫漢承漢俊長房出이요 勇琬은 次房出也라 孫婿는 全州崔

廷洙坡平尹炳仁延安明珪鎬也嗚呼라 公은 當九歲嚴喪하고  
 放遊器戲之節이나 早熟成大之者로 勉協慈親하고 有服之應  
 을 每省懷育以誠하며 孝奉片親之道가 遇汎此兒터니 冠之  
 然後而友愛篤實하며 教子以義하고 德化爲主하며 鄉友親善  
 하니 隣人稱頌이라 公이 後孫教訓曰江湖滿載之美요 築滿  
 載之危라 勿以守分過慾하고 仁義爲本하야 萬人活人引하라  
 警訓하다 公之肖子明奎感其先人之誠하여 謹以豎碑로 請託  
 於余故로 不敢終辭하고 接其見行如此顯刻焉이라

一九八三年癸亥孟春日 族弟 性午 謹識

### 孝婦同福吳氏贊頌文

右敬通事夫孝者百行之源萬善之首也爲人子而能孝者甚鮮而  
 爲人婦而孝於舅姑者尤鮮護按本面德亭里薦狀孝婦同福吳氏  
 自幼性姿異凡能執婦道及嫁適固城金奉善卽襄惠公諱贊吉后  
 采元子也夫人孝養舅姑禮奉君子敦宗族處妯娌無不中內則之  
 儀稱譽藉藉不幸中年其舅以風症累年委席坐臥須人其姑又以  
 老患委席此所謂雪山加霜也然夫人侍側湯少不懈怠屎尿之物  
 時時洗滌不見於人三時侍食手自奉匙而進各鍾饌需一一隨脾  
 胃而進以安其志如是者凡十有餘年少無忌憚之色如一日如非  
 根天之孝誠能如是乎其姑玉川趙氏嘗侍舅舅性嗜酒沽之讓之  
 無一日乏絕恒稱其志隣里咸曰有是姑而有是婦云爾嗚呼當此  
 叔季倫綱墜地使此卓行豈不褒而揚之以爲鄉里模楷乎自諧洞

既有褒賞又有本面嗜老社表彰故茲敢撫實仰告于首善之地伏願

戊午八月 日

高靈 申卓雨 識

孝婦全州李氏贊頌文

右文爲敬通事竊念孝親崇祖는 人之大綱而綱之最先行者孝也  
 니 人之所當行而萬物之衆에 人爲最靈焉이라 謹按本面德亭  
 里李氏夫人來通하니 全州益安君二十二代孫奉吉之女라 生  
 長於世孝之家而年有十九에 歸于固城金氏襄惠公十九世孫學  
 魯之子基沃之妻하니 當時媵宅은 家勢蕭條而繯居하신 媵祖  
 父及媵父侍奉之事와 治産之役에 前途漠然而兼有夫君이 以  
 國令으로 軍門入營하니 家勢가 顛而又覆이라 夫人이 決然  
 而自覺曰女子生而適人之法은 古今定禮요 歸家而治産成家  
 는 夫人之道라하고 晝傭夜績하야 盡誠於兩位志體之養하며  
 成家之事에 全力을 다하드니 日에 媵祖中風으로 臥席不起  
 積年에 侍湯之誠과 適口饌에 渾心하고 糞尿滌潔과 沐浴調  
 髮等事에도 小無內色하되 七十三歲而逝去하니 喪葬之節少  
 無違禮하고 如何則媵父安寧也乎하고 千思晚考之餘에 媵父  
 色繯作心하고 累進具言而逢迎朴氏夫人하야 配於再室하고  
 晚得四妹하야 出嫁如親妹之誠하니 媵父訥言謂之曰汝吾家  
 之子婦하야 何苦如此오하며 大讚其孝하다 媵父以老患呻吟  
 不絶에 夫人이 求醫療養은 勿論禱於神靈而求差하고 問卜

而祈悛하되 天命有數라 九十三歲幽冥而哀痛極天而人皆悽  
 焉이러라 宗親會에서 此夫人之嘉尚而孝婦賞을 授與하다  
 鄙等同居一面에 接此夫人之狀而甚而嘉尚故로 仰告于校宮  
 首善之地하노니 伏願僉君子는 此夫人之孝行이 世有龜鑑而  
 母至泯沒之地幸甚耳

丁丑八月 日

光山 金炳柱 識

固城金氏十九人爲先禊山事蹟(默溪公系派譜文獻)

嗚呼門運寒微先山基地大草里上虎珀橋七三番三丁三畝弓院  
 里區內五一番三丁一反畝轉去他人所有而未免悚懼之心矣以  
 目何視於時基地回復之議論沸騰然世俗何異但是以論不可成  
 事故十九人奉榮一榮國榮敏洙冕洙奉洙昇榮玉洙鳳龍鳳云鍾  
 洙啓洙吉永應洙宗洙福實世鎮順相相伯誠心盡力基金釀出而  
 名稱禊山回復之目的達成耳豈非子孫之道理耶其後二十九年  
 後幸值丙申譜役時契山以外之孫累次協議而禊山權都門中所  
 有許諾如何問議十九人亦是快諾焉爲先功勞何以報之當時議  
 論譜牒一秩式報答總決議也由是後世子孫見此書者爲先敦睦  
 之心益甚焉

[譯文]

탄식할 일이다. 문증이 가난하고 변변하지 못하여

선조가 계신 나누시 다도면 대초리(상호박교) 산 칠십삼번지 三正三묘와 동면 중원리 산 오십일번지 三正一반이 타인 소유로 건너가게 되었으니(현재 대초리 산에는 四十三世 공주 四十三世 응림 四十四世 영길 四十五世 남종 선조님이 계심) 선조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면할 길이 없구나. 눈으로 어찌볼꼬 선산 땅을 되찾기 위해 여러 차례 의논은 되었으나 의논만 많고 세속만 한탄할 뿐 뾰족한 대안이 없던차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十九인(봉영, 일영, 국영, 민수, 봉수, 승영, 옥수, 봉룡, 봉운, 종수, 계수, 길영, 응수, 종수, 복실, 세진, 순상, 상백)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기금을 거출키로 하고 명칭을 「계산」 회복사를 불러오자는 취지로 「계산」이란 조직을 만들어 목적을 달성하므로써 이 어찌 자손의 도리라 아니하랴. 그 후 二十九년 뒤 다행히 병신보(丙申譜) 책을 만들 때 계산이외 손들이 여러 차례 협의하에 계산권을 도문 중 소유로 허락여부를 문의한 바 十九인 역시 쾌히 승낙하여 위선공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의논한 결과 보첩 一질식으로 보답하자는 총결의가 되어 이로써 후세 자손들이 이글을 보고 선조를 위하여 일가 간 두텁고 화목하고 선조 숭배 정신이 더욱더 깊어지길 위해 근서함.

湖之南羅州鄉茶道壁巷則山紫水麗土地肥沃五穀豐饒人心淳朴累數代世居之地多出於人材也而一九七〇年因羅州湖築造全住民當水沒避難至境七三年 七五年三年間各自活路審訪次四方八域流離分散二十餘年長久歲月千辛萬苦僅僅生計維持而束手無策怨望不己也奈何乎國家施策可歎哀惜矣其後天祐神助近間諸族等住民安着而同族愛着及崇祖精神迴生也故諱公柱默溪公後仍等一心同體臨先墓所管理事勉之則默溪公之墓儀及諸族直接所管墳墓亦是散之散在失傳危期則各己所管墓移葬急先務故尸其事者默溪公十二世孫炳吉去一九九八年九月頃臨時門中役員會合時同件事業推進次會同發議繼而會議開催內容則當該移葬之事討議結果都先山先塋下以爲決定參席人全員同意成文化詳細條目別有門中規約綴則要參照也哉茲此默溪公以下三代治墳事云云然而所要全額確保難題也故究心中默溪公十一世孫正均君一金四阡萬畝喜捨受諾同年秋祭時僉宗六十餘人其旨滿場一致讚成同伴推進委員會構成委員長炳吉委員炳齊炳祐炳國炳澤炳浩炳壽炳三炳大善喜都門任貴男總務鉉汀財務星倍十三人也任員合謀默溪公以下三代墓途石物一切及祭壇謹俱七代祖復光孝子碑世葬碑左側遷豎又闕內通路百餘米階段新設各種事業無難完了則參與任員賢勞之功至大也出誠人默溪公十世孫泰洙胤子正均生于一九六二年九月二十三日羅州郡茶道面板村里第天性寬厚容姿端雅事親至孝兄弟湛樂敦睦族戚言行充篤以勤勉治產蓄財而巨金出誠則其實行也豈不美哉 固城華胄施德千秋炁炁不己也後裔之効則焉

西紀二〇〇〇一年辛巳梧秋節 金海人 金根述 撰

[譯文]

호남 나주골 다도 두메산골은 산수가 아름다우며 토지가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인심이 순박하여 여러 수대 조상이 살면서 인물이 많이 나온 곳이었으나 1970년 나주호(땀) 축조로 인하여 전주민이 수몰을 당하여 피난 지경으로 1973~1975년 사이 각자 인척을 따라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二十여년 간 오랜 세월을 가진 고생으로 생활을 유지 아무런 손쓸 바 없어 원망하였으나 국가시책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 가히 탄식하고 애석해 할 뿐이었으나 그 후 하늘이 보호하고 신의 도움으로 근래 여러 종친의 거주지가 안착되면서 일가들을 찾는 동족애와 조상을 섬길 정신이 돌아와 휘 公柱 (목계공) 자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선조 묘 관리 일에 관심을 갖게되어 목계공 묘는 혈고 상석은 오랜 세월이 흘러 각된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 여러 종친이 직접 소관 관리토록 또한 여러 곳에 흩어져 실전 위기에 처한 바 각지 소관묘 이장이 시급하여 이 일을 주관할 자 목계공 十二세손 병길이가 지난 1998년 9월경 임시문증역원회합 시 이 일을 추진코자 회동을 발의하여 모임을 갖고 당해 이장 할 일을 토의 도선산 선영하로 정하기로 참석인 전원 찬성 성문화하다. 상세한 조항은 문증 규약 철에 첨부되었으니 참조할 것이며 그러나 목계공아하 三代 치분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

나 소요 금액을 모금하기 어려워 생각 중 목계공 十一세 손 正均군이 일금四천만원을 회사키로 하여 추제 시 첩종 六十여인에게 그 취지를 전한 바 만장일치 찬성하므로 이 일을 추진키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병길 위원에 병제, 병우, 병극, 병택, 병호, 병수, 병삼, 병대, 선희, 도문. 임귀남 총무 현정 재무에 성배 十三인의 전 임원이 뜻을 모아 목계공이하(응림, 영길, 남종) 三代 묘 석물 일체 및 제단을 별도로 만들어 제사를 모시게 하고 七대조 복광 효자비까지 세장비 좌측에 천수하고 또 묘지 올라가는 길 一〇〇미터에 제단을 신설 각종 시설을 무난히 완료함은 ka여 임원의 협조의 공이 지대 하였으며 출성인은 목계공 十세손 태수의 장남 正均이운데 1962년 9월 23일 나주군 다도면 파촌리에서 태어나 성품이 관후하고 용모와 자태가 단정하며 양친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친인척간에도 화목을 돈독히 함은 물론 언행이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근면 치산 저축으로 위선사업에 큰 금액을 성금함은 그 행실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고성 의 후예의 시덕이 천추에 빛나지 않으리 후손은 본받을지라.